

〈연구보고서 2011-01〉

도덕 교과서 선진화 방안 연구

-통일 및 외국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Moral Education Textbooks :
Through Analysis of Unification Textbooks and Foreign
Textbooks of Moral Education

2011.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도덕 교과서 선진화 방안 연구

- 통일 및 외국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2011. 12.

연구책임자 : 유병열(서울교육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남준(목포대학교)

김향인(경인교육대학교)

송영민(서울교육대학교)

지준호(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이 연구는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

차 례

■ 연구 요약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가. 교과서 분석	2
1) 통일교육 교과서	2
2)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	3
나. 문헌 연구	5
다. 의견 조사 및 심층 면접	5
3. 연구의 범위와 기대 효과 및 한계	7
II. 통일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방안	10
1. 문제 제기	10
2.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른 ‘통일 교과서’ 분석	11
가.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	11
나. ‘통일 교과서’ 분석	17
3. 인정도서 심사기준 따른 ‘통일 교과서’ 분석	37
가. 인정도서 심사기준의 요청	37
나. 통일 교과서 분석	39
4. 통일교육 교과서의 개선 방향과 방안	54
가. 개선의 기본 방향	54
나. 통일 교과서 편찬에서의 고려점 및 심사 기준(안)	59
다. 통일교육 교과서의 개선 방안	60
III. 북남미 지역 도덕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62
1. 베네수엘라 등 남미 지역	62
가. 남미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62
1) 도덕교육의 위상과 특징	62
2) 목표	63

3) 교육 내용	64
4) 방법 및 평가	66
나. 남미 도덕 교과서 분석	66
1) 교과서 정책, 명칭, 보조 교과서 등	66
2) 외형, 표지 등	67
3) 학년별 교과서의 목표와 주요 내용	68
4) 편집, 디자인, 삽화 등	77
5)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특징	79
6)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특징	84
다. 남미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91
1) 특징 및 시사점	91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94
2. 미국	97
가. 미국 인격교육 교육과정 분석	97
1) 미국 인격교육의 현황	97
2) 인격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98
3) 효과적인 인격교육을 위한 11가지 원칙들	99
나. 미국 인격교육의 프로그램 분석	99
1) 왕따 예방 프로그램 (래딕스 초등학교(Radix Elementary School))	99
2) 배려와 친절 생활 프로그램	101
3) '말의 힘' 프로그램	102
다.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 분석	104
1)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104
2) 외형, 표지 등	104
3) 속표지, 뒷표지, 목차 제시 방식 등	106
4) 단원 구성 방식	107
5) 인격교육 모범학교상 실시	112
라. 미국 인격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시사점	113
1) 특징 및 시사점	113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115

IV. 유럽 지역 도덕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116

1. 영국	116
가. 영국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16
1) 도덕교육의 성격	116

2) 목표	117
3) 교육 내용: 학습프로그램(Programme of Study)	121
4) 교수·학습 방법	125
5) 평가	126
나. 영국 도덕과 교과서 분석	127
1) 교과서 정책	127
2)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128
3) 외형, 표지 등	128
4) 교과서 내용 구성	129
5) 교과서 구성 방식과 특징	135
다. 영국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39
1) 특징 및 시사점	139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141
2. 독일	142
가. 독일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42
1) 도덕교육의 성격과 위상	142
2) 독일의 각 주별 도덕교육 상황	143
3) 독일의 학제와 도덕교육	145
4) 독일 도덕교육의 목표	146
5) 독일 도덕교육의 교육내용 상의 특징	146
6) 교수·학습 방법	148
7) 평가	149
나. 독일 도덕 교과서 분석	149
1)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150
2) 외형, 표지 등	150
3) 단원명, 목차 제시 방식	152
4) 교과서 내용 구성	153
5) 교과서 구성 방식과 특징	165
다. 독일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72
1) 특징 및 시사점	172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174

V. 아시아 지역 도덕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176

1. 중국	176
가. 중국 교육체계의 특징	176

나. 중국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77
1) 품덕과 생활	178
2) 품덕과 사회	181
다. 중국 도덕 교과서 분석	189
1) 교재 편찬의 기본 방향	189
2) 교과서 명칭, 권 수, 보조 교과서, 외형 등	190
3) 지도 내용	193
4) 단원의 체제·구성의 일례	198
5) 교사용지도서	201
라.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201
1) 특징 및 시사점	201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207
2. 싱가포르	210
가. 싱가포르의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210
1) ‘공민과 도덕교육’의 성격	210
2)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	212
3) 교육과정의 배경 이론 및 구조	213
4) ‘공민과 도덕교육’의 내용(가치 요소)	215
5) ‘공민과 도덕교육’ 교수·학습 방법	217
6)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 상의 평가	219
나.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 교과서 분석	220
1)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220
2) 외형과 표지 등	220
3) 속표지, 목차 제시 방식 등	221
4) 단원수, 단원명 등	221
5) 단원 구성 및 내용 제시 방식	222
다. 싱가포르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225
1) 특징 및 시사점	225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226

Ⅵ. 우리 도덕 교과서 개선 및 선진화 방안 228

1. 교과서 발행 및 운영	228
가. 외국의 교과서 발행 사례	228
나. 교과서 발행 제도와 명칭	229
다. 주당 수업 시수 및 교과서 권수	230

라. 보조 교과서 문제	231
2. 도덕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기저	235
가. 시대적·국가사회적 요구의 고려	235
나.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방향 구현	235
다. 인격·덕교육적 접근에 의한 학문적·이론적 타당성 확보	236
3. 도덕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중점	238
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	238
나.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교과서	240
다. 흥미롭고 다양한 방법과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과서	242
라. 생활밀착형의 도덕 교과서	243
마. 활동 중심의 탐구형 교과서	245
바. 도덕과 교수·학습 활동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서	247
4. 도덕 교과서의 체제·구성	250
가. 단원 체제·구성의 통합적 기본 체계 설정	250
나.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 모형과 하위 6교재 유형	253
1) 단원 전체의 열개	253
2) 단원 전개 부분의 구성	254
3) 단원 전개 단계에서의 지·정·행의 통합적 접근과 하위 6가지 교재 유형	255
다. 차시별 단원 전개 방식과 내용	255
1) 차시별 교육의 중점 설정	255
2) 기본 학습(1차시) : 도덕적 지식·이해 중심	258
3) 발전 학습1(2차시) : 도덕적 사고·판단 중심	260
4) 발전 학습2(3차시) : 도덕적 심정·가치심화 중심	261
5) 심화 학습(4차시) : 도덕적 행위기능·실천성향 중심	262
라.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형과 자율형의 조화	263
5. 학습 보조물과 편집·디자인	264
가. 교과서 학습 보조물	264
나. 학습 보조물로서의 e-교과서 개발	266
다. 교사용 CD-ROM·DVD의 제공	266
라. 교과서 편집 및 디자인	267
1) 교과서 표지	267
2) 판형	268
3) 교과서 내부 편집과 디자인 등	269
6.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270
가. 교사용 지도서의 필요성과 활용	270
나. 교사용 지도서의 외형과 체제·구성	271

다. 총론: 이론편 구성	272
라. 각론: 지도의 실제편 구성	273
마. 다양한 수업 지원과 교사의 전문성 심화에의 기여	276

VII. 요약 및 결론 277

1. 요약	277
2. 결론 및 제언	283

* 참고 문헌 * 288

< 부 록 > 293

표 차례

<표-I-1> 통일교육 관련 분석 대상 교과서	2
<표-I-2> 북남미 지역의 분석 대상 교과서	3
<표-I-3> 유럽 지역의 분석 대상 교과서	3
<표-I-4> 아시아 지역의 분석 대상 교과서	4
<표-I-5> 설문 조사의 주요 변인별 현황	5
<표-I-6> 설문 조사 내용	6
<표-I-7> 심층면접 대상 현황	7
<표-II-1>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13
<표-II-2> 『통일①』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18
<표-II-3> 『통일②』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18
<표-II-4> 『통일③』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19
<표-II-5> 『통일④』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21
<표-II-6> 『통일⑤』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22
<표-II-7> 『통일⑥』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23
<표-II-8> 『오늘의 북한 사회①』의 내용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의 관련성	24
<표-II-9> 『오늘의 북한 사회②』의 내용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26
<표-II-10> ‘통일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27
<표-II-11> ‘통일 교과서’ 대단원 및 소단원 제목	29
<표-II-12> 서울시 교육청 인정도서 심사기준표	37
<표-II-13> ‘통일 교과서’ 소단원 중복 분석	46
<표-II-14> 각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49
<표-II-15>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지침서』상의 내용체계	51
<표-II-16>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와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	53
<표-II-17>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경험	54
<표-II-18>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경우 그 이유	55
<표-II-19>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사용해 보지 못한 경우 그 이유	55
<표-II-20> 통일교육 교과서 개발시 안보교육 내용의 정도에 대한 견해	56
<표-II-21>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57
<표-II-22> 통일교육을 주로 담당해야 할 교과에 대한 견해	57
<표-II-23> 통일교육 교과서 개발시 강조되어야 할 내용 영역에 대한 의견	58
<표-II-24> 한 학기에 통일교육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시간량에 대한 견해	58
<표-II-25> 통일교육 교과서 심사기준안 예시	60
<표-III-1> AW의 전체 구성과 주요 내용	65
<표-III-2> AW 교육프로그램의 교재 구성	67
<표-III-3> AW의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주요 지도내용	69

<표-Ⅲ-4> AW의 제4권 『배려와 공유』의 주요 지도내용	71
<표-Ⅲ-5> AW의 제5권 『다름과 보완』의 주요 지도내용	72
<표-Ⅲ-6> AW의 제6권 『친구들!』의 주요 지도내용	74
<표-Ⅲ-7> AW의 제7권 『변화와 도전』의 주요 지도내용	76
<표-Ⅲ-8> 미국 주별 인격교육 실시 현황	98
<표-Ⅲ-9> 미국 인격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습자료 예	100
<표-Ⅳ-1> 독일의 주별 도덕교육 현황	144
<표-V-1> 중국 학교 과정 중 『품덕과 생활』 과목의 위치	178
<표-V-2>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	179
<표-V-3> 중국 도덕과 교육의 3가지 중심 내용과 4가지 구성 요소	179
<표-V-4> 중국 도덕교육에서 4가지 구성요소에 따른 내용 표준	180
<표-V-5> 중국 학교 과정 중 『품덕과 사회』 과목의 위치	181
<표-V-6>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성장하는 나’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183
<표-V-7>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가정’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184
<표-V-8>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학교’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185
<표-V-9>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향촌’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185
<표-V-10>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는 중국인’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186
<표-V-11>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세계로’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188
<표-V-12> 중국 도덕 교과서의 쪽수와 서지사항	191
<표-V-13>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1	193
<표-V-14>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2	194
<표-V-15>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3	195
<표-V-16>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4	196
<표-V-17>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5	197
<표-V-18> 중국 도덕 교과서의 차시별 목표 및 주요 내용 등의 예	199
<표-V-19>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의 6가지 핵심 가치	216
<표-VI-1> 『생활의 길잡이』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232
<표-VI-2> 학습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조 교과서 개발에 대한 견해	233
<표-VI-3> 현행 도덕 교과서 학습내용의 양에 대한 견해	240
<표-VI-4>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를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에 대한 견해	243
<표-VI-5> 도덕수업의 과정, 절차를 안내하는 교과서 구성 방식에 대한 반응	247
<표-VI-6> 차시별 교육의 중점 설정에 의한 교과서 구성방식에 대한 반응	257
<표-VI-7> 도덕 교과서 체제,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	257
<표-VI-8> 도덕 교과서에 학습 보조물들을 제공해 주는 데 대한 견해	265
<표-VI-9>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 교사용 CD-Rom제공 필요성에 대한 반응	267
<표-VI-10>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및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한 반응	270
<표-VI-11>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 구성과 내용	272

그림 차례

<그림-Ⅱ-1> 통일 교과서 단원명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31
<그림-Ⅱ-2> 내용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33
<그림-Ⅱ-3> 시각 자료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35
<그림-Ⅱ-4> 저자의 판단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36
<그림-Ⅱ-5>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 제시 문제의 예	39
<그림-Ⅱ-6>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의 문제 예1	40
<그림-Ⅱ-7>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2	41
<그림-Ⅱ-8>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3	42
<그림-Ⅱ-9>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4	43
<그림-Ⅱ-10>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5	44
<그림-Ⅱ-11>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문제 예	45
<그림-Ⅱ-12> 제시 내용 중복의 문제 예	48
<그림-Ⅲ-1> AW의 이야기 위주의 교과서 구성 모습	78
<그림-Ⅲ-2> 남미 AW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도입 부분	79
<그림-Ⅲ-3> 남미 AW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정리 부분	80
<그림-Ⅲ-4> 남미 AW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중심 이야기 부분과 보충심화 자료 부분	81
<그림-Ⅲ-5>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중심 이야기 부분과 보충심화 자료 부분	85
<그림-Ⅲ-6>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활동 자료 부분	86
<그림-Ⅲ-7>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보충심화 자료 부분	87
<그림-Ⅲ-8>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이해와 수용 측면의 예	89
<그림-Ⅲ-9>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사용 지도서의 모습	90
<그림-Ⅲ-10>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 명칭, 표지의 예	105
<그림-Ⅲ-11>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표지 예	105
<그림-Ⅲ-12>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1	107
<그림-Ⅲ-13>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2	109
<그림-Ⅲ-14>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3	111
<그림-Ⅲ-15> 미국 인격교육 모범학교상 수여 표지	113
<그림-Ⅳ-1> 영국 도덕 교과서의 명칭과 겉표지 모습	129
<그림-Ⅳ-2> 영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및 목차 제시 방식	130
<그림-Ⅳ-3> 영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 모습	136
<그림-Ⅳ-4> 영국 도덕 교과서의 도덕판단 중심의 구성 모습	137
<그림-Ⅳ-5> 영국 도덕 교과서의 협동학습 중시 모습	138
<그림-Ⅳ-6> 독일 도덕 교과서의 표지 모습1	151
<그림-Ⅳ-7> 독일 도덕 교과서의 표지 모습2	151

<그림-Ⅳ-8> 독일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및 목차 제시 방식	152
<그림-Ⅳ-9> 독일 도덕 교과서 『윤리』의 대단원 도입부 모습	166
<그림-Ⅳ-10> 독일 도덕 교과서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의 대단원 도입부 모습	167
<그림-Ⅳ-11> 독일 도덕 교과서의 도덕적 사유와 탐구활동 중심의 구성 모습1	168
<그림-Ⅳ-12> 독일 도덕 교과서의 도덕적 사유와 탐구활동 중심의 구성 모습2	169
<그림-Ⅳ-13> 독일 도덕 교과서의 학문연계 추구의 모습	170
<그림-Ⅳ-14> 독일 도덕 교과서의 방법 및 학습활동 안내 모습	171
<그림-V-1> 중국 도덕 교과서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예1	192
<그림-V-2> 중국 도덕 교과서 표지 예2	193
<그림-V-3> 싱가포르 도덕과 교육과정의 지·정·행 측면의 통합적 접근	213
<그림-V-4> 싱가포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역할 강조	214
<그림-V-5>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명칭, 앞표지, 뒷표지 모습	221
<그림-V-6>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만화를 활용한 교과서 구성	222
<그림-V-7>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문제해결 방안 숙고 기회 제공 모습	223
<그림-V-8>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딜레마 제시의 모습	223
<그림-V-9>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추론과 숙고의 과정 제시 모습	224
<그림-V-10>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판단의 연습 기회 제공 모습	224
<그림-VI-1> 현행 초등 도덕 교과서의 차시별 구성 방식	247
<그림-VI-2> 도덕수업의 과정·절차를 잘 안내하는 교과서 구성안	248
<그림-VI-3> 단원 체제·구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본 체계	252
<그림-VI-4>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모형과 하위 6교재유형	253
<그림-VI-5> 단원 전개와 체제와 구성 방식	256
<그림-VI-6> 도덕 교과서 앞표지와 뒷표지(안)	268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와 개선점을 밝혀내고 주요 외국의 도덕교육 교과서들을 탐구하여 그 시사점을 얻어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형성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에 공헌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되고 타당한 교과서 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일 및 도덕 교과서 선진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고 탐구에 임하였다. 첫째, 현행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로 되어 있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때 분석 기준은 통일부에서 제시한 학교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와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 심사기준을 근거로 하였으며, 개선 방안은 통일교육 교과서 편찬방향, 교육내용, 교과서 구성 등의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그 장단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북남미와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2개 국가씩 총 6개국을 선택하여 그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우리의 통일 교과서 및 외국 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기에 전국의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검토, 반영하여 도덕 교과서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때 그 개선 및 발전 방안은 교과서 발행 제도, 외형 체제, 이론적 기저, 기본 방향과 개발의 중점, 교과서 체제·구성, 보조 교과서와 학습보조물, 교사용 지도서 등의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는 바,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국내 통일교육 교과서 및 외국의 도덕 교과서 분석, 문헌 연구, 설문지에 의한 의견 조사, 그리고 도덕교육 전공 현장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네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교과서 분석의 경우, 통일 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용 교과서 8권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도덕 교과서로는 북남미 지역에서 미국 3권,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Alive to the World* 교육프로그램 교재 5권, 총 8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의 도덕 교과서 2권과 독일의 도덕 교과서 8권을 분석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도덕 교과서 12권과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 6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 현행 도덕 교과서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통일 및 도덕 교과서 개발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도덕교육 및 그 교과서 관련 서적과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의견조사는 통일교육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 및 그 외 주요 사항들에 대해 총 52문항에 걸쳐 탐색하였다. 설문 표집 수는 전국의 교사, 학교 경영자 및 교육전문직, 도덕교육 관련 교수와 학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610명이었으며 2011년 8-9월 사이

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심층면접은 설문지에 의한 의견 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심도있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한 것으로서 2011년 6-9월 사이에 도덕교육을 전문 분야로 하고 도덕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현장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국내 통일교육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

통일교육에 관한 공적 규정과 관련된 주요 텍스트는 통일부·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다. 먼저,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의 세부목표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더하여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제시한다. 이러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로 구성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이러한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급 별로 어떤 교과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바른생활과 2학년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도덕과 3학년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4학년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5학년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6학년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8학년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주민과 민족애’ 및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9학년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사회과 5학년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6학년 ‘아름다운 우리 국토’, 9학년 ‘통일 한국의 미래’, 국어과 8학년 ‘문법-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언어 자료’, 역사과 9학년 ‘대한민국의 발전’ 등이다.

독립된 통일관련 교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은 각 교과의 특성이거나 내용에 따라 분산되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개별 교과의 한정된 수업시수를 고려한다면, 각 교과에 통일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교육의 특성과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충실한 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정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충실한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일 교과서’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별 혹은 학년별 체계를 갖춘 ‘통일 교과서’로는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로서 초등학교용 『통일』(1-6)과 중학생용 『북한의 이해』(1-2)가 있다.

이를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서’와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먼저 내용구성에 있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통일 교과서’의 경우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북한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이다. 그리고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통일 교과서’의 경우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이다. 초·중등학교 ‘통일 교과서’ 전체에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이다. 이는

내용구성에 있어 북한이해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내용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용의 표현에 있어, 제목이나 선정된 내용이 북한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북한관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단원명이 ‘꿈을 가꾸는 독서생활’과 같은 경우 북한의 사상교육과 관련된 독서와 연관되어 읽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미흡함이 발견되기도 한다. 만약 해당 단원에서의 북한 관련 진술 내용이 소단원명과 불일치한다면 북한에 대한 오해 내지 잘못된 북한관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학습자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학습을 제한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예컨대, 교과서를 집필할 때, 학생이 북한의 선전용 자료를 지엽적으로 이해하거나 남북한의 특정 상황에 한정된 자료를 일반화시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의 경우 저자의 주관적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독자의 판단이 가능한 형식으로 교재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분석의 대상이 된 통일교과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이해에 주안점이 두어져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이는 분석 대상인 ‘통일 교과서’가 인정도서로서의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의 분석에 더하여, 추후 보다 발전된 통일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균형 있는 단원 구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단원 구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 포함된 특정 주제를 학년별로 다루거나, 혹은 내용체계에 따라 단원 구성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원명을 합당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원명을 제시할 때 그것이 북한에 특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남한에 관한 것인 양 혼동을 일으켜 북한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도록 단원명을 진술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학년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북한관련 내용을 가능한 제한 없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사실이 판단의 과정에서 오해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해당 학년의 종합적 이해 수준을 고려한 내용을 선정 및 진술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년 수준에 합당한 표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와 일반화가 곤란한 자료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율적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저자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편향된 관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토론과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 체제를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외국 도덕 교과서 분석과 그 시사점

가. 북남미 지역

○ **베네수엘라 등 남미**: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 도덕·인성교육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볼머(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여사 및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도덕 및 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가정연합회(AFF)와 남미가정연합회(ALAFA)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덕교육을 위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Alive to the World*(이하 AW로 줄여서 표기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 삶의 근본을 잃고 물질주의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그리고 쾌락주의적인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나날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더하여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학생 및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를 배우고 바람직한 덕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 적절한 가치관 교육과 덕·인격교육을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AW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들(6-18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인격발달 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교과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창시자들은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가치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를 알고 움직이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과 가족 및 공동체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 길로 나서게 된다고 본다. 1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AW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바람직한 기능들 및 습관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 접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책임 있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남미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AW는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두 가지 관점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학습과정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발달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AW는 인간 존재가 전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됨을 중시한다. 즉, 지성(intelligence)을 통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며, 이후 마침내 그것을 자기의 행동 속에 통합하여 그 가치에 따른 삶을 실천해 가게 됨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에서 AW는 앎(Knowing), 수용(Accepting), 행동(Doing)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의 도덕교육에서 덕과 인격을 지·정·행의 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 인간 발달에 관해서는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심리적 존재이며 동시에 지적·정신적·영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행동의 4가지 차원에서 가치교육을 실행하고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생물학적 행동 수준, 심리학적 행동 수준, 지적·정신적·영적 행동 수준, 그

리고 사회적 행동 수준이 그것이다.

베네수엘라 및 남미의 도덕·인성교육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AW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12권의 교과서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원래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어로 발간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3권부터 제7권까지의 5책이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학년 당 교과서는 1권이며 학기 구분은 없다. 1권은 1년을 35주로 계산하여 주당 1개장 씩 총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개의 장에 1-2시간씩 투입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원본은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만 영국에서는 Gracewing 출판사에 의해 2008-2009년에 영문으로 번역, 간행되었다. 보조 교과서는 없다. 대신에 보조자료의 기능을 하는 활동자료들이 초등 저학년에서는 교과서 각 장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는 각 책의 말미에 부록 형태로 제공되어 있다.

AW 교과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및 시사점 중의 하나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제12권까지 모두 책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1권부터 제12권까지 찰리와 앨리스라는 두 주인공 및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를 놓고 토론하고 탐구하면서 가치를 배우고 덕과 인격을 길러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 방식은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에의 자기관여성과 몰입성을 높여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다루는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제1권부터 제12권까지 다루는 중심 내용을 뽑아보면, 자기 이해, 건강과 행복, 스포츠 정신과 인격 발달, 나눔과 배려와 공유, 다양성과 상보성, 올바른 친구와 건전한 우정, 변화에의 적응과 개척, 십대들의 독립성과 개성 및 건전한 삶, 십대들의 문제와 어려움 극복, 올바른 사랑과 미래의 포부, 미래에 대한 준비, 책임있는 결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학습자 중심 경향은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속에 기르고자 하는 가치·덕성들 또한 체계적이고 실재적이다. 즉, AW에서 기르기를 바라는 가치·덕목들은 생물학적 행동 수준에서 정체성, 겸손, 건강, 자기통제 및 그 기능들, 심리학 행동 수준에서 심리적·성적 인성 발달, 자기 이해, 자기 존중, 결단력, 좋은 습관들, 지적·정신적·영적 행동 수준에서 지적 성숙(객관성과 일반적 교양), 도덕적 성숙(덕과 행복에의 개방성, 자유 정신의 성장, 신중함과 사려분별, 생명 존중), 영적 측면에 대한 열린 자세, 그리고 사회적 행동 수준에서 가족 관계, 친구, 공동체, 결혼에서의 성숙함 등이다. 이러한 가치·덕성의 체계성과 생활지향성은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W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중심 이야기 부분, 보충심화 자료 부분, 그리고 활동 자료 부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매 단원 매 차시마다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면서 보충심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탐구와 활동체험에 의한 학습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 유형 면에서는 설명형과 탐구형 및 활동체험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상의 체제·구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매 차시마다 덕과 인격의 지·정·행 측면을 조화롭게 다루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매 차시마다 이해, 수용, 행동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시종일관 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의 도덕 교과서도 그 체제·구성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AW 교과서 구성 방식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 또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하리라고 본다.

남미의 AW 교과서 분석 결과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인격·덕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AW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인간 삶에 있어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바람직한 가치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옳고 좋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사회이어야 하며 건전한 도덕성과 바람직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가능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인격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고 유덕한 인격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인간 육성과 인격·덕의 함양에 대한 전체적, 포괄적 접근을 보다 강화해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AW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는 ‘학습 과정’과 ‘인간 발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가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라는 4차원적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를 조화와 균형 속에 전체적·포괄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교육내용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AW 교육프로그램의 또다른 장점은 그 다루는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인격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해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내용 타당성과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도 보다 철저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서 체제·구성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보다 투철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AW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르게, 학년별로 교과서의 책명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각 단원과 장별 제목 역시 학생들의 생활과 매우 밀착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제1권부터 제12권까지 시종일관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여 이끌어 감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자기관여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들도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과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AW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들은 철저하게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것들 또는 일어날 법한 일들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학습이 추상화, 관념화 되는 것을 막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섯째, 교과서 구성에 있어 기본형과 자율형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AW 교과서는 내러티브적 접근, 지·정·행의 동시적 통합적 추구, 중심 이야기 + 보충심화 자료 + 활동 자료의 구조를 철저하게 취하면서도 설명형과 탐구형 및 활동체험형을 적절히 혼용하여 매우 다양한 구성 방식을 구현해 내고 있다. 다만, 시종일관 내러티브 접근을 취하고 있고 교과서 상에 학습할 내용과 양질의 활동, 좋은 탐구 문제나 발문 등이 없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인 바 이러한 점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과서 편집에 있어 지면을 넓게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여유있고 시원하게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AW 교과서의 편집 방식을 보면 상하와 좌우 여백까지 충분히 활용하면서 보충심화 자료나 삽화 등을 다채롭게 배치하여 많은 정보를 담으면서도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교과서를 구성해 내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구성 및 편집 방식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교과서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미국에서는 도덕교육이 정규 교과가 아닌 인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지방 주정부의 책임 하에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미국에서 인격교육을 법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주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주가 19개,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인격교육을 지지하는 주가 7개,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주가 8개이다. 36개주에서는 법으로 인격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주에서는 각 학교 별로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덕교육과 다른 점은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인격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서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효과적인 인격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교과가 아닌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에 녹아들어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격교육은 긍정적인 학교 문화, 도덕교육, 정의로운 공동체, 배려 학교 공동체, 사회정서학습, 긍정적 청소년 발달, 시민교육, 봉사활동과 같이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격교육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서를 활용하여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찬하는 교과서의 형태가 아니라 각 인격교육 협회 혹은 개별 학교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활용해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격교육용 교과서의 특징은 활동 중심의 워크북이 많다는 점이다. 교과서 구성으로는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미국 인격교육과 교과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에 대한 강화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이민자들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인격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인성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려는 ‘인격교육의 재부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도덕과교육과 미국 인격교육 내용의 유사성이다. 미국 인격교육에서는 인격의 핵심이 되는 덕목 혹은 가치들을 선정하고 강조한다. 정의, 근면, 배려, 존중, 그리고 용기와 같은 인격의 핵심가치들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 역시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18개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덕목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셋째, 이야기 중심의 인격교육 방법의 유사성이다. 미국 인격교육 대부분의 방식은 스토리텔링이다. 귀감이 되는 이야기 혹은 갈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읽을거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 역시 교과서에 많은 도덕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넷째, 미국의 인격교육은 특정 과목을 통해 교육하기보다는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교과는 물론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가르쳐지기도 한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통합적 인격교육의 노력이 한국의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실

로 크다.

다섯째, 미국 인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성이다. 위의 왕따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인격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도덕과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수업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상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타 교과와 연계되는 내용을 밝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미국 인격 교육 프로그램의 민주적 구성화이다. 이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국에서 우수한 인격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상하며, 다시 학교로 보급하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화 한다는 점이다.

일곱째, 교과서 구성이 학생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위의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만화를 활용해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교과서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도덕적 판단력과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서 구성과 이를 교수하는 교수 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매 단위 마다 일관된 형식의 구성보다는 가치 덕목에 따라 구성 방식이 파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격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내지 방안으로서는 첫째, 교과서 구성의 자율화이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과서는 Top-Down 방식의 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교과용 도서 개발진들이 도덕과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만드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반해 미국 인격교육은 정규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격교육을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활동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자율책무형 및 실제형의 도덕 교과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현장 연구 대화를 거치면서 검증된 도덕적 사례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과서 내용은 도덕교육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명한 서적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담는 형태로 구성되어 왔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인격교육에서는 인격교육 모범학교 상 제도를 통하여 전국에서 검증된 도덕 교육 활동과 내용을 모집하고, 이를 다시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인격교육내용들이 도출되고 있다. 향후 도덕과 교과서 개발에서는 교총 혹은 각종 현장 교사 연구 수업 대회에서 효과를 검증한 도덕교육 방법 및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교과서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 개발 기간의 확보이다. 현행 교과서 개발 방향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며, 실험교과서를 몇몇 초등학교에서 사용해 본 후, 문제점을 반영하는 식의 개발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교과서 개발 기간으로는 검증된 교과서를 개발하기에는 매우 시간이 부족하다. 특별히 전국 단위의 실험학교에서 실험교과서가 사용되어야 하며, 실험교과서 평가를 위한 지표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및 학부모의 의견까지도 반영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 유럽 지역

○ 영국: 영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특징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에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나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검정교과서가 없다. 영국에서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시민교육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1, 2에서는 시민교육과 개인·사회·보건교육(PSHE)을 연계한 교과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교육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3, 4에서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과교육과 도덕교육의 성격을 포함하면서 주로 좋은 시민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도덕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의 형태로 독립 교과와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서는 비법정 교과이기 때문에 시민교육만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가 없으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에서는 법정 교과로서 독립된 교과서를 갖고 있다.

이 3, 4단계를 위한 교과서는 『이것이 시민성이다』(*This is Citizenship*)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시리즈 형태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제1권(Year 7), 제2권(Year 8), 제3권(Year 9)으로 구성되어, 영국 국가 교육과정 상 핵심 단계 3에 해당되지만, 1권, 2권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 대비할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 연령에 해당된다.

영국의 도덕 교과서인 시민교육 교과서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도덕교육은 사회과교육과 연계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시민교육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시민교육 교과서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은 1단원에서 규칙 준수, 공정성, 권리와 책임 등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관련된 가치 판단을, 2단원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 육성을, 3단원에서는 글로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의, 인권, 원조, 차별 등 이슈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도덕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로서 인간의 본질, 도덕 판단의 원리, 윤리 사상 등에 관한 학습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영국의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교육을 통해 시민성 향상에 주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가치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도덕 원리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각 소단원이 전체적으로 주요 주제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토론, 역할놀이 등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평가, 대안들의 비교 및 평가 등 토론 위주의 협동학습을 위해 꾸며져 있다. 즉,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 및 가치 판단을 제시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 선택과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주요 주제와 내용의 직접적인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토론 위주의 협동학습을 통해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꾸며져 있다. 이는 유럽 사회의 토론 위주의 교육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서 학생들의 협동학습, 토론학습, 자율적 가치 판단 등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영국의 도덕교과서(시민교육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은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방향과 방안

관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교과서의 전문화와 적정 수준의 가치·덕목의 선정 문제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 도덕적 실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 권리,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 구성은 학생들에게 핵심 가치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교수되는 가치, 덕목들이 협소하고 실제적인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력을 강조하는 도덕교과서의 전문화를 피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적 가치·덕목 요소들을 적정 수준에서 선정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치 관계의 확장에 따른 교과서 단원 구성과 단원별 쪽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와 현행 우리나라 도덕교과서는 생활 관계 또는 가치 관계의 확장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이 발달하고 가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저학년 시기의 가치 관계의 범위와 고학년 시기의 가치 관계의 범위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과 가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단원별 또는 가치 관계별 분량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 활동 중심의 도덕교육을 지향점으로 삼는 문제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내용 전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즉,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짝을 이룬 협동학습을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윤리 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도덕 문제에 관한 토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도덕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도덕적 관점들의 장·단점을 교과서 내에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독일:** 독일의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도덕교육은 대부분의 주에서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체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과에 비해 가치중립적이고 세속적인 윤리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둘째, 독일의 도덕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하나의 유형은 도덕교육이 윤리(Ethik)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 도덕교육이 철학(Philosophie)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이며, 또하나의 유형은 도덕교육이 윤리(Ethik), 철학(Philosophie)과는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등으로 개설된 경우이다. 셋째, 독일의 도덕교과는 종교교과의 대체교과(Ersatzfach)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총 10개주), 종교교과와 동일한 교과군에 묶여서 의무 선택교과(Wahlpflichtfach)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총 3개주), 필수교과로 지정된 경우(총 3개주)로 분류된다. 그리고 독일에서 도덕교육이 초등학교(1-4학년)에 개설된 주는 바이에른(Bayern) 주를 비롯한 총 6개 주이며, 5-6학년에 개설된 주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를 비롯한 총 7개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6학년 사이에 도덕교육이 개설된 주는 독일의 16개 주들 중 총 13개주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는 현재 도덕교육이 교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도덕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원명의 제시 방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제목으로 되어 있다. 독일 도덕 교과서는 소단원명이 하나의 명사로 간략히 제시된 경우, 짧은 평서문으로 제시된 경우, 의문문 또는 감탄문으로 제시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둘째, 독일 도덕 교과서는 구성과 내용에서 도덕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 독일 사회의 주요한 종교인 가톨릭과 기독교에 토대를 두는 경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보호에 초점을 두면서 세계화 시대의 인권, 정의, 제3세계 문제(원조) 등 다양한 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셋째, 독일 도덕 교과서는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 토론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독일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독일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목차 제시 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도덕교과서의 목차는 한 단어,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대단원의 명칭도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5-6학년용 교과서인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단원별 교수법을 소개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둘째, 도덕 교과서는 비종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도덕교육은 그 종교적 전통인 기독교와 가톨릭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 또한 현대 사회의 일반적 특징처럼 - 다문화, 다종교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셋째, 도덕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요청된다. 독일의 도덕교육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도덕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은 독일의 도덕교과서의 예에서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꼭 배우고 실천해야 할 덕의 습득과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도덕교과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방향,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첫째, 교과서의 양적 적절성과 내용 전달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의 도덕교과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도덕교과서는 특정 문제 상황을 묘사하는 삽화와 사진들을 통해 주어진 도덕 문제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적 분량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학습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삽화와 사진을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교과서와 연계된 보조 교과서의 존재 문제이다. 독일은 학생용 도덕교과서와 함께 학생용 활동서(Arbeitsheft)를 갖고 있다. 독일의 도덕교과서와 학생용 활동서는 내용 연계도가 매우 높아서, 도덕교과서에 주어진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을 보조교과서인 학생용 활동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생활의 길잡이』를 교과서와의 내용 연계도를 높이고 적절한 분량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교수-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용 교과서 내에 『생활의 길잡이』의 학생 활동 내용을 워크북 형태로 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실천을 강화하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는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높이는 인지 중심의 내용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올바른 도덕 판단이 도덕적 실천의 토대이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학생들의 도덕적 사유와 도덕 판단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아시아 지역

○ **중국:** 중국 기초 교육과정의 개혁과 발전은 사회 역사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육과정 개혁은 학습 방식과 교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식 전수를 중시하는 경향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학습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이 정확한 가치관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교과목 구성은, 저학년에서는 품덕과 생활, 어문, 수학, 체육, 예술(음악 혹은 미술) 등의 과정이 설치되며, 고학년에서는 품덕과 사회, 어문, 수학, 과학, 외국어, 종합실천활동, 체육, 예술(음악 혹은 미술) 등의 과정이 설치된다.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교과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설치된 교과로 초등학교 3-6학년의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중학교의 『사상품덕』(思想品德), 고등학교의 『사상정치』(思想政治)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중국 교과서 편찬은 ‘기초교육 교재 관리 제도를 교재의 양질화와 다양화를 실현’을 목표로 하여, 교육부의 ‘중소학 교재 편찬 심사 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시행 방법’(关于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01년의 ‘기초교육과정개혁 요강’에 의거하여 이를 기초로 제작된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설치된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및 초등학교 3-6학년 과정에 설치된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이다.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은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당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26시간이다. 『품덕과 사회』 교재 편찬 역시 과정표준을 근거로 하며, 종합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당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30시간이다.

중국의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전통을 잇고 있다. 둘째, 사회 역사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셋째, 현대적 학습 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넷째, 종합실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수업시간

등 교육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용을 추구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교재 편찬을 도모하고 선택의 자율성을 주고 있다. 일곱째, 정치사상이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도덕 교과서의 특징이 우리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과 개발의 방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課程標準) 연구 제작의 기본 사상으로는, 생활 속에서의 품덕 배양, 아동의 현실생활에 관한 관심, 아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정감·태도·행위습관·지식 기능 배양의 내재적 통일, 자주적이며 탐구적인 학습 창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도덕 교과서가 지·정·행 측면의 통합적 접근을 피하고 학생들의 전인격적 발달을 추구하는 방향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볼 때, 『품덕과 생활』은 ‘공민도덕건설 실시 요강’(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의 정신을 이어 아동들의 배움생활(學會生活)을 잘 이끌어 줌으로써, 올바른 공민도덕 소질과 탐구적이고 창조적인 과학정신을 길러 중국 기초교육의 중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품덕이 올바르고, 탐구하기를 즐기며,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아동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형 종합과정이다. 이는 우리의 도덕 교과서도 보다 탐구적이며 활동체험형으로 나아가는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위 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생활성, 개방성, 활동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과정 교재의 편찬시 기초교육과정 개혁 정신을 충분히 제현하며, ‘기초교육과정개혁요강(試行)’과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생활 과정 표준(實驗稿)’을 주요 근거로 한다. 교재 편찬의 주요 원칙은 사상성, 과학성, 현실성, 종합성, 활동성 등이다. 이 과정의 교재는 종합적인 자원 체계로서 교과서, 학습자료, 생활기록부, 활동재료, 다매체 보조자료, 교사용지도서 등 다원화적인 교학활동 자료를 포괄한다. 본 과정의 교재(교과서)는 각 지역 및 각 학교와 관련된 교육행정부문의 유관 규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덕 교과서 정책을 볼 때 우리의 경우도 학생들의 생활과 밀착된 소재와 자료 및 활동들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보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품덕과 사회』 교과는 새로운 세기에 중화민족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사상품덕과 사회성 발전에 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학습하는 것을 과정의 핵심으로 삼아, 아동의 생활을 과정의 기초로 하여 교육의 기초와 유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환경, 사회활동, 사회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험, 정감, 능력, 지식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아울러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행위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기본적인 도덕관, 가치관, 초보적인 도덕판단 능력을 형성하고 그들이 사회주의 공민(公民)으로 성장하여 현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도덕 교과서의 추구 방향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 및 시민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 공익 추구나 책임을 다하는 태도 등의 육성을 보다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도덕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중국의 역사나 문화 또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금 전통과 한국 고유의 사상적 특징이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경우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 도덕교육에서의 교재 편찬은 학생 생활과 사회의 실재에 주의하고, 교학과정 중 학생의 주동적 참여와 자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교재 내용의 선택은 사회의 진실을 반영하여,

학생이 사회에 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특징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고, 상관된 내용을 타당성 있게 확장하며, 각 지역의 생활과 접근된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덕 교과서가 주는 시사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장려하고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고려한 교과서 개발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고는 있으나,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교재 편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검인정 체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도덕 교과서가 보다 지역에 맞게 다양화 되고 검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 인격, 도덕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공식 교과로서 ‘공민과 도덕교육’과목이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배경이론, 내용(가치요소),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도덕원칙들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이 현대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도덕적 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서적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한 교육이 바로 ‘공민과 도덕교육’이라는 것이다.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로는 자아, 가족,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해 배려심있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훌륭한 인격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하위 목표 제시방식은 총괄목표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도달하도록 하기보다는 의문점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공민 및 도덕교육 교육 내용은 훌륭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여섯 가지 핵심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들을 통해 학생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책임있는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불굴(resilience), 조화이다.

싱가포르의 도덕 교과서의 명칭은 『공민과 도덕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명으로서 ‘교육’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반하여, 싱가포르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에 걸쳐 학습하는데 주당 수업 시수는 2시간이며 학기 구분이 없이 1년에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보조 교과서는 별도로 없다.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단원명이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사형, 명사형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원 구성 방식도 다양하다. 즉, 단원별로 최소 1차시에서 최대 4차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시 수가 존재하며 그런 만큼 차시별로 가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재의 내용은 만화를 활용해 제시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도덕적 사례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판단과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우리나라의 도덕 교과서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독립된 교과로서 ‘공민과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여타 나라에서는 도덕교과를 독립교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교과와 형태로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공민과 도덕교육’의 핵심 가치로서 포괄적인 6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존중, 책

임, 정직, 배려, 불굴, 조화로 구성된 핵심가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18개의 가치 보다 수는 적으나, 여타 가치들을 포괄하는 가치들로서, 오히려 세분화된 우리나라의 가치들보다 교사가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셋째,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 정서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 접근을 활용하여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 타인 배려의 발달, 책임있는 의사결정, 긍정적 관계 형성, 문제해결능력 등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문화 전수 접근, 내러티브 접근, 관점 채택 접근, 행위 학습 접근, 인지발달 접근, 가치명료화 접근과 같은 특화된 교수·학습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의 체제에 있어서 1-6학년이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재명을 가진 교재를 사용한다. 다섯째,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만화를 활용해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도덕적 사례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덕적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또한 딜레마 토론의 교재 끝에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도덕판단의 연습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 분석을 통해 본 향후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방안으로는 첫째, 보조교과서의 존재 여부이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보조교과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 내에 학습을 위한 워크북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양이 많지 않아 교과서의 쪽수가 100쪽을 넘지 않는다. 향후 도덕교과서를 개발할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교과서를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한 면에 많은 내용을 다루되 전체 쪽수가 10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면, 학습자의 수준에서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위 및 가치 요소별 쪽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현행 도덕교과서는 단위별로 쪽수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과서는 가치 요소별, 단위별 쪽수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단위 수도 학년별로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내용에 충실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너무 형식과 체제의 일관성을 우선하다보니, 유연성과 집필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향후 도덕 교과서를 개발할 시에는 이러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치 요소들의 축소이다.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가치는 18개로 매우 많다. 그러므로 가치 요소 당 한 단위씩을 맞추기에도 벅하다. 그러나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6개의 가치 요소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요소별로 다양한 주제들을 나누어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너무 자세한 가치 요소를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가치요소들을 정하고, 세부 단위에서 보다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무리한 가치 요소 선정보다는 포괄적인 가치 요소 선정과 단위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4. 우리 도덕 교과서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위의 외국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 교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덕 교과서의 개선 및 발전 방안

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 **교과서 발행 제도, 명칭, 권수 등**: 교과서 발행 제도와 명칭, 권수 등과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먼저,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자국의 역사와 전통, 추구하는 바와 놓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도덕 교과서를 아직은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현 시대적 분위기와 국제 환경상의 여건이 아직은 우리의 국민적 통일과 단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도덕과가 다루는 내용 등의 특성들을 놓고 볼 때 인정으로 갈 경우 자칫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대다수의 교사들도 역시 국정으로 하는데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 교과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남미의 AW와 같이 학년별로 달리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쉽지 않아 대다수의 외국의 경우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학교 도덕교육의 전통과 문화 및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도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당 수업 시수와 관련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와 도덕·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초등 도덕과의 경우 현재 주당 1시간에서 최소한 주당 2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과서 권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참조하고 우리의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년당 2권 체제를 제안하였으며 보조 교과서를 두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한 방향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보조 교과서**: 보조 교과서인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현장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가능한 해석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존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의 보조 교과서를 개발하는 방안을 그리고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조 교과서의 장점과 순기능을 주교과서에 도입,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기저**: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기저로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 구현과 시대적·국가사회적 요구의 반영 그리고 도덕교육의 이론적 동향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교육의 중점 등을 반영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 교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의 지향점, 설정하고 있는 주요 가치·덕목과 내용체계상의 주제 및 학년별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시대적, 국가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도덕 교과서는 진공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으로 도덕 교과서 개발은 도덕교육의 적절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실행되어야 함을 적시하였다. 왜냐하면 도덕 교과서는 학문적 정통성과 이론적·실제적 적실성의 토대 위에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내의 도덕교육계의 지배적인 이론인 인격·덕교육적 접근 이론에 터하여 교과서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도덕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중점으로서 6가지를 강

조하였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과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미있게 잘 배우고 즐겁게 익히는 가운데 도덕적 성장을 꾀해가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철저히 추구하는 일이다. 교과서 상에 학습량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학습의 질과 성과를 저하시키기 마련인데 이러한 폐해는 가치교육을 수행하는 도덕과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학습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교과서 쪽수의 제한 등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셋째, 흥미롭고 다양한 방법과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이 도덕학습 역시 재미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구현되고 그 성과 또한 고양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넷째, 생활밀착형의 도덕 교과서를 추구하는 일이다. 도덕교육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더욱 학생들의 생활과 유리된 공허한 논변의 교과서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생활 및 경험과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교과서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다섯째, 활동 중심의 탐구형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도덕 교과서의 경우 참으로 많이 부르짖어 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비해 외국 여러 나라 도덕 교과서들은 거의 한결같이 매우 활동적이고 탐구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도덕 교과서도 보다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과 구성주의적 접근을 도모해야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바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여섯째, 도덕과 교수·학습 활동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학교의 도덕 수업은 거의 교과서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덕 교과서상에 바람직한 모습의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과 흐름이 체계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하여 수업활동을 잘 지원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단원 구성 방식과 약물, 편집상 고려점 등 교과서 개발 시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논의, 적시하였다.

○ **교과서의 체제·구성**: 도덕 교과서의 체제와 구성 방안에 관해서는 인격·덕을 구성하는 지·정·행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기본 체계,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 모형과 6교재 유형, 단원 전개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정·행 세 측면의 통합적 접근의 기본 체계**: 먼저, 도덕 교과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유덕한 인격의 함양에 있는 관계로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본 체계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격·덕을 구성하는 세 측면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여 3측면 6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단원 구성의 통합적 접근 체계를 강구하였다. 이 때 이러한 접근 체계 설정의 이론적 기반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이 원용되었고 외국의 주요 사례로서는 미국의 인격교육 교과서들과 남미 AW 교과서 그리고 싱가포르의 도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들이 중요하게 참조되었다.

○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 모형**: 이어서 위의 덕과 인격을 기르기 위한 통합적 접근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를 교과서 단원 구성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 모형을 구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단 단원을 도입 - 전개 - 정리 부분으로 구성하는데, 도입 부분에는 단원명, 삽화, 도입글, 주요 학습 내용 및 단원의 목표를 담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리 부분은 학습내용의 종합정리하

기, 마음에 다지고 새기기, 더 공부해 보기의 세 가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다 핵심에 해당하는 전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 체계를 고려하여 일단 한 단원에 4차시가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 차시의 성격을 기본학습-발전학습1-발전학습2-심화학습의 4단계 심화학 모델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 단원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단원의 도덕학습을 점차 심화되는 가치내면화 과정의 개념에 의거하여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1차시와 2차시는 인지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3차시는 정의적 접근에 중점을 두며 4차시는 행동적 접근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덕과 인격의 지·정·행 통합적 접근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기본 학습 → 발전 학습1 → 발전 학습2 → 심화 학습의 과정 속에서 덕과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행 3 측면 6요소들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고 차시별 제재 구성과 단위 수업 시간 운영의 실제적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6하위 모형·교재 유형을 설정하였다. 즉, 인지적 접근에서 지적이해형과 가치판단형, 정의적 접근에서 모범감화형과 가치심화형, 그리고 행동적 접근에서 실습실연형과 실천체험형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6하위 모형·교재 유형을 적절히 결합하여 차시별 교과서를 구성해 내게 되면 그 단원의 가치·덕목의 특성과 각 차시의 중점에 따라 적절하고도 창의적인 교과서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 **단원 전개 방식과 구성 내용:** 한편, 위에서 언급한 덕과 인격을 기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본 체계 및 교과서 단원 구성의 기본 모형에 부응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차시별 교과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차시별로 중점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차시 기본 학습 단계에서는 도덕적 지식·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도덕적 심정과 실천 성향을 아울러 추구하고, 2차시 발전 학습1에서는 도덕적 사고·판단력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역시 도덕적 심정과 행동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어서 3차시 발전 학습2에서는 도덕적 심정과 가치심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식·이해와 생활 속 실천력을 강화하며, 4차시 심화 학습에서는 도덕적 행위기능과 실천 성향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도덕적 지식·이해와 도덕적 심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각 차시별 교과서 개발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기 위해 각 차시별 수업 모형과 교과서 구성 체계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즉 1차시 기본 학습의 지식·이해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 수업을 도덕적 문제의 제시 → 가치규범의 탐구 및 이해의 심화 → 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 → 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교과서 구성을 차시명 → 생각 열기 → 함께 알아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로 개발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2차시 발전 학습1의 가치판단·합리적 의사결정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 수업을 도덕적 문제의 제시 → 도덕적 사고·가치판단의 연습 → 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 → 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차시명 → 생각 열기 →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로 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3차시 발전 학습2의 도덕적 심정·가치심화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 수업을 도덕적 문제의 제시 → 가치규범의 추구하고 도덕적 모범탐구 및 감동감화 → 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 → 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면서 교과서 구성은 구체적으로 차시명 → 생각 열기 →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에 의거하여 개발하도록 제안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시 심화 학습의 도덕적 행위기능·실천성향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적 문제의 제시 → 가치규범의 실습실연 및 실천체험 추구 → 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 → 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차시명 → 생각 열기 → 실천체험을 통해 익혀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로 구성하도록 구안, 제시해 보았다.

○ **기본형과 자율형의 조화:**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단원과 차시 구성에 있어 기본형은 정하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차시 구성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기본 모형에 너무 엄매이게 되면 모든 단원들이 획일화되고 개별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도덕 수업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일단 기본 모형을 따르되 주제와 학습설계에 따라 효과적인 도덕 수업단계를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방안, 단원의 주안점과 추구하는 가치·덕목에 따라 그것에 가장 적절한 교과서 체제·구성을 도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구성 방식으로서 프로젝트형 수업 설계 및 이에 따른 교과서 구성, 기본 모형의 단계와 차시별 구분을 허물고 새로이 구성하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에 의한 교과서 개발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 **학습 보조물:** 학습 보조물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보조물을 제공하되 단원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보조물만 활용하며 그 빈도와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습보조물로서의 e-교과서는 도덕교육의 경우 특히 중요하고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도덕교육의 특성상 교사용 CD-ROM/DVD의 제공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담겨야 할 자료와 정보들에 대해 안내하였다.

○ **판형과 편집 구성 등:** 도덕 교과서의 크기와 관련해서 판형은 외국 여러 나라들이 최소한 크라운판 이상이라는 점, 교과서 판형이 다소 크고 넓어야 시원하고 짜임새 있게 지면 편집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 및 학습활동 등을 여유있게 담아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와 같이 46배판(182×257mm)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덕 교과서의 표지와 관련해서는 앞표지의 경우 교과서 이름과 사용 학년 등의 표시와 삽화 및 발행기관이 담기도록 하고 뒷표지에는 간단한 작은 삽화와 해당 도서의 식별 표시 등을 게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표지 다음의 속지 앞면에는 도덕 교과서의 본질을 살려 태극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실어 학생들의 애국심과 건전한 국가관을 기르도록 하고, 뒷면에는 위인이나 바람직한 도덕 생활을 한 모범 인물 등 학년에 따라 대표적인 도덕학습 거리를 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말미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참고자료 목록을 밝혀두고 뒷표지 안쪽 면에는 교과서 편찬 연구진과 단위별 집필진 및 심의진 성명과 소속을 밝혀 교과서 집필의 실명제를 구현하고 책무성을 담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면 편집 구성의 경우 교과서 내부의 기본 체제는 위와 아래 여백을 각각 250mm 정도로 하고 좌우 여백은 200mm 정도로 하되 여백에 구애됨이 없이 지면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보나 삽화/사진 등을 배치하여 시원하고도 아기자기 하게 구성하며 머리말은 두지 않으나 꼬리말은 두어 책 종류와 단원을 쉽게 구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초등 3·4학년의 경우 13p로, 5·6학년의 경우는 12p로 하고 본문은 기본적으로 신명조 또는 바탕체로 하도록 하되, 본문 외의 부가 부분에는 두세 가지의 글씨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울림과 조화를 추구하고 줄간격은 180% 이상 확보하여 시원하게 구성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 **교사용 지도서:** 도덕 교과서 개발에는 반드시 교사용 지도서가 결부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에 관해서도 연구, 제안을 하였다. 일단 외형 체제와 관련하여 판형은 교과서와 일관되게 맞추고 개발 및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46배판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도서의 권수는 종래와 같이 교과서와 1:1 대응이 되도록 개발하도록 하고 도덕 교과서가 학년 당 1권이면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로 학년당 1권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교사용 지도서의 성격과 기능:**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함에 있어 그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의 도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해설, 도덕과 학습지도 및 평가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안내, 도덕과 수업에 대한 예시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자기 연수와 전문성 증대への 기여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와 구성 내용:**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전체 체제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드러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종래와 같이 총론, 각론, 부록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제1부 총론 부분에는 도덕(과)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안내,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도덕과 교수-학습의 본질과 특성, 학습지도의 원리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소개, 도덕과 교수·학습의 계획과 운용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2부 지도의 실제 부분에서는 각 학년별 단원에 따른 안내와 차시별 수업안의 예시, 참고 자료, 자율장과 연찬 자료 등등을 담도록 제안하였다. 이 때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한 단원 설정의 배경과 취지, 관련 가치·덕목과 지도 요소에 대한 해설, 지도의 주안점 및 계열, 제재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의 구조와 하위 내용들 및 교과서 관련 부분, 차시 배당 계획, 각 차시별 수업예시안,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Tip과 Point, 평가의 관점과 내용 및 방법·도구에 대한 안내, 학습지 등의 수업용 자료와 교사용 참고자료 등은 거의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차시별 수업지도를 예시하는 부분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점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지도서 단원별 및 차시별 구성 방식과 그 내용, 편집 방식, 수업예시안 부분의 구성 방식, 차시별 수업의 실제 부분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수업 모형과 발문 문제, 수업 과정과 흐름의 안내, 교수·학습 자료와 참고 및 평가 안내자료, CD-Rom/DVD 자료의 제공 등등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들의 도덕교육적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고 자율 연구나 연수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도덕교육 관련 필수 이론과 정보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과 지도 방법, 도덕교육 이론과 현장의 연계 및 창의적인 도덕교육 방안, 도덕교육 연구와 관련된 계획과 실천 등에 관한 안내, 도덕수업 연구 또는 연구에 유용한 자료의 소개나 정보 원천의 제공 등등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부록에는 주요 가치·덕목 지도 및 예화 자료, 가치·덕목 관련 도서 및 사이트, 교수·학습 방법 자료 등을 담는 한편, 남미의 도덕 교과서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교사들을 위해서는 자율연수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정보나 자료를 담아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한평생을 초등 교사로 재직해 온 한 교사는 공식적인 학술대회 자리에서 “학교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맹목적으로 교과서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요 교재로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보다 타당하면서 질 높은 학습지도를 수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에 따라 주어진 대로 가르치는 데 급급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는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이 거의 교과서에 의해 좌우되다시피 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거꾸로 말하면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그와 관련된 교과서부터 제대로 만들어 제공하고 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그런 만큼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교 통일교육 분야와 도덕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교과서들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수행되어 온 것일까? 불행하게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해마다 산출되고 있는 많은 통일교육 및 도덕교육 분야의 연구물들 중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오고 있지 않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그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않게 된 주된 이유는 그것이 학교의 정규 교과목이 아니다보니 통일 문제를 다룰 교과서들이 산출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도덕교육은 그것과 관련한 교과목이 공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교과서들은 8-10년 만에 한번씩 바뀌는 교육과정 시기에 맞추어 산출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만 잠시 주목을 받다가 이내 연구의 관심 범위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깊은 연구가 수행될 수가 없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자연히 통일교육 및 도덕교육 관련 교과서들이 관련 이론이나 주요 교육적 동향에 잘 부응하고 있는지, 각각의 커리큘럼이나 시대적 변화 또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는 가운데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 및 필요에 잘 맞고 교수자들이 가르치기에 효율적인 체제와 구성 방식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분석과 탐구가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더하여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와 개선점을 밝혀내고 주요 외국의 도덕교육 교과서들을 탐구하여 그 시사점을 얻어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형성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에 공헌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되고 타당한 교과서 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일 및 도덕 교과서 선진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통일 교과서 중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인정 통일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장단점 및 문제를 밝혀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의 우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그 장단점과 특징들을 파악해 내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셋째, 우리의 통일 교과서 및 외국 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바들에 더하여 전국의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의 통일 및 도덕 교과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국내의 통일교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와 원인을 밝혀내고 외국의 주요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어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통일 및 도덕 교과서들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 연구의 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인 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가. 교과서 분석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통일 교과서 및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과서들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 교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이 된 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두 가지 인정 도서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의 총 8권이다. 이를 밝혀보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통일교육 관련 분석 대상 교과서

국가	교과서명	수량	비고
한국	『통일』	6	초등학교 1-6년
	『북한의 이해』	2	중학교 1-2년
계	총 8권		

2)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

가) 북남미 지역

북남미 지역에서는 미국의 교과서들과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Alive to the World*(이하 AW로 줄여서 표기함)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총 8권으로서 그 현황은 아래 <표-I-2>와 같다.

<표-I-2> 북남미 지역의 분석 대상 교과서

국가	교과서명	수량	비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우리는 한 팀』(<i>We Are a Team</i>)	1	초등 3년, 영문판
	『배려와 공유』(<i>Caring and Sharing</i>)	1	초등 4년, 영문판
	『다름과 보완』(<i>Different and Complementary</i>)	1	초등 5년, 영문판
	『친구들!』(<i>Friends!</i>)	1	초등 6년, 영문판
	『변화와 도전』(<i>Changes and Challenges</i>)	1	중학 1년, 영문판
미국	『인격 만들기』(<i>Character Building</i>)	1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i>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i>)	1	"
	『무엇을 나타내는가』(<i>What Do You Stand For?</i>)	1	"
계	총 8권		

나) 유럽 지역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국의 경우 2권, 독일의 경우 8권으로서 총 10권의 교과서들이 분석되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I-3>과 같다.

<표-I-3> 유럽 지역의 분석 대상 교과서

국가	교과서명	수량	비고
영국	『이것이 시민성이다1』(<i>This is Citizenship1</i>)	1	초등 5년
	『이것이 시민성이다2』(<i>This is Citizenship2</i>)	1	초등 6년
독일	『윤리 1/2』(<i>Ethik 1/2</i>)	1	초등 1-2년, 교과서

	『윤리 3』(<i>Ethik 3</i>)	1	초등 3년, 교과서
	『윤리 4』(<i>Ethik 4</i>)	1	초등 4년, 교과서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i>Abenteuer Mensch sein</i>)	1	초등 5-6년, 교과서
	『윤리 1/2』(<i>Ethik 1/2</i>)	1	초등 1-2년, 보조 교과서
	『윤리 3』(<i>Ethik 3</i>)	1	초등 3년, 보조 교과서
	『윤리 4』(<i>Ethik 4</i>)	1	초등 4년, 보조 교과서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i>Abenteuer Mensch sein</i>)	1	초등 5-6년, 보조 교과서
계	총 10권		

다)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의 경우 12권, 싱가포르의 경우 6권, 총 18권인데 그 현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아시아 지역의 분석 대상 교과서

국가	교과서명	수량	비고
중 국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1)(上)	1	초등 1년 1학기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1)(下)	1	초등 1년 2학기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2)(上)	1	초등 2년 1학기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2)(下)	1	초등 2년 2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3)(上)	1	초등 3년 1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3)(下)	1	초등 3년 2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4)(上)	1	초등 4년 1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4)(下)	1	초등 4년 2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5)(上)	1	초등 5년 1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5)(下)	1	초등 5년 2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6)(上)	1	초등 6년 1학기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6)(下)	1	초등 6년 2학기
	『공민과 도덕교육』(公民與道德教育)(1년급)	1	초등 1년
	『공민과 도덕교육』(公民與道德教育)(2년급)	1	초등 2년

	『공민과 도덕교육』(公民與道德教育)(3년급)	1	초등 3년
	『공민과 도덕교육』(公民與道德教育)(4년급)	1	초등 4년
	『공민과 도덕교육』(公民與道德教育)(5년급)	1	초등 5년
	『공민과 도덕교육』(公民與道德教育)(6년급)	1	초등 6년
계	총 18권		

나. 문헌 연구

위와 같은 국내 통일교육 교과서 및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 분석 연구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또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대한 연구 및 도덕교육 관련 서적과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헌 연구는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통일 및 도덕 교과서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이용되었다.

다. 의견 조사 및 심층 면접

이 연구에서는 또한 설문지에 의한 의견 조사와 심층 면접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통일 및 도덕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교 경영자 및 교육전문직 그리고 학자와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설문에 의한 의견조사는 전국의 교사, 학교 경영자 및 교육전문직, 도덕교육 관련 교수와 학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610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기간은 1차로 2011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차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주요 변인에 따른 설문조사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Ⅰ-5>와 같다.

<표-Ⅰ-5> 설문 조사의 주요 변인별 현황

설문 조사 기간: 2011. 8. 16 - 26(1차), 9. 14-23(2차)			
전체		610	비고
성별	남자	216	· 무응답 포함 · 각 변인별 총 인원은 공히 610명임
	여자	390	
	무응답	4	
직위별	교사	383	· 광역시는 해
	부장교사	172	
	교육행정·전문직, 교수 및 전문가	45	
	그 외	1	
	무응답	9	

경력별	5년 미만	88	당 지역에 포함 · 제주는 호남에 포함
	5년 이상-10년 미만	101	
	10년 이상-15년 미만	137	
	15년 이상-20년 미만	86	
	20년 이상-25년 미만	79	
	25년 이상-30년 미만	48	
	30년 이상-35년 미만	44	
	35년 이상	21	
	무응답	6	
지역별	서울	215	
	경기	132	
	강원	33	
	충청	66	
	호남	39	
	영남	111	
	무응답	14	

한편, 설문지의 내용은 기본 문항 총 52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도덕 교과서와 관련된 문항이 37개, 통일교육 교과서와 관련된 문항이 15개 이었다(부록 설문지 참조). 이러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을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설문 조사 내용

구분	설문 내용	문항 번호	비고
변인	성별, 근무기관, 직위, 연령, 학력, 경력, 주 전공 또는 주 관심 교과, 담당 학년, 근무 지역, 근무 기관 소재지	1-10	10개 변인 설정
도덕 교과서	현행 도덕 교과서의 차시별 중점에 대한 의견	2	27문항
	현행 도덕 교과서의 체제·구성에 대한 평가	1, 3-9	
	바람직한 도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제언	10-11	
	현행 도덕 교과서에 실린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12-14, 16-17	
	앞으로 도덕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라는 교육내용	15, 18	
	현행 도덕 교과서 속의 학습활동, 방법에 대한 평가	19-21	
	현행 도덕 교과서 속의 삽화·사진, 예화, 학습보조물에 대한 의견	22-23, 25	
	앞으로 도덕 교과서에 실릴 학습보조물, 교사용 수업 자료 등에 관한 의견	24, 26	
	현행 도덕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27	
생활의 길잡이	생활의 길잡이 및 보조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8, 29	5문항
	생활의 길잡이 등 보조 교과서 구성에 대한 의견	30, 31	

	현행 생활의 길잡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32	
교사용 지도서	현행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도	33	5문항
	현행 교사용 지도서 체제·구성에 대한 의견	34-36	
	교사용 지도서 개선을 위한 의견	37	
통일교육 교과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현재의 실태에 대한 의견	38-41	15문항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실행에 대한 의견	42-45	
	인정도서로서의 현행 통일교육 교과서 및 통일교육 관련 교재에 대한 의견	46-48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에 관한 의견	49-52	

그리고 심층면접은 2011년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3-6학년 도덕과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의 주요 사항들은 위 설문지에 의한 조사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현행 통일 및 도덕 교과서의 장단점과 문제 및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과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교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심층면접 대상 현황

지역	심층면접 교사수	비고
서울	21	· 광역시는 해당 지역에 포함시킴 · 제주는 제외 심층면접에서 제외함
강원	4	
경인	10	
충청	5	
호남	7	
영남	9	
계	56	

3. 연구의 범위와 기대 효과 및 한계

국내적으로 통일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통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

무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와 같은 교과 속에 담긴 통일교육 관련 사항들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지 통일 교과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들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통일부의 '학교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와 서울시교육청의 통일교육 관련 인정도서 심사기준 그리고 연구진의 합리적인 분석틀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탐구하여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 교과서와 관련한 연구는 통일 교과서에 비하면 활발하고 그 양과 질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외국의 우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미와 남미 및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우수한 외국 도덕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분석, 그 시사점을 반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는 미국의 인격교육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하고 남미에서는 세계가족연합(AFF: Alliance for the Family)와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가 중심이 되어 펴낸 도덕 교과서 *Alive to the World(AW)*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우리 도덕 교과서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화해 및 교류협력에 중점을 둔 통일교육이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통일 교과서도 다소 이상론적인 관점에서 집필된 경우가 없지 않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듯이 현재 남북 관계가 급변하면서 조정의 국면에 들어가 있고, 한반도 주변의 통일 및 안보환경 또한 매우 유동적인 관계로 현행 통일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연구 및 개선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수행되는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여 현실성과 균형 있는 적절한 통일 교과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도덕 교과서 개발을 전후하여 일어났다가 바로 식어버리는 우리 현실에서 그리고 특히 국내 도덕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우리 풍토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우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 장점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덕 교과서의 개선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남미의 AW에 대한 분석과 탐구는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 많은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덕교육계에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과 영국 및 독일의 인격교육 또는 시민교육 교과서 및 중국과 싱가포르의 도덕 교과서 분석 또한 우리 도덕 교과서의 개선 및 발전을 강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내용 범위를 다루면서 일정 정도의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 나름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우선, 분석 대상 측면에서의 제한점이다. 즉, 국내의 통일교육 교과서가 많지 않아 주로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외국의 도덕 교과서 역시 선진제국을 두루 망라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남미와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총 6개국의 도덕 교과서들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일도 나름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남미에서의 캐나다와 유럽에서의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일본 등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추후 누락된 선진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보다 온전한 세계 도덕 교과서 분석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다음, 교과서 분석과 학교 현장의 의견조사 및 교과서 발전 방안 제시 등이 초·중·고 전체 학교급을 망라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또다른 제한점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지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분석 대상 교과서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서 원천적으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통일교육 교과서는 애당초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남미의 AW 역시 영문판으로 번역된 교과서들이 초등과 중학교 1학년까지만 나와 있어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통일교육 교과서 및 외국의 도덕 교과서들에 대한 보다 확대 발전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및 도덕 교과서 개선과 선진화 방안이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만큼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타당성을 지니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도덕교육 및 그 교과서의 본질과 이론적 접근의 토대, 분석의 기준과 적절한 대안 성립의 요소, 교과서가 적용되는 지역과 대상 등 여러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강조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일 및 도덕 교과서 개선과 선진화 방안을 무결점의 완벽한 제안으로 보기보다는 나름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지니도록 최대한 노력한 교과서 개발의 표준적 내지 범형적 방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Ⅱ . 통일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방안

1. 문제 제기

우리 사회에서 현실화되어야 하는 통일교육의 모습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수렴하면서 편향되지 않은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 각급학교에서는 ‘통일’과 ‘교육’에 관한 공적 규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관한 공적 규정과 관련된 주요 텍스트는『통일교육지침서』와『교육과정』이다. 그래서 학교 통일교육은『통일교육지침서』와『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수행된다. 물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이 두 텍스트에 근거한 독립 교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독립 교과를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독립교과가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국정도서·검정도서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독립된 통일관련 교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은 각 교과의 논리나 내용에 따라 분산되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개별 교과의 한정된 수업시수를 고려한다면, 각 교과에 통일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교육의 논리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충실한 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정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관련 인정도서(이하 ‘통일 교과서’)를 통해『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을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교과에 산재해 있는 통일관련 내용을 보완하면서, 재량활동 등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정도서의 적극적인 활용도 권장되어야 한다.

충실한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 교과서’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 혹은 학년별 체계를 갖춘 ‘통일 교과서’로는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가 있을 뿐이다.¹⁾ 이 도서는 학교별 학년별 통일교육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그 활용 정도는 미미한 실정이다.²⁾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 담긴 의미 있는 노력이 부각되어 각급학교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가 현재 개발된 교과서보다 개선될 때, 보다 충실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³⁾ 본고에서는 이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한국통일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한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과서 6권과 중학생용 통일교육 교과서 2권이다⁴⁾. 그리고 이 분석에

1)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newsearch/search.jsp>) ‘전국 시도교육감 인정도서 현황’ 참조.

2) 본 연구를 위해 분석 대상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에 이 도서의 구매 가능성을 유선(02-2243-1585)으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서가 서울시 학교에 납품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도서의 사용 현황과 활용 정도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본고에서 이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자료에 개선점이 많아 이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일 교과서’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4) 분석 대상 ‘통일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한국통일교육연구회,『초등학교 통일①』(경기:그린코리아, 2010). 이하, 필요에 따라『통일①』로 칭함.
- 한국통일교육연구회,『초등학교 통일②』(경기:그린코리아, 2010). 이하, 필요에 따라『통일②』로 칭함.
- 한국통일교육연구회,『통일③』(경기:그린코리아, 2011).
- 한국통일교육연구회,『통일④』(경기:그린코리아, 2011).

터하여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른 ‘통일 교과서’ 분석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편향된 교육을 방지하는 규정 이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통일 교과서 개발의 주요 근거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개발, 활용되는 ‘통일 교과서’는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과 관련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을 살펴본다.

가.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

1) 통일교육지침서의 지위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을 공교육에서 반영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통해 『통일교육지침서』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2009. 10. 19, 법률 제9800호)』에서 규정한다. 이 법의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⁵⁾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 제8조에서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통일⑤』(경기:그린코리아, 2011).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통일⑥』(경기:그린코리아, 2011).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오늘의 북한 사회①』(경기:그린코리아, 2011). 이하, 필요에 따라 『통일⑦』로 칭함.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오늘의 북한 사회②』(경기:그린코리아, 2010). 이하, 필요에 따라 『통일⑧』로 칭함.
5) 이하 강조점은 필자에 의한 강조 부분이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서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과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제6조의2에서 규정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일교육지침서』는 이상의 법률적 규정(특히 강조점으로 표시한 부분)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국가적 요청을 정리한 텍스트이다. 교육기관은 이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통일교육지침서의 주요 내용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세부 목표와 이 목표에 따른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⁶⁾

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pp. 911, 15-19.

○ 통일교육의 세부 목표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3.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 통일교육의 주안점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 의지 확립
2.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3.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4.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6.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내용체계를 다음 <표-Ⅱ-1>과 같이 구성한다⁷⁾.

<표-Ⅱ-1>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1) 분단의 배경
		2) 분단의 폐해
	다. 통일의 필요성	
	라. 통일의 접근 방식	
2. 북한 이해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2) 북한의 대외정책
	다. 북한의 군사	
	라. 북한의 경제	
	마.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3) 북한의 문화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4. 통일정책	가. 우리의 통일방안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pp. 23-63.

그리고 이상의 내용체계에 포함된 각 주제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지도하기를 요청한다.

○ 1-가. 통일문제의 성격

-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 1-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식시킨다.
-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 1-다. 통일의 필요성

- 분단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실리적·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 독일통일, 유럽통합 등의 사례를 통해 세계적 차원의 통합 흐름과 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 1-라. 통일의 접근 방식

-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이해시킨다.

○ 1-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남북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통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2-가.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협력의 상대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시킨다.
- 북한의 체제선전·주장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점을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도한다.
- 이를 통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2-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 북한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유일이념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과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통제와 체제운영을 하고 있는 실상을 규명하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 탈냉전 이후 북한이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외교전략을 설명한 후 그것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 2-다. 북한의 군사

-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2-라. 북한의 경제

- 북한 경제가 만성적인 경제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다각적으로 설명한다.
- 체제유지를 우선시한 경제개혁조치의 한계와 최근 시장통제 정책을 강화하게 된 배경 등을 이해시킨다.

○ 2-마.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을 알게 하고, 경제난 이후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무상교육 등 북한이 선전하는 것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를 이해시킨다.

3) 북한의 문화

- 북한의 경우 우리 교육의 문화전통이 왜곡되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었음을 이해시킨다.
- 통일 이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 3-가. 국제정세의 변화

-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시시킨다.

-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

○ 3-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 4-가. 우리의 통일방안

-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4-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 남북한 간 갈등과 적대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곁들여 균형 있게 설명한다.

○ 4-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비전과 추진원칙, 중점추진과제 등을 설명한다.

○ 5. 통일을 위한 과제

-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통일미래 비전,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 역량,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지지 등을 강조하고, 현 단계에서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통일한국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이해하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체계 및 지도방향을 고려하면서, 학교 통일교육을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학교급별, 교과별, 정규활동 외 교육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⁸⁾. 여기서 인정도서와 직접 관련된 권고사항은 학교급별 권고사항이다.

먼저, 학교급별 권고사항 중 초·중등학교에 해당하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1) 초등학생들에게는 개념이나 기능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상황 중심(또는 생활 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는 접

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pp. 67-76.

근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초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력 상승,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나아가 경의선을 통한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 등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점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3)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와 역사,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의 위치와 상징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5)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여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희망하고 이루려는 마음과 기초적인 통일의지가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중·고등학교

(1) 중·고등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외국의 통일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한민족의 유래와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문화·교육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사적, 평화적, 인도주의적,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과거 분단국의 통일 사례 연구를 통해 통일준비 방법, 바람직한 통일국가상 등을 탐구하도록 한다.

이상의 통일교육지침서의 진술들은 ‘통일 교과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분석의 틀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일 교과서’를 이 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통일 교과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수업의 장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업의 맥락에서 ‘통일 교과서’와 ‘교수·학습’을 관련시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본고에서는 ‘통일 교과서’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 구성 및 표현에 한정하여 분석한 제한점이 있다.

나. ‘통일 교과서’ 분석

1) 내용 구성 분석

‘통일 교과서’의 내용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교재의 내용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 나타난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통일 교과서’의 소단원을 찾는다.

<표-Ⅱ-2> 『통일①』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차 례		학습목표	관련성
1. 우리 나라	1. 자랑스런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스런 마음을 가져 봅시다.	1. 통일문제 이해
	2. 아름다운 자연	우리나라의 위치와 자연 환경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하여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한 민족 두 나라	남한과 북한의 나라 이름과 수도를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나라 의 상징	1. 국기	남북한의 국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애국가	남북의 국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국화	남북의 나라꽃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한글	우리 한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우리 집	1. 우리의 가족	남북 가정의 가족 구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가정생활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어린이 활동	1. 아기의 탄생	아기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유아생활	북한의 아기 키우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놀이방생활	북한 유아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유치원생활	북한의 유치원생활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5. 학교 생활	1. 1학년 활동	북한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공부 시간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현장 체험 학습	북한 어린이들의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학교 행사	북한의 학교 행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표-Ⅱ-2>에서 보듯이 『통일①』의 경우,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18개이다. 18개의 소단원 중 ‘1-1. 자랑스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포괄적으로 연관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관련된다. 그리고 나머지 17개의 단원은 대체로 ‘2. 북한이해’와 관련된다.

<표-Ⅱ-3> 『통일②』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차 례		학습목표	관련성
1. 어린이 생활	1. 유치원 생활	북한 어린이들의 유치원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놀이 활동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만화 영화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여가 활동	북한의 어린이들은 휴일이나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가정 생활	1. 화목한 가정	북한 가정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2. 청결한 생활	북한의 어린이들은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좋아하는 음식	북한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4. 서로 돕는 친척	북한에서는 친척들끼리 왕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학교 생활	1.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	북한 어린이들의 현장 체험 학습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모범 어린이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예절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소학교 생활	북한의 소학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소년단 활동	북한 어린이들의 청소년 활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시장 활동	1. 생활비	북한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시장 생활	우리의 시장과 북한의 시장을 비교하여 봅시다.	2.북한이해
	3. 돈의 역할	남한의 돈과 북한의 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5. 국가 명절	1. 민속 명절	북한에서의 설날과 추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국경일	북한의 국경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민속놀이	북한에서는 어떤 민속놀이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생활 풍습	북한의 생활 풍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6. 민족의 자랑	1. 스포츠 한국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2. 민족의 힘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3. 소원은 통일	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표-Ⅱ-3>에서 보듯이 『통일②』의 경우,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22이다. 22개의 소단원 중 ‘6-1. 스포츠 한국’, ‘6-2. 민족의 힘’, ‘3. 소원은 통일’은 대체로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의 단원은 대체로 ‘2. 북한이해’와 관련된다.

<표-Ⅱ-4> 『통일③』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차례		학습목표	관련성
1. 어린이 생활	1. 취미생활	북한 어린이들의 취미생활을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외화벌이 꼬마활동	북한 어린이들의 꼬마 활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재능을 키우는 활동	북한 어린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꽃제비 어린이	북한의 꽃제비 어린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학교 생활	1. 교육목표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교과서 전시회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수업 시간	우리의 초등학교와 북한의 소학교 수업 시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해님이의 하루생활	북한 어린이들의 하루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여가 생활	1. 즐거운 가족 나들이	북한의 가족 나들이 모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꿈을 가꾸는 독서생활	북한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손꼽아 기다리는 방학	북한 어린이들의 방학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어린이들의 놀이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주민일상 생활	1. 의료 제도와 병원 시설	북한의 의료 시설과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자유로운 종교 생활	북한 주민들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함께하는 단체생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즐거운 생일 잔치	북한 주민들의 생일잔치와 회갑 잔치 모습을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5. 경제 활동	1. 도시생활	북한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농어촌생활	북한의 농어촌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시장생활	북한의 시장 활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북한 이탈 주민	북한을 탈출하여 고생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6. 의식주 생활	1. 식량 사정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의류생활	북한 주민의 의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주거생활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생활 필수품	북한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7. 민족의 비극	1. 일요일의 남침	6·25 한국 전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2. 6·25의 진실	북한 사람들은 6·25 한국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3. 6·25의 교훈	6·25 한국 전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4. 끝나지 않은 대결	끊이지 않은 남북한 충돌 사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통일문제의 이해
8. 통일 길의	1. 한 민족 한 형제	남북한 사람들의 소망과 성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2. 다른 생활 환경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사회 모습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3. 김일성 가족의 나라	북한은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4. 서로 같이 사는 길	남북한 민족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북한이해

위 <표-Ⅱ-4>에서 보듯이 『통일③』의 경우,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32개이다. 32개의 소단원 중 ‘7-1. 일요일의 남침’, ‘7-2. 6·25의 진실’, ‘7-3. 6·25의 교훈’, ‘7-4. 끝나지 않은 대결’은 대체로 ‘분단의 배경’과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의 단원은 대체로 ‘2. 북한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 - II - 5> 『통일④』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차 례		학습목표	관련성
1.금수강산	1. 자연 환경	북한의 자연 환경은 남한과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지하자원	북한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인구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인구 밀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행정 구역	북한의 행정 구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남한과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2.서울과 평양	1. 남북한의 수도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남북의 중심 도시	오늘날의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3. 통일 후의 모습	통일 후의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자.	2. 북한이해
	4. 사람과 사람	서울과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생활풍습	1. 가정의 변화	북한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2. 결혼 풍습	남북한 주민들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장례 풍습	북한 주민들의 장례식 모습을 살펴보자.	2. 북한이해
	4. 제사 풍습	북한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명절생활	1. 민속 명절	남북한의 민속 명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국경일	우리의 국경일과 북한의 사회주의 명절을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3. 민속놀이	북한의 주민들이 설을 맞아 즐기는 민속놀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북한의 큰 명절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과 2월의 명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5.여가생활	1. 여가 활동	북한에서는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취미생활	북한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오락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여행 활동	북한 주민들은 여행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어린이들의 여가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2. 북한이해
6.국가주요산업	1. 관광 산업	남북한 관광 산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2. 도시의 교통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철도와 고속도로	남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망을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4. 통신 시설	북한의 정보 통신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7.달라진 말과 글	1. 우리말과 글	우리의 말과 글이 북한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혁명을 위한 말과 글	공산주의혁명사상을 나타내는 북한의 말을 찾아보자.	2. 북한이해

8. 통일 로 얻는 것들	3. 표준어와 문화어	남북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달라진 말과 글	북한에서 쓰이는 말 중 우리말과 글의 발음이 다른 것을 찾아보자.	2. 북한이해
	1. 분단으로 인한 군사비용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하는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통일문제 의 이해
	2. 민족의 안녕과 국가 안보	통일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까닭을 알아보자.	1. 통일문제 의 이해
	3. 함께 잘 사는 길	우리 민족이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1. 통일문제 의 이해
	4. 세계 속의 한민족	세계의 여러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일의 참 뜻을 알아보자.	1. 통일문제 의 이해

『통일④』의 경우, 위 <표-Ⅱ-5>에서 보듯이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32이다. 32개의 소단원 중 ‘8-1. 분단으로 인한 군사비용’, ‘8-2. 민족의 안녕과 국가 안보’, ‘8-3. 함께 잘 사는 길’은 대체로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되고, ‘8-4. 세계 속의 한민족’은 대체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의 단원은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2. 북한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Ⅱ-6> 『통일⑤』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차례		학습목표	관련성
1. 학교 생활	1. 교육 제도	북한의 교육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교과서	북한의 학교 교과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역사 교육	북한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대학 진학	북한에서는 어떻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경제 생활	1. 북한의 화폐	북한에서의 화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식량 사정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식량 부족의 원인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북한의 시장	북한의 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직장 생활	1. 직장 배치	북한에서 직장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직장의 일과	북한 직장의 하루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생활비	북한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휴가 및 휴일 제도	북한 직장의 휴가 및 휴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언론 매체	1. 텔레비전 방송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텔레비전 보급	북한의 텔레비전 보급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북한의 신문	북한의 신문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북한의 출판	북한의 출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5. 문화 재	1. 우리의 문화재	문화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북한의 문화재	북한의 문화재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고구려 문화재	평양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고려 문화재	개성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6. 문화 예술	1. 북한의 영화	북한의 영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연예인 활용	북한의 연예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음악 활동	북한의 음악 활동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미술 활동	북한의 미술 활동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7. 산업 활동	1. 건설 산업	북한의 건설 산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공업 활동	북한의 공업과 군수 산업의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정보 기술	북한의 정보 기술 산업의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특별 행정구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행정구 지정에 대해 알아보자.	2. 북한이해
8. 하나가 되는 길	1. 지켜야 할 약속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4. 통일정책
	2. 3대 세습 공화국	북한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알아봅시다.	2. 북한이해
	3.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4. 북한을 바로 알아야	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⑤』의 경우, 위 <표-Ⅱ-6>에서와 같이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32이다. 32개의 소단원 중 ‘8-1. 지켜야 할 약속’은 ‘통일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4. 통일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8-3.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8-4. 북한을 바로 알아야’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및 ‘국가안보 역량’과 관련되므로 ‘5. 통일을 위한 과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의 단원은 ‘2. 북한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Ⅱ-7> 『통일⑥』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차례		학습목표	관련성
1. 민주주의의 기본	1. 어린이 선거	북한의 소학교에서 임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국가 원수의 선출	남북한의 국가 원수는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국민의 대표 선거	남북한의 국민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지방 자치생활	남북한의 지방 자치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국가 기관	1. 권력 구조	남북한의 국가 권력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입법부	북한에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행정부	남북한의 행정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사법부	남북한에는 사법 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주민 생활	1. 사회생활	북한의 노동당 당원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하여 보자.	2. 북한이해
	2. 직업 선택	북한 주민들의 직업 의식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결혼관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거주 이전	남북한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종교 생활	1. 북한 종교의 실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기독교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불교	북한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천주교와 그 밖의 종교	북한의 천주교와 그 밖의 종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5.체육 활동	1. 운동회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보자.	2. 북한이해
	2. 학교 체육	북한의 학교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육 활동을 하 는지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주민 체력장	북한 주민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민체력검정에 대하 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전문 체육	북한의 전문 체육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6.도발 이겨낸 국민	1.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1. 통일문제 의 이해
	2. 6·25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통일문제 의 이해
	3. 끊임없는 무력 도 발	북한군의 무력 도발에 대하여 알아보자.	5. 통일을 위한 과제
7.국가 안보	1. 북한의 군대	북한의 인민군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2. 북한의 군대생활	북한 인민군의 복무 기관과 휴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3. 북한이 군사력	북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4. 끝내야 할 대결	남북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통일 후의 군사비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북한이해
8.통일 의 바른 길	1. 통일의 목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 보자.	4. 통일정책
	2. 우리의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알 아보자.	4. 통일정책
	3. 북한의 통일 방안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지 알아보자.	4. 통일정책
	4. 통일의 지혜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하여 알아보자.	4. 통일정책

위 <표-Ⅱ-7>에서 보듯이 『통일⑥』의 경우,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31개이다. 31개의 소단원 중 ‘6-1.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포괄적으로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6-2. 6·25 한국 전쟁’은 ‘분단의 배경’과 관련되므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6-3. 끊임없는 무력 도발’은 대체로 ‘국가안보 역량’과 관련되므로 ‘5. 통일을 위한 과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 한편, ‘8-1. 통일의 목표’, ‘8-2. 우리의 통일 방안’, ‘8-3. 북한의 통일 방안’, ‘8-4. 통일의 지혜’는 ‘통일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4. 통일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다. 나머지 24개의 단원은 ‘2. 북한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Ⅱ-8> 『오늘의 북한 사회①』의 내용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의 관련성

차례		주요 학습내용	통일교육지침서 내 용체계와의 관련성
1.한 민족 두 나라	1. 단군의 후손	정상의 만남, 하나의 역사	1.통일문제의 이해
	2. 민족 분단의 배경	주변 국가들의 각축장,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서로 다 른 목적의 미국과 소련,	1.통일문제의 이해
	3. 민족 최대의 비극	북한군의 전면 남침, 인천 상륙 작전, 38선 넘어 압록 강까지, 중공군의 개입, 맥아더 장군의 해임, 휴전 회 담, 깊게 새겨진 전쟁의 상처	1.통일문제의 이해

	4. 김일성 공화국	김일성은 북한의 주인, 김정일 세습 왕국,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구축	2.북한이해
2.북한 의 국가 환경	1. 북한의 자연과 자원	한반도 북쪽의 땅, 지형, 사계절이 뚜렷한 대륙성 기후, 기온, 대체로 적은 강수량, 풍부한 지하자원, 다양한 자연 자원	2.북한이해
	2. 북한의 행정체계	인구, 행정 체계,	2. 북한이해
	3. 북한의 중심도시	평양직할시, 지형, 교통, 관광 명소	2. 북한이해
	4. 북한을 상징하는 것들	태극기와 인공기, 서로 다른 애국가, 국화보다 더 소중한 꽃, 대통령과 주석	2. 북한이해
3.북한 주민들의 생활	1. 사회주의 결혼관	(개괄), 젊은이들의 결혼 조건	2. 북한이해
	2. 가정생활	주민들의 하루 일과, 사회주의적 가족 구성	2. 북한이해
	3. 친족과 이웃	소멸되는 친족 관계, 서로 돕는 이웃사촌	2. 북한이해
	4. 북한의 관혼상제	생일상 차림, 결혼의식, 회갑 잔치, 장례 절차, 제사 예절	2. 북한이해
4.북한 의 교육 목표	1. 교육정책	(개괄), 4-6-4(7)제 교육 체계, 절대적 학습 평가	2. 북한이해
	2. 의무교육	조기 교육과 초등 교육, 조직적인 과외 활동	2. 북한이해
	3. 중등교육	특수 영재 교육, 교원 양성 기관	2. 북한이해
	4. 고등교육	대학 교육, 대학 입시제도	2. 북한이해
5.명절 풍습과 언어생활	1. 북한의 명절	태양절(김일성의 생일), 2월의 명절(김정일의 생일), 김정일 위상화를 위한 백두산 노천 혁명 박물관	2. 북한이해
	2. 전통 민속 명절	1월 1일 새해, 전통 설명절, 단오절, 민족의 최대 명절	2. 북한이해
	3. 북한의 표준말	(개괄), 표준어와 문화어,	2. 북한이해
	4. 속담과 언어 예절	(개괄), 문화어 예절법,	2. 북한이해
6.주민 들의 건강생활	1. 북한의 사회체육	(개괄), 북한의 체육 활동	2. 북한이해
	2. 국제스포츠 활동	(개괄), 역사적인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제28회 아테네 올림픽 참가,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 2008 제 29회 베이징 올림픽	2. 북한이해
	3. 북한의 의료 활동	보건·의료 정책, 민족의 유산 고려의학	2. 북한이해
	4. 북한의 의료 체계	(개괄), 의사 양성 제도,	2. 북한이해
7.주민 들의 기본 생활	1. 먹고 입고 사는 활동	(개괄), 다양해진 옷들, 임대 형식의 주택,	2. 북한이해
	2. 농·어민들의 활동	공동 생산의 협동농장제, 주체 영농 정책, 다시 살아난 종합 시장, 취약한 수산업, 농민 단체: 농업근로자 동맹	2. 북한이해
	3. 주민들의 생활 활동	의무 노동, 직장 배치, 직업 단체: 조선직업총동맹	2. 북한이해
	4. 주민들의 여가 생활	(개괄)	2. 북한이해

위 <표-Ⅱ-8>에서 보듯이 『통일⑦』의 경우, 7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28개이다. 28개의 소단원 중 ‘1-1. 단군의 후손’, ‘1-2. 민족 분단의 배경’, ‘1-3. 민족 최대의 비극’은 주로 ‘분단의 배경’ 및 ‘분단의 폐해’와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1. 통일문제의 이해’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4개의 단원은 ‘2. 북한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Ⅱ-9> 『오늘의 북한 사회⑧』의 내용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의 관련성

차례		주요 학습내용	통일교육지침서 내용 체계와의 관련성
1. 북한 의가 력	1. 조선노동당	최고의 권력 기구, 당 규약, 김정은 후계에 맞게 개정, 조선로동당의 추종 정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 청우당	2. 북한이해
	2. 행정부	최고의 통치 기구 국방위원회, 내각, 행정기관	2. 북한이해
	3. 입법부	국가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 최고 입법 기관, 지방 의회 기관, 100% 투표에 100% 찬성	2. 북한이해
	4. 검찰소와 재판소	검찰 기관, 재판 기관, 법조 인력 양성소, 기타 사법 관련 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	2. 북한이해
2. 북한 경제 체제	1. 경제의 현실	(개괄), 북한 경제의 현주소, 집단 영농 방식의 현실	2. 북한이해
	2. 산업활동	(개괄),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외화 사용 전면 금지, 건설 산업, 석탄 증산 운동, 초보 단계인 정보 통신 기술	2. 북한이해
	3. 경제관리개선 조치	(개괄), 부분적 시장 경제 도입, 사회주의 계획 경제 복원	2. 북한이해
	4. 대외무역	(개괄), 수출, 수입	2. 북한이해
3. 교통과 수단과 관광	1. 북한의 교통망	(개괄), 도시의 대중 교통	2. 북한이해
	2. 주요 교통수단	철도,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2. 북한이해
	3. 항로와 해로	항로, 해운 항로	2. 북한이해
	4. 관광산업	(개괄), 국가 관광 총국	2. 북한이해
4. 언론 매체 들	1. 언론의 역할	(개괄), 철저한 사전 검열 체계, 엄격한 기준의 기자 선발	2. 북한이해
	2. 조직들의 기관지	(개괄), 조선로동당의 기관지, 행정부의 기관지,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 조선인민군의 기관지, 시·도당의 기관지, 기자와 언론인들의 조직	2. 북한이해
	3. 방송활동	(개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 유일한 국영 통신사	2. 북한이해
	4. 출판활동	(개괄), 대표적 출판사, 주요잡지	2. 북한이해
5. 전 체 위 사 회	1. 집단주의 조직	(개괄), 소년단, 상호 비판 회의, 주민들의 조직 활동	2. 북한이해
	2. 집단문화예술	(개괄), 직관 예술, 변화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인의 육성과 대우	2. 북한이해
	3. 집단주의 정신 강화	문학, 음악, 대중 가요, 통일의 노래, 미술, 산업 디자인	2. 북한이해
	4. 집단 사상의 걸림돌 종교	(개괄), 불교, 그리스도교(개신교), 가톨릭교, 천도교 및 기타	2. 북한이해
6. 강성대 국 병 영 가	1. 조선인민군	혁명의 주력군, 계급 인플레이션, 의무병 제도,	2. 북한이해
	2. 군사조직과 지휘체계	계급 체계, 정치국과 참모부, 군정 배합 지휘 기구, 김정은을 선군정치 후계자로 임명	2. 북한이해

	3. 증강된 막강한 군사력	군사력 현황, 군사력의 대폭 증강, 비대칭 전력의 위협, 북한 우라늄 농축 장치(원심분리기)가 동 스스로 공개	2. 북한이해
	4. 60년의 끝없는 도발	청와대 습격, 올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북한의 남침수 땅굴, 아웅산 묘소 테러, KAL기 폭파, 북한의 잠수함 침투, 제1연평 해전, 제2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 광!광!광! 아수라장으로 변한 연평도,	2. 북한이해
7. 통일보위 노력	1. 사회주의 통일이 북한의 목표	남북한 통일 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4. 통일정책
	2. 소중한 국가안보	부자 세습을 위한 의도된 도발, 불확실성의 3대 세습, 변하지 않은 무력 적화 통일의 의지	5. 통일을 위한 과제
	3. 내나라 내가 지켜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주의자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통일의 길이 보인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4. 살기위한 이탈	탈북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5.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⑧』의 경우, 위 <표-Ⅱ-9>에서와 같이 7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수는 28개이다. 28개의 소단원 중 ‘7-1. 사회주의 통일이 북한의 목표’는 ‘통일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4. 통일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7-2. 소중한 국가안보’, ‘3. 내나라 내가 지켜야’는 주로 ‘안보역량’과 관련되므로, ‘5. 통일을 위한 과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7-4. 살기위한 이탈’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포괄적으로 관련되므로 ‘5. 통일을 위한 과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 나머지 24개의 단원은 ‘2. 북한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상의 분석에 더하여 ‘통일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 내용체계의 관련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Ⅱ-10> ‘통일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 체계의 관련성 정리

교재명		소단원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와 관련된 소단원 수				
			1.통일문제의 이해	2.북한이해	3.통일환경의 이해	4.통일정책	5.통일을 위한 과제
초·중·고용	통일①	18	1	17			
	통일②	22	3	19			
	통일③	32	4	28			
	통일④	32	4	28			
	통일⑤	32		29		1	2
	통일⑥	31	2	24		4	1
초·중·고용 소계		167	14	145	0	5	3
중·고용	오늘의 북한 사회①	28	3	25			
	오늘의 북한 사회②	28		24		1	3
	중·고용 소계	56	3	49	0	6	5
합계		223	17	194	0	11	8

위 <표-Ⅱ-10>에서 보듯이 통일①의 경우,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②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③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④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⑤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⑥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⑦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⑧의 경우,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통일 교과서’의 경우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이다. 그리고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통일 교과서’의 경우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서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전체 소단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이다. 초·중등학교 ‘통일 교과서’ 전체에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의 북한이해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소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이다. 이상의 분석에 더할 때, 현재 개발된 통일교육 인정도서인 ‘통일 교과서’는 내용구성에 있어 북한이해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침서의 기준으로 보면 내용 불균형이 대단히 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2) 내용표현 분석

‘통일 교과서’의 내용표현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목, 본문진술, 삽화로 나누어 내용표현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목 표현

모든 교재에서 단원의 제목은 해당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학습 내용을 안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통일 교과서’에서도 제목과 해당 내용의 일치 정도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통일 교과서’에 나타난 대단원 및 소단원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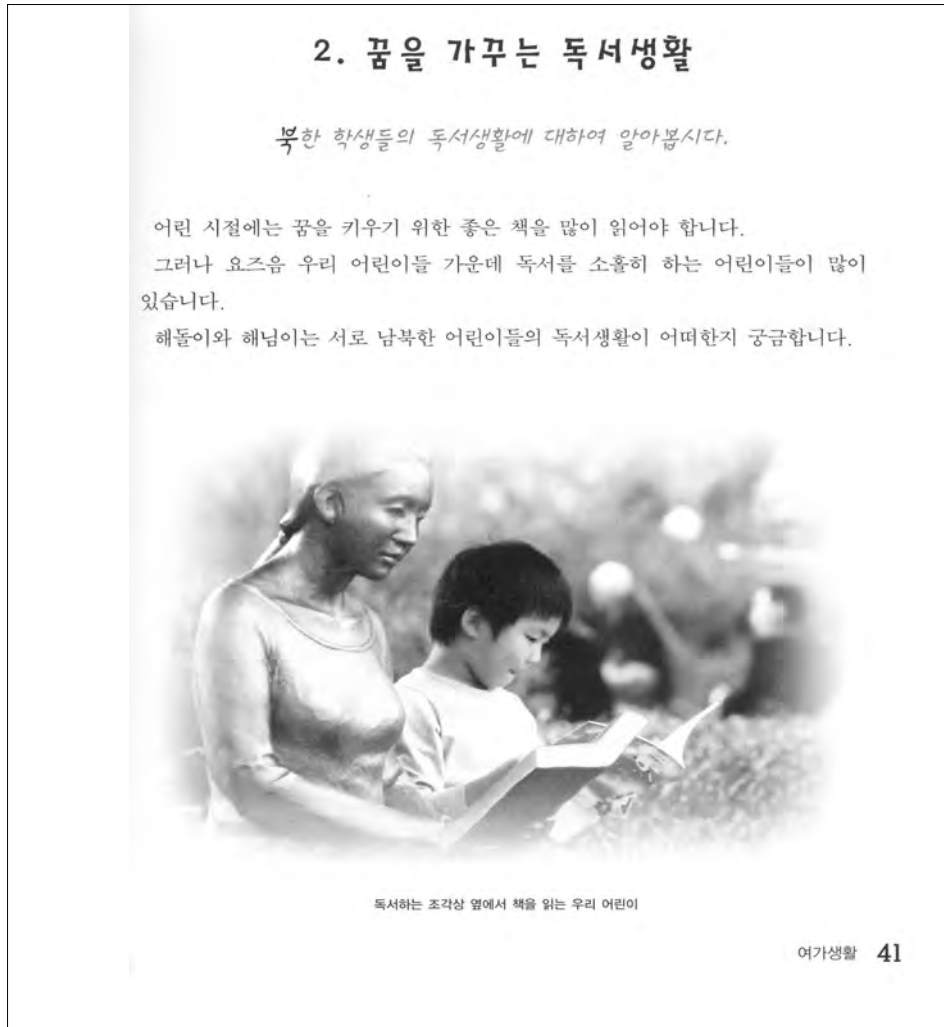
이 표에서 보듯이 ‘통일 교과서’ 소단원명이 진술하는 대상에 따라 남한, 북한, 남북한을 지칭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지칭하는 경우, 북한의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경우와 남한 학생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남북한, 혹은 북한을 진술 대상으로 하면서 남한 학생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일②』의 ‘3-2. 모범어린이’, 『통일③』의 ‘3-2. 꿈을 가꾸는 독서생활’, 『통일③』의 ‘4-2. 자유로운 종교생활’, 『통일⑧』의 ‘6-3. 증강된 막강한 군사력’ 등이다.

<표 - II - 11> '통일 교과서' 대단원 및 소단원 제목

통일①		통일②		통일③		통일④				
1. 우리나라	1.자랑스런 우리나라	1. 어린이 생활	1.유치원 생활	1. 어린이 생활	1.취미 생활	1. 금수강산	1.자연환경			
	2.아름다운 자연		2.놀이 활동		2.외화벌이 꼬마 활동		2.지하자원			
	3.살기 좋은 나라		3.만화영화		3.재능을 키우는 활동		3.인구			
	4.한 민족 두 나라		4.여가 활동		4.꽃제비 어린이		4.행정구역			
2. 나라의 상징	1.국기	2. 가정 생활	1.화목한 생활	2. 학교 생활	1.교육 목표	2. 서울과 평양	1.남북한의 수도			
	2. 애국가		2.청결한 생활		2.교과서 전시회		2.남북의 중심 도시			
	3. 국화		3.좋아하는 음식		3. 수업 시간		3.통일 후의 모습			
	4. 한글		4.서로 돕는 친척		4.해넘이의 하루 생활		4.사람과 사람			
3. 우리의 가족	1. 우리의 가족	3. 학교 생활	1.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	3. 여가 생활	1.즐거운 가족 나들이	3. 생활용품	1.가정의 변화			
	2. 가정 생활		2.모범 어린이		2.꿈을 가꾸는 독서 생활		2.결혼 풍습			
4. 어린이의 활동	1. 아기의 탄생		4. 시장 생활		3.소학교 생활		4. 주민 생활	3.손꼽아 기다리는 방학	4. 명절 생활	3.장례 풍습
	2. 유아 생활				4.소년단 활동			4.어린이들의 놀이		4.제사 풍습
	3. 놀이방 생활	5. 국가 명절	1.생활비	1.의료제도와 병원 시설	1.민속명절					
	4. 유치원 생활		2.시장 생활	2.자유로운 종교 생활	2.국경일					
5. 학교 생활	1. 1학년 활동	6. 민족의 자랑	3.돈의 역할	5. 경제 활동 등	3.함께하는 단체 생활	5. 여가 생활	3.민속놀이			
	2. 공부 시간		1.민속명절		4.즐거운 생일 잔치		4.북한의 큰 명절			
	3. 현장 체험 학습		2.국경일		1.도시 생활		1.여가 활동			
	4. 학교 행사		3.민속놀이		2.농어촌 생활		2.취미 생활			
		6. 민족의 자랑	4.생활 풍습	6. 의식주 생활	3.시장 생활	6. 국가 주요 산업	3.여행 활동			
			1.스포츠 한국		4.북한 이탈 주민		4.어린이들의 여가			
			2.민족의 힘		1.식량 사정		1.관광 산업			
			3.소원은 통일		2.의류 생활		2.도시의 교통			
			7. 민족의 비극	3.주거 생활	3.철도와 고속도로					
				4.생활 필수품	4.통신 시설					
				1.일요일의 남침	7. 달라진 말과 글	1.우리의 말과 글				
				2.6·25의 진실		2.혁명을 위한 말과 글				
			3.6·25의 교훈	3.표준어와 문학어						
			4.끝나지 않은 대결	4. 달라진 말과 글						
			8. 통일의 길	1.한 민족 한 형제	8. 통일로 얻는 것들	1.분단으로 인한 군사 비용				
		2.다른 생활 환경		2.민족의 안녕과 국가 안보						
		3.김일성 가족의 나라		3.함께 잘 사는 길						
		4.서로 같이 사는 길		4.세계 속의 한 민족						
통일⑤		통일⑥		통일⑦		통일⑧				
1. 학교 생활	1.교육제도	1. 민주주의의 기본	1.어린이 선거	1. 한 민족 두 나라	1.단군의 후손	1.북한의 국가권력	1.조선노동당			
	2.교과서		2.국가원수의 선출		2.민족 분단의 배경		2.행정부			
	3.역사교육		3.국민의 대표 선거		3.민족 최대의 비극		3.입법부			
	4.대학진학		4.지방 자치 생활		4.김일성 공화국		4.검찰소와 재판소			

2. 경제생활	1.북한의 화폐	2. 국가기관	1.권력구조	2. 북한의 국가환경	1.북한의 자연과 자원	2.북한의 경제체계	1.경제의 현실
	2.식량사정		2.입법부		2.북한의 행정체계		2.산업 활동
	3.식량부족의 원인		3.행정부		3.북한의 중심 도시		3.경제관리 개선조치
	4.북한의 시장		4.사법부		4.북한을 상징하는 것들		4.대외무역
3. 직장생활	1.직장 배치	3. 주민생활	1.사회생활	3.북한 주민들의 생활	1.사회주의 결혼관	3.교통수단과 관광	1.북한의 교통망
	2.직장의 일과		2.직업선택		2.가정생활		2.중요교통수단
	3.생활비		3.결혼관		3.친족과 이웃		3.항로와 해로
	4.휴가 및 휴일제도		4.거주이전		4.북한의 관혼상제		4.관광산업
4. 언론매체	1.텔레비전 방송	4. 종교생활	1.북한 종교의 실태	4.북한의 교육목표	1.교육정책	4.언론매체	1.언론의 역할
	2.텔레비전 보급		2.기독교		2.의무교육		2.조직들의 기관지
	3.북한의 신문		3.불교		3.중등교육		3.방송활동
	4.북한의 출판		4.천주교와 그 밖의 종교		4.고등교육		4.출판활동
5. 문화재	1.우리의 문화재	5. 체육활동	1.운동회	5.명절 풍습 언어생활	1.북한의 명절	5.전체를 위한 사회	1.집단주의 조직
	2.북한의 문화재		2.학교체육		2.전통 민속 명절		2.집단문화예술
	3.고구려 문화재		3.주민 체력장		3.북한의 표준말		3.집단주의 정신 강화
	4.고려문화재		4.전문체육		4.속담과 언어 예절		4.집단 사상의 걸림돌
6. 문화예술	1.북한의 영화	6.도발이겨낸 국민	1.한강의 기적	6.주민들의 건강생활	1.북한의 사회체육	6.강성대국의 병영국가	1.조선인민군
	2.연예인 활동		2.6·25한국전쟁		2.국제 스포츠활동		2.군사조직과 지휘체계
	3.음악활동		3.끊임없는 무력 도발		3.북한의 의료 활동		3.증강된 막강한 군사력
	4.미술활동		1.북한의 군대		4.북한의 의료체계		4.60년의 끝없는 도발
7. 산업활동	1.건설 산업	7.국가안보	2.북한의 군대생활	7.주민들의 기본생활	1.먹고 입고 사는 활동	7.통일안보를 위한 노력	1.사회주의 통일이 북한의 목표
	2.공업 활동		3.북한의 군사력		2.농·어민들의 활동		2.소중한 국가안보
	3.정보기술		4.끝내야 할 대결		3.주민들의 생활 활동		3.내나라 내가 지켜야
	4.특별행정구		1.통일의 목표		4.주민들의 여가생활		4.살기위한 이탈
8. 하나가 되는 길	1.지켜야 할 약속	8.통일의 바른 길	2.우리의 통일 방안				
	2.3대 세습 공화국		3.북한의 통일 방안				
	3.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4.통일의 지혜				
	4.북한을 바로 알아야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③』 ‘3-2. 꿈을 가꾸는 독서생활’을 살펴보자⁹⁾.



<그림-Ⅱ-1> 통일 교과서 단원명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위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단원명을 정한 것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원명인 ‘꿈을 가꾸는 독서생활’은 북한의 사상교육과 관련하여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단원에서 북한 관련된 진술 내용이 소단원명과 불일치한다면, 북한에 대한 오해, 잘못된 북한관을 조장할 수도 있다. 해당 소단원명을 ‘3-2. 예절교육’, ‘3-2. 독서생활’, ‘4-2. 종교생활’, ‘6-3. 증강된 군사력’으로 진술한다면, 북한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9) 『통일③』, p. 41.

나) 제시 내용의 선정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실상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 실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체제 선전·주장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점을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도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북한의 선전 자료를 직접 제시하는 것이 종합적 이해 도모에 필요한지, 혹은 학년별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①』의 다음 <그림-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자¹⁰⁾.

북한에도 나라꽃이 있습니다.

북한의 나라꽃은 ‘목란’입니다.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나라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받드는 꽃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딴 김일성꽃과 김정일꽃입니다.



· 북한의 국화인 목란 - 대부분 주민들은 목란이 국화인 것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일성꽃과 김정일꽃 전시회 - 북한에서는 매년 주민들이 정성드려 키운 김일성꽃과 김정일꽃의 평가 대회를 열고 여러 가지 상을 주며 전시회도 엽니다.

10) 『통일①』, p. 48, 105.



· 놀이를 하는 북한 어린이들 - 북한 어린이들은 놀이를 할 때에도 집단주의 정신을 기르고 어떤 목적을 위해 싸우는 용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도 개인의 적성이나 교양을 쌓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모범 학생을 키우기 위해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집단 활동에 현장 학습 시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105

<그림-Ⅱ-2> 내용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된 내용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통일 교과서'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어디에 배치할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 시각 자료의 선정

통일교육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종합적 이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통일 교과서'에서 시각 자료의 선정과 활용은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선전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선전 자료가 일반적인 사실로 이해될 경우, 그것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통일④』와 『통일⑤』에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자¹¹⁾.



·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참배하는 주민들 - 만경대 생가는 죽은 김일성이 태어난 곳을 혁명사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주민들을 참배시키며 충성을 다짐하게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딴 김일성꽃과 김정일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 두 명절에 맞추기 위해 '꽃피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일성꽃은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 그곳 식물 학자가 선물한 난초과의 열대성 식물이고, 김정일꽃은 일본의 원예가가 김정일의 생일에 선



온실에서 키우고 있는 김일성꽃

64 통일

전체적으로 볼 때, 아래 <그림-Ⅱ-3>과 같은 내용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된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의 선전용 자료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남북한의 특정 상황에 한정된 자료와 비교하여 일반화시킬 때,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시작자료를 선정하고 제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1) 『통일④』, p. 64, 『통일⑤』, p. 7.



· 북한의 소학교 학생들 - 2002년 9월부터 인민학교가 소학교로, 고등중학교가 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 정신을 목표로 공산주의 사회에 맞도록 학생들에게 충성심, 단결심을 심어 주는 교육을 한다.

북한의 학교는 유치원 2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일반 대학 4~6년, 연

구원 3~4년 등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부르며, 소학교에서 4년을 공부한 후 중학교에 진학한다. 따라서,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들은 북한의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같다.

■ 남북한의 교육 제도 비교



<그림-Ⅱ-3> 시각 자료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라) 판단 수준의 정도

통일교육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저자의 판단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편향되지 않은 통일교육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 자율적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정보에 대한 저자의 판단을 제시하는 수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⑧』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자¹²⁾. 전체적으로 볼 때, 아래위 <그림-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상의 내용은 집필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판단 수준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반면, 종북주의자에 관한 진술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 관한 진술이 제시됨으로써, 이 두 내용이 연관되어 읽힐 수도 있다. 교재에서 이러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인 경우, 집필자의 판단을 완화하면서, 독자의 판단이 가능한 형식으로 교재를 구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내나라는 내가 지켜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 : 북한의 체제와 통일 정책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

2010년 6월 정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한 어느 종북주의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였다. “대한민국 정권을 명백하게 규탄하고자 한다”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동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찬양 일색이었다. 그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남녘 조국,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북녘 조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전쟁 위기감 속에서 평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북녘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해무기보다도 더 강한 3대 무기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3대 무기는 일심단결의 무기, 자력 경쟁의 무기, 혁명적 낙관주의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친북 좌파 이념에 기초한 정치 투쟁 단체들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인터넷 피담 수준의 의혹들을 짜깁기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보내기도 했다.

효선·미순 양 사건 : 여자 중학교에 다니던 효선과 미순 학생이 미군의 탱크에 치어 숨진 사고

이들의 반정부 연대 투쟁은 2002년 효선·미순 양 사건, 2004년 이라크 파병, 2006년 미군 기지 폭탄 이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강화되었고,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로

140
오늘의 북한사회

<그림 - II - 4> 저자의 판단 제시에 있어서의 문제 예

3. 인정도서 심사기준 따른 ‘통일 교과서’ 분석

『인정도서 심사기준』¹³⁾ 역시 학교 통일교육에서 편향된 교육을 방지하는 규정 이면서, 동시에 편향된 관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통일교육지침서가 통일에 보다 초점을 두고 교육에 요청하는 텍스트라면, 인정도서 심사기준은 교육적 실천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고려한 텍스트이다.

가. 인정도서 심사기준의 요청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로, 이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143호, 2010. 5. 4. 일부개정). 인정도서제도의 취지는 교육자료의 다양화, 교육자료의 보완,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와 신설학과의 교재 보완,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교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도서가 필요한 경우는 교과서와 지도서가 없는 경우,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없는 경우,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하는 경우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정하면, ‘통일 교과서’는 초·중등학교의 재량활동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이다. 인정도서의 1차 심사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구분된다. 공통기준은 국가정책, 교육목적, 교육내용 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표-Ⅱ-12> 서울시 교육청 인정도서 심사기준표

인정도서 1차 심사기준				
심사 영역	심사 기준	관 점		비 고
		있음	없음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특정 정당·종교, 국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선전·옹호·우대, 비방·왜곡 등의 내용이 있는가?			
	3. 각종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가?			
Ⅱ. 교육 목적과의 일치	4. 교육법, 교육과정 등에 제시된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Ⅲ. 내용 구성의 창의성	5.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독자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			
Ⅳ. 내용의 보편 타당성	6.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13) 본고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2010학년도 인정도서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교과 기준				
심사 영역	심사 기준	배점	평점	비고
I.교육과정과의 균형성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들을 균형 있게 선정하여 구성하였는가?	10		
II.이론적 배경	2. 학문의 오류나 현실성 없는 자료 및 정설화되지 않는 자료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가?	10		
III.학습목표와 내용의 관련성	3. 제시된 학습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IV 학습 분량의 적정성	4. 학습 분량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단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10		
V.학습 수준의 적정성	5. 학습 내용의 수준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가?	10		
VI.학습 내용의 시의성	6. 학습 내용의 수준이 현재의 정보통신 실무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10		
VII.학습의 자율성	7.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10		
VIII.타 교과와의 연계성	8.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른 전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10		
XI.구성 체제의 적정성	9. 사진, 삽화 등이 내용에 부합되며, 실무에 맞게 실습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10		
X.표현 표기의 적정성	10.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맞춤법, 외래어 표기, 용어 등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편수자료 등에 맞게 따르고 있는가?	10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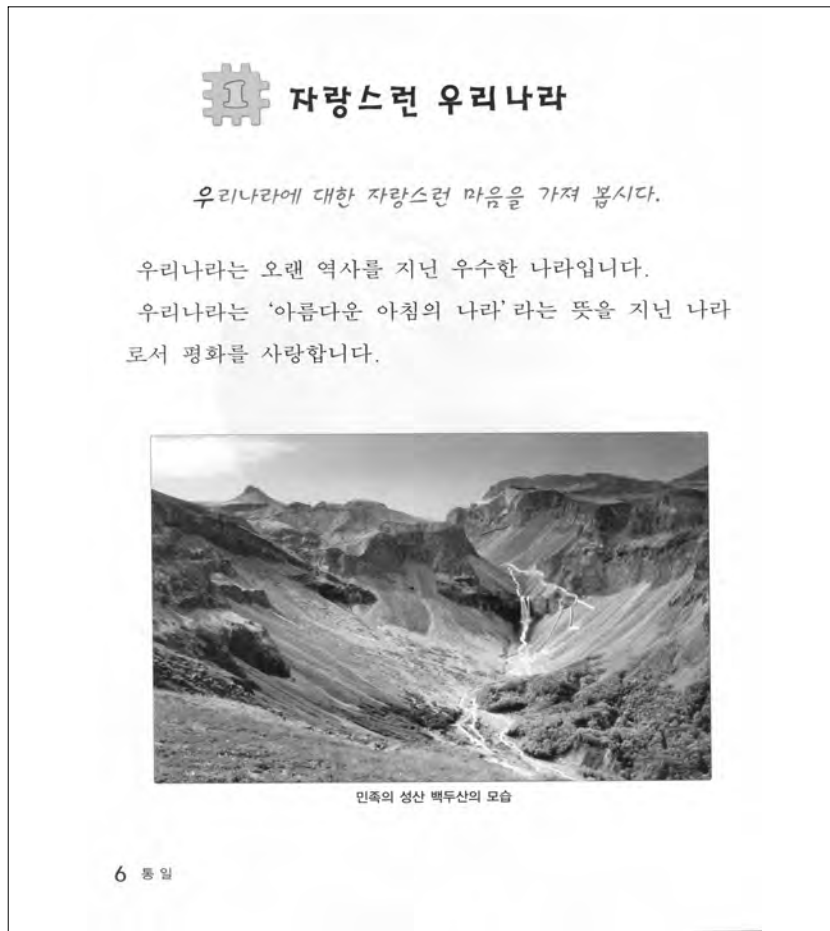
교과기준은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다. 2차 심사기준은 1차 심사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의 이행여부와 표현·표기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기타 추가 수정사항 등으로 작성한다(서울시 교육청, 2010학년도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 이에 따른 1차 인정도서 심사기준 양식은 위 <표-Ⅱ-12>와 같다.

이상의 심사기준 영역 중에서 특별히 ‘통일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의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제시 및 편향되지 않은 접근을 강조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가깝게 관련된 심사기준 영역은 공통기준에서 ‘Ⅳ. 내용의 보편 타당성’이다. 또한 ‘통일 교과서’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는 것이라면, 학년별 교육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 관련 영역이 각 교과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가깝게 관련된 심사기준 영역은 교과 기준에서 ‘교육과정과의 균형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이다. 다음에서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통일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통일 교과서 분석

1) 내용의 보편 타당성

내용의 보편타당성의 심사기준은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이다. 이는 심사영역 중 ‘헌법 정신과의 일치’와도 관련된다. 즉 ‘특정 정당·종교, 국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선전·옹호·우대, 비방·왜곡 등의 내용이 있는가?’와도 관련된다. 개인적 편견은 이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인 ‘통일 교과서’는 이 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림-Ⅱ-5>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 제시 문제의 예

위 <그림-Ⅱ-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나라로서 평화를 사랑

합니다.’라는 진술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가명을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해의 여지가 있다¹⁴⁾.

김일성꽃과 김정일꽃은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을 가져와 기른 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꽃들을 온실에서 정성들여 가꾸고 있습니다.

 · 김일성꽃 : 인도네시아 식물학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김일성에게 선물한 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 김정일꽃 : 일본의 원예학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북한에 선물한 베고니아꽃 종류의 식물입니다.





· 김정일꽃 온실을 견학하는 북한 학생들 - 김일성꽃과 김정일꽃은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 북한의 온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워야 합니다.

나라의 상징 49

<그림 - II - 6>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의 문제 예1

14) 『통일』, p. 6.

위 <그림-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꽃을 가정에서 기르는 북한 어린이-북한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김일성꽃과 김정일 꽃을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에서 '정성스럽게'라는 표현은 북한의 선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¹⁵⁾.



탁아소 놀이 기구에서 놀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탁아소에는 장남감도 있고 놀이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들은 놀이를 하며 노래와 춤도 배웁니다.

아이들의 생일 축하 행사도 합니다.

탁아소에서 배우는 놀이나 노래와 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내용들로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돌잔치를 차려 주는 북한의 직장 탁아소

어린이 활동 83

<그림-Ⅱ-7>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2

15) 『통일①』, p. 49.

위 <그림-Ⅱ-7>에서와 같이 '탁아소에는 장남감도 있고 놀이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들은 놀이를 하며 노래와 춤도 배웁니다.'라는 진술이 일부 지역에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전체의 탁아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¹⁶⁾.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매일 조회를 합니다.

학교 건물의 한 가운데에 걸려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향해 공손하게 절부터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공산주의 모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련된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

학교생활 99

<그림-Ⅱ-8>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3

위 <그림-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한 가운데에 걸려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16) 『통일①』, p. 83.

향해 공손하게 절부터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공산주의 모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는 북한의 선전용 진술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전용 진술을 사실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¹⁷⁾.

북한의 소학교 어린이들도 현장 학습을 갑니다.
북한에서 현장 학습은 매우 중요한 학교생활입니다.
북한에서는 현장 학습이 공산주의혁명 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동상이 있는 혁명 사적지나 공산당의 업적을 소개한 기념관 같은 곳으로 많이 갑니다.



· 김일성 사적지를 견학하는 북한 어린이들 -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혁명 역사와 항일 투쟁 업적을 기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 부인 등 가족들의 위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며 놓은 곳으로 북한의 전 지역에 수만 개가 있습니다.

104 통일

<그림-Ⅱ-9>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4

위 <그림-Ⅱ-9>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소학교에서도 개인의 적성이나 교양을 쌓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모범 학생을 키우기 위해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집단 활동에 현장 학

17) 『통일①』, p. 99.

습 시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는 공산주의적 학생을 ‘모범 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¹⁸⁾.



북한의 고려항공기 승무원인 여자 의례원이 손님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해님이네 가족은 서로 아끼며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님이 부모님은 해님이 자라서 의례원(접대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의례원은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이
 기 때문입니다. 또,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에 충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생활 31

<그림-Ⅱ-10> 북한 선전 내용의 무비판적 게재상의 문제 예5

위 <그림-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에 충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는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사실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¹⁹⁾.

18) 『통일①』, p. 104.

19) 『통일②』, p. 31.

그리고 이 외에도 예컨대 『통일③』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꿈을 가꾸는 독서생활’은 본문과의 내용과 관련시켜볼 때, 공산주의 독서가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²⁰⁾.


2. 자유로운 종교생활

북한 주민들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당에 나가서 각자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북한은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다가 1970년대 초부터 종교 단체들을 인정하고, 국제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며 평양에 봉수교회,



북한의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



북한의 승려

· 북한의 승려 : 북한의 스님은 외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으로만 스님일뿐이고, 실재는 사람의 관리를 맡은 조선노동당원들이므로 우리 스님들처럼 경을 읽고, 기도와 참선을 하며 진실을 수행하는 분들과 다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57

<그림-Ⅱ-11>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는 문제 예

위 <그림-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유로운 종교생활’은 본문과의 내용과 관련시켜볼 때, 북한의 종교생활이 마치 자유로운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²¹⁾.

20) 『통일③』, p. 41.

21) 『통일④』, pp. 57.

2) 교육과정과의 균형성

통일교육과정은 초·중학교 교과과정의 각 교과교육과정처럼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지침서 및 통일교육과 관련된 각 교과교육과정을 참조하여 교육과정과의 균형성을 살펴 보아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를 근거할 때, ‘통일 교과서’는 ‘북한 이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교과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은 다음의 ‘타 교과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과정과의 균형성을 ‘통일 교과서’ 자체의 중복성에 초점을 둔다. 다음 <표-Ⅱ-13>에서와 같이 초등용 ‘통일 교과서’ 자체에는 중복되는 소단원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Ⅱ-13> ‘통일 교과서’ 소단원 중복 분석

통일①	통일②	통일③	통일④	통일⑤	통일⑥
1.자랑스런 우리나라	1.유치원생활	1.취미생활	1.자연환경	1.교육제도	1.어린이 선거
2.아름다운 자연	2.놀이활동	2.외화벌이 꼬마 활동	2.지하자원	2.교과서	2.국가원수의 선출
3.살기 좋은 나라	3.만화영화	3.재능을 키우는 활동	3.인구	3.역사교육	3.국민의 대표 선거
4.한 민족 두 나라	4.여가활동	4.꽃제비 어린이	4.행정구역	4.대학진학	4.지방 자치생활
1.국기	1.화목한생활	1.교육목표	1.남북한의 수도	1.북한의 화폐	1.권력구조
2. 애국가	2.청결한 생활	2.교과서 전시회	2.남북의 중심도시	2.식량사정	2.입법부
3. 국화	3.좋아하는 음식	3. 수업 시간	3.통일 후의 모습	3.식량부족의 원인	3.행정부
4. 한글	4.서로 돕는 친척	4.해님의 하루 생활	4.사람과 사람	4.북한의 시장	4.사법부
1. 우리의 가족	1.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	1.즐거운 가족 나들이	1.가정의변화	1.직장 배치	1.사회생활
2. 가정생활	2.모범어린이	2.꿈을 가꾸는 독서생활	2.결혼풍습	2.직장의 일과	2.직업선택
1. 아기의 탄생	3.소학교생활	3.손꼽아 기다리는 방학	3.장례풍습	3.생활비	3.결혼관
2. 유아생활	4.소년단활동	4.어린이들의 놀이	4.제사풍습	4.휴가 및 휴일제도	4.거주이전
3. 놀이방생활	1.생활비	1.의료제도와 병원시설	1.민속명절	1.텔레비전 방송	1.북한 종교의 실태
4. 유치원 생활	2.시장생활	2.자유로운 종교 생활	2.국경일	2.텔레비전 보급	2.기독교
1. 1학년 활동	3.돈의 역할	3.함께하는 단체 생활	3.민속놀이	3.북한의 신문	3.불교
2. 공부시간	1.민속명절	4.즐거운 생일잔치	4.북한의 큰 명절	4.북한의 출판	4.천주교와 그 밖의 종교
3. 현장체험 학습	2.국경일	1.도시생활	1.여가 활동	1.우리의 문화재	1.운동회
4. 학교행사	3.민속놀이	2.농어촌생활	2.취미생활	2.북한의 문화재	2.학교체육
	4.생활풍습	3.시장생활	3.여행활동	3.고구려 문화재	3.주민 체력장

	1.스포츠 한국	4.북한 이탈주민	4.어린이들의 여가	4.고려문화재	4.전문체육
	2.민족의 힘	1.식량사정	1.관광산업	1.북한의 영화	1.한강의 기적
	3.소원은 통일	2.의류생활	2.도시의 교통	2.연예인 활동	2.6·25한국전쟁
		3.주거생활	3.철도와 고속도로	3.음악활동	3.끊임없는 무력도발
		4.생활필수품	4.통신시설	4.미술활동	1.북한의 군대
		1.일요일의 남침	1.우리의 말과 글	1.건설 산업	2.북한의 군대생활
		2.6·25의 진실	2.혁명을 위한 말과 글	2.공업 활동	3.북한의 군사력
		3.6·25의 교훈	3.표준어와 문화어	3.정보기술	4.끝내야 할 대결
		4.끝나지 않은 대결	4. 달라진 말과 글	4.특별행정구	1.통일의 목표
		1.한 민족 한 형제	1.분단으로 인한 군사비용	1.지켜야 할 약속	2.우리의 통일 방안
		2.다른 생활 환경	2.민족의 안녕과 국가 안보	2.3대 세습 공화국	3.북한의 통일 방안
		3.김일성 가족의 나라	3.함께 잘 사는 길	3.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4.통일의 지혜
		4.서로 같이 사는 길	4.세계 속의 한민족	4.북한을 바로 알아야	

이상과 같이,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 『통일①』4-4. 유치원생활, 『통일②』1-1. 유치원생활

· 『통일②』5. 국가명절(1. 민속명절, 2. 국경일, 3. 민속놀이, 4. 생활풍습), 『통일④』4. 명절생활(1. 민속명절, 2. 국경일, 3. 민속놀이, 4. 북한의 큰 명절)

· 『통일③』7.민족의 비극(1.일요일의 남침, 2.6·25의 진실, 3.6·25의 교육, 4.끝나지 않은 대결), 『통일⑥』6. 도발을 이겨낸 국민(1.한강의 기적, 2.6·25한국전쟁, 3.끊임없는 무력도발)

· 『통일③』4-2. 자유로운 종교생활, 『통일⑥』4. 종교생활(1.북한종교의 실태, 2.기독교, 3.불교, 4.천주교와 그밖의 종교)

· 『통일④』3-2. 결혼풍습, 『통일⑥』3-3. 결혼관

· 『통일③』6-1. 식량사정, 『통일⑤』2-2. 식량사정

· 『통일②』4-2. 시장생활, 『통일③』5-3. 시장생활, 『통일⑤』2-4. 북한의 시장

이 중에서 학년별 진술 내용이 반복되면서 심화·확대되는 부분은 균형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사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균형 있는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그림-Ⅱ-13>에서와 같이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특히 중복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²²⁾.

구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소단명에 따라 동일한 진술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복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복성을 피하고 교육과정과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년별 내용구성 체계와 위계, 그리고 심화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2) 『통일①』, pp. 87-88, 『통일②』, pp. 6-8.

4 유치원 생활

북한의 유치원 생활을 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다섯 살이 되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은 꿈을 키워 주는 곳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사랑하
고 아끼는 바른 어린이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유치원 어린이들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 학습

유치원에서는 소풍을 갑니다.
소풍은 공원이나 조상들이
남긴 훌륭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친구들과 서로 어울려 즐
거운 놀이도 합니다.
소풍을 마치고 집에 올 때에는 주위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웁니다.



우리의 유치원 어린이들의 재롱 잔치

어린이 활동 85

86 통일

1 유치원 생활

북한 어린이들의 유치원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북한 어린이들도 다섯 살이 되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은 낮은반 1년과 높은반 1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낮은반은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높은반은 모든 어린이가 반
드시 다녀야 합니다.



북한의 유치원 어린이들 - 대부분의 공공 건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유치원에서도 소풍을 가고 야외 활동을 합니다.
야외 활동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강한 정신력
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과 그의 가족에 관해
서도 배웁니다. 유치원 공부 중에서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 김정일 : 김일성
의 아들이며 1964년
김일성이 죽은 뒤를
이어 북한을 다스리는
최강위연장자입니다.



별매이는 북한의 어린이들

6 통일

8 통일

<그림-Ⅱ-12> 제시 내용 중복의 문제 예

3) 타교과와의 연계성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은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학년별 학교 통일교육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통일수업을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혹은 연관되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Ⅱ-14>와 같다.²³⁾

<표-Ⅱ-14> 각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바른 생활	2학년	○통일에 대하여 관심가지기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①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알기 ②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가지기 ③ 통일의 필요성 이해하기
도덕	3학년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남북 분단의 배경을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찾아보고, 남북 분단의 어려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①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인 배경 ②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③ 남북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도덕	4학년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를 찾아본다. ①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 효과 등 통일의 필요성 찾기 ②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③ 민족 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도덕	5학년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통합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북한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동포와 교류, 협력해 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나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동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방법과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본다. ①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 ②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 ③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
사회	5학년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①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②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져온 생활 문화의 변화를 탐구한다.

23) 바른생활과 2학년에도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갖기’라는 활동주제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바른생활과는 관련성 분석에서 보류한다. 먼저, 주된 이유는 『통일교육지침서』상의 교과별 권장사항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덕과의 6학년 ‘편견의 극복과 관용’,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지도요소도 통일교육과 관련되는 지도요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요소에서 직접 통일 혹은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보류한다.

		<p>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삶을 조사한다.</p> <p>④ 대한민국의 발전, 평화 통일, 인류 문화의 향상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p>
도덕	6학년	<p>○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p> <p>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지를 살펴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시아 전체가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본다.</p> <p>①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p> <p>②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p> <p>③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설정</p>
사회	6학년	<p>○ 아름다운 우리 국토</p> <p>①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지도와 지구본을 활용하여 확인한다.</p> <p>②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적 특성을 지형, 기후 등의 측면에서 이해한다.</p> <p>③ 전형적인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적 특성을 이해한다.</p> <p>④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차이를 생활 모습의 측면에서 이해한다.</p> <p>⑤ 전형적인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문적 특성을 이해한다.</p> <p>⑥ 우리나라 국토의 인문적 특성을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의 측면에서 이해한다.</p> <p>⑦ 북한 지역의 자연·인문 지리적 특성을 이해한다.</p> <p>⑧ 우리나라의 자연·인문 지리적 특성을 지도, 그래프, 도표로 나타내고, 다양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다.</p>
도덕	8학년 (중2)	<p>○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p> <p>남북 분단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민족 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역사와 영향을 조사하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p> <p>① 민족 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배경</p> <p>② 이산가족 등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p> <p>③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p>
도덕	8학년 (중2)	<p>○ 북한 주민과 민족애</p> <p>통일의 당위성은 민족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을 비교해 보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조사한다.</p> <p>①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p> <p>②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p> <p>③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동체의 의미</p>
도덕	8학년 (중2)	<p>○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p> <p>통일은 민족 공동체가 다 함께 잘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사회 통합 과정 및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세와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주체는 민족 구성원 모두임을 알고, '같음'을 발견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새터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p> <p>①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p> <p>②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p> <p>③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p> <p>④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p>

국어	8학년 (중2)	- 문 법 -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언어 자료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악하기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도덕	9학년 (중3)	<p>○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p> <p>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 등의 평화적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진정한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평화 운동의 사례를 찾아본다.</p> <p>① 평화의 소중함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들</p> <p>② 비폭력과 평화(진정한 평화의 의미)</p> <p>③ 남북한 상생의 추구</p> <p>④ 외국의 재난과 우리의 협조</p>	
사회	9학년 (중3)	<p>○ 통일 한국의 미래</p> <p>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지리적 통합이 필요함을 깨닫고, 북한의 개방 지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 의미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국토 통일에 대비한다. 지리적, 정치적 인접 국가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설계한다.</p> <p>① 북한의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p> <p>② 백두산 지역, 비무장 지대(DMZ)가 가지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p> <p>③ 국토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한다.</p> <p>④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깨닫고,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 공간 모습을 그려 본다.</p>	
역사	9학년 (중3)	<p>○ 대한민국의 발전</p> <p>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다룬다. 민주주의와 인권, 산업화와 경제 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 건설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p> <p>① 광복과 정부 수립, 분단과 6·25 전쟁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한다.</p> <p>②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p> <p>③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 변동을 이해한다.</p> <p>④ 북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p> <p>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탐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다.</p>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지침서』상의 내용체계의 관계를 연관지어 정리하면 다음 <표-Ⅱ-15>와 같다.

<표-Ⅱ-15>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지침서』상의 내용체계

통일교육 내용체계		학년	교과	내용요소
1. 통일 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나. 분단의 배경과 패해	3	도덕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5	사회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8(중2) 9(중3)	도덕 역사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발전
	다. 통일의 필요성	2 3 4 8(중2) 9(중3)	바른생활 도덕 도덕 도덕 사회	통일에 대해 관심가지기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 한국의 미래
	라. 통일의 접근 방식	4 8(중2) 8(중2)	도덕 도덕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북한 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6 8(중2) 9(중3)	도덕 도덕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통일 한국의 미래
2.북한 이해	가. 북한에 대한 인식	2 5 8(중2)	바른생활 도덕 도덕	통일에 대해 관심가지기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북한 주민과 민족애
	나. 북한의 정치·외교	5 8(중2) 9(중3)	도덕 도덕 역사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북한 주민과 민족애 대한민국의 발전
	다. 북한의 군사	5 8(중2)	도덕 도덕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북한 주민과 민족애
	라. 북한의 경제	5 8(중2) 9(중3)	도덕 도덕 사회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북한 주민과 민족애 통일 한국의 미래
	마. 북한의 사회·문화	2 5 6 8(중2) 8(중2) 9(중3)	바른생활 도덕 사회 도덕 국어 사회	통일에 대해 관심가지기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아름다운 우리 국토 북한 주민과 민족애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통일 한국의 미래
3.통일 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4 8(중2)	도덕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4 8(중2)	도덕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4.통일 정책	가. 우리의 통일방안	4 8(중2) 9(중3)	도덕 도덕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나. 역대 정부의 평 화통일 노력	4 8(중2) 9(중3)	도덕 도덕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4 8(중2) 9(중3)	도덕 도덕 도덕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노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5.통일 을 위한 제		6 8(중2) 8(중2) 9(중3) 9(중3)	도덕 도덕 도덕 도덕 역사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북한 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대한민국의 발전

이상의 표에서 분석한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를 학년별 교육과정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Ⅱ

-16>과 같다.

<표 - II - 16>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와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

학년	통일교육 내용	심화에 초점을 둘 경우	보충에 초점을 둘 경우
2	1-다. 통일의 필요성 2-가. 북한에 대한 인식 2-마. 북한의 사회·문화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3	1-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1-다. 통일의 필요성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4	1-다. 통일의 필요성 1-라. 통일의 접근 방식 3-가. 국제정세의 변화 3-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4-가. 우리의 통일 방안 4-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4-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통일문제의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2. 북한이해 5. 통일을 위한 과제
5	1-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2-가. 북한에 대한 인식 2-나. 북한의 정치·외교 2-다. 북한의 군사 2-라. 북한의 경제 2-마. 북한의 사회·문화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6	1-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2-마. 북한의 사회·문화 5. 통일을 위한 과제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이해 5. 통일을 위한 과제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7(중 1)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8(중 2)	1-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1-다. 통일의 필요성 1-라. 통일의 접근 방식 1-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2-가. 북한에 대한 인식 2-나. 북한의 정치·외교 2-다. 북한의 군사 2-라. 북한의 경제 2-마. 북한의 사회·문화 3-가. 국제정세의 변화 3-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4-가. 우리의 통일 방안 4-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4-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각 학년별로 타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만약 심화에 초점을 둔다면 위 표에서 ‘심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 반면 보충에 초점을 둔다면, 타 교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인 '보충에 초점을 두는 경우'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분석의 대상이 된 통일 교과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이해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이는 분석 대상인 '통일 교과서'가 인정도서로서의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4. 통일교육 교과서의 개선 방향과 방안

가. 개선의 기본 방향

통일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분석과 더불어, 실제 통일교육 관련자들의 의견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설문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정도서의 적극적인 활용의 권장

인정도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는 인정도서의 사용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Ⅱ-17>에서 보듯이, 설문에서 약 15%만이 인정도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80% 이상은 통일교육을 위해 개발된 인정도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표-Ⅱ-17>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경험

귀하께서는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인정도서로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있다	없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93(15.3)	493(80.9)	24(4)	0(0)	610(100)
성별	남자	52(24.1)	160(74.1)	4(1.9)	0(0)	216(100)
	여자	41(10.6)	333(85.4)	16(4.2)	0(0)	390(100)
	무응답	0(0)	0(0)	4(100)	0(0)	4(100)
직업별	교사	46(12.1)	320(83.6)	17(4.5)	0(0)	383(100)
	부장교사	39(22.7)	131(76.2)	2(1.2)	0(0)	172(100)
	교감·교장	2(15.4)	11(84.7)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3(100)	0(0)	0(0)	3(100)
	교수	4(22.3)	14(77.8)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2(18.2)	8(72.8)	1(9.1)	0(0)	11(100)
	그 외	0(0)	1(100)	0(0)	0(0)	1(100)
	무응답	0(0)	5(55.6)	4(44.5)	0(0)	9(100)

또한 아래 <표-Ⅱ-18>, <표-Ⅱ-19> 에서 보듯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39%만이 인정도서 사용을 권장 받았다고 했으며,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약 30% 이상은 인정도서가 있는지를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18>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경우 그 이유

인정도서로 개발된 통일교육 교과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인정도서사용을권장받았기때문에	인정도서사용이긍정적인학습효과를가져왔기때문에	인정도서를검토했을때,내용에문제가없었기때문에	교과서에반영된통일교육관련내용만으로는부족했기때문에	무응답	기타	계
전체		43(7.1)	24(4)	14(2.3)	26(4.3)	502(82.3)	1(0.2)	610(100)
성별	(1) 남자	18(8.4)	14(6.5)	10(4.7)	15(7)	158(73.2)	1(0.5)	216(100)
	(2) 여자	25(6.5)	10(2.6)	4(1.1)	11(2.9)	340(87.2)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21(5.5)	14(3.7)	5(1.4)	13(3.4)	330(86.2)	0(0)	383(100)
	부장교사	22(12.8)	6(3.5)	8(4.7)	9(5.3)	126(73.3)	1(0.6)	172(100)
	교감·교장	0(0)	1(7.7)	0(0)	1(7.7)	11(84.7)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0(0)	0(0)	0(0)	3(100)	0(0)	3(100)
	교수	0(0)	2(11.2)	1(5.6)	2(11.2)	13(72.3)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0(0)	1(9.1)	0(0)	1(9.1)	9(81.9)	0(0)	11(100)
	그 외	0(0)	0(0)	0(0)	0(0)	1(100)	0(0)	1(100)
	무응답	0(0)	0(0)	0(0)	0(0)	9(100)	0(0)	9(100)

<표-Ⅱ-19> 인정도서로서의 통일 교과서를 사용해 보지 못한 경우 그 이유

인정도서로 개발된 통일교육 교과서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인정도서가있는지몰랐기때문에	현행교육과정에서인정도서의사용이어렵기때문에	인정도서를검토했을때,내용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	교과서에반영된통일교육관련내용으로도충분했기때문에	무응답	기타	계
전체		236(38.7)	124(20.4)	17(2.8)	103(16.9)	120(19.7)	10(1.7)	610(100)
성별	남자	68(31.5)	44(20.4)	11(5.1)	38(17.6)	55(25.5)	0(0)	216(100)
	여자	168(43.1)	80(20.6)	6(1.6)	65(16.7)	61(15.7)	10(2.6)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175(45.7)	75(19.6)	11(2.9)	55(14.4)	61(16)	6(1.6)	383(100)
	부장교사	51(29.7)	37(21.6)	4(2.4)	36(21)	42(24.5)	2(1.2)	172(100)
	교감·교장	3(23.1)	2(15.4)	0(0)	6(46.2)	2(15.4)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1(33.4)	0(0)	1(33.4)	1(33.4)	0(0)	3(100)
	교수	5(27.8)	3(16.7)	1(5.6)	2(11.2)	7(38.9)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1(9.1)	4(36.4)	1(9.1)	2(18.2)	3(27.3)	0(0)	11(1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1(11.2)	1(11.2)	0(0)	1(11.2)	4(44.5)	2(22.3)	9(100)

2)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의 증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에 부응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에 있어 안보교육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아래 <표-Ⅱ-20>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약 84% 이상이 안보교육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추후 개발될 통일교육 교재 개발에 있어 안보교육의 비중이 상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Ⅱ-20> 통일교육 교과서 개발시 안보교육 내용의 정도에 대한 견해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등의 교재를 개발할 때 안보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분		통일교육: 안보교육= 0:10정도	통일교육: 안보교육= 3:7정도	통일교육: 안보교육= 5:5정도	통일교육: 안보교육= 7:3정도	통일교육: 안보교육= 10:0정도	무응답	기타
전체		5(0.9)	57(9.4)	263(43.2)	253(41.5)	10(1.7)	22(3.7)	0(0)
성별	남자	4(1.9)	13(6.1)	95(44)	96(44.5)	4(1.9)	4(1.9)	0(0)
	여자	1(0.3)	44(11.3)	168(43.1)	157(40.3)	6(1.6)	14(3.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직업별	교사	2(0.6)	31(8.1)	166(43.4)	158(41.3)	10(2.7)	16(4.2)	0(0)
	부장교사	2(1.2)	21(12.3)	76(44.2)	71(41.3)	0(0)	2(1.2)	0(0)
	교감·교장	0(0)	1(7.7)	6(46.2)	6(46.2)	0(0)	0(0)	0(0)
	교육행정·경영가	0(0)	1(33.4)	2(66.7)	0(0)	0(0)	0(0)	0(0)
	교수	1(5.6)	0(0)	7(38.9)	10(55.6)	0(0)	0(0)	0(0)
	연구원 및 전문가	0(0)	1(9.1)	5(45.5)	5(45.5)	0(0)	0(0)	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1(11.2)	1(11.2)	3(33.4)	0(0)	4(44.5)	0(0)

3) 타 교과와의 연계성 확보

타교과와의 연계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아래 <표-Ⅱ-21>에서 보듯이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관련된 질문에서 응답자의 약 51%가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등 교과교육 시간이 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타교과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이러한 교과와의 연계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표-Ⅱ-22>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이 독립교과로 수행되기 어렵다면 도덕과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약 57%를 차지하였다. 이는 타교과와의 연계성 고려에서 도덕과와의 연계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 II -21>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주로 어떤 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분		도덕과,국어과,사회과등교과교육시간에	재량활동시간또는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통해서	주로계기교과교육을통해서	훈화,자원인사초빙,특별교육프로그램등을통해서	무응답	기타	계
전체		311(51)	71(11.7)	181(29.7)	22(3.7)	22(3.7)	3(0.5)	610(100)
성별	남자	103(47.7)	31(14.4)	71(32.9)	6(2.8)	5(2.4)	0(0)	216(100)
	여자	208(53.4)	40(10.3)	110(28.3)	16(4.2)	13(3.4)	3(0.8)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193(50.4)	43(11.3)	120(31.4)	11(2.9)	15(4)	1(0.3)	383(100)
	부장교사	81(47.1)	25(14.6)	54(31.4)	8(4.7)	3(1.8)	1(0.6)	172(100)
	교감·교장	6(46.2)	1(7.7)	4(30.8)	1(7.7)	0(0)	1(7.7)	13(100)
	교육행정·경영가	1(33.4)	1(33.4)	0(0)	1(33.4)	0(0)	0(0)	3(100)
	교수	15(83.4)	1(5.6)	2(11.2)	0(0)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9(81.9)	0(0)	1(9.1)	1(9.1)	0(0)	0(0)	11(100)
	그 외	1(100)	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5(55.6)	0(0)	0(0)	0(0)	4(44.5)	0(0)	9(100)

<표 - II -22> 통일교육을 주로 담당해야 할 교과에 대한 견해

만약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독립된 교과 설정이 곤란하다면, 어느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도덕	국어	사회	무응답	기타	계
전체		350(57.4)	18(3)	194(31.9)	38(6.3)	10(1.7)	610(100)
성별	남자	132(61.2)	6(2.8)	58(26.9)	13(6.1)	7(3.3)	216(100)
	여자	218(55.9)	12(3.1)	136(34.9)	21(5.4)	3(0.8)	390(100)
	무응답	0(0)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206(53.8)	13(3.4)	132(34.5)	27(7.1)	5(1.4)	383(100)
	부장교사	107(62.3)	4(2.4)	52(30.3)	5(3)	4(2.4)	172(100)
	교감·교장	9(69.3)	1(7.7)	2(15.4)	1(7.7)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1(33.4)	0(0)	1(33.4)	0(0)	1(33.4)	3(100)
	교수	17(94.5)	0(0)	0(0)	1(5.6)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6(54.6)	0(0)	5(45.5)	0(0)	0(0)	11(100)
	그 외	1(1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3(33.4)	0(0)	2(22.3)	4(44.5)	0(0)	9(100)

4) ‘통일문제의 이해’ 부분의 교육내용 증대

교과서 내용은 ‘통일문제의 이해’의 비중이 높아지고, ‘북한 이해’의 비중은 축소되어야 한다. 아래 <표 - II -23>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에서 어떤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 환경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정책의 순으로 응

답되었다. 이에 더한다면,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에서 양적 균형과 더불어, 통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문제의 이해의 구성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표-Ⅱ-23> 통일교육 교과서 개발시 강조되어야 할 내용 영역에 대한 의견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등의 교재를 개발할 때 어떤 내용영역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통일문제 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 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무응답	기타	계
전체		269(44.1)	103(16.9)	114(18.7)	5(0.9)	92(15.1)	27(4.5)	0(0)	610(100)
성별	남자	86(39.9)	38(17.6)	48(22.3)	3(1.4)	33(15.3)	8(3.8)	0(0)	216(100)
	여자	183(47)	65(16.7)	66(17)	2(0.6)	59(15.2)	15(3.9)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176(46)	63(16.5)	63(16.5)	4(1.1)	59(15.5)	18(4.7)	0(0)	383(100)
	부장교사	73(42.5)	33(19.2)	37(21.6)	1(0.6)	25(14.6)	3(1.8)	0(0)	172(100)
	교감·교장	6(46.2)	2(15.4)	3(23.1)	0(0)	2(15.4)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0(0)	2(66.7)	0(0)	1(33.4)	0(0)	0(0)	3(100)
	교수	7(38.9)	3(16.7)	4(22.3)	0(0)	2(11.2)	2(11.2)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3(27.3)	2(18.2)	5(45.5)	0(0)	1(9.1)	0(0)	0(0)	11(100)
	그 외	0(0)	0(0)	0(0)	0(0)	1(100)	0(0)	0(0)	1(100)
	무응답	4(44.5)	0(0)	0(0)	0(0)	1(11.2)	4(44.5)	0(0)	9(100)

<표-Ⅱ-24> 한 학기에 통일교육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시간량에 대한 견해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한 학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학기당 30시간 내외	학기당 15 시간내외	학기당 7시 간내외	학기당 3시 간내외	학기당 1시 간내외	무응답	기타	계
전체		33(5.5)	111(18.2)	252(41.4)	165(27.1)	25(4.1)	24(4)	0(0)	610(100)
성별	남자	24(11.2)	47(21.8)	79(36.6)	53(24.6)	7(3.3)	6(2.8)	0(0)	216(100)
	여자	9(2.4)	64(16.5)	173(44.4)	112(28.8)	18(4.7)	14(3.6)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16(4.2)	67(17.5)	167(43.7)	102(26.7)	15(4)	16(4.2)	0(0)	383(100)
	부장교사	11(6.4)	27(15.7)	71(41.3)	52(30.3)	8(4.7)	3(1.8)	0(0)	172(100)
	교감· 교장	1(7.7)	1(7.7)	6(46.2)	4(30.8)	1(7.7)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1(33.4)	1(33.4)	0(0)	1(33.4)	0(0)	0(0)	0(0)	3(100)
	교수	4(22.3)	9(50)	5(27.8)	0(0)	0(0)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0(0)	5(45.5)	3(27.3)	3(27.3)	0(0)	0(0)	0(0)	11(100)
	그 외	0(0)	0(0)	0(0)	1(100)	0(0)	0(0)	0(0)	1(100)
	무응답	0(0)	1(11.2)	0(0)	2(22.3)	1(11.2)	5(55.6)	0(0)	9(100)

5) 적절한 학습량의 확보

학교 현장의 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한 학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한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위 <표-Ⅱ-24>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약 41%가 7시간 내외라고 답했고, 약 27%는 3시간 내외라고 답했다. 이러한 반응은 적절한 학습량 설정에 참조할 수 있다.

나. 통일 교과서 편찬에서의 고려점 및 심사 기준(안)

이상의 인정도서 검사기준에 따른 ‘통일 교과서’ 분석 및 설문을 참조하여, 추후 통일교과서의 편찬 및 심사 기준에서 고려할 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에 부응하는 교과서
- 통일교육 지침서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과서
- 통일 및 안보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는 교과서
- 통일 및 안보에 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교과서
-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통일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교과서
- 가정 및 사회와 연계 학습을 고려하는 교과서
- 타교과와의 연계성이 잘 반영된 교과서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의 선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통일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 학생의 통일 및 안보에 관한 인지, 정의, 행동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소재로 적절히 활용한다.
- 교과서 내용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중 특정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구성한다.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끝으로, 교과서 내용의 조직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학습 내용의 배열과 연계성을 고려하며 내용의 중복을 피하도록 조직한다.
- 내용은 인지, 정의, 행동을 통합적 구성하되, 단일명과 내용이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 제재와 소재, 사진, 자료 등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경험 수준을 고려하여, 관심과 흥미, 지식의 탐구 욕구 등에 부응하도록 조직한다. 특히, 북한의 선전용 자료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별 가능하도록 표현한다.
- 제재와 소재는 학생 스스로 통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지, 정의, 행동을 신장하도록 조직한다.
- 시사성 있는 자료를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이상의 내용에 더하여, 통일 교과서 심사 기준안을 예시하면 아래 <표-Ⅱ-25>와 같다.

<표-Ⅱ-25> 통일교육 교과서 심사기준안 예시

심사 영역	심사 항목
I. 통일교육지침서의 준수	1. 통일교육지침서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2. 통일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해당 학년 특성에 적절하고,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이 없도록 전후 학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는가?
	3. 학습량은 적정하며,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는가?
	4.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인용 자료 등은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가?
	5. 선전용 자료를 학생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가?
	6. 용어나 개념의 의미가 명확하며,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
	7. 교육과정 상의 타교과의 통일교육 내용과의 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III. 창의성	8.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가 창의적이며,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사고력과 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재미있게 구성하였는가?
	9.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IV.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0.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정확하며, 그 의미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는가?
	11. 통일 및 안보에 관한 관점이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기술하였는가?
V. 교수·학습 방법	12. 통일교육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가?
	13. 통일교육지침서의 학교급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는가?

다. 통일교육 교과서의 개선 방안

통일교육지침서의 요청과 인정도서 심사기준에 근거한 ‘통일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서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균형 있는 단원 구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서는 북한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의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 포함된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역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일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에서는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단원 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에 포함된 특정 주제를 학년별로 다루거나, 혹은 내용체계에 따라 단원 구성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원명을 함당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서 단원명의 의미와 이에 수반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단원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남북한이나 북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원명을 남한에 해당하는 내용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북한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도록 단원명을 진술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원명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사용을 가능한 줄이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년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 선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북한관련 내용을 가능한 제한 없이 제시하고 있다. 중학생을 '통일 교과서'의 내용이 초등학교를 위한 '통일 교과서'와 차별 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학년의 수준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어렵다면, 실제 사실이 판단의 과정에서 오해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북한의 모범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단의 과정에서 북한에서 어린이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에서는 해당 학년의 종합적 이해 수준을 고려한 내용을 선정 및 그 진술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판단의 과정에서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는 선전내용을 가능한 줄이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년 수준에 합당한 표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 교과서에서는 북한 관련 자료들이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시된 자료 중에는 북한이 선전을 위해 제시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학년 수준에 따라서는 선전용 자료를 북한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할 우려도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에서는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와 일반화 곤란한 자료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관련 자료 중 북한의 선전용 자료인 경우 이를 명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율적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통일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저자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의 관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이념, 가치, 집단에 따라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만약 집필자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편향된 관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관점이 보편적인 관점으로 전달될 우려도 있다.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에서는 집필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통일 교과서'를 통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토론과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추후 개발될 '통일 교과서'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침서 및 학년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지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포괄성과 관련 교과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학년별 종합적 이해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과 표현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선전용 사실이 일반적 사실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저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대화와 토론 및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적 체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Ⅲ. 북남미 지역 도덕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1. 베네수엘라 등 남미 지역

가. 남미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 도덕교육의 위상과 특징

베네수엘라 및 남미에서 도덕교육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그릇된 풍조, 매스미디어의 악영향, 불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범람 등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도덕·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의 도덕교육은 볼머(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여사 및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남미 등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도덕 및 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가정연합회(AFF: Alliance for the Family) 및 남미가정연합회(ALAFA: Alianza Latinoamericana para la Familia)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덕교육을 위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Alive to the World*(이하 AW로 줄여서 표기함)이다²⁴⁾. 이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 삶의 근본을 잃고 물질주의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그리고 쾌락주의적인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나날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터하여 출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학생 및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를 배우고 바람직한 덕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 적절한 가치관 교육과 덕·인격교육을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주창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치와 덕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평화롭게 살면서 번영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가치와 덕성들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라나는 세대들 속에 가르치고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AW는 세계가정연합회와 남미가정연합회 및 볼머 여사 등이 만들어 출판,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강력한 인격발달 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12권으로 되어 있으며 수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찰리 Charlie와 그의 사촌인 앨리스 Alice 및 그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겪게 되는 전형적인 삶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24) *Alive to the World*는 총 12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가 12책 시리즈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활용한 가치교육·인격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간단히 AW로 줄여서 널리 쓰여지고 있고 또 이 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도 간단히 AW로 줄여서 표기하고자 한다.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our-program> 참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택과 그것에 따른 결과들을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 나이 수준에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겪는 가운데 그 속에서 가정, 우정, 동료집단의 압력, 연애, 성, 사랑, 결혼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한편 충실성, 팀워크(단합), 개인적 책임, 소유에 대한 존중 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곱씹어 보고 깨닫게 된다.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게 된다. 말하자면 그러한 가치들은 어떤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그것들을 통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며 진보하는 세상이 가능하게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남미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²⁵⁾.

이 프로그램의 주창자들은 글랜든(Mary Ann Glendon)이 지적한 바 어떤 것들은 너무나 좋지 못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해, 어떤 것들은 너무나 바람직하여 누구도 그것에 반대하는 이가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견해를 들면서²⁶⁾ 바로 그렇게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컨대, 정직, 개인적 책임, 충실성(loyalty), 팀워크, 낙관주의, 타인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것들은 이 시대에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로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성 세대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받아들여지고 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좋고 훌륭한 가치들을 가르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목표

AW 교육프로그램 창시자들은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가치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를 알고 움직이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과 가족 및 공동체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 길로 나서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만든 세계가정연합회와 남미가족연합회 및 크리스틴 볼머 여사 등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편적인 가치와 기능 및 습관들을 이해하고 감사히 수용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안내하고 그럼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정적인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²⁷⁾.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기능, 관용, 민주주의, 에이즈 예방 그리고 금욕에 관한 주제들과 기능들(skills)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1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AW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바람직한 기능들 및 습관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 접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책임있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⁸⁾

25)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our-program>

26) Mary Ann Glendon, A World Made New(New York: Random House, 2001), p. 222

27)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about-us>

3) 교육 내용

AW는 그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두 가지 관점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학습과정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발달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AW는 인간 존재가 전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됨을 중시한다. 즉, 지성(intelligence)을 통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며, 이후 마침내 그것을 자기의 행동 속에 통합하여 그 가치에 따른 삶을 실천해 가게 됨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AW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학습에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첫째, 앎(Knowing)이다. 이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받아들임(Accepting)이다. 이는 감정과 의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행함(Doing)이다. 이는 배운 것을 우리들의 행동 속에 통합시키고 적용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다²⁸⁾.

다음,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심리적 존재이며 동시에 지적·정신적·영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여러 측면을 지닌 인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로 AW는 2개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인간 행동의 4가지 차원에서 가치교육을 실행하고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 때 2단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구성되며 4개 가치교육 영역은 생물학적 행동 수준, 심리학적 행동 수준, 지적·정신적·영적 행동 수준, 그리고 사회적 행동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 생물학적 행동 수준: 정체성, 겸손, 건강, 자기통제 및 그 기능들
- 심리학적 행동 수준: 심리적·성적 인성 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자기 이해, 자기 존중, 결단력, 좋은 습관들
- 지적·정신적·영적 행동 수준: 지적 성숙(객관성과 일반적 교양), 도덕적 성숙(덕과 행복에의 개방성, 자유 정신의 성장, 신중함과 사리분별, 생명 존중), 영적 측면에 대한 열린 자세
- 사회적 행동 수준: 가족 관계, 친구, 공동체, 그리고 결혼에서의 성숙함.

이러한 교육과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6세-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 및 인격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구조 및 내용은 아래 <표-III-1>과 같다³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용상의 두드러진 특징들로서는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를

28)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the-curriculum>

29) Carlos Beltramo Álvarez and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We are a Team*(Year 4),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9), p. 12.

30) 위의 책 및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the-curriculum>

해결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학생들 개개인 및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면서 점차 지역공동체와 사회로 확대 적용해 가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친구와 우정, 남녀 간의 사랑과 성윤리, 결혼과 가정, 책임있는 부모되기 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덕과 교육에서 중시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정보윤리, 환경윤리, 다문화윤리, 국가관과 국가윤리, 공정한 사회 건설 등과 같은 측면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계가정연합회와 남미가정연합회 및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불어 여사 및 그 관련 학자들에 의해 주로 개발되어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표-Ⅲ-1> AW의 전체 구성과 주요 내용

학교급	교재	목표	주요 내용
초등학교	제1권	자기 이해	· 학생의 자기 자신 및 자기의 몸과 감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 가족 인식 및 건강과 위생, 건전한 자기 관리 등
	제2권	건강과 행복	· 가족과 학교에서의 자기의 위치와 역할, 자기 감정의 인식과 다스림 · 양심에의 복종과 예절, 황금률, 가족 구성원의 증대에 따른 바른 행동 등
	제3권	스포츠 정신과 인격 발달	· 스포츠를 통한 덕성의 증진과 규칙의 준수 · 상보성과 관용, 리더쉽, 자기 개선, 팀정신과 연대성 등
	제4권	나눔과 배려와 공유	· 나눔과 공유를 통한 사랑 및 조화,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 · 개인의 공헌의 중요성과 서로 노력하는 환경 속에서 함께 잘 지내기 등
	제5권	다양성과 상보성	· 인간 및 그 재능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양성과 상보성의 중요성 · 공통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예의바름과, 단합, 연대성에 대한 강조 등
	제6권	올바른 친구와 건전한 우정	· 건전한 우정과 친구 사이의 갈등 및 그 해결, 동료집단의 그릇된 압력에의 대처 · 가정 및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우정, 사춘기의 변화에의 대처 등
중학교	제7권	변화에의 적응과 개척	· 자유와 책임의 관계, 정체성 문제, 가정에 속함과 독립성의 증진 · 자신 및 동료들의 성적 성장에 대한 존중과 책임,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위생 등
	제8권	십대들의 독립성과 개성 및 건전한 삶	· 십대들의 독립성 및 개성에 대한 열망과 소속되고 싶은 욕구의 조화, 성에 관한 올바른 배움 · 인간의 생물학적·심리적·영적 측면, 몸의 중요성과 겸손, 순결, 금욕의 가치, 에이즈와 다른 성적 질병 이해 등
	제9권	십대들의 문제와 어려움 극복	· 현대 사회에서의 십대들의 문제와 어려움 및 그 극복을 위한 가치와 덕성들 · 십대 임신, 포르노, 성 관련 질환 및 데이트를 다루는 여러 방법들 등
고등학교	제10권	올바른 사랑과 미래의 포부	· 인간의 정신적·성적 발달,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매력과 영속적·헌신적 사랑의 차이 · 성의 여러 측면, 혼전 데이트 및 성관계의 위험성, 에이즈, 의사결정의 기술들 등

	제 11권	미래에 대한 준비	· 행복하고 균형있는 삶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태도들, 남녀 사랑의 올바른 행동과 복합적 관계 및 불가피한 결별 · 차별·동성애·통합성·부패의 문제들, 결혼 전의 금욕, 임신과 출산의 문제 등
	제 12권	책임있는 결정	· 진실되고 영속적인 사랑의 의미와 가치, 미래의 진로 선택을 위한 분석과 의사결정의 기술들 · 책임 있는 부모됨, 인권과 여성의 권리, 일과 가정의 균형, 성에 있어서의 상보성 등

4) 방법 및 평가

AW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지도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방법상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AW는 이를 통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전달하고 그것들이 논리적이고 일관된 전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급에서의 토론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토론을 이끌면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이론 및 자료 그리고 교사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³¹⁾.

그 외 내러티브 방법, 문답, 순위 매기기, 모델링, 집단활동 등 다양한 방법과 활동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ICT 활용과 같은 방법들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한편,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해(Knowing)와 수용(Accepting) 및 행동(Doing)이라는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 도덕과 교육과 관점 및 방법을 대체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의 각 장별 평가 안내 부분을 보면, 대체로 이해 측면에 치우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남미 도덕 교과서 분석

1) 교과서 정책, 명칭, 보조 교과서 등

교과서 정책은 대체로 인정 제도에 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칠레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 AW와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단순한 인정 교과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선도하고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Alive to the World*는 총 12권의 교과서로 되어 있다. 이 교과서들은 6-18세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학년(연령대)에 따라 책의 제목, 명칭이 다르다. 이를 표로 정리해 제시해 보

31)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our-projects/59>

면 아래 <표-Ⅲ-2>와 같다. 원래 이 교과서들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어로 발간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3권부터 제7권까지의 5책이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학년당 교과서는 1권이며 학기 구분은 없다. 1권은 1년을 35주로 계산하여 주당 1개 장씩 총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개 장에 1-2시간씩 투입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원본은 남미의 스페인어로 개발되었는데, 영국에서는 Gracewing 출판사에 의해 2008-2009년에 영문으로 번역, 간행되었다.

<표-Ⅲ-2> AW 교육프로그램의 교재 구성

학교급	교과서 명칭(쪽수)		대상(연령)	비고
초등학교	제1권	나 자신에 대한 앎(Getting to Know Myself)	초1(6-7세)	영문판 미발간
	제2권	행복과 건강(Happy and Healthy)	초2(7-8세)	"
	제3권	우리는 한 팀(We Are a Team)(192)	초3(8-9세)	영문판 발간
	제4권	배려와 공유(Caring and Sharing)(168)	초4(9-10세)	"
	제5권	다름과 보완(Different and Complementary)(183)	초5(10-11세)	"
	제6권	친구들!(Friends!)(169)	초6(11-12세)	"
중학교	제7권	변화와 도전(Changes and Challenges)(235)	중1(12-13세)	"
	제8권	개성에 더하여(Personality Plus)	중2(13-14세)	영문판 미발간
	제9권	누구와, 어떻게, 언제?(Who, How, When?)	중3(14-15세)	"
고등학교	제10권	감정과 포부?(Feelings and Ambitions)	고1(15-16세)	"
	제11권	미래는 지금 시작된다(The Future Begins Now)	고2(16-17세)	"
	제12권	주요 결정들(Major Decisions)	고3(17-18세)	"

이 AW 교육프로그램에서 보조 교과서는 없다. 대신에 보조자료의 기능을 하는 활동자료들이 있는데 제3권 『우리는 한 팀(We are a Team)』의 경우에는 각 장의 말미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제4권부터 제7권까지는 활동자료들이 각 교과서의 가장 뒷부분에 부록 형태로 제공되어 있다.

2) 외형, 표지 등

크기는 전체적으로 190mm × 250mm의 크기로서 우리의 46배판 정도에 해당된다. 색도는 4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쪽수는 초등학교용은 대체로 160-190쪽 정도이며 중학교용에 가면 크게 증대되어 약

240쪽 정도에 이른다. 표지 구성, 지질, 삽화/사진 구성 등을 보면 앞표지는 상단 중앙에 책명을 넣었으며 책명 밑에는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상징하는 삽화를 배치하고 있다. 삽화는 모든 책들에 공통으로 남녀 아이들이 2-3명 등장하는데, 그 책명에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책명이『배려와 공유』인 경우 남녀 2명의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물건을 나르는 모습, 책명이『친구들』인 경우 남녀 3명의 아이들이 서로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 등). 앞표지 상단 우측에는 이 책의 단계/수준 및 대상 학생을 나타내는 'Year 4' 'Year 5'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좌측에 이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인 Alive to the World를 배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앞표지는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속표지의 상단에는 이 교육프로그램 명칭인 Alive to the World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단계 및 대상 학생 수준을 나타내는 표시(Year 4 등)가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책의 제목(Friends!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자 두 사람의 이름(예: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과 Carlos Beltramo Alvarez)과 맨 밑에 출판사명(Gracewing)이 적혀 있다. 그리고 목차 바로 앞 쪽에는 저자 두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출판지, 출판 년도, 출판사 등의 서지 사항들이 나타나 있다.

뒷표지의 경우 상단에서 중단까지에 걸쳐 그 교과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실려 있는데 주로 그 교과서를 통해 무엇을 핵심으로 배우게 되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5권 『다름과 보완』의 경우 주인공인 찰리와 엘리스 및 그 친구들이 이 책에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탐구하게 됨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름과 보완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 및 각종의 공동체가 연대와 결속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타인들과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 책의 요점 소개 밑 중하단에 Alive to the World라는 이 가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적인 소개를 하고 이어 가장 하단에 출판사명을 명기하고 있다.

목차 제시 방식을 보면, 학년당 책별로 몇 개의 단원(Unit)이 있고 각 단원마다 몇 개의 장(Chapter)을 두고 있는데 장 수는 모든 책이 공히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매주 한 개 장씩 가르쳐 1년에 총 35주를 지도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고 하겠다.

3) 학년별 교과서의 목표와 주요 내용

가) 제3권 『우리는 한 팀』(We Are a Team)

○ 기본 관점과 목표: 제3권 『우리는 한 팀』은 초등학교 3학년(8-9세)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이다. 이 책은 인간은 누구나 경기와 단체 운동을 추구하는 타고난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기와 운동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바람직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교과서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듯이, 소년 소녀들은 스포츠를 통해 기본적인 것도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경기와 운동을 통해 얻는 많은

중요한 배움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동과 경기를 하면서 학생들은 정직, 정해진 규칙의 준수,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서의 책임 완수, 권위에 대한 존중, 자기 극복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함을 배우게 된다. 또한 서로 같이 느끼고 호흡하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또는 어리석은 패배자인지, 품격있는 또는 저급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관대함과 현실주의, 개선과 진보를 향한 열망 및 팀정신(team spirit)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한 깨닫게 된다.

○ **주요 내용**: 제3권은 7개 단원 3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3권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배우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의식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학생들 개인의 일상 생활과 가정 및 학교 생활에 그리고 보다 넓게는 사회 및 국가생활과 자연 세계에까지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배우도록 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3권의 주요 내용을 단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3> AW의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주요 지도내용

단원	주요 내용	비고
I. 스포츠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게임과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 스포츠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알기: 규칙, 팀 내에서의 위치, 리더의 역할, 훈련과 연습의 필요성 등 · 즐거움을 얻는 동시에 몸과 인격 모두의 성장을 가능케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가치를 인식하기 · 스포츠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는 법을 익히기 	· 제1장-제8장
II. 승리하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내에서는 개개 구성원들 모두가 중요함을 배우기 · 팀원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세 익히기 ·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점수 얻는 것보다는 노력과 좋은 의지임을 이해하기 · 강건한 인격의 힘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깨닫기 	제9장-제14장
III. 나의 가족은 위대한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하나의 강하고 충실하며 효율적인 팀으로 보기 · 가족 내에 규칙이 존재하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이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됨을 인식하기 · 가족 내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알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위해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기 	제15장-제18장
IV. 나의 학교는 또 다른 위대한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에서 팀정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 학교 공동체도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 학급 내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잘 이행하고 학교 일에 적극 참여하기 	제19장-제22장
V. 나의 공동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칙과 선출된 지도자를 가진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알기 	제23장-제2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하기 · 지역 공동체의 법은 사회적 조직화와 안전 및 일반적 복지에 공헌한다는 점을 알기 	
VI.자연 속에 존재하는 팀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하나의 위대한 상호의존적인 유기체로 보기 · 유전적 속성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발견하기 	제 28장 - 제 32장
VII.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기(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 학생들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지니기 	제 33장 - 제 35장

나) 제4권 『배려와 공유』(Caring and Sharing)

○ **기본 관점과 목표:** 제4권 『배려와 공유』는 초등학교 4학년(9-10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제4권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인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소유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찰리와 엘리스는 가족 내에서 서로 돕고 시간과 공간 및 재능과 삶 그 자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 및 지역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는 관용, 타인 및 그 소유물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사와 미안함을 주고 받는 일 등이 필요함을 배우게 된다.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라면서 단순히 ‘읽는 법 익히기’를 넘어 ‘배우기 위한 읽기’로 급격히 지적 도약을 하는 동시에 정서적, 사회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시기가 있음을 고려하는 가운데 개발된 것이다. 특히 『배려와 공유』라는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4권은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²⁾. 즉, 공동체 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성숙과 책임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 일, 놀이, 자원, 공간, 도전,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지적, 신체적, 정서적, 예술적 재능들의 공유, 즉 한마디로 말해 ‘삶 그 자체의 공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 **주요 내용:** 제4권 역시 7개 단원 3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서 주인공인 찰리와 그 사촌인 엘리스는 그들의 아버지들이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됨에 따라 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옛 친구들과 헤어져서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유와 협동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배우고, 인간 공동체 생활을 가능케 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어떤 필수적인 기술과 태도들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가족과 친구, 급우, 교사들 및 이웃들과 기쁨과 좌절을 공유하면서 건전한 관계 맺음을 영위해 나가는 능력과 자질들을 기르고자 하는 내용들로도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 지도내용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32) June Saunders and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Caring and Sharing*(Year5),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8), p. 7.

<표 -Ⅲ-4> AW의 제4권 『배려와 공유』의 주요 지도내용

단원	주요 내용	비고
I.공동체 속에서의 삶	· 가정과 이웃을 서로 공유하고 돕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파악하기	· 제1장-제6장
II.공유로서의 공동체	·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로 주고 받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가족을 넘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발달시키기	제7장-제10장
III.나의 인정	·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관리해 가기 · 친구와 지인들을 평가할 때는 겉모습 만이 아니라 그 속까지 바라보기 · 개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제11장-제16장
IV.생각하기와 행동하기	·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알기 ·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기 ·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기	제17장-제22장
V.가치 있는 것들의 공유	·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법 익히기 · 감사하는 자세와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는 능력 기르기 · 웃음과 우정 및 창조성의 가치를 인식하기 · 사려 깊은 자세로 자신의 역할 모델과 인기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능력기르기	제23장-제29장
VI.스포츠와 생활	· 인내, 페어플레이, 그리고 청결함의 가치를 알기	제30장-제32장
VII.공유하는 삶	· 인간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기 · 자연적 소질과 양육 그리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 · 사춘기와 미래 어른이 되는 시기에 대해 준비하기	제33장-제35장

다) 제5권 『다름과 보완』(Different and Complementary)

○ 기본 관점과 목표: 제5권 『다름과 보완』은 초등학교 5학년(10-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서 이 시기는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크게 일어나는 때로서 이에 따라 보다 큰 세상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교과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을 통해 함께 발전해 가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³³⁾. 그리고 다양성과 동일성, 차이와 보완, 인간 존엄성 및 권리에 있어서의 동등성과 상호 존중 등이 이 책에서 중요하게 추구되는 가치와 덕성들이 된다.

33)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and June Saunders, *Different and Complementary*(Year 6),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p. 7.

또한, 십대 이전 또는 십대 초기의 학생들은 같은 성의 아이들을 친구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차 남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와 함께 그 상보성을 또한 알아 가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상대의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남녀가 서로 보완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함께 일해 가야 함을 바르게 깨달도록 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 위대한 팀을 만들 수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앎과 지식을 얻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존중하는 첫걸음이 되는 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 서로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남성과 여성 및 부부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남녀 사이의 동등함과 차이를 탐구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들의 신체가 발달해 감에 따라 자기 단련과 운동의 중요성 및 기능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능력을 발달시켜 가게 되는 바, 이에 따라 결혼과 임신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접하고 자신들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숙고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 **주요 내용:** 앞의 제3권과 제4권이 공히 7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 제5권은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장은 다른 교과서들과 같이 3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 『다름과 보완』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통일성에 대한 인식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다양성의 풍부한 보고가 되며 서로의 차이를 상호 보완해 줌으로써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찰리와 엘리스 역시 친구들을 갈망하고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끔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과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인지를 분별하는 양심을 발달시키는 일 등과 관련된 지도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상호 보완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 책의 주요 지도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5> AW의 제5권 『다름과 보완』의 주요 지도내용

단원	주요 내용	비고
I. 다양성의 풍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풍부한 자원으로 인식하기 · 비록 그 사람의 관습, 문화 등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고 동등한 존재로 대하기 · 다양성 밑에 토대를 이루고 있는 통일성의 중요성 인식하기 	· 제1장-제4장
II. 타인에 대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관대하기 ·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집단들에 대해 사려 깊게 대하기 	제5장-제8장
III. 권위와 지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와 지도력은 힘든 노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기 · 권위와 지도력은 그것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수련과 겸손함을 필요로 함을 터득하기 	제9장-제13장

IV.참과 거짓	· 진, 선, 미의 가치로움을 알기 · 진, 선, 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기	제14장-제17장
V.기본적 다양성: 남과 여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기	제18장-제21장
VI.역사 속의 위대한 남성들과 여성들	· 인간 삶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기 ·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각각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기	제22장-제26장
VII.결혼과 부부	· 결혼과 부부됨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기 · 인간 존재와 그 성적 특성들을 전체적인 관점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제27장-제30장
VIII.자유의 획득	· 신체적 단련을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 · 성장과 통합적인 발달의 가치를 인식하기	제31장-35장

라) 제6권 『친구들!』(Friends!)

○ **기본 관점과 목표:** 제6권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11-12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이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아동의 시절을 보내왔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인식하면서 나름대로의 개성있는 인성을 발달시켜 보려는 욕구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친구 관계 및 우정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 교과서의 저자들은 하텡(William W. Hartup)이 말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중시하고 있다.

“동료 관계는 한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은 물론 성인으로서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도 실질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 개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 성적이나 교실에서의 행동들을 통해서보다는 그가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 지내는지 여부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어린 시절 동료들 문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아이는 차후 진정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³⁴⁾

이렇듯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있어 친구 관계와 우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바, 이 교과서는 바로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그러한 측면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기 위해 구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과서에서는 동성은 물론 이성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건전한 친구 관계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우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데 필요한 행위 기술들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가정은 물론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삶에 적절히 적용해 가는 안목과 능력을 또한 기르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들고 함께 하면서 바람직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일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34)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and June Saunders, *Friends!(Year 7)*,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9), p. 7.

친구를 잘 분별하여 올바른 친구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일, 집단 역할 및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동료들의 압력과 흡연, 약물오남용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대처하는 법 등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름하여 ‘진정한 우정의 선물’을 가져다 주려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 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에 토대를 놓아주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데 가장 최선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 **주요 내용:** 제6권 『친구들!』은 앞의 제5권과 달리 단원이 6개이다. 그러나 장은 변함없이 총 3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과서는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탐구 및 학습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배울 거리들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교과서에서는 그 속에 등장하는 모험과 상호작용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 시기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에 대해 다루고자 하고 있다. 예컨대 이전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일, 존중하여 사귀는 친구와 단순히 호기심으로 사귀는 친구의 문제, 여러 친구들을 사귀으로써 오게 되는 강점과 약점, 친구 사이의 공유와 질투,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해결, 친구 관계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세계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 보는 일, 건전한 친구 관계와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일, 건전하지 못한 동료집단의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문제, 친구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적절한 때를 아는 일, 사춘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초기 변화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일 등과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듯 이 교과서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겪는 친구 집단 및 그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자신들이 익숙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고 탐구하면서 그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해 보는 가운데 건전한 도덕성과 인성을 발달시키도록 돕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

<표-Ⅲ-6> AW의 제6권 『친구들!』의 주요 지도내용

단원	주요 내용	비고
I. 친구 만들기	· 우정이 인격의 힘과 덕성의 토대가 됨을 이해하기 · 진정한 우정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덕들을 기르기	· 제1장-제8장
II. 모든 곳에 존재하는 우정	· 이웃, 지역사회,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좋은 관계는 우정과 비슷하며 바람직한 덕성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알기 · 친구 및 가족들과 밀접하고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기	제9장-제16장
III. 소속되기	· 무엇인가 소속되고 싶은 일과 관련하여 자연적 욕구와 건전한 욕구를 분별하기 · 부정적인 동료집단의 압력에 사려 깊게 대응하면서 적절히 친구 관계에 참여하기	제17장-제21장
IV. 나의 친구와 나의 개성	· 자신의 통합성을 발달시키고 부정적인 친구들의 압력에 깨끗하게 대응하기 · 자기의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기	제22장-제26장

V.나의 세계를 확대하기	· 앞으로 다가올 사춘기의 특성에 대해 알고 준비하기 · 사춘기 시기에는 우정과 친구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게 됨을 이해하기	제27장-제30장
VI.자기 일을 바르게 하기	· 위생, 운동, 식사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파괴적인 행동이나 유해 물질을 절제하기 ·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시간을 관리해 가기	제31장-제35장

마) 제7권 『변화와 도전』(Changes and Challenges)

○ 기본 관점과 목표: 제7권 『변화와 도전』은 중학교 1학년(12-13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교과서는 본격적인 청소년기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말하자면 십대(teenager) 바로 이전의 학생들의 위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안된 것이다. 이 시기는 일종의 전이기로써 청소년기를 맞아 새로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동 시절에 익숙했던 것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새로운 성숙을 향해 도약해 가는 문턱에 서서 아동기 때의 안전하고 익숙했던 행위 양식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성인을 향한 지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때를 가리켜 인간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시기(pivotal time)라고 부르는 바 이 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자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책 전체에 걸쳐 찰리와 엘리스 및 이들 주인공들과 관련되는 여러 인물들은 다양한 모험과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며 학습해 간다. 예컨대 자유와 책임, 가족에 소속되는 것과 자라나면서 그것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의 필요한 기능들을 발달시키면서 아직 덜 발달한 친구들이 배우도록 돕는 것, 한편으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다수 속에 소속되고 싶어하면서도 다른 한편 자기만의 정체감과 가치들을 견지하고 발달시키려는 것 등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이 책은 이 시기 학생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호르몬 변화상의 효과 즉 신체와 사고 및 반응 양식 상의 변동 등을 또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교과서를 통해 자기는 물론 주위 친구들의 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존중과 책임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과 위생, 단정함 몸차림, 사고의 순수성, 감정의 변화, 좌절 및 이 시기의 모호함 등등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터득해 가도록 돕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과서에는 주인공인 찰리와 엘리스 및 그 외 친구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경우들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탐구하고 깨우쳐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드문드문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읽기자료들이 또한 제공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과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인물들의 모습에 대해 검토해 보고 배우게 된다.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부해 보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즐겁게 탐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⁵⁾.

35) June Saunders and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Changes and Challenges*(Year 8),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p. 7.

○ **주요 내용:** 제7권 『변화와 도전』은 단원이 6개이며 특히 여타 교과서들과 달리 장이 34장까지만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과 선택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 학생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관심사들을 다루고 그들이 자주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의 이야기는 찰리와 엘리스가 방과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부모 의존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맛보는 한편 점차 자유가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커지게 됨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주제 및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자기 및 타인 존중, 동료 집단의 압력에의 대처와 자기 가치의 견지, 사춘기에 들어오면서 맞게 되는 가족 내에서의 마찰과 갈등 및 그 원만한 해결을 통한 적응과 주어진 의무의 이행, 다양한 친구 및 이성 친구와의 건전한 관계 맺기, 사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특징들 및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가는 법,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과 건전한 생활 방식 등등이 그 예가 된다.

<표-Ⅲ-7> AW의 제7권 『변화와 도전』의 주요 지도내용

단원	주요 내용	비고
I. 진정한 나의 자유	· 점점 더 자유가 많아짐에 따른 책임 이행의 중요성 알기 · 책임 증대에 따른 규율과 자기 통제의 능력 기르기	· 제1장-제5장
II. 나의 인정	·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개인적 존엄성과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기 · 동료들의 압력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제6장-제11장
III.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	· 첫 번째이면서 신뢰로 맺어진 가족을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가족적 관계의 집단에 대해 알기 · 갈등해결에 있어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권위의 적절한 행사, 연장자에 대한 존중에 대해 익히기	제12장-제14장
IV. 관계들	· 청소년이 되면서 가족 이외의 친구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함을 알기 · 충실한 우정의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훗날의 영속적인 관계 특히 결혼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 서로 다른 성과 바람직한 관계 맺는 법을 탐구하기 · 가족 내에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면서 미래의 직업적 진로에 대해 숙고해 보기	제15장-제22장
V.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 사춘기	·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변화와 특징들에 대해 이해하기 ·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겪는 문제 즉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들에 대해 탐구하기 ·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 익히기 ·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인내하기, 감정의 변화를 잘 다스리기, 귀 기울여 듣고 명료하게 의사소통하기, 점점 중요해지는 사생활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기 등	제23장-제30장

VI.나의 건강	·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고유한 책임으로 인식하기(지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 · 음란물, 자위, 흡연, 약물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 운동, 위생, 소식, 충분한 수면 등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실천하기	제 31장 - 제 34장
----------	---	---------------

4) 편집, 디자인, 삽화 등

크기는 190mm × 250mm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는데 대체로 우리의 46배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백은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 상하좌우 여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편집해 놓고 있다. 따라서 전체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쪽수들이 약간 답답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를 꽉 채우는만큼 필요한 학습내용을 충분히 담으면서 지면의 구석구석마다 특히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 삽화, 도표 등을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4권부터 제7권까지는 여백이 제3권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즉, 좌우 여백이 2.3-2.5mm, 상하 여백이 2.5-4.0mm 정도 주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단촐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면 이용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지면의 상하좌우에 일정 정도의 여백을 두고 편집 구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 전체를 충분히 사용하여 이야기와 삽화 및 보충심화 자료들을 배치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요소 및 정보들을 교과서 상에 최대한 담아내는 동시에 지면 편집 구성에 있어 여유와 시원함까지도 확보하는 잇점을 누리고 있다.

글자 크기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약 12.5 포인트 정도로 보이고 초등 고학년의 경우는 약 11.5 포인트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약 10.5 포인트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 줄간격은 초등부터 중학교 교과서까지 대체로 180-1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글자체는 3-4가지 정도를 사용하면서 편집상의 변화와 다양성 속에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질은 매우 고급지를 써서 아주 오랫동안 보고 물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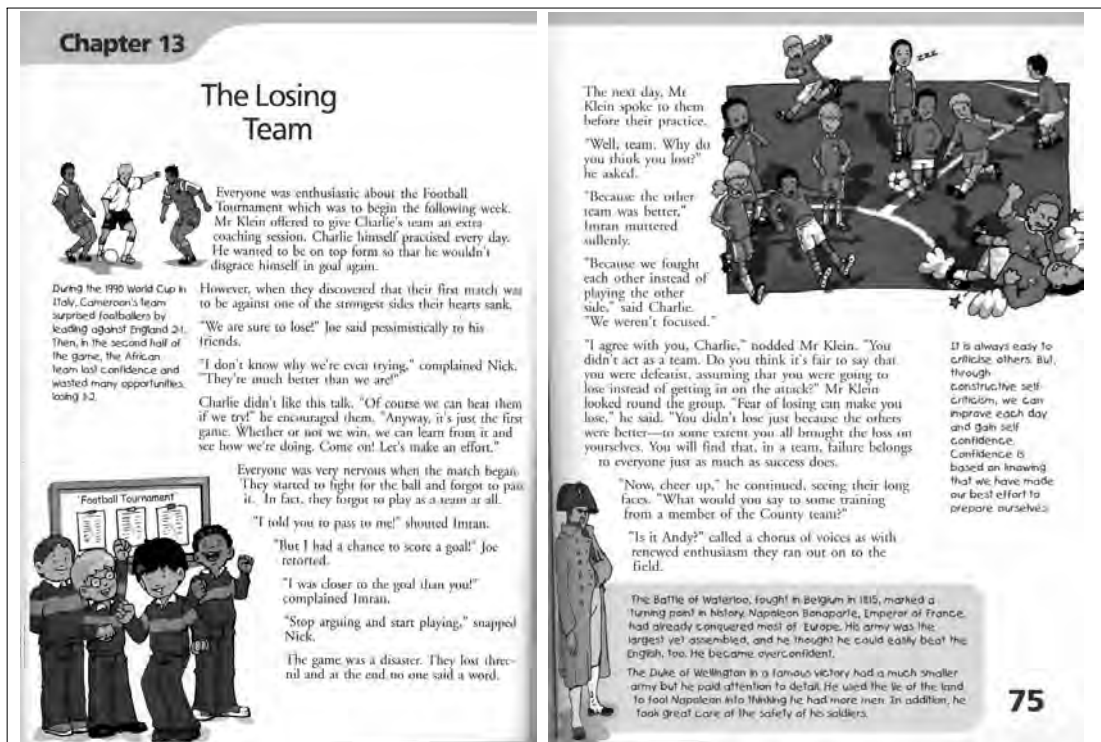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편집과 구성 방식은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다. 단순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간단명료해서 좋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단조롭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아무튼 편집과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즉, 중심 이야기, 삽화, 보충심화 자료가 그것이다.

우선, 모든 단원의 장들이 한결 같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주로 주인공인 찰리와 엘리스가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생각, 말, 의견과 주장, 판단, 행동 등등이 담겨 있어 이를 매개로 하여 도덕적으로 논의하고 탐구하고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W가 위 <그림-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³⁶⁾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 교과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때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인 제3권 『우리는 한 팀』(We are a

36)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and Carlos Beltramo Alvarez, *We are a Team*(Year 4)(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pp. 20-25.

Team)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길지 않지만, 점차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야기가 길어지고 복잡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사건과 메시지 내용, 생각해 볼 거리 등은 낮은 학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심도가 깊어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교과서의 경우 어느 정도 여유있는 지면 편집 구성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면 구성이 상당히 빠곡하다는 느낌이 들고 중학교 수준에 이르면 이야기가 지면에 아주 꽉 차게 편집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림-III-1> AW의 이야기 위주의 교과서 구성 모습

삽화는 아주 단순하게 그려져 있다. 말하자면 거의 스케치 수준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삽화의 표현력도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성과 예술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삽화의 용도가 그저 교과서 내용의 핵심을 그림으로 잡아 시각적으로 부각시켜 제시하는 데 충실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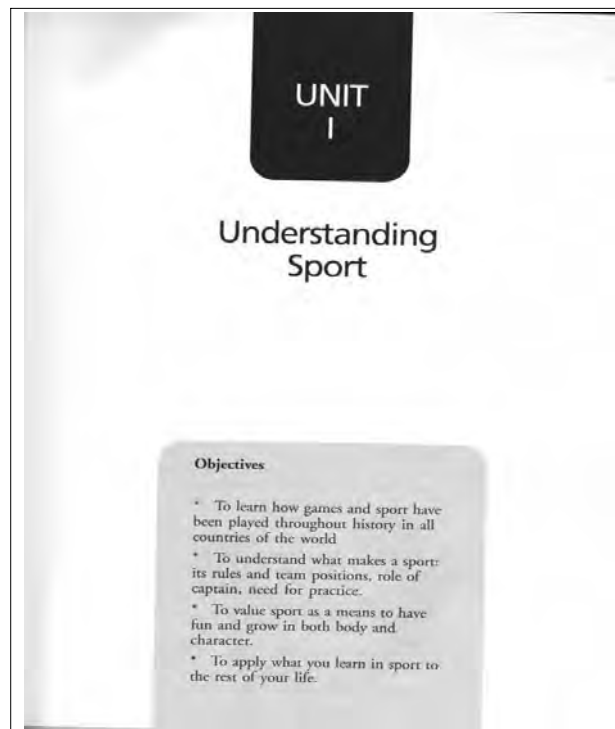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삽화가 많고 높아질수록 적다. 초등 3학년 대상의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 거의 모든 쪽에 삽화가 등장한다. 그러나 초등 5학년의 제5권 『다름과 보완』 정도에 이르면 약 2-3쪽에 삽화 1개 정도가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용인 『변화와 도전』의 경우에는 3-4쪽에 삽화 1개 정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중심 이야기 및 삽화와 함께 보충심화 자료가 이 교과서들의 또 하나의 편집 구성요소가 된다. 보충심화 자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교과서 좌우 여백 또는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읽기자료

또는 활동자료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모든 학년에 제공되는데 비해 후자는 초등 3년 대상인 『우리는 한 팀』에만 매 장마다 말미에 제공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부록 형태로 제공되는 활동자료로서³⁷⁾ 이는 초등 3학년 대상인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에는 없고 오직 초등 4학년용인 제4권 『배려와 공유』부터 중학교 1학년용인 『변화와 도전』에만 제공되고 있다.

5)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특징

현재 AW 12권의 교재 중 초등학교 교과서는 제1권-제6권까지이고 이후 중학교 교과서 제7권-제9권 및 고등학교 교과서 제10권-제12권이 이어진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와 고학년 교과서는 그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초등 고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는 체제·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과서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을 크게 초등 저학년 교과서와 초등 고학년·중학교 교과서로 나눠서 하고자 한다.



<그림-Ⅲ-2> 남미 AW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도입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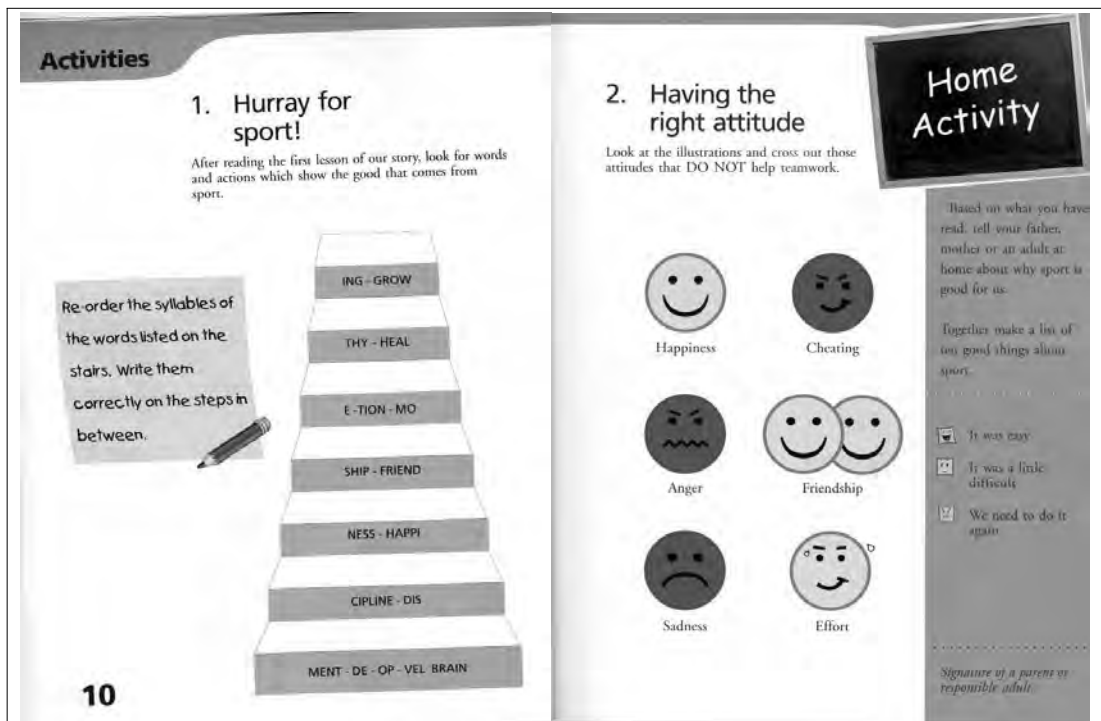
한편, 초등 저학년 교과서는 제1권 『나에 대해 알기』(Getting to Know Myself), 제2권 행복과 건강(Happy and Health), 그리고 제3권 『우리는 한 팀』(We are a Team)의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중에

37) 학습 보조지원 활동(Support Activities)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 있다.

서 영문판으로 출간된 것은 제3권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기는 제3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저학년 교과서 체제·구성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 전체적인 특징

저학년 교과서인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 총 7개의 단원에 3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원은 도입 - 전개 - 정리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도입 부분은 <그림-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³⁸⁾ 매 단원마다 1쪽씩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단 중앙에 단원명을 쓰고 하단에는 그 단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몇 개씩 제시하고 있다. 전개 부분은 각 단원별로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구성 형식상의 특징과 구성 내용상의 특징은 아래에서 별도로 집중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Ⅲ-3> 남미 AW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정리 부분

한편, <그림-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³⁹⁾ 단원마다 정리 부분으로서 1쪽을 부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단원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단원 자기평가(Unit Self-Evaluation)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평가를 한 그 밑에는 '학부모 또는 책임있는 어른'이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38) 앞의 *We are a Team*(Year 4), AW 교과서 제3권 『우리는 한 팀』, p. 7.

39) 위의 책, pp. 10-11.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 또는 책임있는 어른의 서명 부분 밑에 학부모나 책임있는 어른이 학생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도덕 공부를 해나가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계획과 다짐을 쓰도록 하는 부분을 두는 경우도 있다.

나) 체제·구성의 형식상 특징

이제 저학년 교과서 구성에 있어 그 형식상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각 단원마다 여러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각 장은 공히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심 이야기 부분, 보충심화 자료 부분, 그리고 위 <그림-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은⁴⁰⁾ 교과서 정리 부분의 활동 자료(Activities) 부분이 그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Ⅲ-4> 남미 AW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중심 이야기 부분과 보충심화 자료 부분

위 <그림-Ⅲ-4>에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심 이야기 부분이고 그 외 좌우 여백과 하단 부분의 짧은 글들이 바로 보충심화 자료 부분이다. 중심 이야기 부분은 찰리와 앨리스가 주인공이 되어 여러 가지 경우를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충심화 자료 부분은

40) 위의 책, pp. 92-93.

교과서 상에 중심 이야기의 좌우측과 하단 등에 부분 부분 배치해 놓은 것인데 요점과 핵심을 제시하거나 더 읽을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심 이야기와 보충심화 자료 부분은 대체로 설명형과 탐구형으로 되어 있다.

활동 자료 부분은 앞의 <그림-Ⅲ-3>에서 2쪽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활동들’(Activities)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 활동 자료 부분은 각 장의 말미에 제시되고 있는데 좌측면에 있는 것이 교실에서의 활동 자료이고 우측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가정에서의 활동 자료이다. 이 활동 자료들은 대체로 탐구형과 활동체험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

다) 체제·구성의 내용상 특징

한편, 위와 같은 형식상의 체제·구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각 장은 덕과 인격의 지·정·행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AW에서의 인지적 접근(지)·정의적 접근(정)·행동적 접근(행)은 각각 이해(knowing)·수용(accepting)·행동(doing)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과서 1개 장(1개 차시)에서 위 이해, 수용, 행동의 세 측면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장: 스포츠, 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까?’를 보면, 가장 앞에 장명이 나온 다음, 이어서 1) 도덕적 이해 측면의 학습을 위한 중심 이야기 및 보충심화·요점 부분(Story and Essential Points), 2) 수용 측면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부분(Activities), 그리고 3) 행동 측면과 관련되는 가정학습 활동 부분(Home Activities)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 전체 35개 장에서 시종일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이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 저학년 교과서인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제1장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보면, AW 전체에 걸쳐 남자 주인공이 되는 찰리(Charlie)와 그의 반 친구들이 개학 첫 날 남자 체육 교사인 설리반(Sullivan) 선생님을 만나 운동 및 게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배우고 또 아주 재미있게 체육시간을 보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이해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 구성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혼합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름하여 설명형과 탐구형이 그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보고 문제해결을 도모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형의 예로서는 이야기 속에서 설리반 선생이 우리가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단련하고 규율을 배우며 자기 자신을 독려해 가야 함을 강조한 점, 운동이 우리의 두뇌와 인격의 발달을 도와준다고 가르쳐 준 점, 조(Joe)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뇌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 찰리가 경기에 이기려면 두뇌에 더하여 전략전술을 잘 짜서 해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탐구형의 예로서는 설리반 선생이 “왜 우리는 운동과 경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그것에 관한 답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이후 이어지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도덕적 이해를 도모하는 부분에 중심 이야기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보충심화 부분은 대체로 설명형과 탐구형을 섞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경우,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경우, 보충심화를

위한 해설 자료나 읽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요점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운동 선수에게 있어 동작 하나하나마다 모두 중요하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도전인 것이다.”, “스포츠라는 것은 게임들을 조직화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개인적 기술과 팀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근육과 두뇌의 발달을 돕는다.”, “훌륭한 스포츠맨은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안다.” 등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

모범적인 삶의 모습으로서는 미식 축구계의 유명한 코치 라크니(Knute Rockne)에 관한 이야기, 나폴레옹에 관한 짧은 이야기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리고 보충심화를 위한 해설 또는 읽기 자료의 예로서는 스포츠가 우리의 두뇌 발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로마 시대에 한 집안의 리더로서의 아버지에게 어떤 권위와 역할 및 책임이 주어졌는지 등에 관한 자료들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설명형 및 탐구형의 적절한 혼합은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설명형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도덕적 가치나 규범에 대해 확실하게 제시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러한 측면을 유념하여 지도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동시에 탐구형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고 문제해결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한편, 정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수용 부분을 보면, 먼저 이 접근은 해당 장에서 추구하는 가치규범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면화, 신념화를 이루고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과 의지, 태도 등을 기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들 교과서에서는 앞의 <그림-Ⅲ-3>의 경우와 같이 주로 활동자료(activities)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탐구형과 활동체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활동은 그것을 하면서 그 장에서 추구하는 가치규범을 좋아하고 즐겨워 하여 깊이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고 안착시키도록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제3권인 『우리는 한 팀』의 제1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스포츠 만세!'라는 제하의 활동 부분의 경우, 앞의 도덕적 이해 부분에 제시된 이야기를 읽고 앞의 <그림-Ⅲ-3>의 좌측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로의 좋은 점을 보여주는 낱말이나 행동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낱말들의 철자를 흐뜨려 제시해 놓고 그것을 바르게 맞추면서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hip - friend'를 제시해 놓고 이것을 'friendship'으로 바르게 쓰게 함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그것을 깊이 마음 속에 내재토록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예로, 앞의 <그림-Ⅲ-3>의 우측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태도 갖기'라는 제하에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그에 따른 얼굴 모습의 그림들을 제시하고, 팀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를 찾아 가위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위표로 지우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자세와 그렇지 않은 자세를 구분하고 어떤 태도를 추구할 것인지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가정학습 활동 부분을 보면, 앞의 <그림-Ⅲ-3>의 우측면에서와 같이 가정학습 활동(Home Activity)라는 제목을 걸고 그 아래 가정에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활동체험형에 탐구형이 가미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역시 제1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그림-Ⅲ-3>의 우측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읽은 것에 기초하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외 어른에게 왜 스포츠가 우리에게 좋은지 말해 보세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10가지를 들고 함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와 같은 활동거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러한 활동거리들이 쉬웠는지, 조금 어려웠는지,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가정학습 활동 부분의 가장 하단에는 학부모나 책임있는 어른이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도덕학습을 분명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¹⁾.

6)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특징

가) 전체적인 특징

저학년 교과서인 제3권 『우리는 한 팀』과 달리 고학년 교과서들인 제4권부터는 단원 구성 방식에 변화가 있다. 우선, 단원의 도입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도입 부분이 1쪽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단원명을 제시하고 그 아래 단원의 목표들이 제공되었는데, 고학년 교과서 및 중학교 교과서인 제4권부터 제7권까지는 모두 단원 도입 부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신 교사용 지도서의 각 단원이 시작되는 첫머리 상단에 그 단원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형성해야 할 능력(abilities)에 관한 진술로 명기해 놓고 있다. 그리고 도입 부분이 별도로 없다보니 단원의 정리 부분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개 부분의 경우 위와 같이 단원의 도입 부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이 대체로 저학년 교과서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형태와 위치, 수준과 깊이 및 질은 다르게 되어 있다.

나) 체제·구성의 형식상 특징

우선 단원별 각 장마다 구성 형식상의 모습은 저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 이야기 부분, 보충심화 자료 부분, 그리고 <그림-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활동자료 부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⁴²⁾.

41) 이 점은 현행 우리 초등학교 3-6학년 도덕과 교과서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도덕수업 이외의 생활 장면에서 학교에서 배운 바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42) June Saunders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Caring and Sharing*(Year 5)(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pp. 40-41, 138-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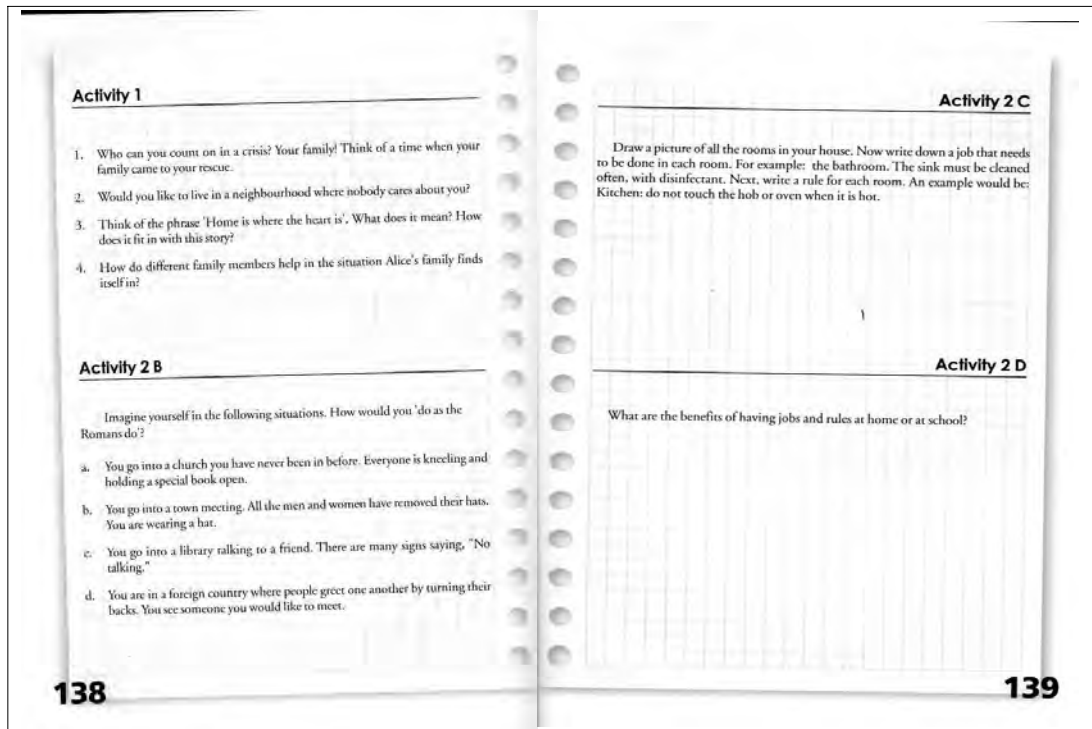
<그림-Ⅲ-5>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중심 이야기 부분과 보충심화 자료 부분

중심 이야기 부분에서는 역시 찰리와 앨리스가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우를 겪으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보충심화 자료 부분은 역시 핵심 내용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형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형태, 내용이나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 중심 이야기 부분과 보충심화 자료 부분은 대체로 설명형과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보충심화 자료의 경우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상의 좌우 등의 여백에 간단한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고학년 교과서인 제4권부터는 그러한 형태를 포함하여 아래 <그림-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⁴³⁾ 완전히 한 쪽 내지 두 쪽 정도로 제시하는 경우도 드문드문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와 범위가 저학년 교과서에 비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대상 학생들이 어린 관계로 삽화가 많았는데 고학년 교과서인 제4권부터는 삽화가 현저하게 적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2-3쪽 정도에 삽화가 1개 정도 등장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가면 이보다 더 적어 3-4쪽에 1개의 삽화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43) June Saunders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Different and Complementary*(Year 6)(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8), pp.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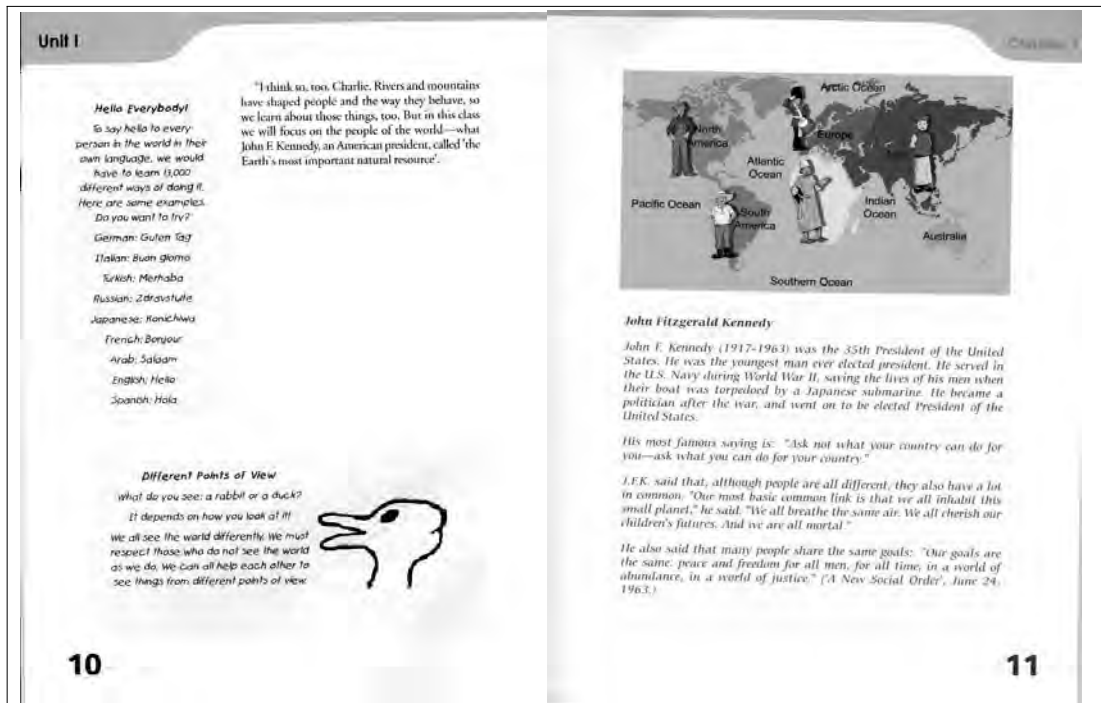
<그림-Ⅲ-6>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활동 자료 부분

이에 비해 활동자료 부분은 저학년 교과서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활동자료가 각 장의 말미에 약 2쪽 정도로 제공되고 있고 그것이 교실에서의 활동자료와 가정에서의 활동자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학년 교과서인 제4권부터는 활동자료들이 모두 교과서의 말미에 '보조지원 활동'(Support Activities)이라는 이름으로 부록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위 보조지원 활동들은 저학년 교과서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활동자료이기보다는 위 <그림-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교실에서의 활동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학생들이 저학년보다 크니까 이와 같이 교실 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활동자료들은 대체로 탐구형과 활동체험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활동자료 명칭은 'Activity 1A', 'Activity 1B' 등과 같이 표시되고 있는데 이 때 숫자 '1'은 장을 가리키며 'A', 'B' 등은 그 장에 등장하는 활동자료의 순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만약에 'Activity 3C' 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제3장의 세 번째 학습활동자료임을 뜻한다.

이 외에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들어오는 교사 제공 활동자료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과서에는 담겨 있지 않고 오직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이 때 교사용 지도서에는 어떤 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펼쳐가면 좋을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림-Ⅲ-7>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보충심화 자료 부분

다) 체제·구성의 내용상 특징

한편, 각 장마다 교과서를 구성함에 있어 AW가 추구하고 있는 대원칙 즉 이해(지)·수용(정)·행동(행)의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저학년 교과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즉, 저학년 교과서에서는 AW의 전체적인 기본 관점인 덕과 인격을 기르기 위한 이해·수용·행동 측면의 통합적 접근이 교과서의 장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비해,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교과서인 제4권-제7권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명확하게 교과서 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수용·행동의 통합적 접근이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추구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교과서 체제·구성상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지적 접근을 취하는 ‘이해’ 부분부터 보기로 한다. 옳고 좋은 삶에 관해 제대로 알고 바르게 판단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인지적 접근으로서의 ‘이해’ 측면의 학습은 저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상에 중심 이야기 및 보충심화 자료를 통해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예를 보면 앞의 <그림-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교과서의 한 쪽에 보충심화 자료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충심화 자료는 반드시 교과서 지면의 좌우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면의 하단에 배치되거나 완전히 1-2쪽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 중심 이야기와 보충심화 자료 부분은 저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형과 탐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중심 이야기 부분은 설명형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찰리와 엘리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부딪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 등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학년 교과서에서도 중심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저학년 교과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탐구형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중심 이야기 속에 어떤 고민 거리, 생각해야 할 거리, 결정해야 할 거리 등을 담아 놓고 이에 대해 어떤 실마리 또는 암시 정도는 주지만 결정적인 답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놓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 상의 좌우 측 등의 보충심화 자료 및 교과서 말미의 활동자료들을 통해 탐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앞의 <그림-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 말미에 제공되고 있는 활동자료의 경우는 이해, 수용, 행동의 세 가지 학습 모두에 관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와 지도 아래 이러한 보충심화 자료를 가지고 읽고 논의하고 활동하면서 바람직한 삶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해 탐구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저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보충심화 자료가 고학년 교과서에서도 제공되지만 그 형태와 내용은 저학년 것과는 다소 다르다. 즉, 격언/명언/속담, 용어 해설 등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고 중심 이야기 속의 어떤 말이나 주장 등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내어 강조하는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그런가 하면 아예 어떤 모범적 삶의 모습이나 위인에 관한 일화 또는 어떤 관련 이론이나 좋은 읽을 거리 등을 교과서의 한 쪽 또는 두 쪽 정도에 걸쳐 과감하게 실어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저학년에 비해 대상 학생들이 다소 나이가 든 학생들이란 관계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충심화 자료들은 대체로 덕과 도덕성/인격을 구성하는 이해 및 수용 측면의 학습과 관련하여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과서 상에 제시되어 있는 읽기 자료 중 이해 및 수용 측면과 관련되는 것을 각각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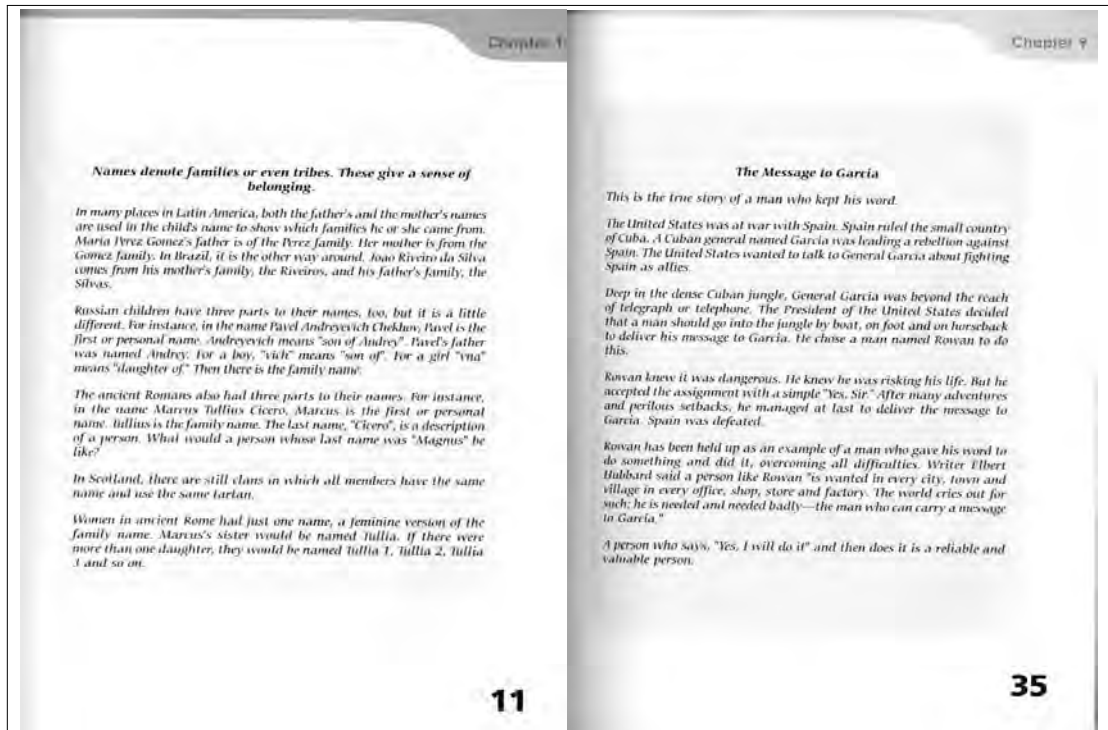
아래 <그림-Ⅲ-8>의 좌측면의 읽기 자료 “이름은 가족 또는 종족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제하의 읽기 자료는 사람은 누구나 가족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돕고 협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도덕성/인격의 이해 측면을 위해 교과서 상에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우측면의 “가르시아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읽기 자료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감동을 통해 마음 깊이 새겨두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인격의 수용 부분 형성과 관련하여 교과서 상에 제공된 것이다.

한편, 정의적 접근을 취하는 ‘수용’ 부분은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고자 하는 도덕적 심정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상의 중심 이야기와 보충심화 자료 등을 통해 추구된다. 그러나 AW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수용과 관련된 학습은 교과서보다는 활동자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구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AW에서의 활동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말미에 부록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 학생용 보조지원 활동자료와 교사용 지도서에 담겨 있는 교사 제공 활동자료가 그것이다.

44) 앞의 *Caring and Sharing*(Year 5), p. 11, 35.

수용 측면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자료들이 학습에 동원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자료들은 대체로 탐구형과 활동체험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Ⅲ-8>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과서의 이해와 수용 측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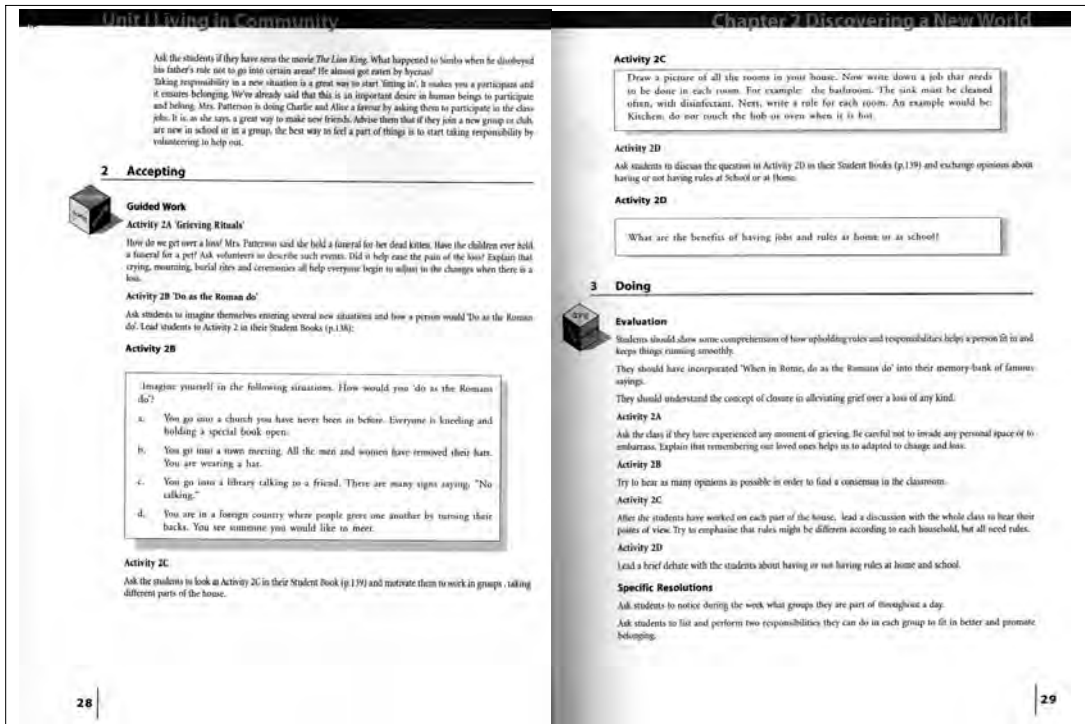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학년 교과서인 제4권 『배려와 공유』의 제2장 '새로운 세계의 발견'에서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규칙과 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바, 이러한 태도를 기르기 위해 수용 측면의 학습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⁴⁵⁾.

먼저, 아래 <그림-Ⅲ-9>에서 보듯이, 교사 제공 활동자료 2A '슬픔의 의식'(Activity 2A 'Grieving Rituals')에 따라 학습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즉, 패터슨(Patterson) 선생님이 죽은 새끼 고양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러줬음을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의식이 지니는 의미와 그러한 의식에 참여할 때 그 규칙과 분위기에 따르는 것이 적절함을 논의하고 인식하게 한다.

이어서 <그림-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과서 말미에 부록으로 제공되어 있는 학생용 활동자료 2B '로마인이 하는 것처럼 하기'(Activity 2B 'Do as the Roman do')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수업을 전개한다. 이 활동자료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타당함을 탐구하여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리하여 활동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떤 동네에

45) June Saunders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Caring and Sharing*(Year 5),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8), pp. 28-29.

서는 마을회의를 할 경우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남녀가 모자를 벗고 회의하는 규범이 있는데 만약 내가 그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III-9> 남미 AW 초등 고학년 교사용 지도서의 모습

이어서 교과서 말미에 제공되어 있는 활동자료 2C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이 자료는 학생들 각자의 집에 있는 방들을 모두 그리게 한 후 각 방에 따라 어떤 책임있는 일이 수행되어야 하고 또 어떤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욕실의 경우라면 욕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부엌의 경우라면 뜨거운 요리 그릇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 규칙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 말미에 제공되어 있는 활동자료 2D에 의거하여 그 질문을 놓고 토론하게 한다. 이 때 활동자료 2D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깊이 성찰하고 내면화, 형성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가치 규범에 따른 행위 방식을 익히고 이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가도록 도덕적 행동 성향 및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행동적 접근으로서의 ‘행동’ 측면 학습은 ‘수용’ 측면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말미의 학생용 활동 자료 및 교사용 지도서의 교사 제공 활동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들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탐구형과 활동체험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역시 제4권 『배려와 공유』의 제2장 ‘새로운 세계의 발견’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동 측면과 관련하여 교사는 어떤 점들을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를 교사용 지도서 상에 ‘평가’(Evaluation)라는 항목을 설치해 놓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4권 제2장과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생들은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 속에서 잘 행동하고 일들을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⁴⁶⁾.

이어서 행동 측면의 학습과 관련하여 네 가지 정도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활동자료 2A와 관련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슬픔의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 말해 보게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어떤 변화와 상실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됨을 체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활동자료 2B와 관련해서는 학급 내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의견들을 듣도록 하는 학습을 전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자료 2C와 관련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집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 그곳에 적용되는 책임과 규칙들을 도출하도록 한 후 그것에 관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발표하면서 토론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것은 집집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규칙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는 점이다. 이어 활동자료 2D와 관련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규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간단히 토론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꼭 실천해 보도록 이끌고 안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앞으로 한 주 동안 어떤 집단에 속해서 활동할 것인지를 제시하도록 한 후, 그 집단 내에서 잘 적응하여 보다 나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수행할 책임 두 가지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종합해 보면 AW의 12권 교과서 중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교과서(제4권부터 제7권까지)에서는 교과서 구성이 형식상으로는 중심 이야기 부분과 보충심화 자료 부분 그리고 활동자료 부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으로는 설명형과 탐구형 및 활동체험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도덕성과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지적 측면의 ‘이해’(및 판단) 관련 학습과 정의적 측면의 ‘수용’ 관련 학습 및 행동적 측면의 ‘행동’(행위 기술, 습관 형성 등) 관련 학습을 통합적으로 추구해 가도록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다.

다. 남미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 특징 및 시사점

남미 도덕교육의 중추가 되고 있는 AW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 남미에서는 현재 도덕·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W는 현대 사회에서의 물질 위주의 시대사회적 풍조와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상업주의적이고 쾌락주의

46) 위의 책, p. 29.

적인 매스미디어 등의 그릇된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적극 대처,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인격교육을 실행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고자 노력하는 매우 바람직한 도덕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 출발 배경과 취지가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현재 이 AW는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덕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 실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그 교재가 번역 출간되고 또 이에 의거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W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인간 삶에 있어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바람직한 가치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옳고 좋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사회이어야 하며 건전한 도덕성과 바람직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가능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인격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고 유덕한 인격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미 도덕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 도덕·인성교육의 개선과 강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AW 교육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특징점 중의 하나는 ‘학습 과정’과 ‘인간 발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가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도덕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도덕성·인격의 지·정·행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고전적인 원리인 바, 이 AW에서는 이를 ‘이해’, ‘수용’, ‘행동’이라는 관점으로 정확하게 개념화해 놓고 추구하고 있어 상당히 도덕교육 이론 자체에 정통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인간 발달에 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라는 2개 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되게 접근하면서도 양자를 무리없이 연계하려는 점도 상당히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라는 4차원적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를 조화와 균형 속에 전체적·포괄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큰 시사점이 된다. 남미 도덕 교과서의 이러한 특징점들은 우리 도덕교육과 교과서 개발에 있어 유덕한 인격을 기르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 할 것이다.

셋째, AW 교육프로그램의 또다른 특징점은 그 다루는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인격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해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내용 타당성과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3권 『우리는 한 팀』에서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규칙을 지키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협동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제4권 『배려와 공유』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사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모습을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시기에는 점차 학생들이 보다 활발하게 자기 개성을 찾고 보다 넓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5권 『다름과 보완』이라는 제목 하에 서로 다르면서도 결국은 함께

보완을 이루어 모두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기르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6학년에 이르면 이제 가정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또래집단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관계로 제6권 『친구들!』이라는 제목 하에 진정한 친구 관계와 우정을 다루면서 집단에의 소속감과 독립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편 장차 성인이 되어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7권 『변화와 도전』에서는 이 시기가 십대가 되는 바로 이전 시기로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무렵임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몸과 정신 및 생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이 시기에 어떻게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고 성적 성장에 어떻게 대처하며 앞으로의 시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남미 도덕 교과서의 특징점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 도덕과 교과서 개발에서도 보다 학생들 수준에 맞고 시대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하여 유덕한 인격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본다.

넷째, 위와 같은 특징점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 내지 단점 또한 없지 않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제1권부터 제12권까지 거의 구성 방식 상에 변화가 없어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교과서 맨 뒤에 제공되고 있는 활동자료들이 주로 읽고 논의하거나 그 외 몇 가지 활동들을 견비하도록 하는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삽화의 질이 낮고 단조롭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설명형과 탐구형 중에서 대체로 설명형 쪽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장에서는 탐구형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 그 이후의 장에 가서 점차 답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어 완전한 탐구식이 되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 중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종종 다루는 개념이나 내용 자체가 학생들 수준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가끔 발견하게 된다. 한 예로 초등 저학년용인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를 보면 용어, 개념이 다소 어려운 것들이 등장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 속의 대화나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 정도에 비춰볼 때 좀 수준이 높게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스포츠, 우리는 왜 그것을 좋아할까?’를 보면 인격(character)이란 용어가 나오고, 제2장의 경우에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있어 세 가지 수준에서 작용하면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육체적(physical) 수준, 심리적(psychological) 수준, 정신적(spiritual) 수준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장마다 대화의 모습이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 등을 보면 매우 어른스러운 관점이나 논리 전개, 어법과 말투 등이 등장하고 있어 3, 4학년 학생들에 비해 다소 수준이 높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도덕성·인격을 구성하는 ‘행동’ 측면의 학습을 위해 행동적 접근을 취하는 경우 해당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부모나 어른과 함께 더 논의해 보거나 어떤 학습활동을 함께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가치규범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나 행위 기술을 익히게 하거나, 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인 실천과 체험 등을 통해 행동 성향을 증진시키는 등의 접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행동적 접근으로는 다소 미흡하게 보인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 된다.

마지막으로, AW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다보니 그들의 문제와 필요에는 잘 부

응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는 남미의 나라들이 우리와 다른 환경과 역사 및 문화전통 그리고 국가적 과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같은 경우는 건전한 국가관이나 국가윤리, 안보와 통일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 AW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처럼 절실하지 않은 관계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매우 적음을 볼 수가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관계로 정보윤리, 환경윤리, 사회 정의 등과 같은 측면들은 충분히 다루지를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사춘기에의 대비, 성문제와 성윤리, 흡연과 약물오남용 등과 같이 현대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는 데에는 우리 도덕과 교육보다 우수하지만,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도덕적 품성이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적 삶의 측면들과 관련된 자질을 길러가는 데에는 다소 미흡함을 보인다.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의 AW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서 명칭의 다양화를 시도해 보는 문제이다. 남미의 AW가 보이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교과서의 제목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르게 학년별로 교과서의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었던 교과서들을 다시 한번 보면, 초등의 경우 제3권『우리는 한 팀』, 제4권『배려와 공유』, 제5권『다름과 보완』, 제6권『친구들!』이 있고, 중학교 대상으로는 제7권『변화와 도전』이 있었다. 이들 교과서들은 각각 대상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시기의 학생들이 부딪히는 절실한 문제들과 반드시 배워야 할 중점 내용들을 묶어서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학년에서 역점을 두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하면서 학습을 독려하고 안내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학년마다 다른 도덕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 합의되기는 쉽지 않으며 연구나 준비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교과서 명칭의 다양화를 통해 학년별 단계별 도덕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깊숙이 구현해 가고 있는 남미의 예는 앞으로도 계속 숙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교과서의 명칭, 제목만 보아도 그 교과서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여실히 드러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학생 중심의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 AW가 체제·구성 측면에서 지니고 있는 또다른 특징 내지 시사점은 철저하게 학생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등 1학년 교과서인 제1권『나에 대해 알기』에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찰리와 엘리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제12권『중요한 결정들』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주인공으로 활약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이 다르더라도 주인공이 같은 관계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주인공에 대해 친숙함을 가지고 그들이 겪고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하는 일들을 남의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학생 중심의

교과서가 되게 하는 장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AW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과 그들의 관심 및 흥미를 고려하는 가운데 교과서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도 본받을만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및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개발되었다는 점은 매 교과서마다 찾아볼 수 있는데 예컨대 초등 3학년 대상의 제3권 『우리는 한 팀』의 경우 이 시기의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포츠를 소재로 하여 가치 및 도덕교육에 접근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초등 6학년 대상의 제6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점차 가정에서 벗어나 또래집단에 관심을 갖고 그것과의 관련 속에서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영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과서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들이 철저하게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것들 또는 일어날 법한 일들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학습이 추상화, 관념화 되는 것을 막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내러티브 접근의 본질과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는 일이다. 남미의 AW 교과서에서 본받을만한 점 중의 하나는 교과서 구성에 있어 철저하게 내러티브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 탐구와 도덕판단 중심 접근 및 내러티브 접근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AW의 내러티브 방식에서 중요하게 배워야 할 점은 그것이 내러티브 접근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교과서 형식상의 구성 방식에 있어 중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다. 구체적으로 12권의 AW 교과서들이 한결같이 찰리와 엘리스라는 주인공 및 그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사태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따라 배우게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해 보면서 배워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덕과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행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그 본질에 맞게 제대로 구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남미의 AW 교과서는 형식적으로는 내러티브적 접근에 치우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덕과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행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AW는 ‘이해’, ‘수용’, ‘행동’의 세 측면에 대한 조화롭고도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의미의 도덕성과 인격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교과서 구성에서 정확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옳고 좋은 삶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잘 판단, 선택하며 이를 존중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적극 추구하는 의지를 지니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면서 습관으로 형성해 가도록 교과서 매 장을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의적 접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치 규범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정서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것이 학생 개개인마다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는, 즉 가치규범의 주체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추구함으로써 정의적 접근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재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역동적이고도 효율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 앞의 AW 교과서 분석 부분에서 보았듯이 AW 교과서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 정도의 교재 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설명형과 탐구형 그리고 활동체험형이 그것이다. 설명형은 우리가 어떤 가치규범에 의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비해 탐구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발견하고 해결해 내도록 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활동체험형은 학생들이 어떤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직접 실행하면서 익히거나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 배우고 터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W 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을 교과서 매 장마다 적절하게 추구함으로써 교과서 구성의 다양성과 학습 효과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남미의 AW 교과서가 그 구성의 구체적인 형태를 중심 이야기, 보충심화 자료, 그리고 활동 자료로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혼용한 것도 독특한 점이 된다. 중심 이야기는 매 장마다 읽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탐구할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엮어서 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이야기들은 학생들의 생활 속에 실제로 있거나 있을 법한 것을 담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담고 있다. 보충심화 자료는 교과서 좌우 여백이나 하단에 별도로 짧은 해설 자료나 읽을 자료를 실어놓거나 아예 1-2쪽 정도를 더 읽을거리로 해놓은 경우를 말한다. 주로 참고될만한 내용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행위 또는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중심 이야기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거나 그 추구하는 가치 등을 더 깊이 내면화 하게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서 구성 방식에 있어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다루고 탐구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도 충분히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적절한 학습활동 자료 내지 보조 교과서를 잘 개발, 활용하는 문제이다. 남미의 AW 교과서의 경우 활동자료는 초등 저학년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매 장마다 그 말미에 별도로 설치해 놓았는데 주로 ‘수용’과 ‘행동’ 측면의 학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저학년 교과서의 경우 단원의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자기평가를 하도록 한 후 학부모나 책임있는 어른이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의 학부모나 관련있는 어른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도덕 및 인성발달 공부를 적극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모종의 장치를 교과서 상에 설치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활동자료가 교과서 맨 뒤에 ‘학습보조지원 자료’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도 활동자료가 따로 지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자료들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직접 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치를 배우고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탐구형과 활동체험형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가치탐구와 내면화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충심화 자료나 활동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조자료가 필요치 않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에 대한 대안 방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길잡이가 그동안 수행해 온 순기능과 장점 또한 많았던 관계로 이를 무조건 기피 내지 거

부하기보다는 그것을 보다 개선하여 유익하고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 있어 편집상의 개선을 도모하는 일이다. 남미의 AW 교과서의 경우 편집상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있다. 우리의 도덕 교과서는 대체로 상하와 좌우에 일정한 여백을 두고 반드시 그 안에 내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AW 교과서들은 한결같이 상하와 좌우 여백에 그렇게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들을 지면 전체의 적절한 곳에 실어놓는 편집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면을 넓게 쓸 수가 있어 더 많은 정보를 담으면서도 보다 시원하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하와 좌우 여백에 보충심화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공부에 안내와 도움을 주고 학습 성과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미국

가. 미국 인격교육 교육과정 분석

1) 미국 인격교육의 현황

미국의 도덕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과(Social Studies) 내용에 포함되어 공민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격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과교육에서는 법 관련 교육을 비롯한 민주시민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덕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며, 학생들의 도덕적 성품을 강조하고, 이를 내면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교육은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지방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미국에서 인격교육을 법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주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주 19개 주,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인격교육을 지지하는 주 7개주, 특별한 언급이 없는 주는 8개이다. 36개 주에서는 법으로 인격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미국의 주별 인격교육 실시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⁴⁷⁾.

법으로 정해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주에서는 각 학교 별로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인격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통된 미국의 인격교육 경험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인격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47) <http://www.character.org/charactereducationlegislation>

<표-Ⅲ-8> 미국 주별 인격교육 실시 현황

구분	입법으로 의무화	입법으로 권장	지지	언급 없음
주	Alabama Alaska Arkansas California Florida Georgia Illinois Indiana Kentucky Nebraska New York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Arizona Colorado Delaware Iowa Kansas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Texas Washington	Connecticut Hawaii Missouri Montana New Jersey North Dakota Vermont	District of Columbia Idaho Massachusetts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Wisconsin Wyoming

2) 인격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인격교육은 청소년들이 모든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되고 있는 핵심적 윤리와 가치를 발달시키도록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미국에서는 효과적인 인격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교과가 아닌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에 녹아들어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격교육은 긍정적인 학교 문화, 도덕교육, 정의로운 공동체, 배려 학교 공동체, 사회정서학습, 긍정적 청소년 발달, 시민교육, 봉사활동과 같이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한다. 이러한 모든 접근들은 청소년들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윤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고, 배려하며, 헌신하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인격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 근면, 배려, 존중, 그리고 용기와 같은 중요한 인격을 발달하도록 하며,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훌륭한 인격교육은 학생과 성인들이 높은 수준의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도록 인격의 통합된 문화를 창조하고자 노력한다.

미국의 오늘날의 인격교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 초기 공립학교의 중요한 목표였다. 나아가 오늘날 미국의 많은 주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독려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존중, 정직 그리고 근면과 같은 핵심가치를 강조한 교육의 긴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능력있고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격교육은 증가하는 윤리적 및 학문적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교육가들은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며,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며, 시

민성을 회복시키고, 반사회적 및 불건전한 행동을 예방하며,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격교육은 성공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훌륭한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이 역시 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안전을 느끼고, 자신의 동년배와 주위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원받으며, 자신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3) 효과적인 인격교육을 위한 11가지 원칙들

미국 인격교육연구소에서는 효과적인 인격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11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 원칙1: 학교는 훌륭한 인격의 바탕이 되는 핵심 윤리 및 인성 가치들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 원칙2: 인격을 사고, 감정, 행동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 원칙3: 인격 발달을 위한 포괄적, 의도적, 적극적인 접근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 원칙4: 배려의 공동체를 창설한다.
- 원칙5: 학생들에게 도덕적 행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 원칙6: 모든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발달시키며, 성공하도록 하는, 의미있고 도전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원칙7: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동기화를 강화한다.
- 원칙8: 교직원 전체가 윤리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시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핵심 가치들을 공유한다.
- 원칙9: 공유된 리더십과 광범위한 인성교육 시도를 지지하도록 한다.
- 원칙10: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인성 함양에 참여하도록 한다.
- 원칙11: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문화와 분위기, 교직원의 역할을 점검한다.

나. 미국 인격교육의 프로그램 분석

미국 인격교육 협회에서는 매년 전국 인격교육 모범 학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의 인격교육 수업 지도안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아래의 수업 지도안들은 이러한 인격교육 모범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안들이다.

1) 왕따 예방 프로그램 (래딕스 초등학교(Radix Elementary School))

○ 소개

- 2007년 전국 인격교육 모범학교 선정

- 인격교육파트너십 11가지 원칙 중 4, 5원칙과 연결

○ **핵심 가치**: 존중, 배려, 우정, 연민, 자아강도

○ **소요시간**: 첫째날: 20-30분, 둘째날: 30-40분, 셋째날: 10-15분

○ **적용학년**: 3-4학년

○ **수업목표**

- 학생들이 왕따와 가족 혹은 친구 간에 '장난으로 놀리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왕따 행동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다.
-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왕따를 예방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이다.
- 학생들은 역할놀이를 통해 왕따 행동을 시연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학습자료**: 왕따 학습지

<표-Ⅲ-9> 미국 인격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습자료 예

이름:

일시:

1. 왕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왕따'와 '단순히 장난치기'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왕따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고르시오.
 - a. 누군가의 생김새를 가지고 놀린다
 - b. 어린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놀 때 쫓아버린다
 - c, d., e.,.....
4. 왕따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위에 적힌 a-j까지의 행동 중 하나를 역할놀이로 표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보자.
 여러분이 행동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위 상황을 해결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해 본다.
6. 연구보고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점심시간 혹은 쉬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상황, 대화, 행동에서 왕따를 목격하는 지를 관찰하고, 기록한 후, 표를 만들어보자. 내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 7 과제: 여러분의 학교에서 왕따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2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 수업과정:
 - 첫째 날: 학생들이 왕따 학습지 1-4번 문항에 대한 답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 둘째 날: 학생들을 모둠 학습 형태로 구성한 후, 시간을 주고 왕따 상황을 고른 후, 해결방안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한다. 교사가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재량껏 주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모둠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해결 방안이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 연습 후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 앞에서 왕따 행동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시연하도록 한다.
 - 셋째 날: 학생들로 하여금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 목격할 수 있는 왕따 상황을 나누도록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토론하도록 한다. 교사 시간에는 학생들이 제시한 왕따 예방 방법을 잘 정리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 확대 적용: 국어 시간: 학생들이 모둠 형태 혹은 독서 학습 형태에서 ‘왕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규범을 포함하는 연극 대본을 작성한다. 학생들은 원고를 작성하고 한 원고를 골라 실제로 연기를 시연하거나 그림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시간: 학생들로 하여금 초기 이민자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대접을 학습한다. 왕따 상황을 서술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을 생각하도록 한다. 이 수업은 초기 미국 원주민, 유럽으로부터 온 이주민, 흑인들 등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와 연관지어 지도할 수 있다.
- 작성자: 캐런 갈래거(Karen Gallagher) 미국 래딕스 초등학교 교직원.

2) 배려와 친절 생활 프로그램

- 소개
 - 밀라드 호크 초등학교 2006년 전국 인격교육 모범학교
 - 인격교육파트너십 11가지 원칙 중 1,2,3,4,7,9,11원칙과 연결
- 핵심 가치: 연민, 친절, 돕기, 존중
- 소요 시간: 50-65분
- 적용 학년: 2-3학년
- 수업 목표
 - 학교생활에서 배려와 친절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 가정에서의 배려와 친절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 공동체에서의 배려와 친절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 배려와 친절의 공동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 개요: 이 수업은 3부분으로 나뉘어 학생들이 학교, 가정 및 공동체서 배려와 친절한 시민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둔다. 첫 수업은 배려와 친절의 의미를 구체적인 행동을 들어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학생들은 어떻게 배려있고 친절한 시민이 되는 지를 학습한다. 두 번째 수업은 학교 밖의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배려하거나 혹은 친절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지를 학습한다. 마지막 부분은 학생

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사려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습자료:** 배려/친절 협동 학습지, 이야기 칩(숫자, 포커칩), 차트, 지역 신문, 도표, 종이나무와 장식
- **수업과정:**
 - 첫째날: 10분. 학생들로 하여금 4-5명의 협동 학습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각 모둠에 배려/친절 학습지를 배부하고, 모둠원끼리 서로 마주 보도록 한다.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한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 혹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적은 후, 다른 학생에게 이 종이를 전달한다. 학습지를 돌리며, 작성하다가 처음 학생에게 돌아오면 멈춘다. 다음 주어진 이야기 칩을 하나씩 사용하면서 한 학생씩 종이에 적힌 내용 중 한 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의견을 나눈 후에는 배려/친절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도록 한다. 집, 학교 혹은 공동체로 적혀 있는 세 개의 도표에 각 의견을 하나씩 기록하도록 한다. 모든 내용이 기록된 후에도, 의견이 더 있으면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다.
 - 둘째날: 30-40분. 5명 이내의 학생들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앉게 한 후, 각 모둠이 새로운 협동 학습 모둠을 이룬다. 새 모둠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신문을 활용하여 그들의 공동체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한다. 각 모둠은 신문에서 공동체 내의 친절/배려에 대한 적어도 5개의 기사, 표제, 광고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위의 내용을 찾아 포스터에 붙이고 '우리 배려 공동체'라는 제목을 단다. 모둠 별로 포스터가 완성되면 다른 모둠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에 게시하여 공동체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린다.
 - 셋째날: 10분.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 내의 친절과 배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배려 나무'를 소개한다. 종이가 된 나무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친절 혹은 배려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잘 관찰하도록 시킨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과일 모양의 종이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나무에 붙이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학급 회의 등과 같은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나무에 과일을 붙이고,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 **평가:** '상호 관찰': 학생들이 친절과 배려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학생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 **확대:** 배려 나무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배려와 친절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달 스케줄 달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배려 행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 **적용:** 교사는 각 모둠이 위 수업을 끝마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각 모둠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동해야 한다. 각 모둠은 동질적이지 아닌 이질적이어야 한다.
- **작성자:** 제이미 뱌러드(Jaime Ballard), 밀라드 호크 초등학교 2학년 교사

3) '말의 힘' 프로그램

- **소개**
 - 윌튼 매너스 초등학교

- 2008년 전국 인격교육 모범학교
- **핵심 가치:** 존중, 공감(배려), 관용
- **학년:** 유치원-5학년
- **개요:** '미운 오리'이야기는 배려, 공감, 관용 및 존중에 대해 토론하는 데 매우 훌륭한 소재이다. 이야기를 통하여 주인공인 오리가 만나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푸대접을 받는다. 이 오리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한 농부를 발견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려와 존중을 받던 오리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백조임을 알게 된다.
- **예상 시간:** 3차시 (45분 수업)
- **수업 목표:**
 - 학생들은 이야기의 중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등장인물들의 드러난 성격 및 드러나지 않은 성격을 알고 토론할 수 있다.
 - 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론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주인공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어떻게 해쳐나가는 알기 위해 문제해결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학습 자료:** 미운 오리 이야기 그림책, 색연필, 도화지, 가위, 학습지(학생들이 문제 해결 혹은 작문을 할 때 사용)
- **수업 과정**
 - 1차시: 학생들로 하여금 도화지에 자신의 얼굴 모양을 그리고 색을 칠하도록 한다. 그려진 얼굴을 가위로 오린다. 각각의 얼굴이 어떻게 다르고 여전히 아름다운지에 초점을 두면서 토론하도록 한다.
 - 2차시: 학생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이야기를 큰 소리로 들려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이야기의 요소(인물, 배경, 문제, 해결 방안)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이야기의 요소를 발표할 때 교사는 이를 정리하여 표로 만든다.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토론한다. 이때 드러나지 않은 성격이나 태도도 논의할 수 있다. 학습지를 이용해 토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 3차시: 학생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이야기를 두 번째 들려준다. 이번에는 1차시에 그렸던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다. 학생들이 이야기 주인공이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구긴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얼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도록 한다. 교사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얼굴 그림을 다시 펴도록 한다. 그들의 얼굴 그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토론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구겨진 주름을 잘 펴도록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얼굴에 발생한 상처를 되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지를 토론하도록 한다. 이러한 그림 얼굴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상처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토론한다.
- **평가:** 학생들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 **확대 적용:** 학생들의 학년 수준에 따라 수업을 변형하도록 한다.
- **작성자:** 윌튼 매너스 초등학교 교사들

다.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 분석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격교육 교재가 개발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재를 활용하여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찬하는 교과서의 형태가 아니라 각 인격교육 협회 혹은 개별 학교에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인격교육의 대표적인 교과서가 되고 있는 3가지 교재, 즉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가(What Do You Stand For?)’⁴⁸⁾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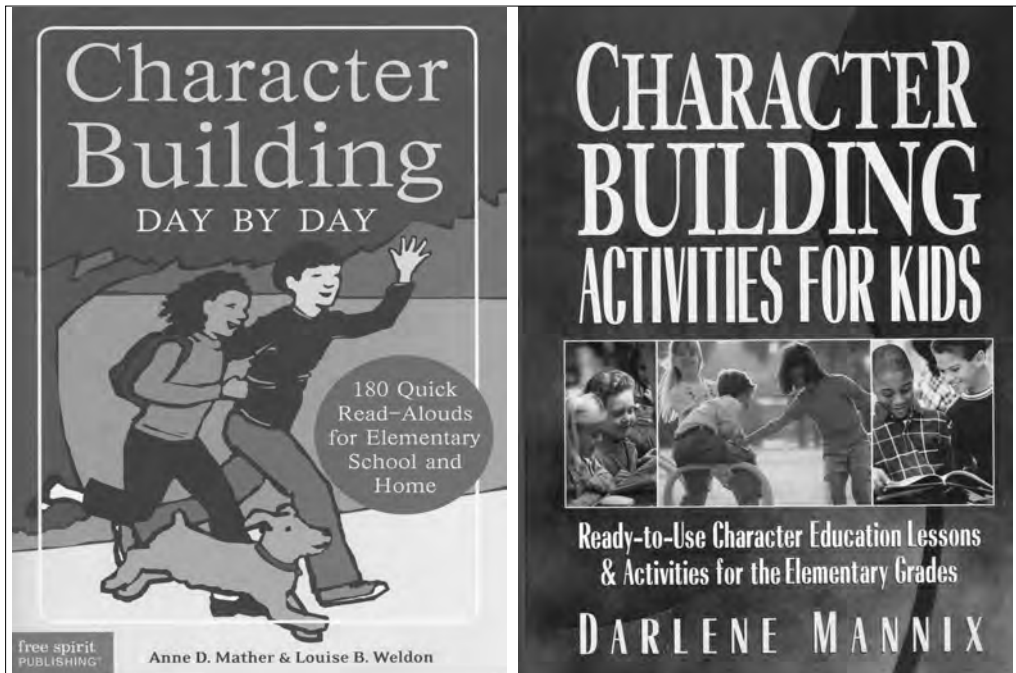
미국 인격교육 교재의 명칭은 다양하다.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와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라는 학생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인격 교육 교재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의 교재가 아니므로 학년, 학기, 주당 시수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교과서도 대체로 단권 체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쪽수는 상당히 많아 책이 두꺼운 편이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는 총 232쪽이고,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은 총 386쪽,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는 총 165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 교과서는 특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2) 외형, 표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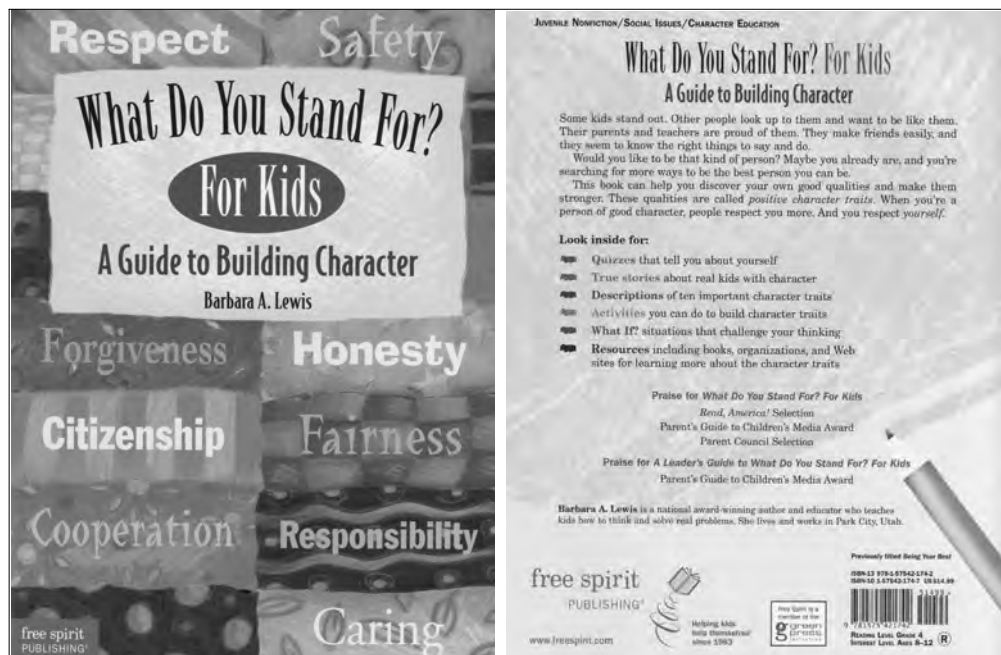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의 외형을 살펴보면, 크기는 150×230(mm)이다. 색도는 칼라 인쇄되어 있다. 표지 구성을 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소년 소녀가 개와 함께 즐겁게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책 제목 아래 부제로 제시되어 있는 ‘매일 매일’이라는 문구에 맞게 일상 생활에서 인격을 키우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지 우측 중간에는 ‘초등학교 및 가정에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180개의 이야기’라는 내용을 통해 본 교재가 스토리텔링에 사용되는 교재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의 외형을 살펴보면, 크기는 210×275(mm)이다. 색도는 칼라 인쇄되어 있다. 표지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이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의 아래에는 ‘초등학생용 인격교육 수업 및 활동을 위한 교재’라는 글귀가 보인다.

48) A. D. Mather & L. B. Weldon, *Character Building*(Minneapolis, MS: Free spirit publishing, 2007); D. Mannix, *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San Francisco: Jossey Bass: 2002); B. A. Lewis, A. D. Mather & Weldon, *What do you stand for?: A guide to building character*(Minneapolis, MS: Free spirit publishing: 2005).



<그림-Ⅲ-10>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 명칭, 표지의 예



<그림-Ⅲ-11>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표지 예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의 외형을 살펴보면, 크기는 185×230(mm)이다. 색

도는 칼라 인쇄되어 있다. 표지 구성을 보면 표지의 배경으로 다양한 가치들(존중, 안전, 용서, 시민성, 정직, 공정, 협동, 책임 등)이 제시되어 있고, 제목 밑에는 ‘인격형성을 위한 가이드’라는 본 교재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속표지, 뒷표지, 목차 제시 방식 등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의 속표지는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겉표지의 그림이 생략된 채, 책 제목과 부제, 그리고 ‘초등학교 및 가정에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180개의 이야기’라는 설명이 겉표지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의 속표지는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책 제목, 부제, 저자명, 출판사의 서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의 속표지는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겉표지의 배경인 각 가치요소들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책 제목, 부제, 저자명, 출판사의 서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의 뒷표지에는 책 제목과 부제, 그리고 본 도서의 특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매일 인격교육을 짧은 시간동안 시킬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교사들이 의미있고, 가능한 방식으로 인격교육을 쉽게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단에는 저자에 대한 설명과 ISBN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의 뒷표지는 칼라로 인쇄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책제목, 부제, 저자명이 제시되어 있고, 중간에는 이 교재의 특징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이 교재는 18개의 특별한 인격특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필요한 수 백 가지의 수업과 활동지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가정, 학교, 공동체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로 설명되고 있다. 책의 하단에는 저자의 사진과 함께 저자의 약력이 소개되어 있고, ISBN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의 뒷표지 상단에는 책 제목과 부제가 제시되어 있고, 중간에는 교재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본 교재는 아동들의 훌륭한 인격을 발견하도록 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퀴즈, 실제 이야기들, 인격에 대한 설명, 활동들, 가상 상황들, 학습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로 설명된다. 하단에는 저자의 약력과 ISBN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의 목차는 책에 대한 소개 부분과 이야기들로 제시된다. 책 소개 부분은 교재 사용 방법, 토론방식, 그리고 다른 활동들에게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야기들은 가치요소들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가치 요소들은 수용과 관용, 단호함, 균형, 훌륭한 스포츠맨십, 배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의 목차는 책에 대한 소개와 3장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2장은 타인에 대한 존중, 3장은 긍정적 시각 가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정직, 약속 준수, 겸손, 책임, 노력, 건강으로 2장인 타인에 대한 존중은 평화, 관용, 동정심, 용서, 타인이해, 충성으로, 3장인 긍정적 시각 가지기에서는 유머 감각, 공정, 개방성, 시도, 낙천적 사고, 위험 감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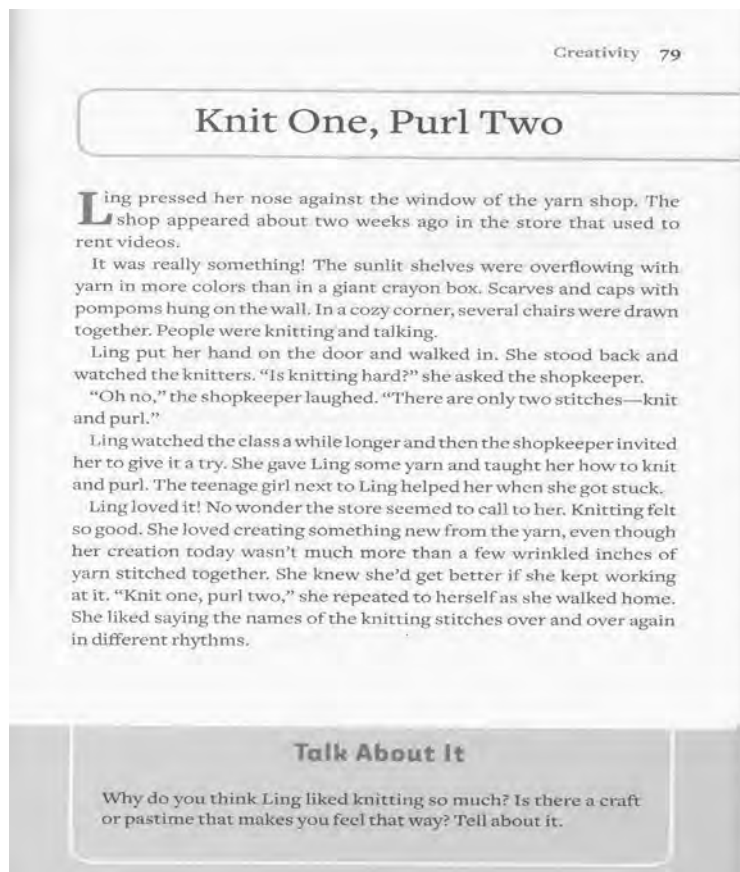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의 목차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인격이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인격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하 12장에서는 도덕 가치 요소별 주제들이 제시된다. 주제들로는 자신을 알기, 배려, 시민성, 협동, 공정, 용서, 정직, 관계, 존중, 책임감, 안전 등이 제시된다.

4) 단원 구성 방식

가) 인격 만들기(Character Building)

이 교재는 하루에 한 가지 이야기를 부모 혹은 교사가 들려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읽기용 도서이다. 총 36개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가치별로 5-6개 정도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총 180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Ⅲ-12>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1

한 땀 뜨고 두 땀 안으로 뜨기

링은 실가게 창문에 코를 대고 있다. 가게는 2주전에 비디오 가게였던 모습 그대로였다. 정말 그럴 듯하다. 햇빛이 내리쬐는 선반들은 다양한 실들로 가득차 있었고, 크레용 박스보다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목도리와 모자들이 벽에 걸려있었다. 아늑한 구석에는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뜨개질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링은 문에 손을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멈칫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뜨개질 어려워요?” 그녀는 주인에게 물었다. “아니, 전혀 아니에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뜨고, 안으로 뜨고”

링은 한참동안 뜨개질 수업을 바라보았다. 그때 주인이 링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그녀는 링에게 몇 개의 실을 주고 어떻게 뜨개질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링 옆에 앉은 십대로 보이는 소녀가 링이 틀릴 때 마다 도와주었다. 링은 너무 재미있었다. 이 가게가 마치 그녀를 부른 느낌이었다. 뜨개질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녀는 실을 이용해 새로운 무엇을 만들고 싶었다. 물론 그녀가 오늘 만드는 것이 몇 인치 안되는 주글주글한 것인데 말이다. 그녀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땀 뜨고, 두 땀 안으로 뜨고”, 그녀는 집에 오는 길에도 혼자말로 계속 되풀이했다. 다양한 리듬에 맞춰 반복하면서 뜨개질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 이야기해봅시다.
- 왜 링이 뜨개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말해봅시다.

위 <그림-Ⅲ-12> 자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사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의 끝에는 학생 스스로의 생활에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질문이 제시된다. 위 교재의 표지에서는 ‘매일 매일의 인격교육(Character Building day by day)’이라는 제목 하에 초등학교 교실과 가정에서 읽는 180여 종류의 이야기들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남녀 학생이 개와 함께 즐겁게 뛰어가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흥미를 찾아내고, 용기 있게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나타내고 있는 가치는 ‘창의성’인데, 창의성의 출발이 흥미로부터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나)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활동(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

인격교육용 교재의 특징은 활동 중심의 워크북이 많다는 점이다. 아래의 교재는 교사가 수업시간 혹은 재량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 혹은 활동지를 담은 교재이다.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서 가르칠 총 18개의 가치를 선정하고 각 가치별로 3차시 수업 지도안이 제시된다. 1차시는 가치 덕목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2차시는 일상생활에서 가치 규범을 인식하는 활동, 마지막으로 3차시에서는 가치 규범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예시 자료는 개방적 사고(Open-minded)의 가치를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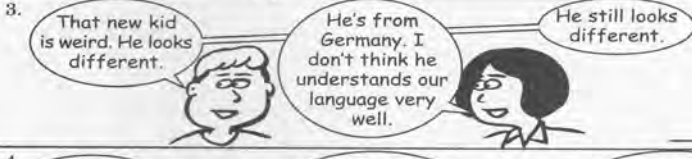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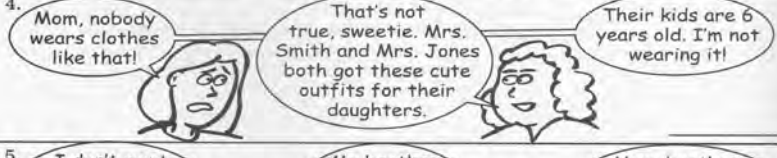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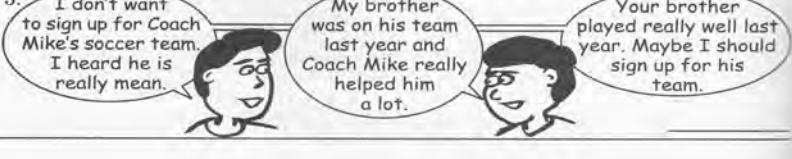
에서 인식하는 활동인 2차시 학습 자료이다. 다양한 상황을 만화자료로 제시하고, 만화 속에 담겨있는 도덕적 상황에서 개방적인 사고와 그렇지 못한 사고를 구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개방적 사고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도록 하는 문항도 있다.

Name _____ Date _____

III-8A. Is This an Open-Minded Person?

Review
Open-minded means _____

Directions: Read each situation below and decide if it shows an open-minded person. Write YES or NO on the line.

- 
- 
- 
- 
- 

<그림-III-13>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2

이 사람은 개방적인 사고의 사람인가?

- 점검 하기
개방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
- 아래의 상황을 읽고 개방적인 사고의 사람인지 판단해 봅시다. ‘네’, ‘아니오’로 표시하시오.

1. A: 나는 사탕무를 먹지 않을 거야. 그것들은 냄새가 나.
B: 한번 먹어보지 그래.
C: 아니 나는 내가 그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
2. A: 뱀은 혐오스럽고 못생겼어.
B: 내 애완 뱀의 아름다운 색깔을 좀 봐. 이 뱀은 유순해서 물지 않아.
C: 아, 이 뱀은 미끈미끈하지 않네. 꽤 좋은 뱀이구나.
3. A: 새로 온 아이가 이상해.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B: 그는 독일에서 왔어. 우리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C: 그는 여전히 다르게 생겼어.
4. A: 엄마, 아무도 그런 옷 안입어요.
B: 그렇지 않아. 스미스씨와 존스부인 모두 이 귀여운 옷을 아이들에게 입혔단다.
C: 그 아이들은 6살이잖아요. 나는 입지 않을래요.
5. A: 나는 마이크 감독 때문에 축구팀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듣자니, 그는 매우 무섭대.
B: 내 형도 작년에 그 감독의 팀이었는데 마이크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었대.
C: 네 형 작년에 정말 잘하던데, 나는 가입해야겠다.

위의 책 표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격 교육 활동이라는 제목 하에 부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격교육 수업과 활동 지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 학생들의 신체 활동 및 독서 활동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드러내고 있다.

교재 구성으로는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만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수업의 주제는 ‘개방적 사고’이며, 교재의 첫부분에는 ‘개방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5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개방적 사고를 나타내는 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의 설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소재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만화 1, 2, 4의 내용은 선입견 혹은 편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만화 3의 내용은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김새가 다른 학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의식을 문제로 삼고 있다. 만화 5 역시 타인의 판단을 무조건 믿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Do You Stand For?)


미국의 인격교육 대부분의 교재는 이야기형 자료가 많다. 『무엇을 나타내는가?』(What Do You Stand For?) 교재는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교재이다. 10개의 가치(배려, 시민성, 협동, 공정, 용서, 정직, 관계성, 존중, 책임, 안전)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아래의 이야기는 한 학생이 성장하면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해나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의 표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가(무엇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 하에 아동을 위한 인격교육 지침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지 전체에 걸쳐 가치들(존중, 안전, 용서, 정직, 시민성, 공정, 협동, 책임,

배려)을 색깔을 달리하며 표시하고 있다.

교재의 내용에서는 아래 <그림-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심 가치(공정)를 맨 위에 표시하고, 등장 인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야기의 길이가 3쪽에 걸쳐 제시되어 있으며, 길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전개를 통해 주인공이 '공정'의 개념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가치 개념을 연역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데 위 소재는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WHAT DO YOU STAND FOR? FOR KIDS



FAIRNESS

Sonja Balic
outside her
home in
Banja Luka

Someone Who's Fair
Sonja Balic Leaves Her Bosnian Home
Banja Luka, Bosnia-Herzegovina

Sonja Balic was six years old when war began in Bosnia. She heard of children whose parents were taken away. She heard of shootings and bombings. Still, the war seemed far away from her family and home in Banja Luka, Bosnia-Herzegovina. But not for long. The war was being fought among Serbs, Muslims, and Croats. Sonja's mother was Serbian and her dad was Muslim. Just after the war began, all the Muslims were fired from their jobs. Sonja's dad lost his job at a newspaper. After that, no one would hire him. He had to do construction work without any pay. Sonja told her father, "It isn't fair." He only nodded and hugged her close to him.

Sonja's mom, a dental assistant, wasn't tired. But Sonja's parents were still worried. She heard them talking in low voices. Her father said, "There isn't much money. No gas. Good food is getting harder to find. It gets worse every day." Sonja didn't think food was hard to find. She knew her grandparents would share their tomatoes and cabbages. And Sonja's family grew their own carrots and potatoes.

The war still seemed far away to Sonja as she rolled on her in-line skates with her best friend, Ivana. Sometimes Sonja and Ivana hung out in the park nearby with other friends. They swung on the swings or played on the climbing bars. Sonja could fling herself all the way around on the bars. She loved skipping past the town's beautiful old castle and the Vrbas River that flowed beside it.

But when Sonja asked for a dollhouse for her eighth birthday, her mother said, "Some other time, Sonja. There isn't enough money now. It's the war."

Sonja only nodded her head. But she thought to herself, "It still isn't fair."

Sonja began to hear more bad stories about the war. There was a boy who saw his parents shot. Another boy shot his own arm off while playing with his dad's army gun. Sonja's cousins in Sarajevo had to live in their basements because their homes were bombed out.

One by one, all the **mosques** were being bombed and destroyed. Two blocks away from Sonja's home there was a beautiful mosque. One night, the mosque was bombed. The bomb also shattered the windows in Sonja's house.

Sonja asked her mother, "Why do people have to fight? I think it's stupid. We used to all be friends."

"This is true," her mother answered. "A few people decide to fight, but then the rest of us suffer, too."

Her father shook his head.

53
54

<그림-Ⅲ-14>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의 단원 구성 예3

공 정

소냐 벨릭은 보스니아 전쟁이 시작할 때 6살이었다. 그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총소리와 폭탄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전쟁은 그녀가 사는 보스니아의 바냐루카에 위치한 그녀의 집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세르비아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크로아티아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소냐의 어머니는 세르비아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슬람교도였다. 전쟁이 시작된 후, 바로 모든 이슬람교도들은 직장을 잃었다. 소냐의 아빠도 신문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아무도 소냐의 아빠를 고용해 주지 않았다. 그는 돈이 안되는 공사장일을 해야 했다. 소냐는 아빠에게 말했다.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그는 단지 끄덕이며 소냐를 안아주었다. 소냐의 어머니는 치과 간호원이었고 실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냐의 부모는 여전히 걱정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가 말했다. "돈이 얼마 없어. 가스도 없고, 좋은 음식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매일 매일 더 나빠지고 있어".

소냐는 음식을 구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토마도와 양

배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소나의 가족은 당근과 감자를 키웠다.

전쟁은 여전히 소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소나는 친한 친구인 이바냐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다. 대대로 소나와 이바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원 근처에서 놀았다. 그들은 그녀를 타거나 나무에 오르기를 즐겼다. 소나는 나무의 모든 곳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고궁과 그 옆에 흐르는 브바스 강을 사랑했다.

그러나 소나가 그녀의 8번째 생일날 엄마에게 인형집을 사달라고 하자 ‘다음에, 소나야. 지금 돈이 충분하지 않아. 전쟁 중이거든’이라고 말했다. 소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이건 여전히 공정하지 못해’.

소나는 전쟁에 관한 더 많은 나쁜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부모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한 한 남자가 있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놀다가 한 손을 잃기도 했다. 사라예보에 사는 소나의 사촌들은 집이 폭격 맞아서 지하에서 살아야 했다.

하나씩 하나씩 모든 이슬람 사원들은 폭격을 맞아 부서졌다. 소나의 집에서 두블릭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사원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사원이 폭격 맞았다. 폭탄이 소나의 집 창문까지 산산조각 나게 했다.

소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싸워야 하나요? 나는 이일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친구였잖아요.”

“네 말이 맞다”. 엄마가 대답했다. “몇 사람들이 싸우기로 결정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단다”

아빠도 머리를 끄덕이셨다.

보스니아의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닥치고 있었다. 소나의 10번째 생일 바로 전에 그녀의 아빠는 가족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전쟁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빠가 떠난 후, 소나의 동생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공정하지 않아”.

소나는 손으로 동생은 안고 말했다.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야. 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야해” 동생은 눈물을 닦고 그녀에게 웃어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 소나는 혼자였고, 베게 위에도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1년 반이 지나서야 보스니아를 떠나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소나의 학교 친구들은 파티를 열어 주었다. 그들은 목걸이, 장식 상자, 사진들과 전화번호를 주었다. “빨리 돌아와” 그들이 말했다. 소나는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올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소나는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아름다운 집, 그리고 강가의 궁전을 떠나야 했다. 총과 무기로 사람들을 삶을 찢어 놓은 것은 소나에게 불공평했다. 그래서 소나는 그녀 주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일이 무엇이든지 항상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접할 것을 결심했다. 이것이 세계를 보다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5) 인격교육 모범학교상 실시

미국 인격교육 협회(CEP)에서는 매년 인격교육 모범학교(National and State Schools of Character)를 선정한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분 없이 미국 전역의 학교 중에서 높은 수준의 인격교육을 실시한 모범학교를 선정한다. 이때 학교 선정의 원칙은 CEP에서 제시하는 위의 효과적인 인격교육을 위한 11가지 원칙들이다.

교사, 행정가, 직원, 부모, 학생 및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연대한다. 학교 공동체가 장점과 다음 단계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숙고와 자기 평가 과정을 포함한다. 성장에 초연뿐만 아니라 인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제공한다.

주지역 예선에서 인격교육 모범 학교로 선정된 학교와 지역사회는 3년간의 자격을 가지며, 국가 수준

의 인격교육 모범 학교 예비 후보로 추천되어 CEP의 평가를 받게 된다. 전국 수준의 인격교육 학교로 선정되면 5년간의 자격이 유지되며, 인격교육 모델로서 다른 교육 기관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인격교육 모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수여하는 마크이다. 왼쪽은 미국의 각 주에서 수여하는 인격교육 표창이고, 오른쪽은 전국 수준에서 수여하는 인격교육 표창이다⁴⁹⁾.



<그림-Ⅲ-15> 미국 인격교육 모범학교상 수여 표시

라. 미국 인격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시사점

1) 특징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인격교육은 우리나라의 도덕교육과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한국의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에 대한 강화의 유사성이다. 미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9세기 초에 걸쳐 이민자들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인격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인성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려는 ‘인격교육의 재부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앞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국에서 인격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주가 18개주이며, 입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주가 19주이고, 지지하는 주는 7개 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격교육 혹은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한국에서 인성교육의 강조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 ‘창의·인성’이라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큰 흐름은 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덕과에서도 역시 인지, 정서, 행동을 통합하는 도덕적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인격교육 내용의 유사성이다. 미국 인격교육에서는 인격의 핵심이 되는 덕목 혹은 가치들을 선정하고 강조한다. 정의, 근면, 배려, 존중, 그리고 용기와 같은 인격의 핵심가치들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49) Sponsored by the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and Participating State Schools of Character Sponsors: <http://www.character.org/frequentlyaskedquestionsaboutcharactereducation>

의 도덕과 교육 역시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19개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덕목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셋째, 이야기 중심의 인격교육 방법의 유사성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국 인격교육 대부분의 방식은 스토리텔링이다. 귀감이 되는 이야기 혹은 갈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읽을거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 역시 교과서에 많은 도덕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물론 가치갈등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 될 수 있으나, 이야기를 먼저 제시하고, 주어진 도덕적 문제를 찾게 하거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차이점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인격교육은 특정 과목을 통해 교육하기보다는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고 있다. 교과는 물론 특별활동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해 가르쳐지기도 한다. 또한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통합적 인격교육의 노력이 한국의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실로 크다. 도덕과 한 과목에만 인성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를 중심으로 전체 교과와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지도하고, 나아가 학교생활 전반에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도덕과 과목을 폐지하고 전 교과를 통해 도덕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덕과를 통해 핵심 가치를 배우고 이를 타교과에서 심화 지도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실체성이다. 위의 왕따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인격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수업 목표에서도 “‘왕따’와 가족 혹은 친구 간에 ‘장난으로 놀리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학생 스스로 찾도록 한다. 나아가 확대 적용을 통해 타교과 예컨대, 국어, 사회 시간에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밝혀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덕과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수업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상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타교과와 연계되는 내용을 밝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민주적 구성화이다. 이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국에서 우수한 인격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상하며, 다시 학교로 보급하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화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 개발진에서 교과서 개발의 총책임을 맡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효과가 검증된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보급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재 구성이 학생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위의 교재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만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교과서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도덕적 판단력과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 구성과 이를 교수하는 교수 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매 단위 마다 일관된 형식의 구성보다는 가치 덕목에 따라 구성 방식이 파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체제의 도덕과 교과서를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전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학년을 달리하며 혹은 단원을 구분하여 교재 구성 방식의 다양화를 꾀한다면, 보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내용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미국 인격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서 구성의 자율화이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과서는 Top-Down 방식의 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교과용 도서 개발진들이 도덕과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만드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반해 미국 인격교육은 정규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격교육을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 중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활동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과서는 체계적인 틀에 맞춰 1차시는 지식이해중심, 2차시는 가치판단 중심, 3차시는 가치 심화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도덕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나, 모든 가치 요소를 동일한 틀에 맞춰 교수하는 일은 가치 요소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어떤 가치 요소는 여러 차시에 걸쳐 가르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데 반해 어떤 가치 요소는 명료해 1-2차시에 걸쳐 가르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가치는 지식 이해 중심에 초점을 두는 반면, 어떤 가치는 행동적 실천 상황을 보다 많이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향 후 도덕과 교과서를 개발할 경우에는 차시별 접근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현장 연구 대회를 거치면서 검증된 도덕적 사례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과서 내용은 도덕교육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명한 서적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담는 형태로 구성되어 왔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인격교육에서는 인격교육 모범학교 상 제도를 통하여 전국에서 검증된 도덕 교육 활동과 내용을 모집하고, 이를 다시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인격교육내용들이 도출되고 있다. 향 후 도덕과 교과서 개발에서는 교총 혹은 각종 현장 교사 연구 수업 대회에서 효과를 검증한 도덕교육 방법 및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교과서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과서 개발 시 체제의 일관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례들을 담는다는 몇몇 개발자들만의 아이디어로는 부족함을 항상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셋째, 교과서 개발 기간의 확보이다. 현행 교과서 개발 방향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며, 실험교과서를 몇몇 초등학교에서 사용해 본 후, 문제점을 반영하는 식의 개발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교과서 개발 기간으로는 검증된 교과서를 개발하기에는 매우 시간이 부족하다. 특별히 전국 단위의 실험학교에서 실험 교과서가 사용되어야 하며, 실험교과서 평가를 위한 지표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 및 학부모의 의견까지도 반영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Ⅳ. 유럽 지역 도덕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1. 영국

가. 영국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 도덕교육의 성격

영국의 정규 교육과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도덕교육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학생들의 도덕교육을 위해 필수 교과와 비법정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과 특별활동 등을 협동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들 중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교과목으로 도덕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과목은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다. ‘시민교육’은 2002년 제3학기부터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준)에서 필수로 부과되는 독립교과이며,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준)에서 비법정 교과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도덕교육은 ‘종교교육’과 ‘개인·사회·보건교육’(PS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을 통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어, 역사, 현대 외국어, 체육 등 전 교과목에 걸쳐서 각 교과목의 활동 계획에 도덕과의 연계 부문을 제시함으로써 전 교과목에 걸친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학제를 보면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성되며 초등교육에는 핵심단계(Key Stage), 1과 2가 그리고 중등교육에는 핵심단계 3과 4가 관계된다.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과목 구성이다. 교과 체계는 크게 핵심 교과, 비 핵심 주요교과, 기타 과목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영어, 수학, 과학은 핵심 교과이며, 미술과 디자인, 디자인과 기술, 지리, 역사, ICT, 현대 외국어, 음악, 체육, 시민교육 등은 비 핵심 주요 교과이고, 개인·사회·보건교육, 종교교육 등은 기타과목이다. 이 중 시민교육은 독립 교과로서 핵심단계 3, 4(Key Stage 3, 4)에서는 법정 필수 교과로, 핵심단계 1, 2(Key Stage 1, 2)에서는 비법정 교과로 부과되고 있다.⁵⁰⁾

시민교육으로서의 도덕교육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도덕적 및 시민적 성향의 쇠퇴에 대한 우려로 교육부는 시민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관심은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자문단의 보고서에 의해서 보다 깊게 나타났다. 이른바 ‘클릭 보고서’(the Crick Report)라고 일컬어지는 이 보고서는 공공생활에 대한 우려할만한 수준의 무관심, 무지와 냉소주의를 지적하면서 ‘시민교육’을 법정 독립 교과로서 전체 교육과정의 5%를 배정하

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사업: 영국』, 연구자료 ORM 2010-61-8, 2010, p. 4.

도록 제안했다. 이 제안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수정된 국가 교육과정의 발표되었다. 그 결과 2002년 10월부터 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에서 법정 필수과목으로,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서 비법정 교과로 가르치게 되어 있다.

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진술되어 있다. 즉,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이해력을 제공한다. 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인식하는 풍부한 지식과 사고력 및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민교육은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고 교실 내외 모두에서 보다 많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길러준다. 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학생, 이웃, 지역 사회 및 보다 넓은 세계에서의 생활에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장려한다. 시민교육은 또한 학생들에게 우리의 경제 및 민주 제도와 가치에 관해 학습케 하며, 상이한 국가, 종교 및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감을 길러 주며 쟁점에 대한 반성 능력과 토론 참여 능력을 개발시킨다.”⁵¹⁾

2) 목표

가) 학교 교육과정의 가치와 목표

교육은 현재 사회의 가치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또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의 역할에 토대가 되는 광범위하고 공통된 가치와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개인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그리고 이성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다. 교육은 또한 기회의 균등, 건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생산적인 경제, 지속적인 발전으로 가는 과정이다. 교육은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영속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과 가족, 다른 인간관계, 우리가 속하는 보다 넓은 집단, 사회의 다양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또한 진실과 정의, 정직, 믿음, 의무감이라는 가치에 우리가 헌신해야 함을 재확인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촉진시켜야 하고,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원칙을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은 그들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문화에,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고 이해하며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지속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개발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가진 책임감과 관심을 가진 시민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⁵²⁾

모든 국가 교육과정의 과목들은 학생들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촉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영역 발달을 촉진할 명시된 기회들이 종교교육, 개인·사회·보건교육에 대한 비 법정 기본 골자와 시민교육을 통해 제공된다. 학교생활, 집단에

51) 차우규·윤현진, 『도덕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5, 2002, pp. 138-139.

52)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교육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II): 영국』, 교육과정자료-412, 2007, pp. 9-11.

배, 그 이외 교육과정 활동 등을 통해 학교와의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 학생들의 정신적 발달은 자신에 대한 분별력, 자신만이 가진 잠재력,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이해력,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력 등의 향상을 말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답을 하려고 애쓴다. 학생들은 자신의 내적인 삶, 비물질적 행복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 자질, 태도를 키워나간다.
-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은 옳고 그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도덕적 갈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심, 옳은 일을 행하는 의지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반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책임감 있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준해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 자질, 태도 등을 키워나간다.
- 학생들의 사회적 발달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이해, 공공의 선을 위해 타인과 관련을 맺고 협동할 능력 등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점점 더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보여준다.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민주적인 일 처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 자질, 태도를 키워나간다.
- 학생들의 문화적 발달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심미적 경험들을 감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 어떤 것을 해나가는 다른 방식에 대한 흥미, 차이에 대한 호기심 등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며, 그 문화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 자질, 태도를 키워나간다⁵³⁾

나) 수준별 목표⁵⁴⁾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의 시민교육은 비법정 교과목들 중 일부로서 도달 목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중등 시민교육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수준별 도달 목표에 대한 설명은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서 시민교육의 과정과 도달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수준 1(Level 1)

학생들은 자신에게 제시된 시민권 이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시민권 쟁점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자신이 속한 몇몇의 그룹과 지역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필요가 욕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학생 자신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결정들에 참여한다.

○ 수준 2(Level 2)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서로 다른 그룹과 사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고, 그것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의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이웃에 관한 의견을 제시

53) 위의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영국』, pp. 17-18.

54) 이하 내용은 <http://curriculum.qcda.gov.uk/> (영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한다.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일이 개선될 수 있는가를 기술한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필요와 욕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 수준 3(Level 3)

학생들은 이슈가 자신의 이웃과 더 넓은 사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슈들을 탐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생각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이 속한 서로 다른 그룹과 사회의 특징을 토의하고 기술한다. 서로 다른 권리의 종류를 확인하고 다른 권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몇몇 행동을 계획한다. 시민권 이슈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 수준 4(Level 4)

학생들은 권리들 간의 충돌을 포함하여 주요 논쟁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더 넓은 정보를 탐구한다. 서로 다른 관점들과 반대되는 관점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다. 이슈와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질문을 개발하고, 이것이 개인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활용한다. 영국과 더 넓은 세계에는 다양한 그룹과 사회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식을 자신이 속한 사회를 탐구하는데 활용한다. 중요한 시민적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행동을 실천한다. 사람들이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어떻게 자신이 속한 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학생의 지식과 대표 경험, 그리고 지역 사회에 참여와의 연계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 수준 5(Level 5)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권리가 충돌되고 조정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토론한다. 관련된 서로 다른 그룹들에 있어서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숙고하고, 국가적, 유럽적, 국제적 차원에서 관련된 이슈들을 언급한다. 그들은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고, 여러 관점을 개발하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연구 방법과 정보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논증을 명백하게 말하며,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유를 인식한다. 다양한 문화의 기여를 인식하고, 다른 사회와 의사소통하며 영국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된 방식을 기술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협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의 사람들과 협동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을 설명한다. 영국 민주주의 과정의 특징들과 영국 정부의 정책 수행을 기술함으로써 정치적 체제와 정의로운 체제의 작동에 관한 지식을 설명한다. 학생 자신이 탐구한 이슈들

을 대표하고, 투표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에 의미 있게 참여한다.

○ 수준 6(Level 6)

학생들은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의견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술한다.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 방법을 결정하고 질문을 개발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탐구하고 해석하며, 타당성과 그 안에 담긴 편견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지적인 논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자신이 개발한 가정과 사유의 타당성을 의심한다. 개별적인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자신이 고안한 내용을 활용하며,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학생 자신의 역할과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의한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의 발전에 준 영향을 숙고하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정체성의 복잡성과 그룹 및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영국 사회와 글로벌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의 영향을 설명한다. 지역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까지 불평등이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권리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지지되며, 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정부 조직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영국, 유럽, 그리고 더 넓은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사이의 관계성과 독립성을 이해한다.

○ 수준 7(Level 7)

학생들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의 근거를 탐구한다. 지적인 토론과 관련된 사안의 검토 결과로서, 자신이 세운 가정과 관점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들을 표현한다. 개인 또는 그룹의 권리와 의무들이 경쟁하는 상황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학생들은 확신을 갖고 연구 방법과 정보를 활용한다. 지역 사회와 더 넓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발의하고, 협상하고, 계획하며 실행한다. 영국 사회 다양성의 근거를 분석하고 영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한다. 시민의 의사 결정 역할과 그것이 정치적, 법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서로 다른 정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영국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비교한다.

○ 수준 8(Level 8)

시민 사회의 이슈들, 문제들, 사건들이 세계의 다양한 그룹들과 사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된 상세한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한다. 예리한 관찰을 위해 서로 다른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관계 맺는다. 민주주의, 정의, 권리, 책임, 정체성, 다양성 등과 같은 주요 시민권 개념과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이해한다. 대안적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방법과 가설을 실행하고, 이것의 서로 다른 영향을 탐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학생 자신의 사회에 적용하고, 영향과 제한점에 관한 결론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민주적 과정과 서로 다른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한다. 정의, 법, 정부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시민들이 사회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 높은 수준의 예외적 성과(Exceptional performance)

학생들은 광범위한 시민권 이슈들에 관한 일관성 있고, 통찰력 있으며, 주목할 만한 논증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한 서로 다른 관점들의 근거와 내용들을 활용하고 적용한다. 그들은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취한 행동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복잡한 이슈들을 연구한다. 광범위한 관점과 증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명백한 결론에 이른다. 민주주의, 정의, 권리, 책임, 정체성 등과 같은 주요 시민권 개념들을 개관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탐구한다. 시민권 이슈들과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 문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실천적 이해를 개인적, 집단적 행동들과 민주적 과정을 통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접근에 적용한다. 지역적 수준과 글로벌 수준의 공동체의 정책이 갖는 현재적 영향과 한계, 그리고 미래의 영향과 한계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과 더 넓은 세계, 그리고 그들이 시민으로서 살고 싶은 사회들의 관계에 관해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한다.

3) 교육 내용: 학습프로그램(Programme of Study)⁵⁵⁾

가) 핵심 단계 1(Key Stage 1)

○ 지식·기술·이해(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 자신감과 책임감 기르기, 능력의 최대 발휘(Developing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and making the most of their abilities)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공평한 것과 불공평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인식하기
 -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 자신의 감정을 건전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명명하고 다루기
 -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인식하기
 -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방법
-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준비(Preparing to play an active role as citizens)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 받아야 한다.:
 - 다른 사람과 또는 전체 학급의 토론에 참여하기
 - 주제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기
 -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점 인식하기
 - 그룹 또는 학급의 규칙에 동의하고 규칙을 준수하기, 어떠한 규칙이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 사람과 생명체는 욕구가 있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55) 이하 내용은 <http://curriculum.qcda.gov.uk/> (영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가족과 학교 같은 다양한 그룹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 무엇이 지역의 자연환경, 인공환경을 향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알고 환경을 돌보기 위해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기
- 학급이나 학교의 생활에 기여하기
- 돈은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오고 다양한 목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영위(Developing a healthy, safer lifestyle)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선택을 하는 방법
 - 개인의 위생을 유지하기
 - 어떻게 질병이 확산되고 통제될 수 있는가
 -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의 성장 과정 및 어떻게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는가
 - 신체 주요 부위의 명칭
 - 약을 포함한 모든 가정용품을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과 규칙을 알기[예.: 간단한 교통규칙]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알기
- 좋은 인간관계와 사람들 간의 차이점 존중(Developing good relationships and resp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기
 -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협동하여 행동하고 일하기
 -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존중하기
 - 가족과 친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알기
 - 다양한 종류의 괴롭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괴롭히는 행동은 옳지 않으며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기

○ 학습 범위(Breadth of study)

- 핵심 단계 1(Key Stage 1)에서는 다음의 기회를 통해 지식·기술·이해를 습득해야 한다.:
 - 책임감을 기르고 공유하기 [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학급의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규칙을 따르기, 애완동물을 잘 보살피기]
 -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예.: 자신의 성취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 토론에 참여하기 [예.: 학교, 지역, 국가, 유럽, 영국 연방, 세계에 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예를 들면 ‘우리의 식량과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는 어디서 오는가?’와 같은 주제]
 - 실제 선택하기[예: 학교 급식 시 건강을 생각하며 선택하기,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하기, 어떤 경기를 할 것인지 선택하기,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지 선택하기]

-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기[예: 종교지도자, 경찰관, 보건교사 등의 외부사람]
- 일하거나 놀면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예: 그룹활동 시 다른 친구들과 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회적·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고려하기[예: 공격적인 행동, 공정함에 대한 의문, 옳고 그름, 정치적 문제, 돈의 사용, 환경 문제]
- 도움 요청하기[예: 가족과 친구, 주임교사, 선배, 경찰]

나) 핵심 단계 2(Key stage 2)

○ 지식·기술·이해(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 자신감과 책임감 기르기, 능력의 최대 발휘(Developing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and making the most of their abilities)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자신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쓰기
 - 자신과 자신의 성취의 긍정적인 측면을 규명하고, 자신의 실수를 돌이켜보고, 개인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설정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구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면하기
 -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지, 자신, 가족,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루는지 알기
 -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고 미래에 자신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지 인식하기
 - 돈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욕구를 채우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준비(Preparing to play an active role as citizens)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이슈가 되는 문제, 사항,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기
 - 규칙과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과 이유, 각기 다른 상황에는 각기 다른 법칙이 필요한 이유,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
 -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결과를 깨닫기, 예를 들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인종차별
 - 가정·학교·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책임·권리·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책임·권리·의무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문제에 관해 심사숙고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하기
 - 대안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택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차이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관은 무엇인지 알기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 압력단체의 역할을 인식하기
- 영국내 국가적·지역적·종교적·인종적 성향에 대해 이해하기
- 자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당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의 선택은 개인과 지역공동체, 환경의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구하기
-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영위(Developing a healthy, safer lifestyle)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예를 들면 운동 및 건전한 식습관의 효과)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의 규칙을 따르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 사춘기에 접어들어 따라 어떠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기
 -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약물 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인 것을 알고, 이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알기
 - 다른 상황에서의 다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예를 들면 현명하게 길을 이용하기,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허용 가능 또는 허용 불가능한지 판단하기)
 - 적절하지 않게 또는 위험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예를 들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기
 - 건강, 안전, 간단한 응급처치, 도움 요청에 관한 학교의 규칙을 알기
- 좋은 인간관계와 사람들 간의 차이점 존중(Developing good relationships and resp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 학생들은 다음을 지도받아야 한다:
 -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도록 노력하기
 -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 다른 가치관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관계(예를 들면 결혼이나 친구·가족관계)에 대해 알고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 인종차별, 놀림, 괴롭힘, 공격적 행동의 특성과 결과에 대해 깨닫고 어떻게 대응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기
 - 고정관념에 대해 인식하고 도전하기
 - 사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기(예를 들면 문화, 민족, 인종과 종교적 다양성, 성별, 능력)
 - 개인, 가족, 그룹이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곳 알기

○ 학습범위(Breadth of study)

- 핵심 단계 2(Key Stage 2)에서는 다음의 기회를 통해 지식·기술·이해를 습득해야 한다:
 - 책임감을 기르고 공유하기[예: 학교환경을 계획하고 돌보기, 또래집단의 지지자·친구·나이가 어린 학생들 간의 중재자로서 다른 사람의 요구 들어주기, 적절하게 동물을 돌보기, 등하교길을 계획할 때 안전하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수단을 알아내기]
 -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예: 개인적인 일기, 프로필, 성취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자신의 능력과 책임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기회 가지기]
 - 참여하기[예: 위원회, 의회, 정부, 선거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와 관련된 학교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 실제로 선택하고 결정하기[예: 흡연과 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희소자원의 사용에 대해, 용돈 사용 및 기부금 등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기[예: 환경단체나 국제원조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종교지도자나 지역공동체 경찰관 등 학교나 이웃에서 일하는 사람들]
 - 일하거나 놀면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예: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특수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성, 전자우편, 편지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회적·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고려하기[예: 다른 인종 간의 존중과 이해를 높이고 괴롭힘의 문제를 다루기]
 - 정보를 찾고 조언을 구하기[예: 도움협조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함으로써]
 - 변화에 준비하기[예: 중등학교에 진학하기]

4)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속에는 교수 학습 방법 자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이해가 포함된다. 특히 도덕교육의 경우, 교사의 모범이나 교수 학습 방법 과정이나 방법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점이 적지 않게 포함된다. 이들 방법들은 도덕교육 이론들에서 연역되는 것들이 많아 도덕교육 이론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도덕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요한 교수·학습 방법들은 어떤 특정 이론에 토대하기보다는 절충적인 입장에 근거한다. 영국의 전통적인 언어 분석 철학에 근거한 개념 분석이나 가치 분석 방법, 가치 명료화, 토의, 정의공동체, 또래 중재(Peer Meditation), 대화 등이 그것이다.⁵⁶⁾ 그리고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교수의 일반적인 필요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학습 도전 설정하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응하기’, ‘학생 개개인이나 집단의 평가와 학습에 대한 잠재적 장애 극복하기’라는 세 가지 총괄 원칙을 제시한다⁵⁷⁾.

56) 앞의 차우규·윤현진(2002), 『도덕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I)』, p. 145.

57) 앞의 교육인적자원부(2007),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II): 영국』, pp. 37-46.

5) 평가

영국에서의 학생에 대한 평가(Assessment)는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계획, 시행되어지고 있다. 평가를 통해서 개별 학생과 학교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국가 교육과정에서 각 학년별, 교과별로 설정하고 있는 성취기준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와 국가 단위 성취도 평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문맥을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필연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5세에서 16세의 영국의 공립학교(state schools)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의 단계별 구분과 성취도 레벨, 그리고 평가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과정은 Key Stage에 의해 구분된 학년별 구분 중 5세에서 14세의 학생들(Key Stage 1-Key Stage 3)이 각각의 해당 과목에서 달성해야하는 성취도 레벨(Levels of achievement)를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이러한 국가 설정 성취도 레벨은 Level 1에서 8까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다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민교육 핵심 단계 1과 2의 말미에서 도달되리라고 기대되는 목록이다. 이 목록은 비법정 교과목인 '개인·사회·보건교육'(PSHE)와 시민교육의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 적용된다⁵⁸⁾.

○ 핵심 단계 1(Key Stage 1)

- 핵심 단계 1의 말미에 학생들은 지적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갖는다.
 - 도덕적, 사회적 딜레마를 포함한 주제들과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숙고한다.
 - 옳고 그름, 공정성과 규칙 등과 같은 간단한 시민권 개념들을 이해한다.
 - 정직, 관용,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가치를 이해한다.
- 학생들은 탐구와 의사소통의 기술을 설명한다.
 - 간단한 질문에 대응하고 몇몇의 토론 상황과 학급에서 그들 자신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 학생들은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 기술을 설명한다.
 - 학급과 학교의 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협동하며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나눈다.
 - 진정한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해한다.

○ 핵심 단계 2(Key Stage 2)

- 핵심 단계 2의 말미에 학생들은 지적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갖는다.
 - 매스 미디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제적 이슈와 문제를 탐구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 또는 정보와 충고를 찾는다.
 - 권리, 책임, 규칙, 옳음과 그름, 그리고 공정성 등과 같은 시민권 개념을 이해한다.

58) 이하 내용은 <http://curriculum.qcda.gov.uk/> (영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정직, 관용, 존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같은 가치를 이해한다.
- 학생들은 탐구와 의사소통의 기술을 설명한다.
 - 학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간단한 토론과 토의에 참여한다.
 - 학생 자신의 관점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다.
 -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 사람들이 이슈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활용한다.
- 학생들은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 기술을 설명한다.
 -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는 등의 그룹, 학급, 학교의 시민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
 - 지역 사회의 간호사, 경찰관, 상담가와 같은 어른들과 만나고 대화한다.
 - 자신의 행동이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나. 영국 도덕과 교과서 분석

1) 교과서 정책

영국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에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나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검정교과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틀만을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는 지역과 개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영국의 교과서 관련 행정시스템에 의하면, 교과서의 저작·편집·발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 규제사항이 없으며,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사회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찬·발행되고 있다. 교과서 편찬은 자유발행제도로써 교육현장의 교사가 요구를 조사하고, 출판사에서 조사·연구한 것을 추가한 다음, 국가 교육과정에 준해서 교과서 편찬방침을 세우고 저자를 선정한다. 집필 원고는 현장 교사가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 사진, 삽화를 추가한다. 교과서의 채택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⁵⁹⁾

영국에서 교과서 개념은 한 마디로 다소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은 모두 교과서인 것이다.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경우,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는 비법정 교과이기 때문에 영국 내에 실질적으로 시민교육만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으며('개인·사회·보건교육'와 통합된 형태의 교과서),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는 법정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개발된 교과서가 존재한다. 영국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시민교육을 위해 비공적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것이 시민성이다』(This is Citizenship) 시리즈(저자: 테리 핀 & 줄리아 핀[Fiehn, Terry & Fiehn, Julia]; 출판사: 호더교육출판사[Hodder Education])이다. 『이것이 시민성이다』(This is Citizenship) 시리즈

59) 앞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201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사업: 영국』, p. 4.; 이정기 외, 『외국의 교과용 도서 내용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7-4, 2007, pp. 92-93.

지는 1권(Year 7), 2권(Year 8), 3권(Year 9)으로 구성되며, 영국 국가 교육과정 상 핵심 단계 3에 해당되지만, 1권, 2권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 대비할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 연령에 해당된다.

2)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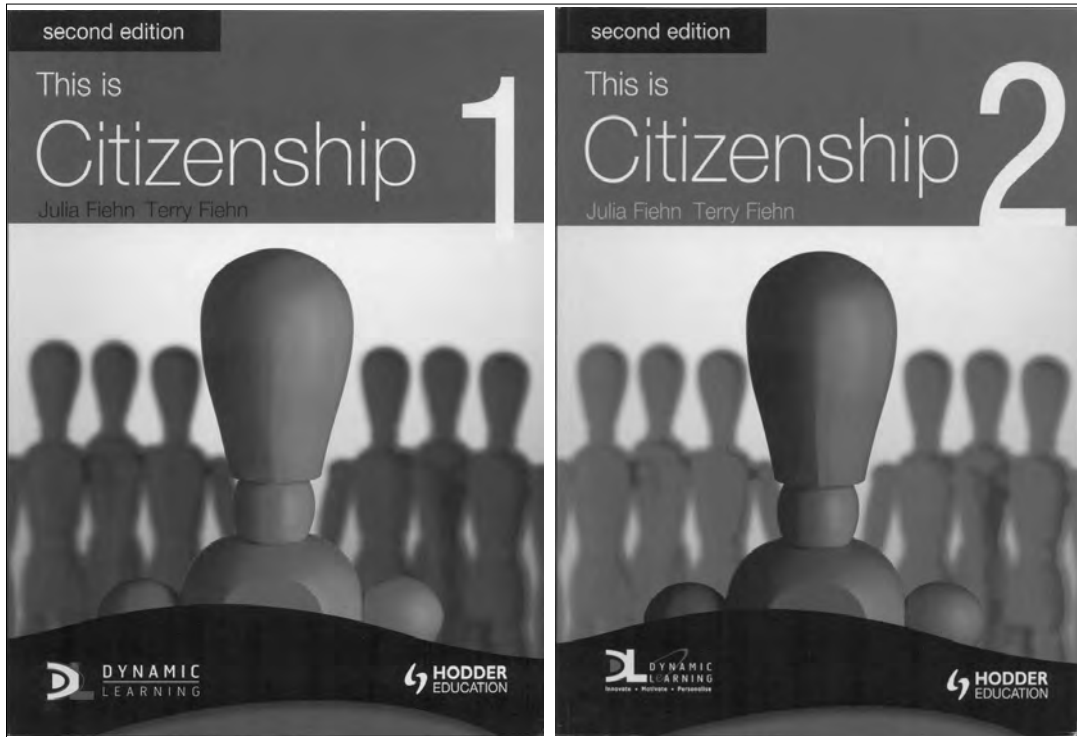
교과서 명칭은 『이것이 시민성이다 1』(This is Citizenship1)과 『이것이 시민성이다 2』(This is Citizenship2)의 두 가지가 있다. 영국 국가 교육과정 상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 해당하는 시민교육은 비법정 과목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개설 여부 및 시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에 해당하는 시민교육은 법정 과목이기 때문에, 7학년 이후 주당 2시간씩 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이것이 시민성이다 1, 2』(This is Citizenship 1, 2)는 해당 학년별로 주당 2시간씩 배정된다. 이 때 『이것이 시민성이다 1』은 연간 1권으로서 90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시민성이다 2』 역시 연간 1권 체제로서 91쪽이다.

보조 교과서 측면에서 보면, 핵심 단계 1, 2에 해당하는 시민교육은 비법정 교과이기 때문에 국정 또는 검정 교과서가 없으며, 그에 따라 보조교과서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해당하는 영국의 QCA는 국정 교육과정 및 비법정 과목에 대한 <핸드북, The National Curriculum Handbook>을 제공한다.

핵심 단계 3, 4에 해당하는 시민교육은 법정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함께 보조교과서 형식의 자료도 존재한다.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책자와 자료가 교과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교 또는 교사에 따라 보조 교과서가 수없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국 시민교육의 교과서로 주로 채택되는 『이것이 시민성이다』(This is Citizenship) 시리즈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Teacher's Resource Book, 교사용 보조자료, 우리나라 교사용 지도서와 유사)와 『이것이 시민성이다: 학습용 CD-ROM』(This is Citizenship: Dynamic Learning Network CD-ROM, 교수·학습 동영상 보조자료)가 보조 교과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사용 지도서』와 『이것이 시민성이다: 학습용 CD-ROM』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보조 교과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사 또는 교수·학습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이다.

3) 외형, 표지 등

크기는 274×208×60mm이고 색도는 4도 인쇄이다. 표지 구성을 보면 도서명이 표지 상단에 큰 글씨로 쓰여 있고, 교과서 별로 빨강, 검정 또는 파랑, 검정 등 단순한 색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코팅지 재질로서, 우리나라 교과서 표지 재질과 거의 동일하다. 삽화/사진 구성을 보면 사람 모양의 목각 인형 그래픽으로 단순 명료하게 되어 있다. 서체는 Arial체로 되어 있고 표지 제목은 40p 내외, 목차 내용은 13-14pt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목차는 큰 Section별로 글자색을 달리 하여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1.1 / 1.2 / 3.6과 같이 단순 명료하게 목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소단원별 쪽수가 오른쪽에 명기되어 있다.



<그림-Ⅳ-1> 영국 도덕 교과서의 명칭과 겉표지 모습

4) 교과서 내용 구성

가) 내용 구성 개관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은 주당 2차시 내외로 배정된다. 따라서 하나의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3개 대단원(Section), 24개 내외의 소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단원(Section)에는 18-20차시 정도, 하나의 소단원에는 2차시 내외로 내용이 배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단원별 분량은 『이것이 시민성이다 1』의 경우 1, 2, 3단원이 각각 30쪽, 32쪽, 27쪽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시민성이다 2』의 경우에는 1, 2, 3단원이 각각 28, 32, 28쪽으로 되어 있다.

각 교과서마다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 설정의 취지 및 배경을 보면, 제1단원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차원에서 규칙 준수, 공정성, 권리, 책임 등의 주요 개념들을 학습하고, 학생들의 교우 관계, 학급, 학교, 지역 사회 등에서 일어나는 실례를 논의함으로써 도덕적이며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취지가 있다. 제2단원은 공동체(주로 지역 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변화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리고 제3단원은 글로벌 공동체에서 정의, 원조, 인권, 차별 등의 주요 개념들을 학습하고, 제3세계 문제, 인권, 이민, 난민,

공정무역, 원조 등 글로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실례를 논의함으로써 도덕적이며 건전한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국의 시민교육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윤리사상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독립 교과로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Section 1: Rules and fairnes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1
1.1 Would you like to go to school on Hoff?	2
1.2 Are school rules fair?	4
1.3 It's not fair!	8
1.4 What rights should all children have?	14
1.5 No man is an island	16
1.6 Whose responsibility?	18
1.7 Having a say	22
1.8 Taking part in a debate	26
<i>Developing your debating skills</i>	29
<i>Reflection</i>	30
Section 2: Communities and identities	31
2.1 Belonging to a community	32
2.2 Identities	34
2.3 Living together in communities	42
2.4 How would you change your local town centre?	46
<i>Developing your research skills</i>	48
2.5 Are you a good or an active citizen?	50
2.6 Can you change anything?	52
2.7 How can we make our communities sustainable?	56
2.8 Bringing communities together	60
<i>Reflection</i>	62
Section 3: Being a global citizen	63
3.1 What do you know about other countries?	64
3.2 How are you connected to the world?	68
3.3 Hard labour!	70
3.4 Fair trade	76
3.5 How can charities help?	78
<i>Developing your campaigning skills</i>	81
3.6 How does tourism affect people?	82
<i>Reflection</i>	88
Glossary	89
Index	90

<그림-IV-2> 영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및 목차 제시 방식

단원 구성 현황을 보면 제1단원의 경우는 민주주의와 정의와 관련하여 ‘공공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 판단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과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기’, ‘권리가 경쟁하거나 충돌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8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다.

제2단원의 경우는 민주주의와 정의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정의, 다양성, 관용, 존중, 자유 등이 변화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믿음, 배경,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숙고하기’, 정체성과 다양성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8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3단원의 경우는 ‘세계 시민으로 되기’, ‘글로벌 공동체에서 인권’ 등을 주제로, 정의,

공정성, 인권, 원조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6개 내지 8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된다.

나) 『이것이 시민성이다 1』(This is Citizenship1)

○ 1단원: 규칙과 공정성, 권리와 책임(Section 1: Rules and fairnes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목표/단원 소개: 공정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권을 소유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것을 기대한다.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그룹들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들을 만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겠다고 느낄 정도로 규칙들을 적용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평가: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근거들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청하고 고려하며, 이슈들을 이해한다.
- 차시별 지도 내용
 - 너는 호프 행성의 학교에 가고 싶은가?: 호프 행성과 지구에 있는 학교들의 규칙들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규칙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알아본다.
 - 학교의 규칙들은 공정한가?: 모든 그룹들에는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학교 규칙들이 공정한지를 실례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어떤 규칙이 공정한 것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는 것을 가정하여 어떻게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 그것은 공정하지 않아!: 공정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공정한 대우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 학생들은 어떤 권리를 가져야만 하는가?: 학생들은 어떤 권리를 소유·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본다.
 - 그 누구도 혼자서는 아니다…: 결정과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책임들을 수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누구의 책임인가?: 주어진 각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논의한다.
 -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본다.
 - 토론에서 역할 수행: 토론은 이슈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바람직한 과정임을 깨닫고, 사람들이 토론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본다.

○ 2단원: 공동체와 정체성(Section 2: Communities and identities)

- 목표/단원 소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너에게 소속감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모두는 이웃과 같은 지역 공동체에서 살며, 우리는 또한 도시와 같이 서로 다른 수많은 그룹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을 좋아하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

신이 살고 있는 고장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그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도 가지지 않는다.

- 평가: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연구와 탐구적 과제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변화를 위한 행위 양식을 생각할 수 있다.
- 차시별 지도 내용
 - 공동체에 소속됨: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들은 각자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아본다.
 - 정체성: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와 문화에 소속되는 것은 그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아본다.
 -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 어떻게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 당신은 좋은 시민 또는 참여적 시민인가요?: 좋은 시민의 의미를 알아보고, 좋은 시민과 참여적 시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 당신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참여적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과 그 방안을 알아본다.
 -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환경윤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
 -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서로 다른 특성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 3단원: 세계 시민으로 되기(Section 3: Being a global citizen)

- 목표/단원 소개: 우리는 세계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간에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공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여행한다. 우리는 교역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상점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참혹함을 일으키는 홍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재앙 또는 전쟁과 같이 인간이 만든 재앙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나라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세계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일들은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모두는 글로벌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
- 평가: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 이외의 관점들을 표현하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들을 경청하며, 인터넷을 사용하여 연구하며,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 차시별 지도 내용
 - 다른 나라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제3세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당신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본다.
- 힘든 노동!: 사람들은 가능한 값싸게 물건을 사고자 하지만, 그 물건들이 때로는 아동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아본다.
-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의 의미를 알아보고,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본다.
- 어떻게 자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자선과 기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아보고, 자선과 기부를 통해 (제3세계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본다.
- 관광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관광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과 손실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관광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측면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다) 『이것이 시민성이다2』(This is Citizenship2)

○ 1단원: 규칙과 공정성, 권리와 책임(Section 1: Rules and fairnes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목표/단원 소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모든 그룹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규칙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을 때 법이 된다. 법은 성문화되어 있고 경찰에 의해 강제된다. 사람들이 법을 어겨 고소되었을 때,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정 에 간다. 법정은 범죄의 유죄 여부를 밝힘으로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법의 공정성과 그들이 강제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도 한다. 범죄는 범죄자, 희생자, 사회 전체에 결과를 가져 온다.
- 평가: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얼마나 고려하는지, 관점을 얼마나 잘 대변할 수 있는지, 결정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얼마나 잘 결정할 수 있는지, 청소년 범죄와 정의와 관련된 이슈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 차시별 지도 내용
 - 법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생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 청소년들은 왜 법을 어기는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10살 이상일 때(스코트랜드에서는 8살 이상일 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님을 이해하고, 청소년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니게 되며 체포, 재판, 처벌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청소년들은 왜 갇단에 매력을 느끼는가?: 청소년들이 갇단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들이 갇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본다.
 - 청소년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국의 법제도가 청소년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과정을 이해한다.
 - 소년 법원: 청소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소년 법원의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 판결: 소년 법원에서의 판결 과정과 그 내용을 이해한다.

- 범죄의 결과: 모든 범죄는 희생자들에게 심각한 손실과 상해를 끼치며, 범죄자 자신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이해한다.
- 청소년 범죄자 시설: 청소년 범죄자 시설(YOI)의 기능과 일상에 대해 알아본다.

○ 2단원: 지역 사회와 지역 정부(Section 2: Local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목표/단원 소개: 우리는 모두 마을, 읍, 도시 또는 자치 지구의 부분인 지역 공동체 또는 이웃 속에 살고 있다. 각 지역은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역 정부 또는 의회를 갖고 있다. 지역 의회는 일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쓰레기 처리, 도서관, 보육 시설, 공영 주택,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 학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들은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헌신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공동체는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 평가: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생각, 의견과 신념을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며,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설명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행동들을 계획하며, 서로 다른 그룹들을 포함한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이슈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받는다.
- 차시별 지도 내용
 - 당신 이웃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지역 의회(정부)의 기능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 누가 당신의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는가?: 지역 의회 의원의 선출 과정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 슈퍼마켓이 났치다! - 의사 결정 역할 놀이: 지역의 작은 마을에 체인형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하고, 각 사회 그룹별로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의견들을 토대로 역할 놀이를 실행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당신이 지불한 만큼 얻게 되는가?: 세금의 중요성, 세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무엇이 사람들을 원만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가?: 지역 의회는 그 지역에서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가능한 갈등들을 감소시키고 해결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이해한다.
 - 무엇이 전형적인 것이고, 그것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떤 그룹에서 통용되는 전형적인 사유와 관점에 집착할 경우 개인들 간의 차이와 그룹들 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인종주의의 결과: 인종주의가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아보고, 그것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본다.
 - 학교와 공동체: 학교는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본다.

○ 3단원: 글로벌 사회에서의 인권 (Section 3: Human rights in a glob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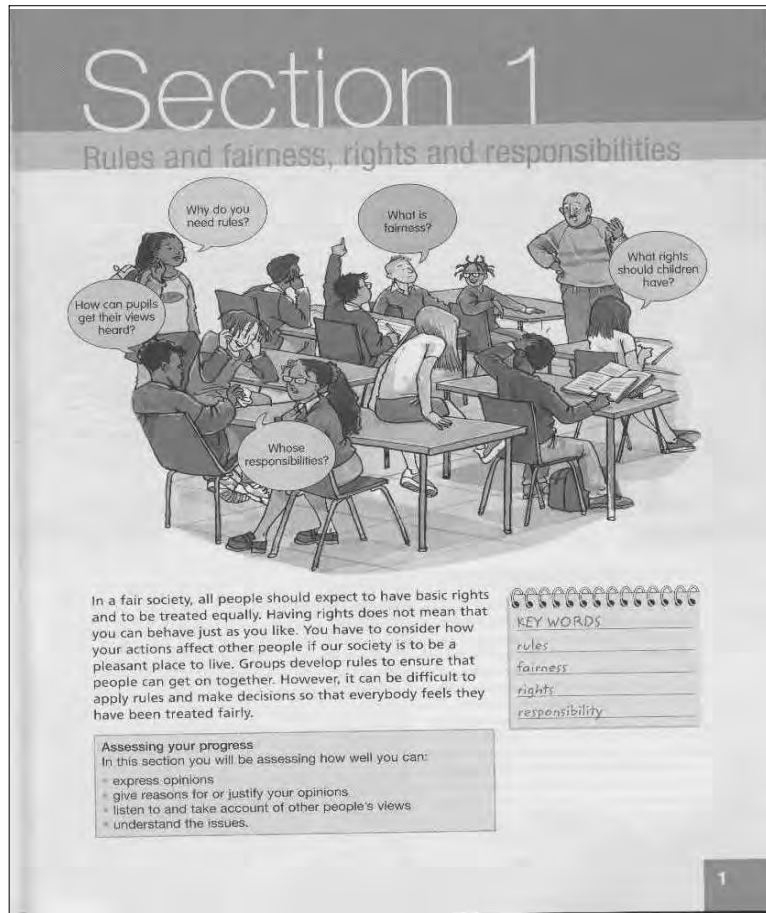
- 목표/단원 소개: 우리는 모두 이전보다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다. 위성 전화, 인터넷, 더 편리해진 항공편 등과 같은 현대 기술은 서로 다른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항상 수월하게 해준다. 이러한 의사소통 덕분에 우리는 어떤 정부가 국민을 잘 대우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게 된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그렇지만 세계에는 아직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망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세계를 더 많이 돌아다닌다.
- 평가: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정보들을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며, 자신의 캠페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연마하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인권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차시별 지도 내용
 - 호프 행성에서의 시민의 권리에 대해 탐구하기: 시민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정의롭고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논의한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각종 인권 선언문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글로벌 세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유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은 점차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 유럽인들의 이주: EU의 형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EU 내에서의 유럽인들의 이주, 삶과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 난민들: 난민의 발생 원인과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 언론에 대한 진정(고소): 언론이 개인의 권리,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당 기관(Press Complaints Commission)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말할 수 있는 권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5) 교과서 구성 방식과 특징

가) 단원의 체제·구성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 교과서는 대단원(Section) 맨 앞에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 6-8개의 소단원, 대단원 맨 뒷부분에 대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소

개하는 부분은 대단원에서 논의되는 각 주제와 내용을 삽화와 함께 짧은 질문으로 물어보는 형식, 10여 줄 내외의 짧은 문단으로 소개하는 형식, 주요 개념어로 제시하는 방식, 대단원의 주요 평가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 등 4가지로 구성된다.



<그림-Ⅳ-3> 영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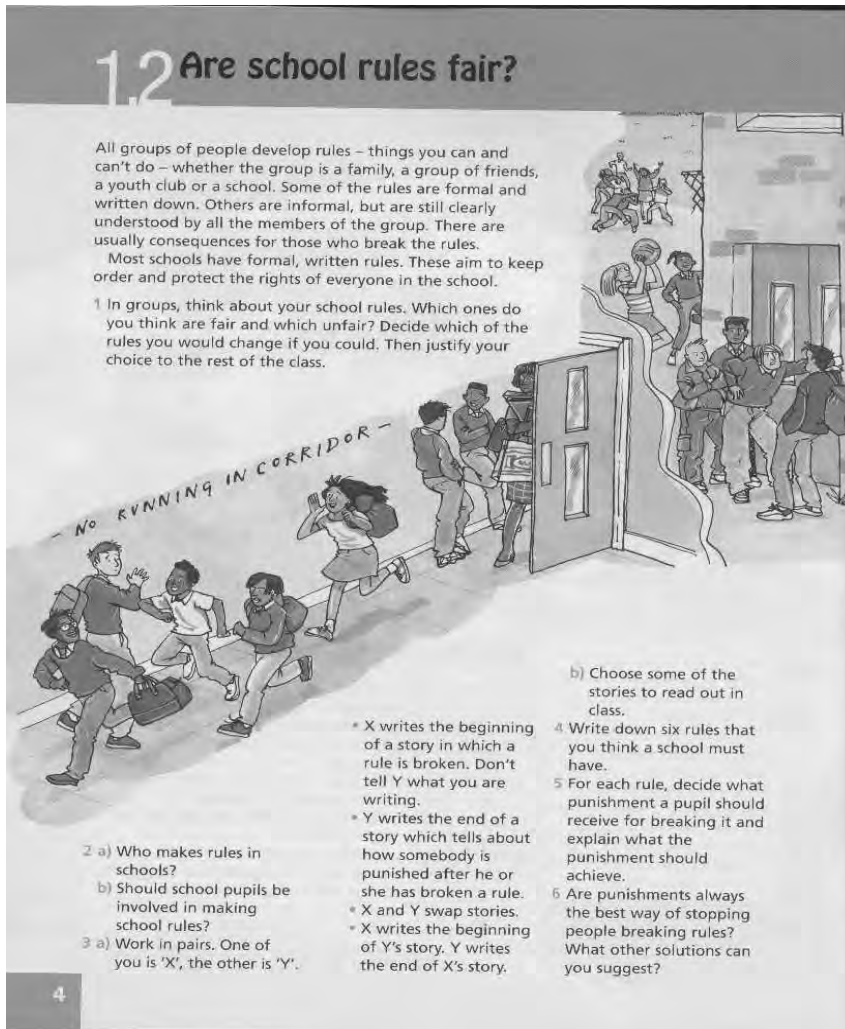
그리고 대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은 대단원의 주요 평가 내용에 대한 자기 평가서 작성, 대단원의 주요 주제를 이해 여부를 묻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나) 학생 토론 및 활동 중심의 구성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 교과서는 소단원별 성격에 따라 그 구성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각 소단원은 일반적으로 소단원의 주요 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각 소단원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 관점, 의견 등을 제시하고 토론, 역할놀이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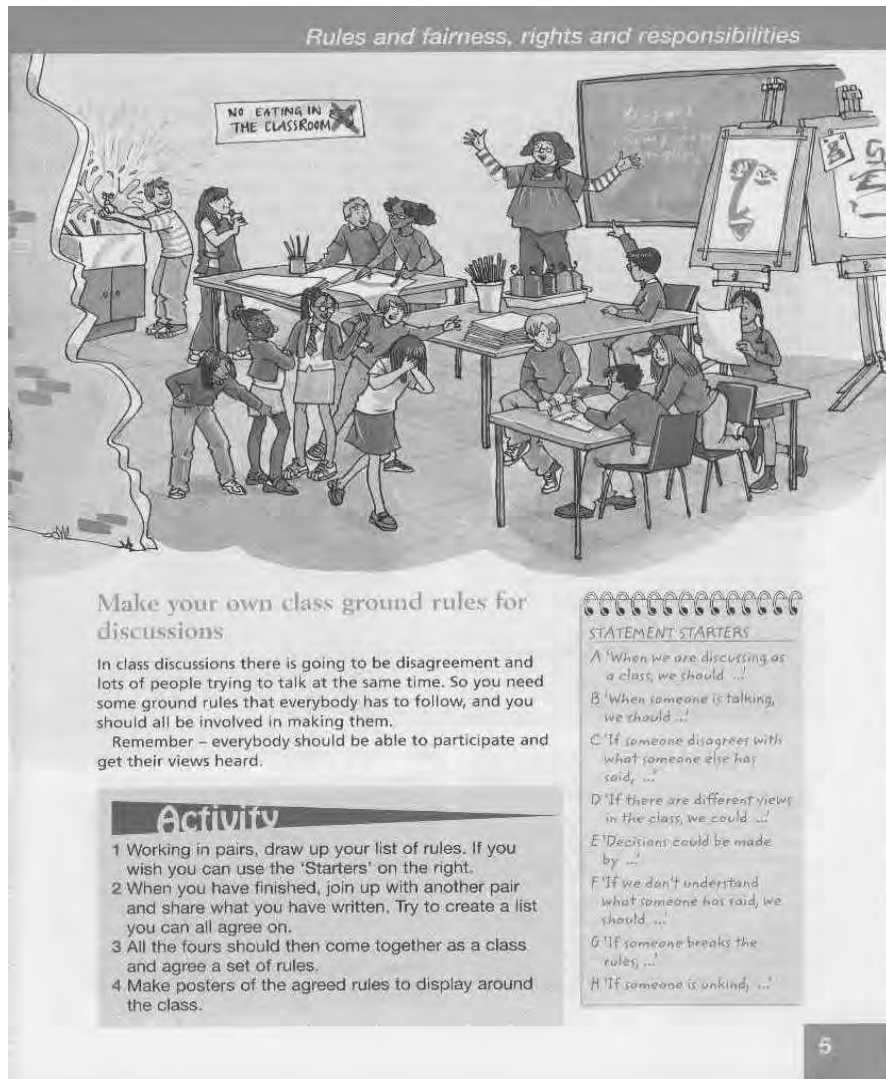
고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생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단원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토론, 역할놀이 등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 짧은 주제 설명과 협동학습 및 도덕판단 중심의 구성



<그림-Ⅳ-4> 영국 도덕 교과서의 도덕판단 중심의 구성 모습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소단원에서 주제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10여줄 내외로 매우 짧은 편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학생들의 활동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짧게 소개하거나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전제가 되는 내용(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의견)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림-Ⅳ-5> 영국 도덕 교과서의 협동학습 중시 모습

또한 활동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혼자서 간단한 질문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하여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평가, 대안들의 비교 및 평가 등 토론 위주의 협동학습을 위한 교과서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주고 열려진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 및 가치 판단을 제시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 선택과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라) 풍부하고 흥미로운 삽화와 만화의 활용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 교과서는 삽화가 각 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각 쪽의 삽화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그림 형식의 삽화는 아니지만, 문제 상황에 따른 관점, 의견, 가치 판단을 제시할 때 박스 또는 말풍선을 활용해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 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분량에 비교했을 때, 사진이 매우 적은 편이다. 사진의 분량은 대단원(Section)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대단원은 사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단원은 10여 장 정도의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다. 대단원(Section)별로 비교했을 때, 3 대단원(세계윤리 관련 단원)에서 세계윤리 문제와 관련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진들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삽화는 주로 영국(미국) 등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만화(Cartoon)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 편집 및 학습 보조물 등

영국 시민교육(도덕교육) 교과서의 지질은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거의 동일하며, 각 쪽의 여백은 거의 두지 않고 꽉 찬 느낌을 주는 편이다. 본문의 서체는 주로 Arial체, 11포인트(박스 내부 제시문은 10포인트) 정도 크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시민교육(도덕교육) 교과서에 따른 학습보조물은 보조교과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것이 시민성이다: 학습용 CD-ROM』(This is Citizenship: Dynamic Learning Network CD-ROM, 교수·학습 동영상 보조자료)가 있는데, 이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직접 부착된 학습보조물은 없으며, 교사 스스로 수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보조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영국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의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특징상 국가에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나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검정교과서가 없다. 도덕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을 통해 독립 교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서는 비법정 교과이기 때문에 시민교육만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가 없으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에서는 법정 교과로서 독립된 교과서를 갖고 있다.

둘째, 영국에서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시민교육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1, 2에서는 시민교육과 개인·사회·보건교육(PSHE)을 함께 묶은 교과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도덕교육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3, 4에서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과교육과 도덕교육의 성격을 공유하면서 주로 좋은 시민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나 심지어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검정교과서가 없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에서는 물론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도덕교육은 시민교육의 형태로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민교육은 비법정 교과이다. 그래서 영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개인·사회·보건교육을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과는 도덕교육의 성격을 일부 지니면서도 사회과, 보건과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체계적인 도덕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육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국의 중등학교 과정(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국의 중등학교 저학년 과정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에 해당함)에서 시민교육은 법정 교과로서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시민교육은 도덕교육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일반 사회과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도덕 판단과 도덕 행위 실천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영국의 도덕교육은 학생들(청소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하나의 독립 교과로 운영될 필요성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 도덕 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도덕교육은 사회과교육과 연계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시민교육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시민교육 교과서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영국의 시민교육(도덕교육)은 1단원에서 규칙 준수, 공정성, 권리와 책임 등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관련된 가치 판단을, 2단원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 육성을, 3단원에서는 글로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의, 인권, 원조, 차별 등 이슈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도덕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로서 인간의 본질, 도덕 판단의 원리, 윤리 사상 등에 관한 학습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영국의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교육을 통해 시민성 향상에 주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가치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도덕 원리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시민교육은 도덕과교육과 사회과교육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교과서는 도덕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도덕 판단력 신장, 도덕 행위 실천 등을 위해서는 도덕 판단의 원리와 윤리 사상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국의 도덕교육의 한 형태로서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규칙 준수, 공정성, 권리와 책임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시민성 교육에 적합하지만,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기준에 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도덕 판단 능력 향상, 도덕 행위 실천 등을 위한 도덕교육과 도덕 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도덕 교과서가 주는 좋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각 소단원이 전체적으로 주요 주제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토론, 역할놀이 등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평가, 대안들의 비교 및 평가 등 토론 위주의 협동학습을 위해 꾸며져 있다.

둘째,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 및 가치 판단을 제시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 선택과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주요 주제와 내용의 직접적인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토론 위주의 협동학습을 통해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꾸며져 있다. 이는 유럽 사회의 토론 위주의 교육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서 학생들의 협동학습, 토론학습, 자율적 가치 판단 등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주제와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요약하면,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학생들 간의 토론, 역할놀이 등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즉,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적절한 가치 판단에 이를 수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도덕교육이 학생들 간의 토론, 역할놀이 등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향후 우리나라의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장점 및 특징으로 부각된 덕목 중심의 교육과 이러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융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영국의 도덕교과서(시민교육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은 향후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 개발 방향과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교과서의 전문화와 적정 수준의 가치, 덕목의 선정 문제이다. 영국의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시민교육 교과서는 실질적으로 도덕과의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과의 성격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 즉,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 도덕적 실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 권리,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 구성은 긍정적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핵심 가치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교수되는 가치, 덕목들이 협소하고 실제적인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력을 강조하는 도덕 교과서의 전문화를 피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적 가치·덕목 요소들을 적정 수준에서 선정하고 조직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행 도덕교과서에서 다루는 19개의 가치·덕목은 과다한 편이므로 10여 개 내외의 핵심 가치·덕목으로 축소하고, 그 가치·덕목들이 도덕적 사유와 도덕 판단력과 연계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치 관계의 확장에 따른 교과서 단위 구성과 단위별 쪽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자신이 속한 가족, 학급, 학교 등 작은 공동체의 도덕 문제, 지역 사회 및 국가 공동체의 사회 문제, 글로벌 공동체의 과제와 책임 등 생활 관계 또는 가치 관계의 확장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도덕교육과정 역시 실질적으로 가치 관계의 확장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시민교육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이 발달하고 가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저학년 시기의 가치 관계의 범위와 고학년 시기의 가치 관계의 범위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각 단위별 또는 가치 관계 영역별로 학년에 관계없이 동일한 쪽수를 배정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과 가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자율적인 분량 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활동 중심의 도덕교육을 지향점으로 삼는 문제이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내용 전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즉,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짝을 이룬 협동학습을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모든 윤리적 문제들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해결책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도덕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 간의 도덕 문제에 관한 토론이 자칫 결론 없이 끝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덕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도덕적 관점들의 장·단점을 교과서 내에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독일

가. 독일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 도덕교육의 성격과 위상

독일은 각 주마다 자율적인 교육정책과 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모든 주에 해당되는 도덕교육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규정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도덕교육은 대부분의 주에서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체과목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학생이거나 종교수업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덕교과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서 도덕교과 수업시수는 종교교과 수업시수와 - 학년별로 다르지만 주당 2시간 정도 - 일치한다.⁶⁰⁾

독일의 도덕교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거의 대부분의 주들에 안착되었다고 평가된다. 독일에서 종교교과는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주요과목이었다. 그런데 학교교육은 비종교적이고 중립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야 한다는 교육운동을 계기로 도덕교과는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체교과로서 학교교육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주요한 이유 이외에도 공통의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초래한 사회 분열을 치유하려는 국가적 요구는 독일에서 도덕교과가 도입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지난 20-30여 년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다양한 세계관의 증가 등은 사회적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는 덕들의 상실을 가져왔고, 학교에서는 도덕적, 법적, 교육적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교육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초한 사회 통합을 추진하려는 국가적 요구는 독일에서 도덕교과가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정규 교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독일에서 도덕교과는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정규 교과로 도입된 동시에 보편적 가치와 도덕규범을 교육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교과로서의 자리매김 되었다.⁶¹⁾

독일의 도덕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교육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도덕교과는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교과(Ersatzfach)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학생 자신이 양심적 이유로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는 조건을 도덕교과 수강을 위한 전제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종교교과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도덕교과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최근 10-20여 년 사이에 도덕교과를 의무 선택교과(Wahlpflichtfach)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 즉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교과가 아니라 학생들이 종교교과와 도덕교과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몇몇 주에서는 도덕교과를 의무 선택교과로 지정하였고 베를린에서는 도덕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독일에서 도덕교과는 최근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주요교과로 자리매김 되었던 종교교과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독일의 각 주별 도덕교육 상황⁶²⁾

우선, 독일의 도덕교육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도덕교육이 윤리(Ethik)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60)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Situation des Ethikunterri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icht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2.02.2008., 2008. pp. 7-10.

61) Tremml, Alfred, K., “Ethik als Unterrichtsfach in den verschiedenen Bundesländern”, in: Ethik macht Schule! Moralische Kommunikation in Schule und Unterricht, Frankfurt a.M., 1994. pp.18-29.; 본 자료의 인용쪽수 표시는 www.schulfach-ethik.de에서 다운받은 자료 쪽수에 의거함. 본 자료의 pp. 1-6.

62) 앞의 Zur Situation des Ethikunterri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p. 12-76.

베를린(Berlin), 헤센(Hess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작센(Sachsen), 튀링엔(Thüringen) 등 7개 주에는 윤리(Ethik) 교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잘란트(Saarland) 주에는 일반 윤리(Allgemeine Ethik)라는 명칭으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에는 윤리수업(Ethikunterricht)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즉, 독일에서 도덕교육으로서 윤리(Ethik)를 개설한 주들은 총 9개로서, 독일의 16개 주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IV-1> 독일의 주별 도덕교육 현황

주	교과명	교과 성격	개설 학년	초등학교 개설여부
Baden-Württemberg	윤리(Ethik)	대체교과	8-12/13학년	
Bayern	윤리(Ethik)	대체교과	1-12/13학년	○
Berlin	윤리(Ethik)	필수교과	7-10학년	
Brandenburg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필수교과	5-10학년	
Bremen	철학(Philosophie)	대체교과	5-7학년 및 10학년	
Hamburg	철학(Philosophie)	의무 선택교과	9-12/13학년	
Hessen	윤리(Ethik)	대체교과	5-12/13학년	
Mecklenburg -Vorpommern	어린이의 철학함 (Philosophieren mit Kindern) 철학(Philosophie)	대체교과	1-12/13학년	○
Niedersachsen	가치와 규범 (Werte und Normen)	필수교과	5-12/13학년	
Nordrhein -Westfalen	실천철학/철학 (Praktische Philosophie/ Philosophie)	대체교과	5-12/13학년	
Rheinland-Pfalz	윤리(Ethik)	대체교과	1-12/13학년	○
Saarland	일반 윤리 (Allgemeine Ethik)	대체교과	5-12/13학년	
Sachsen	윤리(Ethik)	의무 선택교과	1-12/13학년	○
Sachsen-Anhalt	윤리수업 (Ethikunterricht)	의무 선택교과	1-12/13학년	○
Schleswig-Holstein	철학(Philosophie)	대체교과	5-12/13학년	
Thüringen	윤리(Ethik)	대체교과	1-12/13학년	○

두 번째 유형은 도덕교육이 철학(Philosophie)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로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쉘스빅-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등 3개 주에는 철학(Philosophie) 교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메클렌부르크-포아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에는 어린이의 철학함(Philosophieren mit Kindern) - 김나지움 상급반은 철학(Philosophie) - 이라는 명칭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에는 실천철학/철학(Praktische Philosophie /Philosophie)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마지막 유형은 도덕교육이 윤리(Ethik), 철학(Philosophie)과는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에는 삶의 설계-윤리-종교(L-E-R)이라는 명칭으로,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에는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한편, 독일의 도덕교육을 교과 성격의 차원에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도덕교과가 종교교과의 대체교과(Ersatzfach)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 바덴-뷔르텐부르크(Baden-Württemberg) 주를 비롯한 총 10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덕교과가 종교교과와 동일한 교과군에 묶여서 의무 선택교과(Wahlpflichtfach)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 함부르크(Hamburg)를 비롯한 총 3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도덕교과가 필수교과로 지정된 경우로서 베를린(Berlin)을 비롯한 총 3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독일에서 도덕교육이 초등학교(1-4학년)에 개설된 주는 바이에른(Bayern) 주를 비롯한 총 6개 주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5-6학년은 베를린(Berlin)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이후 과정에 속하긴 하지만, 도덕교육의 초등학교 개설여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그 개설여부를 따져본다면, 5-6학년에 도덕교육이 개설된 주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를 비롯한 총 7개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6학년 사이에 도덕교육이 개설된 주는 독일의 16개 주들 중 총 13개주이다.

3) 독일의 학제와 도덕교육

독일은 지방 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하였기 때문에 각 주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교육제도를 지니고 있다. 독일의 학제는 크게 유치원(Kindergarten), 초등학교(Grundschule), 중등 I단계(Sekundarstufe I), 중등 II단계(Sekundarstufe II)로 분류된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주들에서 4년제로 운영되며, 베를린 시의 경우 6년제로 운영된다.

중등 I단계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후 5-6년에 해당한다. 보통학교(Hauptschule)는 생활 중심의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고, 중간학교(Realschule)는 보통학교와 같이 직업교육을 위주로 운영되며 상급 직업계 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학교이고, 김나지움(Gymnasium)은 폭넓고 깊이 있는 일반교육과 일반대학 수학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고, 종합학교(Gesamtschule)는 만 10세 이전에 직업학교와 김나지움 중 조기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 세 가지로 구분된 학교형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생긴 학교 형태로서 모든 종류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등 II단계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김나지움 상급반은 일반대학 입학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고, 다양한 종류의 직업계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학업기회를 부여하는 직업고등학교(Berufsoberschule)가 있다.⁶³⁾

한편, 독일의 교육제도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정 등을 일반화하여 말하는 것은 어렵다. 독일의 초등학교의 수업은 대체로 읽기, 쓰기, 산수에 초점을 두고, 독일어, 수학, 사회, 미술, 음악, 체육과 종교/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바이에른(Bayern) 주를 하나

6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사업: 독일』, 연구자료 ORM 2010-61-3. 2010. pp. 3-4.

의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초등학교에서 종교/윤리, 외국어, 독일어, 수학, 지역사회문화, 음악교육, 예술교육, 공작/섬유공예, 체육교육, 개인과 조직 활동 등의 교과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종교/윤리는 1, 2학년에 주당 2시간, 3, 4학년에서 주당 3시간이 배정되어 있다⁶⁴⁾

4) 독일 도덕교육의 목표

독일에서의 초등학교의 임무와 목표는 학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초등학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초등 전단계의 놀이 위주의 학습에서 학교 학습의 체계적 형태로 이끌어 주고, 교수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을 개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와 능력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것이다. 초등교육의 목표는 다음 단계의 학습과 평생 학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과 수학적, 과학적 개념의 기본적인 이해는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얻은 경험을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정신운동 기능과 사회적 행동의 패턴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⁶⁵⁾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전문지식과 더불어 각 아동은 기본적, 인적, 사회적, 방법적 능력을 개발시켜야만 한다. 긍정적인 자아 가치, 지각과 함께 세분화된 자아개념의 형성은 특별히 중요하다. 아동은 늘 방대한 대립관계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민주적인 태도가 증대되면서 공동사회에서 삶을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을 배운다.⁶⁶⁾

도덕교육 측면으로 좁혀 들어가 보면, 독일의 여러 주들에서 도덕교육의 공통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책임 있고 가치에 토대한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독일의 도덕교육은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 등에 나타난 가치관을 지향한다. 교과목으로서 윤리(Ethik)는 사회적으로 유효한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철학적, 세계관적, 종교적 질문의 제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과목으로서 윤리의 목적은 윤리적 기본 소양과 학생들의 판단 능력과 책임 있는 행위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 수업은 인식과 세계관의 다원성을 고려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유효한 신념과 전통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근거 세우기와 숙고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사유와 행위의 지향성을 마련하게 된다. 삶과 생각의 단일한 의미로서 닫힌 세계상이라는 의미의 특정한 내용과 사유방식의 전달은 윤리 수업의 목적이 아니다.⁶⁷⁾

5) 독일 도덕교육의 교육내용 상의 특징

독일의 도덕교육은 - 이상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실천철학(Praktische Philosophie), 삶과 윤리(Lebenshilfe), 도덕교육(Moralerziehung), 윤리적 성찰(Ethische Reflexion). 다음에서 독일의 도덕교육의 각 유형별 특징, 강조점, 장점 등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⁶⁸⁾

64)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교육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독일』, 교육과정 자료-413, 2007. p. 28. & p. 332

65) 위의 교육인적자원부(2007),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독일』, p. 22.

66) 위의 교육인적자원부(2007),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독일』, p. 82.

67) 앞의 Zur Situation des Ethikunterri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 8.

가) 실천철학(Praktische Philosophie)

실천철학은 전통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규범에 근거를 둔, 행위를 이끄는 실천이성과 관련되며, 철학적 윤리학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실천철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서 학생들에게 철학교전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철학교전에 등장하는 주요한 실천철학의 입장들과 철학적 논쟁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물론 철학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윤리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철학함을 통해 윤리적 지향성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철학 또는 윤리는 이러한 윤리수업에 있어서 구성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적 방법은 이러한 윤리수업을 위한 이상적 수업모델로 여겨진다. 이러한 윤리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이 철학교전에 등장하는 주요한 철학적 입장을 접함으로써 보편적 원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윤리수업의 단점은 어떤 철학교전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으며, 학생들이 철학교전을 직접 읽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삶과 윤리(Lebenshilfe)

이 유형의 윤리수업에서는 철학적 소재가 아니라 ‘학생’이 수업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러한 윤리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수업 주제로 선정한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일상 생활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생활세계 지향적이라고 규정될 수 있으며, 철학적 전통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 지향적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순수 윤리학이 아니라 ‘응용윤리학’을 가르친다. 이러한 윤리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삶의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윤리수업의 단점은 공동의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윤리수업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재잘거리는’ 수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 도덕교육(Moralerziehung)

이러한 윤리수업은 도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교육의 전통적 형식이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도덕, 가치, 덕 등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치 지향적 수업 모델 또는 가치교육의 형식을 갖는다. 그

68) 앞의 Tremml(1994), “Ethik als Unterrichtsfach in den verschiedenen Bundesländern”, pp. 8-14.

래서 이러한 윤리수업은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규범적 대답’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즉, 이러한 윤리수업은 규범교육으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리(Axiom), 즉 이미 주어진 가치와 규범을 가르친다. 이러한 윤리수업의 장점은 분명한 학문적 전제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현재까지 당연한 전제로 수용되었던 규범이 의문시될 경우 윤리수업에서의 그 실천적 수용력이 현저히 떨어질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큰 도덕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윤리적 성찰(Ethische Reflexion)

이러한 윤리수업은 도덕교육(Moralerziehung)의 난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자명하다고 여겨지던 사회 규범과 동질적 도덕규범이 상실되었을 경우, 윤리수업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질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에 토대를 둘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윤리수업은 윤리학에 관한 수업, 즉 삶 속에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원리들에 대해 숙고하는 수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윤리수업의 목적은 도덕성 그 자체를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 또는 윤리적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윤리수업은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의 전제, 조건, 결과 등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도덕적 숙고와 반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수업의 중심에는 윤리적 답변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 서 있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실제적 삶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 학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질문’의 성격에 따라 인문학,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지식까지 폭넓게 활용한다. 이러한 유형의 윤리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조언을 줄 수 있는 동등한 토론자이다. 이러한 윤리수업은 다원화된 사회 현실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성찰을 통해 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범적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윤리수업의 단점은 이와 같이 학생들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도의 교육 능력을 지닌 교사 인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학생들이 자칫 윤리적 문제와 토론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사유 또는 상대주의적 사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6) 교수·학습 방법

초등학교의 교육은 아동을 발전의 행위자로 파악한다. 초등학교의 과제는 다양성 속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도전적인 행동과 학습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교수활동은 학생의 개인 경험을 조장하고 확장시키도록 고안된다. 초등학교는 수업 계획, 수업 실행, 수업 평가의 과정에 학생을 포함시키고 경험, 질문, 관심사, 지식, 능력과 기술을 수업의 토대로 사용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수업을 스스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교과목과 방법, 학습의 사회적 형태, 수업의 장소나 도구를 선택할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학생들은 풍부한 자신의 아이디어들과 독립성을 자유로운 활동 형태로 조직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학습 계획을 세우고 완수하도록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능동적 학습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

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요컨대, 초등학교의 교육은 공동체 지향적이고, 행위 지향적인 유도 학습과 각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제공한다.⁶⁹⁾

7) 평가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성취도 평가를 실행한다. 각 학생들은 각 학년에서 요구되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안내받고, 각 학생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촉진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과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학생들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광범위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습 향상 정도는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두 및 서면상의 학습도 확인을 통해 보이게 된다.⁷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각 학생별 학습 진도, 학습 과정 등을 기록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관리되며, 이는 학생들에게 환류(feedback)되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교사의 직접 관찰이 위주가 된다. 3학년에서는 특정 과목(특히 독일어, 사회, 수학)의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3학년 말에 각 주별로 특정과목(독일어, 수학)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지필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요컨대, 독일의 도덕교육 평가는 결과 지향적 기준이 아닌 과정 지향적 기준에 의거하여 학생의 도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독일 도덕 교과서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도덕교육은 윤리(Ethik) 또는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 철학(Philosophie) 또는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 윤리 또는 철학과는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등의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실시된다.

본 연구는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엔(Thüring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등 구 동독지역 4개주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구 서독지역 1개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윤리(Ethik) 교과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 주들은 독일에서 바이에른(Bayern)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윤리 교과를 가르치는 주들이다. 그리고 독일 학제에 따르면 초등학교 과정이 1-4학년까지 개설되고, 그 이후 5학년부터는 중등교육 과정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제에 따라 독일의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윤리(Ethik) 교과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에 추가하여 독일의 5-6학년에서 사용하는 윤리(Ethik) 교과서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69) 앞의 교육인적자원부(2007),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독일』, p. 30. & p. 87.

70) 위의 교육인적자원부(2007),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독일』, pp. 30-31.

1)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독일의 도덕 교과서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⁷¹⁾.

- 『윤리1/2』(Ethik 1/2):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용
- 『윤리3』(Ethik 3): 초등학교 3학년 학생용
- 『윤리4』(Ethik 4): 초등학교 4학년 학생용
-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 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 독일 중등학교 5-6학년 학생용

독일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도덕교과는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교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도덕교과 수업시수는 종교교과 수업시수와 일치하는 주당 2시간 정도로 편성된다. 학기 구분은 없고 1년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쪽수를 보면, 『윤리1/2』(Ethik1/2)는 96쪽, 『윤리3』(Ethik3)과 『윤리4』(Ethik4)는 각각 64쪽, 그리고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은 188쪽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도덕교과서에는 학생용 교과서(Schülerbuch)와 우리나라 『생활의 길잡이』에 해당하는 학생용 활동서(Arbeitsheft)가 있다. 학생용 활동서의 쪽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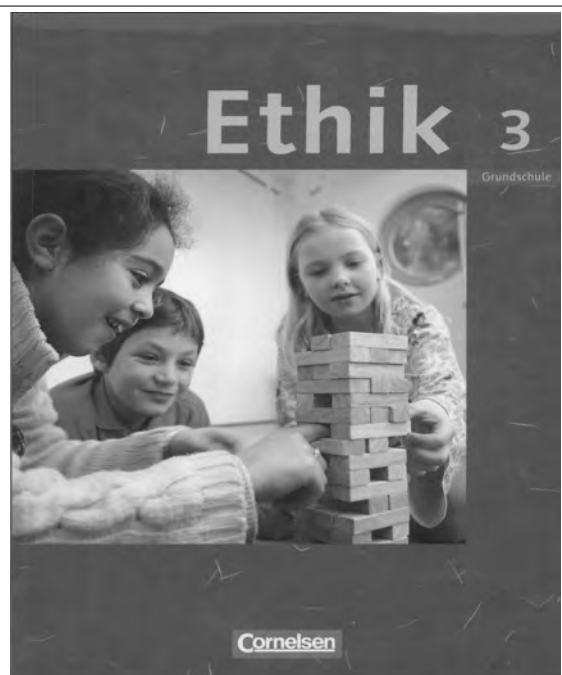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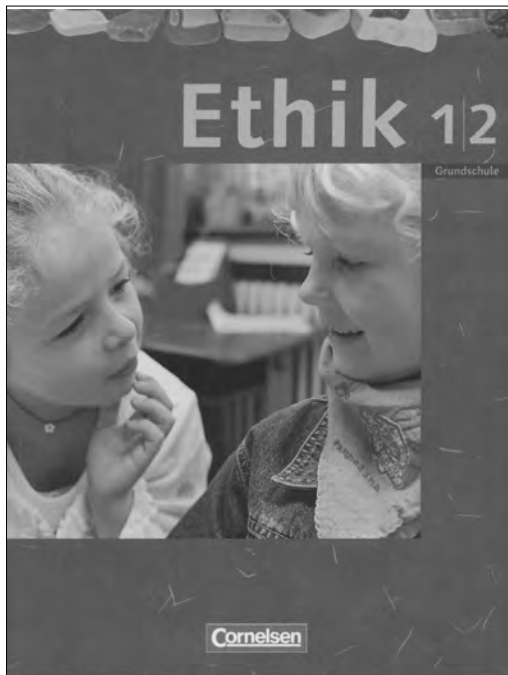
- 『윤리1/2』(Ethik1/2): 80쪽
- 『윤리3』(Ethik3): 48쪽
- 『윤리4』(Ethik4): 48쪽
-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 64쪽

2) 외형, 표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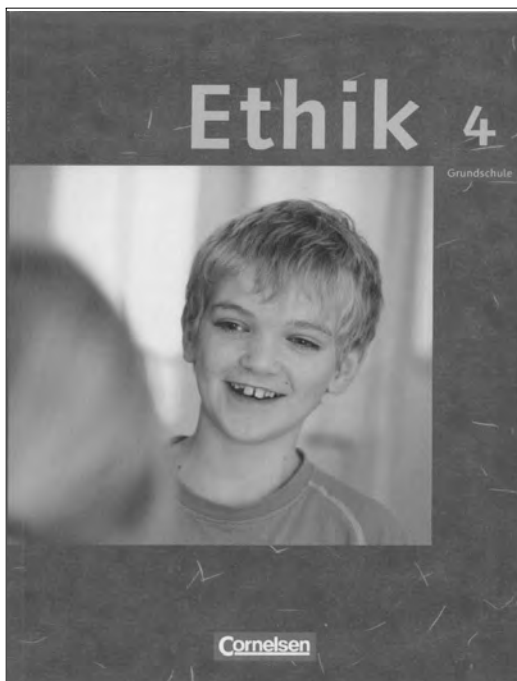
교과서 크기는 학생용 교과서의 경우 25.6×19.4cm(세로×가로)이고 두께는 학년마다 다르다. 그리고 학생용 활동서는 29×20.2cm(세로×가로)로서 역시 두께는 학년마다 다르다. 색도의 경우 학생용 교과서는 4도이고 학생용 활동서는 1-4학년의 경우 2도이고 5-6학년의 경우 4도이다.

학생용 교과서와 학생용 활동서는 크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표지 구성 자체는 학년별로 동일하다. 『윤리1/2』는 붉은색, 『윤리3』은 파란색, 『윤리4』는 초록색을 바탕으로, 표지 상단에 책명, 표지 하단에 출판사명, 표지 가운데에 사진이 들어 있다. 표지 사진은 『윤리1/2』는 초등학교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윤리3』은 초등학교 3명이 함께 놀이를 하는 장면, 『윤리4』는 초등학교 남학생 얼굴에 초점을 두고 동료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공원에서 한 명의 소녀가 양팔을 벌리고 뛰는 모습을 배경으로, 표지 상단에 해당 교과과정, 표지 중앙에 교과서명, 표지 하단에 출판사명이 표기되어 있다.

71)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Balasch, Udo(hrsg.), *Ethik 1/2*(Berlin: Cornelsen, 2009); Balasch, Udo(hrsg.), *Ethik 3*(Berlin: Cornelsen, 2010); Balasch, Udo(hrsg.), *Ethik 4*(Berlin: Cornelsen, 2008); Henke, R. & Sewing, Eva-Maria, *Abenteuer Mensch sein*(Berlin: Cornelsen, 2008).



<그림-Ⅳ-6> 독일 도덕 교과서의 표지 모습1



<그림-Ⅳ-7> 독일 도덕 교과서의 표지 모습2

지질은 두꺼운 코팅지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표지 지질과 유사하다. 그리고 『윤리』 교과서는 표지 가운데 부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은 독일 교육에서 강조하는 “함께 협동하며 살아가기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공원에서 한 명의 소녀가 양팔을 벌리고 뛰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교과서명에 부합하는 ‘모험’, ‘생기’, ‘생명력’ 등을 상징적으로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단원명, 목차 제시 방식

『윤리』교과서는 해당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대표하는 사진과 함께 대단원 제목이 각 대단원별로 다른 색으로 적혀 있고, 각 대단원별 사진 아래로 중단원명과 소단원명이 적혀 있다. 소단원명은 하나의 명사로 간략히 제시된 경우, 짧은 평서문으로 제시된 경우, 의문문 또는 감탄문으로 제시된 경우로 분류된다.



<그림-IV-8> 독일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및 목차 제시 방식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해당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대표하는 사진 또는 삽화와 함께 굵은 글씨로 대단원명(대단원을 대표하는 제목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1장, 2장 등 대단원 순서만 표기함)과

중단원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소단원명이 표기되어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특별한 교수방법이 사용될 경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목차 내에 표기되어 있으며, 다른 교과목과 연계된 소단원의 경우 어떤 교과목과 연계되었는지를 목차 내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해당 소단원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과목과 연계하여 공부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판단된다.

4) 교과서 내용 구성

가) 도덕 교과서별 단원 설정의 취지 및 배경

○ 『윤리』

- 나는 나야(Ich bin ich):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 가정,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규칙을 준수하는 것, 친구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의 기능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한 관용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 세계와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 함양, 세계화 시대의 인권, 정의, 제3세계 문제(원조) 등에 관한 이해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

- 세계에 대한 물음(Fragen an die Welt): 이 장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요한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고, 세계의 탄생과 출발점 등 세계와 관련된 여러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은 전반적으로 철학의 기초적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 공동체 속의 인간(Der Mensch in der Gemeinschaft): 이 장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자신을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화. 인간에 관한 신비로운 역사(Mythen. Geheimnisvolle Geschichten über den Menschen): 이 장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삶과 도덕적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간이 걷는 길로서 종교들 - 도정(道程) 위의 종교들(Religionen als Wege - Religionen auf dem Weg): 이 장은 유대교, 그리스도교(기독교와 가톨릭), 이슬람교의 역사, 주요 교리 등을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에서 살아가기,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Von und mit der Natur leben): 이 장은 자연의 의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보호의 중요성 등에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이 장에서는 ‘물’을 주제로 논의한다.
- 삶의 수수께끼(Rätsel des Lebens): 이 장은 인간의 삶 속에 등장하는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이 장에서는 ‘시간’을 주제로 논의한다.
- 낯선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Das Fremde und das Vertraute): 이 장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행복과 고통(Glück und Leid): 이 장은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다양한 종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롭고 비폭력적 행위 - 더 이상 꿈이 아니다?(Gerecht und gewaltfrei handeln - mehr als nur ein Traum?): 이 장은 정의, 공정한 배분, 공정한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정의롭고 비폭력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윤리1/2』의 내용 구성

○ 나는 나야(Ich bin ich):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신의 소망을 설계하고,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 이것이 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 나의 삶의 장면들: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주요한 사진 4-5장을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논의한다.
 - 나에 대해 속고하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본다.
 - 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라는 동요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알아본다.
 -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 기관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양심(심장)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지 토의한다.
 - 나의 이름: 자신의 이름과 별명을 통해 자신에 대해 설명한다.
 - 손: 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설명하고, 손 동작들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 때때로: 크고/작고, 강하고/약하고, 용감하고/두렵고 등은 상대적 개념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 나는 때때로 너무 화가 나: 자신이 언제 화가 나고,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논의한다.

- 용기?: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이해한다.
- 용기와 만용에 대하여: 용기와 만용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모든 사람은 때때로 두려움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은 어떤 경우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야기한다.
-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을 벌여졌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그 이후: 위의 논의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자와 쥐: '사자와 쥐'에 관한 동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어.

- 아주 특별한 날: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소망들: 자신의 소망들 중 어떤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한다.
- 소망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소망을 갖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 꿈같은 여행: 자신이 소망하는 꿈같은 여행에 대해 생각해본다.

• 시간이 가면!

- 지루해: 아무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지루할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 경이로운 사람: 인간 생명과 출생의 경이로움에 대해 논의한다.
-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죽음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 나는 혼자가 아니야

- 파울은 시간이 더 필요해: 장애를 지닌 아이도 우리의 친구임을 깨닫는다.
- 모범들: 자신이 모범으로 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 가족 구성원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며, 공동체 내의 규칙의 필요성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과 친구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

• 가정에서

- 가족은 서로 달라: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 누가 무엇을 할까?: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 나의 형, 한네스: 자신의 형제자매를 소개하고, 형제자매로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본다.
- 잉그리트 할머니에게 가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역할교환: 부모와 자녀가 하루 동안 역할을 교환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우리 가족의 4중주: 부모, 나, 동생 등 가족들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

해 논의한다.

- 학교에서

- 새로운 학급: 학교에 처음 온 학생들이 수업, 선생님, 친구 등에 대해 생각해본다.
- 공부 -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서로 어울려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한나가 아파요.: 아픈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학급 친구 간의 책임감에 대해 논의한다.

- 우리는 규칙을 필요로 한다.

- 우리 학급에서: 학급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왜 중요하며, 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규칙은 중요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규칙 및 규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 펠릭스의 생일: 공동의 규칙은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규칙 적용의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 클라라는 결정해야 해: 바람직한 결정과 그 결정의 정당한 근거에 대해 생각해본다.
- 사람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상황별로 해야 하는 말들에 대해 알아본다.

- 친구

- 나는 너의 친구야: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 이해한다.
- 티미: 인간과 동물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친구: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는 법에 대해 논의한다.
- 너는 나에게 낯설어: 낯선 아이와 친구가 되는 법을 동요를 통해 이해한다.
- 친구로 남기: 어떻게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다툼 - 화해하기

- 바스티앙과 알렉산더가 다투었다: 친구와 다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다툼 이후: 친구와의 다툼 이후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의도?: 친구의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 기념일의 시기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같은 또래 아이들의 삶을 조사하며,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

- 기념일

- 기념일을 축하하기: 기념일의 의미와 연중 기념일에 대해 알아본다.

- 감사의 말씀: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 들판이 비었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동요를 통해 알아본다.
- 나눔에 대하여: 나눔의 참 의미를 새겨보고, 나눔이 주는 기쁨에 대해 알아본다.
- 모른 척 해서는 안 돼: 제3세계 어린이를 비롯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 니콜라우스 이야기: 니콜라우스 이야기를 통해 나눔의 기쁨에 대해 알아본다.
- 안녕하세요, 니콜라우스 님: 니콜라우스에 관한 동요를 통해 나눔의 참 의미와 기쁨에 대해 이해한다.
- 작은 초: 강림절에 초를 켜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강림절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 탄생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 크리스마스 기념하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행사에 대해 알아본다.
- 새해를 맞이하기: 새해를 맞아 좋은 계획을 세워본다.
- 생명의 축제: 부활절의 의미와 예식에 대해 알아본다.
- 부활절이 왜 있는 거죠?: 부활절의 참 의미를 이해한다.

• 우리는 동등하다. - 우리는 서로 다르다.

- 내 이름은 감제(Gamze)야.: 이슬람 문화권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이슬람 가족과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 세계의 어린이들: 각 나라 어린이들의 의무와 취미 등, 그들의 취미와 문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
- 권리: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 모든 어린이는: 어린이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 세계와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와 생명 존중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육성한다.

• 경이로운 세계

- 나는 볼 수 있어: 세계의 신비와 변화를 동요를 통해 알아본다.
- 무지개: 무지개에 관한 동시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논의한다.
- 보물들: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 아름다운 세계: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해 논의한다.
- 작지만 신비스러워!: 작은 곤충과 동물들의 경이로움에 대해 논의한다.

• 세계에 대해 숙고하기

- 꽃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꽃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 민들레: 민들레 또는 다른 예쁜 꽃을 관찰하고, 생명의 순환에 대해 알아본다.

- 생명 바라보기: 강아지 벨라를 통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 인간과 동물: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 수많은 질문들: 우주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질문들에 자유롭게 답해본다.
- 빛: '빛'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을 이야기하고, '태양'의 역할과 고마움에 대해 논의한다.
- 그리고 어둠: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을 이야기하고, 어둠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 자연 존중, 자연 보호

- 아름다운 곳: 학교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우리는 자연을 변화시켰다.: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킨 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 왜?: 인간은 동물을 죽여도 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 꼭 이래야만 할까?: 공원이나 다른 장소들이 훼손된 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공원이나 다른 장소들이 훼손된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한다.
- 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다) 『윤리3』의 내용 구성

○ 나는 나야(Ich bin ich): 자아 정체성의 근거를 이해하고, 진정한 용기에 대해 논의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본다.

- 같음과 다름: 사람들 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 생각해보고, 같음이 하나임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 내가 용기가 있다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갖는 한계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용과 거인: 용기의 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용감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본다.
- 소녀와 소년: 소녀와 소년의 특성을 비교하고, 소녀 또는 소년이어서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사고: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한다.
- 맹인: 맹인의 삶을 간접 체험해보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
- 너 또 이런 짓을 했니?: 사람들 간의 갈등의 원인과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 알아보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한다.
- 할아버지에게 여쭙봤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이해한다.
- 기억에 남는 주요한 일들: 자신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한 일들을 소개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 실망했어!: 자신이 실망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실망한 일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이야기한다.
-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 친구로서의 책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친구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 기억에 남는 친구들: 기억에 남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사랑: 우정과 사랑, 소녀와 소년 간의 우정이 가능한지, 우정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나는 친구로서: 좋은 친구가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만남: 친구와의 만남이 주는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물물교환?: 친구와의 물건 교환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친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해: 친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친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속담이 말하길: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속담을 통해 알아본다.
- 다툼이 없다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가족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도움?: 가족과 친구 사이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논의한다.
- 신뢰는 좋은 것이야: 가족, 친구, 타인 등에 대한 신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학급여행: 절반의 진실과 공할 때 한 거짓말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미안해요: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 그리스도교(기독교와 가톨릭)가 우리 생활 속에 새겨진 흔적, 성경, 십계명, 기념일, 종교개혁, 크리스마스의 역사, 그리스도교의 의식과 행사 등을 이해한다.

- 무엇이 낯선가요?: 새로운(외국인) 친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나와 그 친구의 공통점을 찾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그리스도교의 흔적: 우리 문화에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사진을 통해 알아본다.
- 성경: 성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 대해 알아본다.
- 삶의 규칙: 십계명에 대해 알아본다.
- 그리스도교 기념일: 그리스도교의 연간 기념일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개혁은 새롭게 함이라고 불린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고요한 시간이 시작된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동요를 통해 알아본다.
- 크리스마스의 역사(3학년 a): 예수 탄생의 역사를 역할 놀이를 통해 알아본다.
- 자발적 포기: 부활절에 일부 금식 또는 어떤 특정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교회 방문: 교회 내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 영세(세례): 영세(세례)의 절차와 의미, 그리고 물과 빵의 상징에 대해 알아본다.
- 인간의 믿음(신앙): 인간의 믿음(신앙)의 의미와 사람들 간에 믿음(신앙)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 시간과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사유를 토대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는다.

- 단지 양초에 불과할까?: 촛불이 주는 여러 가지 상징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벽에 귀가 달렸다.” 등의 말의 의미를 알아본다.
- 똑같은 여름은 오지 않는다.: 상상과 현실, 시간의 흐름 등에 대해 생각해본다.
- 세계가 변하고 있어: 세계가 변화하는 것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한다.
- 숙고하기: ‘나무’가 주는 이로움, 상징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에 쓰인 지구와 인류 탄생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 지구(땅)의 일부로서: ‘인디언 추장의 편지’를 통해 인간이 지구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 자연은 여러 모습을 갖고 있어: 자연의 여러 모습을 적절한 단어로 표현해보고, 자연의 재앙이 인간의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논의한다.
- 일곱 송이 꽃들: 생명의 경이로움을 동요를 통해 느껴본다.
- 열린 눈으로: 인간이 자연에 속한 일부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인간과 같은 창조물: 동물의 권리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 위대한 것들: 지구(세계)를 구성하는 불, 물, 흙, 공기에 대해 논의한다.

라) 『윤리4』의 내용 구성

- 나는 나야(Ich bin ich):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랑, 소망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왜 소중한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가장 바람직한 (도덕) 판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 소녀와 소년: 소녀와 소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 사랑의 의미는?: 소녀와 소년에게 있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 소망쪽지: 가족들이 자신에게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소망, 꿈, 그리고 현실: 소망, 꿈, 현실을 구분하고,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인생의 진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다.
- 나에게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 오, 소녀가 다 되었네: 자신의 출생 이후, 특히 초등학생이 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 내가 해야만 할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될까?: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과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논의한다.
- 결정: 이성과 욕구(소망)가 대립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 사람은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 이 세상에 혼자 남는다면?: 이 세상에 혼자 남는 상황을 상상해보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본다.
-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래?: 가상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 가장 중요한 것: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 친구 및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교제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가족과 같은 작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칙,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과 상호 존중에 대해 논의한다.

-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본다.
-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 어떻게 친구 관계를 유지할까?: 어떻게 친구관계(우정)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관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 예절: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에티켓에 대해 알아본다.
- 1870년의 학교 규칙들: 1870년대 학교 규칙들을 평가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 규칙들을 제정해본다.
- 함께하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생각해본 후, 이를 토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지 논의한다.
- 할아버지의 생신: 가족의 전통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황금률: 황금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 황금률이 있음을 알아본다.
- 서로 존중하기?: 고운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하고, 고운 말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 배려: 고려(배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고려(배려)가 쉽지 않은 이유를 논의한다.
- 구경할까, 아니면 말릴까?: 친구들 간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 또는 말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한다.
- 5:1: 학교 내 집단 괴롭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도둑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와 반대로 정당한 도둑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 종교와 종교적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유대교, 그리스도교(기독교와 가톨릭), 이슬람교의 의식을 이해하며, 이웃사랑과 낯선 것에 대한 배타심을 버리는 자세를 갖춘다.

-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와 관련된 질문의 의미와 종교적 자유의 의미를 탐구한다.
- 세 종교의 도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해 알아본다.
- 세 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역사와 종교 의례에 대해 알아본다.
- 이츠하크는 신께 기도한다.: 유대교의 주요 교리와 예배 형식에 대해 알아본다.
- 바이람 - 라마단 이후의 축제: 이슬람교의 라마단과 바이람에 대해 알아본다.
- 가난한 자들을 위한 천사: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다.
- 봉사단체 섬김(Diakonie): 기독교 봉사단체인 섬김(Diakonie)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봉사의 참 의미를 이해한다.

- 낯설음을 극복하기: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1, 2, 3: 외국어로 숫자를 말하는 법에 관한 노래를 통해 다른 것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해간다.

-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 공정성과 불공정성, 어린이의 권리, 시간의 의미와 그 소중함,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이란 무엇이며, 죽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 이것은 공정한가?: 일상 생활 속의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공정성'의 기준에서 평가해본다.
 - 불공정해!: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 간에 평점이 다르게 나온 경우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어린이의 권리: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 더 영리한 자?: 인간이 환경을 훼손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 시간에 대해 물어볼 시간: 시간에 관련된 철학적 질문들을 논의한다.
 - 거꾸로 가는 시계: 시간의 의미와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 알아본다.
 - 행복과 행복함에 관하여: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 만족한 사람의 뒷모습: 인간은 모든 것에 만족해야 행복한 것인지, 행복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행복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소치인지 등에 관해 논의한다.
 -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 작별을 고함: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마)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의 내용 구성

- **세계에 대한 물음(Fragen an die Welt)**
 -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봐: 인간의 영혼과 신체에 대해 알아보고, 무엇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지 논의한다.
 - 깊게 생각할 문제 - 인간은 인간의 감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감각의 기능과 부정확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깊게 생각할 문제 -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의 여행 - 미래로의 여행?: "시간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등과 같은 철학적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다.
 - 세계의 언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공동의 언어가 분화된 이유를 알아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 그 이유는 너희의 권리가기 때문이야: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삶을 비교해본다.
 - 결정하기 - 하지만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세계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세계의 생성에 관한 그리스 신화를 통해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에 대해 논의한다.

- 너희를 기다리는 것: 대단원 마무리

○ 공동체 속의 인간(Der Mensch in der Gemeinschaft)

- 홀로 살기: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통해 혼자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인간은 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논의한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노인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노인을 필요로 한다.: 노인과 함께 삶의 즐거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지: 5명의 학생들을 통해 삶(상황)의 다양성을 깨닫고, 바람직한 삶의 설계하고 추구한다.
-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배우지: 사람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비교해 본다.
- 자유 시간(여가)을 설계하기: 하루 일과와 자유 시간을 바람직하고 보람 있게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전형적인 소년 - 전형적인 소녀?: 소년과 소녀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토대로 소년과 소녀의 공통점과 동등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가족에서의 삶: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 그가 원하는 것을 누구나 원할까?: 규칙의 필요성을 깨닫고, 황금률의 원리, 사회의 법, 학교에서의 규칙, 가정에서의 규범 등에 대해 알아 본다.
- 학교에서 함께 결정하기: 학교에서의 규칙과 계획 등을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한다.
- 나는 전체의 일부분이야: 대단원 마무리

○ 신화. 인간에 관한 신비로운 역사(Mythen. Geheimnisvolle Geschichten über den Menschen)

- 모든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부족의 신화를 통해 지구의 탄생에 대해 논의하고, 요르바 부족이 사는 지역의 개발 이후 변화된 모습을 통해 자연(땅)이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 인간이란 무엇인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멕시코 지역의 신화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숙고한다.
- 신화는 진실일까?: 오늘날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 본다.
-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날의 신화: 소설 ‘헤리 포터’(Harry Potter)를 통해 오늘날 신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 인간이 걷는 길로서 종교들 - 도정(道程) 위의 종교들(Religionen als Wege - Religionen auf dem Weg)

- 아브라함 - 길들의 시작, 믿음: 신의 말씀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논의한다.
- 유대교: 유대교(유대인)의 자유를 향한 역사, 주요 교리, 의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의 역사, 주요 교리, 생사관, 도덕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역사, 주요 교리, 생사관, 도덕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도정 위의 종교들 - 우리는 그 종교들을 만난다.: 대단원 마무리

○ 자연에서 살아가기,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Von und mit der Natur leben)

- 물 없이는 살 수 없어: 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물의 소중함에 대해 논의한다.
- 물을 체험하기 - 물과 함께 하다: 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물의 귀중함과 고마움에 대해 논의한다.
- 물 - 축복 또는 저주: 물의 양면적 특성, 즉 물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과 피해에 대해 논의한다.
- 여러 종교에서 나타난 물: 여러 종교에서 기술된 물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알아본다.
- ‘자연스럽게’ 살기: 독일과 방글라데시에서의 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물의 귀중함을 깨닫고,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과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 삶의 수수께끼(Rätsel des Lebens)

- 실재와 진실에 관하여: 식물과 작은 동물의 관찰을 통해 관점에 따라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 진실과 거짓말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와 반대로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시간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 시간이란 무엇이며, 시간은 왜 상대적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 시간에 관한 사유들: 힌두교, 유대교, 그리스도교에서 시간에 대한 사유와 ‘시간의 끝’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지구 위의 존재들이 서로 어떤 연관을 맺어 조화로운 질서를 이루는지 알아본다.

○ 낯선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Das Fremde und das Vertraute)

- 헤어짐에 관하여: 친숙한 사람들과 헤어져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낯설음을 즐기다. - 꿈의 여행: 낯선 곳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본다.
- 낯선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낯설게 여겨진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한다.

- 인간은 회색 거위가 아니다.: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선입견과 배타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자신의 나라에서 느끼는 낯설음: 자신의 나라에서 느끼는 낯설음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 근거 없는 감정에 빠지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서로를 위해 거기 있음: 모든 사람은 서로를 위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 학교를 새롭게 바꿀 수 있어!: 대단원 마무리

○ 행복과 고통(Glück und Leid)

- 행복으로 가는 길: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불행 속의 행복: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찾아보고,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는다.
- 아름다운 세상: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불행을 겪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인과의 연대성 형성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 다양한 종류의 행복: 행복의 다양성을 조사해보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행복은 발견하는 것인가, 행복은 획득하는 것인가?: 동서양 고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정의롭고 비폭력적 행위 - 더 이상 꿈이 아니다?(Gerecht und gewaltfrei handeln - mehr als nur ein Traum?)

- 우리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요청됨을 깨닫는다.
- 분배 - 하지만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 정의로운 결정?: 정의와 우정과 같은 다른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
-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기: 친구 사이의 갈등을 폭력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정의롭고 폭력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기: 대단원 마무리

5) 교과서 구성 방식과 특징

가) 단원의 체제·구성

독일의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용 『윤리』교과서는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 부분, 1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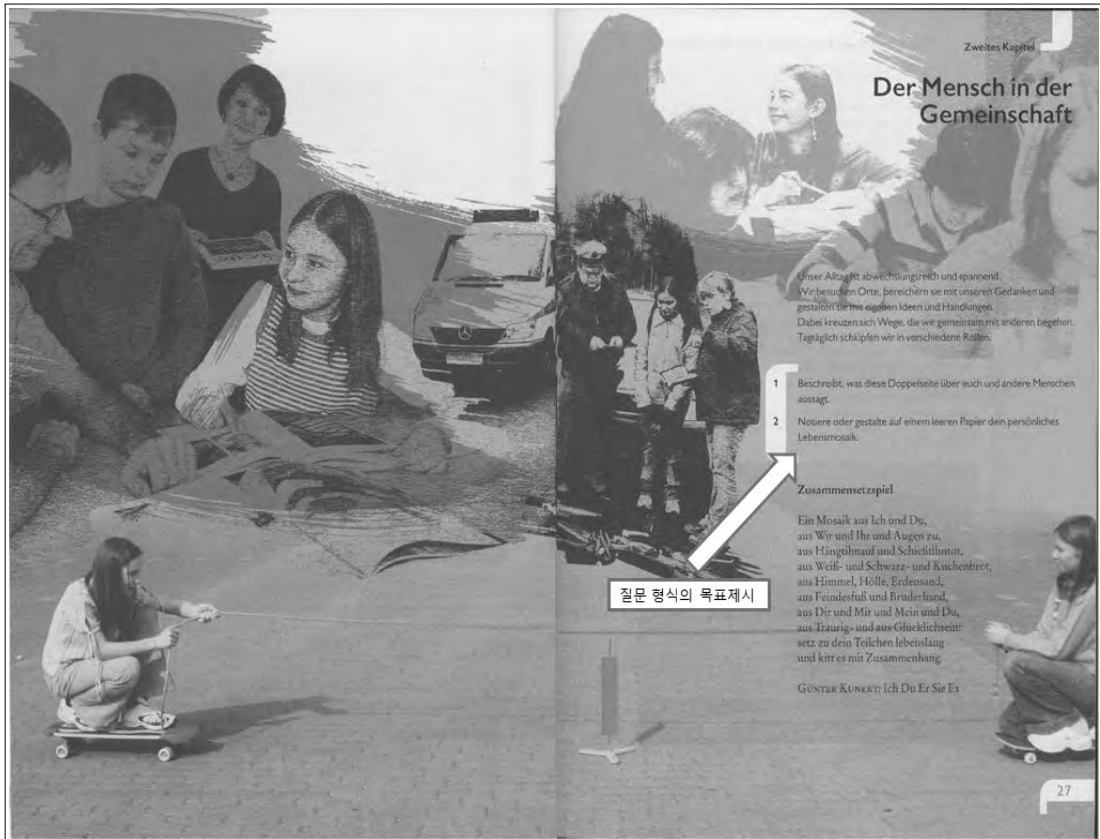
개 이상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후반부에 대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다. 대단원의 도입 부분은 두 쪽에 걸친 큰 사진 또는 삽화를 배경으로 4-5개 정도의 짧은 질문 또는 짧은 글을 통해 해당 대단원의 주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각 소단원은 한 쪽으로 구성된다.

각 소단원의 구성은 1-2학년에서는 만화, 삽화 등이 많고 본문의 글이 적은 반면에, 3, 4학년에서는 1-2학년에 비해 본문의 글이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이 소단원 구성에 있어서 학년별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각 소단원은 사진, 삽화와 함께 짧은 글이나 대화 등을 주고 각 쪽 하단에 본문 내용과 관련된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Aufgaben zum Nachdenken und Bearbeiten)와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Für kleine Philosophen)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단원 구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는 교육”, 즉 도덕적 사유와 추론, 토론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 부분, 대단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6~8개의 소단원,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대단원의 도입 부분은 두 쪽에 걸쳐 대단원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삽화를 배경으로 삽입하고, 대단원의 주제와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글과 주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단원 도입 부분의 구성은 대단원 학습 목표를 개조식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자체로 탐구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의욕을 이끌어낸다고 판단된다.



<그림-IV-9> 독일 도덕 교과서 『윤리』의 대단원 도입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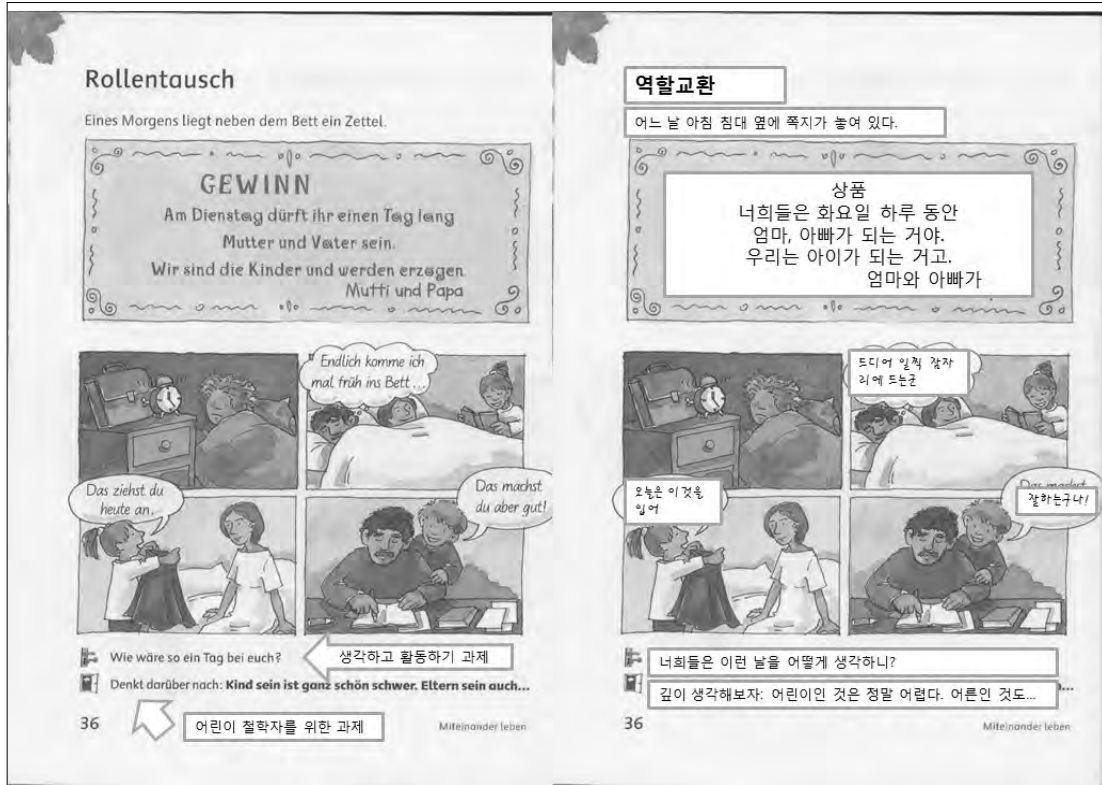
<그림-IV-10> 독일 도덕 교과서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의 대단원 도입부 모습

각 소단원은 일반적으로 두 쪽으로 구성되는데, 한 쪽 정도 분량의 읽기 자료를 주고 그 자료와 관련된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소단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예를 들어, 마인드맵, 역할놀이 등)은 ‘방법’(Methode)이라는 코너로 제시되며, 각 소단원의 성격상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학문 연계’(Fachübergreifend)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각 대단원 마무리 부분은 해당 대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생각할 문제’, ‘철학적 사유 문제’ 및 학생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Projekt)라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나) 도덕적 사유와 탐구 활동 중심의 구성

『윤리』는 “나는 나야”(Ich bin ich),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 네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학년 학생용 교과서는 각 대단원 아래에 2~5개의 중단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단원 아래에 또 다시 여러 개의 소단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3, 4학년 학생용 교과서는 1/2학년 학생용 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적어서인지 대단원 아래 별도의 중단원을 두지 않고, 바로 여러 개의 소단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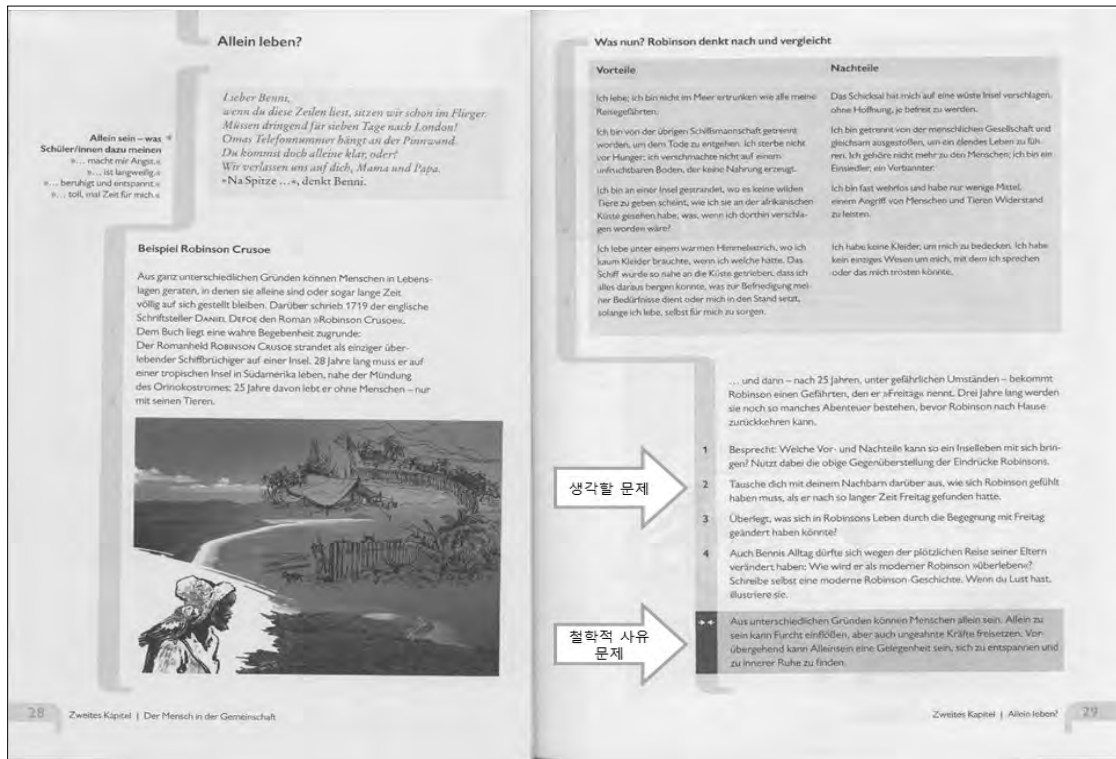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IV-11> 독일 도덕 교과서의 도덕적 사유와 탐구활동 중심의 구성 모습1

소단원 구성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부분의 소단원이 짧은 읽기 자료, 만화, 삽화, 두 학생의 대화 등과 함께 각 쪽 하단에 주제와 관련된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Aufgaben zum Nachdenken und Bearbeiten)와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Für kleine Philosophen)로 각 ‘한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단원 구성 방식은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수준과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면서 독일 교육이 지향하는 “스스로 사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교육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의 삶의 설계-윤리-종교(L-E-R)와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이기 때문에, 각 장들이 윤리적 주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장별로 철학적 주제, 윤리적 주제 등에 중점을 두거나, 두 가지 주제가 혼합된 경우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IV-12> 독일 도덕 교과서의 도덕적 사유와 탐구활동 중심의 구성 모습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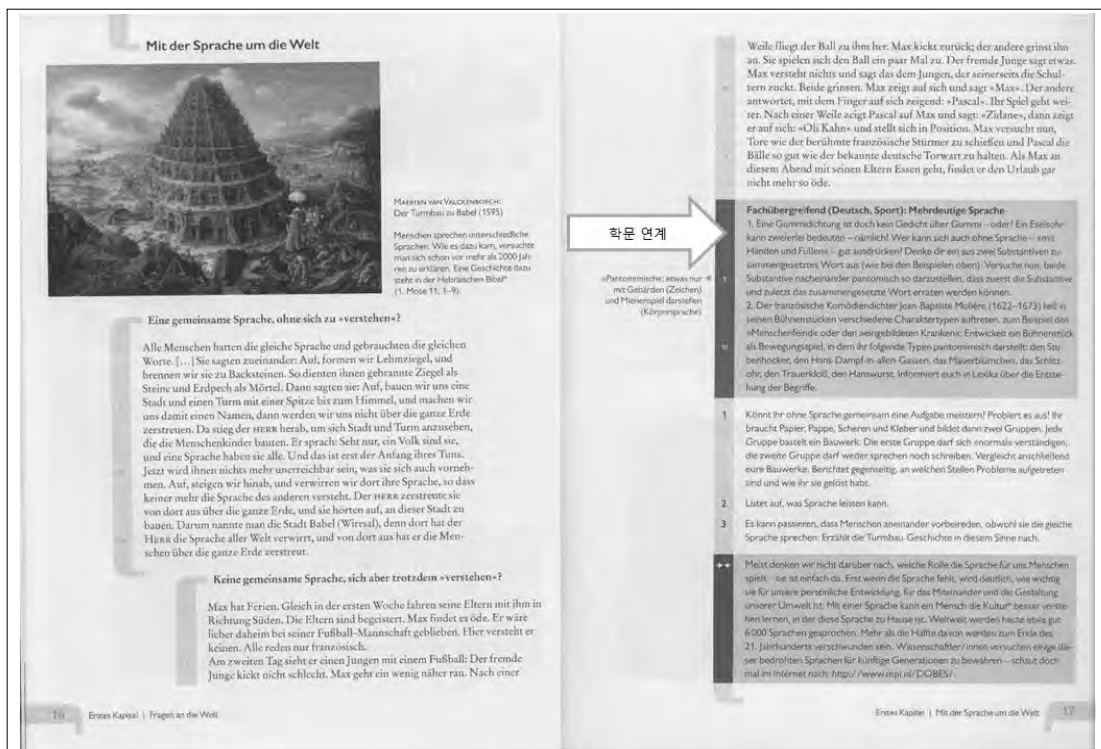
각 장에는 대부분 6~8개의 소단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소단원은 한 쪽 정도 분량의 읽기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단원과 소단원 구성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점은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와는 다른 교수 또는 학습 방법이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마인드맵) '방법'(Methode)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철학과 윤리학과는 다른 독일어, 역사학, 지리학, 생물학, 체육학, 음악 등의 학문과 연계하여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는 '학문 연계'(Fachübergreifend)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대단원의 말미에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학생활동 중심의 '프로젝트'(Projekt)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 세련된 편집과 다양한 방법·학습활동 안내

1-2학년 학생용 『윤리』교과서의 각 소단원은 본문에 긴 읽기자료를 주지 않고, 사진이나 삽화와 함께 짧은 글이나 단어를 주거나, 4~6컷의 만화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두 명의 대화를 통해 생각할 문제를 주거나, 주제와 관련된 동요를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소단원의 말미인 각 쪽의 하단 부분에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와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를 제시된다. 이 중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가 본문 내용과 직접 연관된 질문들로 구성된다면,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는 해당 소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3, 4학년 학생용 『윤리』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1-2학년 학생용 『윤리』교과서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다만, 3, 4학년 교과서는 1-2학년 교과서에 비해 본문 내용이 길게 주어진다 것이 특징이다.

5-6학년 학생용 교과서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의 각 소단원은 1~1.5쪽 분량의 읽기 자료를 주고 그 자료와 관련된 '생각할 문제' 3~4개, '철학적 사유 문제'로 구성된다. '생각할 문제'가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철학적 사유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사유하거나 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는 다른 학생들과 협동학습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스스로 사유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IV-13> 독일 도덕 교과서의 학문연계 추구의 모습

그리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소단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은 '방법'(Methode)이라는 코너로 제시되며, 각 소단원 성격상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학문연계'(Fachübergreifend)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코너들의 지문은 대개 10여줄 내외의 글로 구성되고 그 하단에 3~4개의 생각할 문제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 코너들 역시 많은 경우 협동학습보다 학습자 개인이 사유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쪽에서 여백을 거의 두지 않고 내용과 삽화로 채우고 있다.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서는 대부분의 쪽에서 상하여백, 좌우여백을 거의 두지 않고 - 여백을 두었을 경우 약 0.5~1cm 이내 - 내용, 사진, 삽화 등으로 채우고 있다. 그리고 본문의 서체는 주로 Arial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글자 크기는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0~12포인트 정도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다. 독일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 특징 및 시사점

독일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치 제도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자율적인 교육정책과 제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모든 주에 해당되는 도덕과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도덕교육은 대부분의 주에서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체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과에 비해 가치중립적이고 세속적인 윤리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독일의 도덕교과는 비종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공통의 가치와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교육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덕스러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도덕교육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덕교육이 윤리(Ethik)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를 비롯한 7개 주에 윤리(Ethik) 교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잘란트(Saarland) 주에는 일반 윤리(Allgemeine Ethik)라는 명칭으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에는 윤리수업(Ethikunterricht)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즉, 독일에서 도덕교육으로서 윤리(Ethik)를 개설한 주들은 총 9개로서, 독일의 16개 주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도덕교육이 철학(Philosophie)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이다. 브레멘(Bremen)을 비롯한 3개 주에는 철학(Philosophie) 교과로, 메클렌부르크-포아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에는 어린이의 철학함(Philosophieren mit Kindern) 교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는 실천철학/철학(Praktische Philosophie/Philosophie)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도덕교육이 윤리(Ethik), 철학(Philosophie)과는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에는 삶의 설계-윤리-종교(L-E-R)이라는 명칭으로,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에는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독일의 도덕교과는 종교교과의 대체 교과(Ersatzfach)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총 10개주), 종교교과와 동일한 교과군에 묶여서 의무 선택교과(Wahlpflichtfach)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총 3개주), 필수교과로 지정된 경우(총 3개주)로 분류된다. 그리고 독일에서 도덕교육이 초등학교(1-4학년)에 개설된 주는 바이에른(Bayern) 주를 비롯한 총 6개 주이며, - 독일의 학제상 중등교육과정이지만 - 5-6학년에 개설된 주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를 비롯한 총 7개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6학년 사이에 도덕교육이 개설된 주는 독일의 16개 주들 중 총 13개주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독일에서는 현재 도덕교육이 교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목으로서 윤리(Ethik)는 사회적으로 유효한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철학적, 세계관적, 종교적 질문의 제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미래 사회에 윤리적 기본 소양과 도덕적 판단 능력 및 책임의식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덕 교과서 측면에서 지니는 특징점으로는 첫째, 단원명이나 차시명 제시 방식상의 장점이다. 소단원명이 하나의 명사로 간략히 제시된 경우, 짧은 평서문으로 제시된 경우, 의문문 또는 감탄문으로 제시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5-6학년용 교과서인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의 경우 특별한 교수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목차 내에 표기되어 있으며, 다른 교과목과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어떤 교과목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목차 내에 표기하여 학생들이 해당 소단원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과목과 연계하여 공부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도덕 교과서 구성 및 내용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윤리』교과서의 ‘나는 나야’(Ich bin ich)라는 대단원과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라는 대단원은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도덕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윤리 교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라는 대단원은 다문화 시대의 도덕에 대해 일부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의 주요한 종교인 가톨릭과 기독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대단원의 성격은 실상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윤리교과로서의 성격, 즉 비종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윤리 교과로서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독일의 사회와 문화가 종교적으로 채색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원의 구성이 용인되고 장려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라는 대단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의 인권, 정의, 제3세계 문제(원조) 등 다양한 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대단원 구성은 세계화 시대의 윤리적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의 대단원 안에서 주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 토론 중심의 교과서 문제이다. 독일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래서인지 『윤리』교과서는 초등학교 1-4학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Aufgaben zum Nachdenken und Bearbeiten)와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Für kleine Philosophen)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6학년 교과서인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각 소단원에서 1~1.5쪽 정도 분량의 읽기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와는 다른 교수 또는 학습 방법이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마인드맵) ‘방법’(Methode)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철학과 윤리학과는 다른 독일어, 역사학, 지리학, 생물학, 체육학, 음악 등의 학문과 연계하여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는 ‘학문 연계’(Fachübergreifend)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대단원의 말미에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학생활동 중심의 ‘프로젝트’(Projekt)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독일의 도덕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독일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도덕 판단과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독일의 도덕교과서 분석 결과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정규 필수과목으로서의 도덕교육의 필요성이다. 독일의 도덕교육은 정규 필수과목인 종교교과의 대체과목으로 등장하였다. 즉, 독일은 윤리적 기본 소양과 도덕적 판단 능력 및 책임의식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서 도덕교과를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도덕교육은 근본적으로 종교교과의 대체과목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종교교과의 참여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독일의 오랜 종교적 전통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베를린(Berlin) 시에서 최근 도덕교육을 정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비종교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현대 사회의 여러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정규 필수과목으로서 도덕교육이 더욱 요청된다는 것이다.

둘째, 도덕교육의 다양화 및 통합화의 필요성이다. 독일은 교육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도덕교육은 윤리(Ethik), 철학(Philosophie),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도덕교육의 다양성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공통의 가치와 도덕규범을 교육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의 육성과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도덕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당해 공동체에 요청되는 공통의 가치와 도덕규범을 설정하는 통합된 교육과정이 요청되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교과서의 다양성을 피함으로써 공동체의 요구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양적 적절성과 내용 전달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의 도덕교과서는 『윤리1/2』, 『윤리3』, 『윤리4』 등이 각각 96쪽, 64쪽, 64쪽 등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도덕교과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정 문제 상황을 주고 적절한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그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삽화와 사진들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즉, 어떤 특정한 덕목이나 가치를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관심을 제고하면서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적 분량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학습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삽화와 사진을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도덕교과서와 연계된 보조 교과서의 존재 문제이다. 독일은 학생용 도덕교과서와 함께 우리나라 『생활의 길잡이』와 유사한 학생용 활동서(Arbeitsheft)를 갖고 있다. 독일의 교과서 정책에서 수십 년 이상 보조교과서를 유지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도덕교과서와 학생용 활동서는 내용 연계도가 매우 높아서, 도덕교과서에 주어진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을 보조교과서인 학생용 활동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학생용 교과서에 부속된 보조교과서가 물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학생용 활동서는 교과서와의 내용 연계도가 높아서 매우 자연스럽게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그 분량도 『윤리1/2』, 『윤리3』, 『윤리4』 등이 각각 80쪽, 48쪽, 48쪽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생활의 길잡이』를 교과서와의 내용 연계도를 높이고 적절한 분량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교수-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생활의 길잡이』라는 보조교과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학생용 교과서 내에 워크북 형태로 『생활의 길잡이』의 활동 내용을 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단원명이나 차시명 제시 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독일의 도덕교과서의 단원명은 한 단어,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대단원의 명칭도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5-6학년용 교과서인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단원별 교수법을 소개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 목차를 경직되지 않게 제시하는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수용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도덕교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실천을 강화하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도덕교육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도덕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독일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는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높이는 인지 중심의 내용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올바른 도덕 판단이 도덕적 실천의 토대이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사유와 도덕 판단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는 내용 구성을 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러한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력 중심의 내용 구성이 구체적인 덕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은 독일의 도덕교과서의 예에서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꼭 배우고 실천해야 할 덕의 습득과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 아시아 지역 도덕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1. 중국

가. 중국 교육체계의 특징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중국식 표현은 1992년 8월에 반포된 ‘9년 의무교육 전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계획’ 이후 ‘과정(課程)’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교학(敎學)’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표준은 1952년부터 1997년까지 이르는 시기에는 ‘교육요강’이라 불렸으나, 1997년 4월 국가 교육위원회에 의해 ‘9년제 의무교육 소학교 사상품덕과 및 초급중학교 사상정치과 과정표준 시안’이 공포되고, 2001년 7월 의무교육단계 18개 교과목 과정 표준이 발표된 이후, 2005년 가을 새로운 학기부터 모든 과목과 활동은 새로운 교육과정 표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래의 교학요강(敎學大綱)은 모두 폐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51년 정부에서는 ‘학제 개혁에 관한 결정’(關於學制改革的決定)을 공포하였다. 학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1922년의 ‘임술학제’(壬戌學制)의 기본 틀을 계승하여 6-3-3학제(소학(小學)/초등학교 6년, 초중(初中)/중학교 3년, 고중(高中)/고등학교 3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전일제 의무교육 교과서’는 초등교육의 학제를 6년으로 하는 ‘전일제 보통 소학’을 가리키므로 통상 6년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소학교 학제는 일반적으로 5년제라고 할 수 있으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6년제를 시행하고 있다.⁷²⁾

소학교 교육인 초등교육⁷³⁾은 이러한 학제를 기초로 6년제 혹은 5년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 6.5세부터 7세 사이의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고 있다.

중국 기초 교육과정의 개혁과 발전은 사회 역사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과정 개혁은 학습 방식과 교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식 전수를 중시하는 경향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학습태도

72) 중국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6-3-3학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1950-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범적 학제 운영을 거쳐 6-3-3제 이외에도 5-4-3제나 소학교 과정과 초급 중학교 과정을 합한 9년 일관제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73) 초등교육은 소학교교육 혹은 기초교육을 일컫는 것으로, 피교육자들이 문화지식 기초를 쌓고 초보적인 생활 준비를 잘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통상 한 국가의 학제 중 첫 번째 단계의 교육으로, 대상은 일반적으로 6~12세의 아동이다. 1904년 1월 13일, 청(淸) 정부가 ‘주정학당장정’(奏定學堂章程)을 반포함으로써, 중국의 근대적 초등교육 제도가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초등 소학당을 설치하고, 수업 연한을 5년으로 하여 7세 이상의 아동을 입학시켰다. 그 후, 1912년 중화민국 정부는 초등 소학당을 초등소학교로 고쳤으며, 뒤에 초등학교로 명칭을 고쳤다. 학제는 다양하여, 처음에는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고등소학을 3년으로 하였으며, 뒤에 ‘4·2’제 즉, 초급 소학 4년, 고급 소학 2년으로 고쳤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1년 중앙인민정부 정부원은 ‘학제 개혁에 관한 결정’(關於改革學制的決定) 규정을 반포하여, 초등교육이 아동과 청년 및 성인 두 종류를 포괄하게 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인 소학(小學)은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기초교육이며,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인 공(工)농(農) 속성 초등학교, 비전문 소학, 문자독해 학교 등은 피교육자들에게 소학 정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http://baike.baidu.com/view/119017.html>

를 강조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이 정확한 가치관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바로 피동적, 의존적, 허구적, 동질적인 전통적 학습방법을 주동적, 독립적, 독특적, 체험적이며 문제의식적인 현대적 학습 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 교육과정의 발전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단계적 구분은, 비록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도 있지만, 이러한 중국의 사회 역사 변화에 따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⁷⁴⁾. 제1단계: 개조기(1949-1952) - 제2단계: 모방기(1953-1957) - 제3단계: 확장기(1958-1965) - 제4단계: 동란기(1966-1976) - 제5단계: 회복기(1977-1985) - 제6단계: 발전기(1986-1991) - 제7단계: 규범화기(1992-2000) - 제8단계: 새로운 기초교육과정 개혁기[新一轮基础教育课程改革期](2001-현재)가 그것이다.

그 중,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8단계 교육과정의 ‘새로운’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7월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기초교육과정개혁 요강(시행)’은 여러 나라의 교육이념과 과정이론 그리고 교육사상을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이러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표지가 되고 있다.⁷⁵⁾ 특히, 과정의 구조는 ‘9년 일관적 의무교육 과정’으로, 고급 중학은 분과(分科) 과정이 위주가 되고, 소학교로부터 고급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두며, 농촌의 중학 과정은 현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2001년 11월 19일 중국 교육부에서는 ‘의무교육과정설치 실험방안’을 공포하여 기존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을 보다 한 단계 발전시켰다.

본 과정개혁의 근본적인 임무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기초교육의 과정 체계 및 구조와 내용을 조정하고 개혁하여, 소질교육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또한, 과정개혁의 핵심 이념은 ‘모두 학생의 발전을 위함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과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⁷⁶⁾ 첫째, 평생 학습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과 기본적 기능을 정선한다. 둘째, 과정 내용의 현대화, 현실화, 인본화(人本化)와 본토화를 강화한다. 셋째,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과 비정식 교육과정 내용들이 정합성을 갖춰 조화롭게 한다.

나. 중국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⁷⁷⁾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1년의 ‘기초교육과정개혁 요강’에 의거한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은 8번째 교육

74) 중국의 과정개혁(课程改革) 및 초등 교육과정 변천 과정에 관한 기초적인 구조는 허문권의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 변천 비교 연구」(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와 인터넷 자료(第八次课程改革[新课标] <http://baike.baidu.com/view/299302.html>)를 참조하였음.

75) 이 교육과정은 1999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이래, 2000년 1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서면 보고와 평가를 거쳐 각 학과 과정표준 연구 제작 그룹이 만들어졌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각 연구 제작 그룹은 전문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과정 표준의 초고를 만들었다. 2001년 3월 교육부는 9개 지역의 교육자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각 학과의 과정표준을 수정하였다. 2001년 7월 교육부는 ‘기초교육과정개혁 요강(시행)’(基础教育课程改革纲要(试行))을 반포하였다. 중학 및 소학 의무교육이 포괄하는 18개 학과에 관한 국가 과정표준이 완성되었으며, 2001년 9월 1일부터 기초교육과정 개혁의 실험 단계로 들어섰다. 이 교육과정 개혁은 5년여 이상의 노력을 통하여 현저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또한, 기초교육 영역에서의 전면적인 소질교육에 관한 개혁을 이루었다. <http://baike.baidu.com/view/2978735.html> 및 <http://baike.baidu.com/view/299302.html> 참조.

76) <http://baike.baidu.com/view/299302.html> 참조.

77)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사회』 과정 표준(全日制义务教育品德与社会课程标准) <http://ywjj.cersp.com/kbyj/kcbz/200511/210.html>

과정(新一轮基础教育课程改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북경사범대학출판사 발행한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생활』 과정표준”(全日制義務教育 品德與生活課程標準-實驗稿)(2008년 7월, 제 14차 인쇄본) 및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全日制義務教育 品德與社會課程標準-實驗稿)(2002년 6월, 제 1차 인쇄본)을 기초로, 인터넷 자료인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 이해’(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課程標準解读)⁷⁸⁾를 부차적으로 활용하였다.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교과과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설치된 교과로 초등학교 3~6학년의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중학교의 『사상품덕』(思想品德), 고등학교의 『사상정치』(思想政治)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본 과정의 목표, 내용, 형태, 실시방식 등의 측면은 유치원 과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초등학교 중학년 및 고학년 단계의 품덕과 사회, 과학 및 종합실천활동 등의 기초과정에 포괄된다.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課程標準) 연구 제작의 기본 사상은, 생활 속에서의 품덕 배양, 아동의 현실생활에 관한 관심, 아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정감·태도·행위습관·지식 기능 배양의 내재적 통일, 자주적이며 탐구적인 학습 창도 등이다.⁷⁹⁾

1) 품덕과 생활

본 교과과는 ‘공민도덕건설 실시 요강’(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의 정신에 따라 아동들의 ‘배우는 생활(學會生活)’을 잘 이끌어 줌으로써, 올바른 공민도덕 소질과 탐구적이고 창조적인 과학정신을 길러 중국 기초교육의 중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아동의 품덕과 지력 그리고 생활능력 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 품덕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진하고, 그들의 올바른 생활태도와 바람직한 도덕과 과학 소질 등을 실효화 하기 위해, 반드시 학년별 과정에 형식·내용·교수학습 방법 등의 측면과 중·고등 및 유치원 단계와의 구별과 연관성에 주의를 기울여, 본 단계 아동들의 심신 발달 특징과 소질교육 정신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V-1> 중국 학교 과정 중 『품덕과 생활』 과목의 위치

유치원 과정	→	초등학교 1~2학년 품덕과 생활	→	과학	초등학교 3~6학년	→	아동의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	품덕과 사회			
			→	종합실천활동			

품덕과 생활은 아동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품덕을 올바르게 하고, 탐구하기를 즐기며, 적극적인 생활

78)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과정 표준 이해(品德与生活、品德与社会课程标准解读)
http://www.cdlqiy.com/jys/jysxsjy/jysxxsb/xxsbkldt/200605/20060520204952_734.html

79)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과정 표준 이해(品德与生活、品德与社会课程标准解读)
http://www.cdlqiy.com/jys/jysxsjy/jysxxsb/xxsbkldt/200605/20060520204952_734.html

을 하는 아동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형 종합과정이다. 본 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생활성, 개방성, 활동성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이념(基本理念)은 첫째, 도덕은 아동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 점. 둘째, 아동들을 적극적인 생활과 학습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과정의 핵심인 점. 셋째, 아동기 생활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넷째, 아동의 생활 세계와 관련된 교육과정이라는 것 등이다.

총괄목표는 ‘바람직한 품덕과 행위 습관을 갖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하며, 생활에 열정과 사랑을 갖는 아동을 기른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목표로는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정감과 태도, 행위와 습관,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등의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표-V-2>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

영역		목표 내용
총괄 목표		· 바람직한 품덕과 행위 습관을 갖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하며, 생활에 열정과 사랑을 갖는 아동을 기른다.
하위 목표	정감과 태도	· VI 보모 사랑과 어른 공경(愛親敬長), 공동체 사랑, 고향 사랑, 나라 사랑 · 생명사랑, 자연사랑, 과학사랑 · 자신감, 성실성, 향상성 도모
	행위와 습관	· 바람직한 생활과 노동 습관을 초보적으로 기르기 · 기초적인 문명 행동과 기율 준수 태도 기르기 · 즐거운 마음으로 의미 있는 활동 참여하기 · 환경보호, 자원 아끼기
	지식과 기능	· 자신의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노동 기술 익히기 · 생활 중의 자연과 사회에 관한 상식을 초보적으로 이해하기 · 조국과 관련된 초보적인 지식 이해하기
	과정과 방법	· 문제 제기 및 문제 탐색의 체험 과정 ·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탐구활동 해보기

본 교과과정 구조는 3가지의 중심내용과 4가지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표-V-3> 중국 도덕과 교육의 3가지 중심 내용과 4가지 구성 요소

3가지 중심내용	4가지 구성요소
· 아동과 자아 · 아동과 사회 · 아동과 자연	·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 · 유쾌하며 적극적인 생활 · 책임지고 사랑하는 생활 · 사고하며 창의적인 생활

위의 4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표준은 기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교학활동과 교재 편찬 시, 각 지역이나 학교 또는 아동들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내용표준’ 중의 4가지 측면의 내용은 비록 치중하는 바가 각기 있으나, 이 4영역은 서로 관련되고 서로

관통되며 전체적으로 드러난다. 건강과 안전을 전제로 한다면, 아동의 생활은 즐거움이 충만하고 다양한 성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창조성이 풍부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내용 요소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표-V-4> 중국 도덕교육에서 4가지 구성요소에 따른 내용 표준

구성 요소	주요 내용	하위 내용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	바람직한 생활과 노동 습관을 기르기	1. 적절한 시기에 휴식하며, 일할 때에는 최선을 다한다. 2. 바람직한 음식 섭취와 개인위생 습관을 기른다. 3. 일을 사랑하고, 요리하기를 자신의 생활 능력으로 갖춘다. 4. 가정과 공공 환경위생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5. 초보적인 건강 상식을 알아 올바른 앉기, 서기, 걷기 자세를 기른다.
	초보적인 자기 보호의 식과 능력 갖기	6. 기상과 계절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자신 돌보기를 깨닫는다. 7. 위생보건 시설의 효용을 이해하고, 아울러 어른의 지도하에 이용할 수 있다. 8. 일상적인 안전 및 교통표지를 이해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에 주의한다. 9. 기본적인 긴급구조와 자기 구조 방법을 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즐거워하기	10.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 11. 학교환경을 잘 알아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쾌하며 적극적인 생활	유쾌, 명랑	1. 학우 및 선생님의 교제가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유쾌하게 논다. 2. 자연을 친근히 대하며 대자연 중의 활동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3. 자신과 타인의 우수한 점과 장점을 좋아할 수 있다. 4. 어른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적극적인 향상	5. 자신의 성장된 모습과 변화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 6. 계획과 목표를 세워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다. 7. 마음속에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어서 자신을 부단히 전진하도록 격려한다.
	도전에 대응하는 용기 갖기	8. 학습과 생활 중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자 한다. 9. 용기가 있어서 도전적인 활동이 많으며, 괴로움 어려움 두려움이 없다.
책임지고 사랑하는 생활	성실과 우애	1.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터무니없이 말하지 않고, 성실한 아동이 될 수 있다. 2.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며,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3.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아 공동체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학년과 학급 명예를 존중하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으며 사랑한다. 4. 자신의 방식으로 부모와 웃어른을 사랑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가사 일을 할 수 있다. 타인 특히 노인 및 장애인 돕는 것을 즐거워한다. 동식물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사회규범 준수	5. 예절을 이해하고, 질서를 지키고, 문명적인 행위를 한다. 6. 규칙과 규율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를 하며, 학교 규율을 준수한다. 7. 공적인 것과 타인의 일의 성과를 아끼며, 물, 전기, 종이 등의 자원을 절약한다.
	고향과 조국 사랑	8. 고향의 풍경명승과 자원을 알고, 고향의 발전과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9. 주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초보적인 생태의식을 갖는다. 10. 국기, 국가의 휘장을 존중하고, 애국가[國歌]를 부를 수 있으며, 인민 영웅을 존경하고, 자신이 중국인임에 자부심을 갖는다.

사고하며 창의적인 생활	창조적인 희망과 즐거움 갖기	1. 호기심이 있으며 묻는 것을 좋아한다. 2. 자연현상이나 생활 중의 문제 탐구에 흥미가 있다.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기	3. 자신의 생활 중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며, 폐물을 이용한다. 4. 자신이 제시한 견해나 견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생활용품이나 학습용품을 선택할 때에 (타인의 견해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다. 6. 간단한 기구나 연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탐구하는 습관과 방법을 학습하기	7. 학습 시 관찰, 비교, 작은 실험 등의 방법으로 간단한 탐구활동을 한다. 8.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간단한 정리와 응용을 해볼 수 있다. 9. 타인과 협동이나 교류하여 느낀바나 생각 혹은 활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지식의 획득과 경험의 축적	10. 각종 활동을 통하여 생활 중의 자연현상과 기타 과학 상식을 이해한다. 11. 교사의 도움으로, 얻은 경험과 정보를 총결하고 보다 진전시킬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4번째 항목인 ‘4. 교학활동’[(四) 教學活動]에서 논하고 있다. 본 과정 운용상의 교학활동 형식으로는 토론, 자료조사, 현장조사, 체험학습, 조작성 및 실천적 활동, 놀이활동, 참관학습, 감상활동, 복습활동, 고사(성어) 습득, 강의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 특히 기타 학과 혹은 교육활동과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부분 역시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평가건의(平價建議)’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과정의 평가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매 아동의 발전을 격려하고, 과정의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량을 제고하며,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문성 신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의 특징은 과정화(아동 학습활동 과정 평가), 다양화(평가 주체의 다양화, 평가 측면의 다양화) 및 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평가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 대화, 시험지, 생활기록표, 각종 작품 및 활동성과 분석 등을 중시하고 있다.

2) 품덕과 사회

새로운 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사상품덕과 사회성 발전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여 ‘공민도덕 실시 요강’(公民道德實施綱要)과 ‘기초교육과정개혁 지도 요강(試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관련한 과정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국 기초교육과정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본 과정은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학습하는 것을 과정의 핵심으로 삼으며, 아동의 생활이 과정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기초와 유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표-V-5> 중국 학교 과정 중 『품덕과 사회』 과목의 위치

초등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1~2학년 품덕과 생활	→	초등학교 3~6학년 품덕과 사회		사상 품덕(思想品德)	
				역사와 사회	· 역사 · 지리

『품덕과 사회』 과정은 아동의 사회생활을 기초로 하여 초등학교[小學] 중고학년에 개설되는 과목으로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품덕 형성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본 과정은 초등학교 중고학년 학생의 사회생활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과 사회와 품덕 형성에 관한 이해의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아동의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품덕, 사회규범, 법제교육, 애국주의,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교육, 국가 상황, 역사와 문화 교육, 지리와 환경교육 등의 내용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환경, 사회활동, 사회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험, 정감, 능력, 지식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행위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기본적인 도덕관, 가치관, 초보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을 형성하고 그들이 사회주의 공민(公民)으로 성장하여 현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총괄목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품덕을 형성하고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랑·책임감·바람직한 행위습관 등과 개인적인 자질을 갖춘 사회주의 공민(公民)으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하위목표는 아래와 같이 ‘정감, 태도, 가치관’, ‘능력’, ‘지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술되고 있다.

○ ‘정감, 태도, 가치관’ 영역의 하위목표

- 생명을 사랑하고 생활에 열정을 갖기. 자존·자주적이며, 발전과 향상에 관하여 낙관적이며, 과학과 노동을 사랑하고,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기르기
- 생활에서의 문명적인 예절, 성실과 믿음, 우애와 관용, 공평과 공정, 공동체 사랑, 단결, 책임감 등의 품격을 기르기
- 초보적인 민주(民主) 및 법제 관념, 규칙 의식을 형성하기
-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기. 다른 국가와 국민의 문화 차이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국제 의식을 초보적으로 갖기
- 자연을 사랑하고, 대자연이 인류의 생존에 기여하는 점에 감사하며, 생태 환경 보호 의식을 초보적으로 형성하기

○ ‘능력’ 영역의 하위목표

- 초보적인 자아의식을 갖추으로써 자신의 정서와 행위를 조절하기. 기본적인 자신보호와 자구(自救)의 요령을 초보적으로 익히기
- 자신의 감수성과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타인과 평등하게 교류하며 협동하고, 민주적인 자세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학습(방법) 배우기
-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와 현상을 관찰, 인식, 분석하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으로 생활 중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학습(방법) 배우기. 생활 중 직면하는 도덕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학습(방법) 배우기
- 사회적인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및 운용하는 학습(방법)을 배워서, 간단한 학습도구와 문제 설명을 할 수 있기

○ ‘지식’ 영역의 하위목표

-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의 의미 및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 관계를 초보적으로 이해하기. 사회 조직 기구와 사회 규칙을 이해하여, 규칙·법률이 사회 공공생활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초보적으로 이해하기
- 생산 소비활동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초보적으로 이해하기. 과학기술이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기
- 기본적인 지리 지식을 갖추어, 사람과 자연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 의존관계를 이해하고, 현재의 인류 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간단히 이해하기
- 중국의 유구한 민족정신과 우수한 전통 알기. 중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초보적으로 알기. 중국의 성립과 조국 건설의 측면에서 이룬 위대한 성취에 관하여 초보적으로 이해하기
- 세계의 역사 발전에 관한 중요한 지식과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아래에서의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풍속 습관 알기. 사회생활 중의 서로 다른 공동체, 민족, 국가 간 화목하게 서로 사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 알기

본 교과서의 내용표준은 다음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성장하는 나, 둘째, 나와 가정, 셋째, 나와 학교, 넷째, 나의 향촌(나와 지역사회), 다섯째, 나는 중국인, 여섯째, 세계로 등이다.

<표-V-6>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성장하는 나’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성장하는 나[我在成長]	
내용표준	교학활동 건의
1. 자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기의 우수한 점을 발휘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장점이 있음을 알아, 장점은 칭하고 단점은 보완하며, 타인을 칭찬하고 존중한다. 타인에 대한 관용.	1. ‘주변 친구의 장점 찾기’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너그러웠던 사례를 수집한다. 혐오감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사례를 이해한다.
2.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자존, 자애, 수치감을 이해하여 자신의 명예를 아낀다. 자신의 생활과 행위 반성을 학습한다.	2. 실제의 예를 결합하여 선악, 미추, 영욕(榮辱) 등 분명한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3. 생활과 학습 중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 닥친 난관에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여 성공을 이루는 즐거움을 체험한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생활태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한다.	3. 자신 혹은 타인이 난관을 극복한 실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로 교류한다.
4. 생활 중의 문제, 압력(스트레스), 충돌과 좌절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배우며,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 적응능력을 높인다.	4. 자신이 직면한 압력(스트레스), 충돌과 좌절 시의 생각과 표현을 떠올리고, 소그룹별로 각자의 경험과 체험을 교류한다. 역할 충돌 상황의 각색은 소그룹별 혹은 반별로 평가분석을 한다.
5.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사람 존중을 배운다.	5. 자기 생활 중의 사례를 결합하여 자신이 존중 받았을 때의 느낌을 교류한다. 사회생활 중의 성신(誠信)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다.
6. 흡연, 과도한 음주, 게임중독 등 불량한 생활습관의	6. ‘흡연, 과도한 음주, 게임중독의 위해성이 크다’는 벽보

위해성을 이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식을 배제한다. 마약류 섭취가 위법행위임을 알아, 좋지 못한 약물을 멀리한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갖는다.	를 설치할 수 있다. 신문, 전시물,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좋지 못한 약물의 섭취가 심각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주제에 관한 활동을 한다.
7. 사이비 종교[邪教]의 위해성을 알고, 사이비 종교를 반대한다.	
8. 안전에 관한 상식을 이해하고, 초보적인 안전의식과 자신을 보호하는 자구 능력을 갖는다.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아끼고 보호한다.	8. 방화, 도둑, 감전, 물에 빠지는[溺水] 등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일상 상식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예들을 조사하며, 서로의 지식을 겨루거나 상황설정 등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연습한다.
9. 「의무교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 범죄 예방법」 등과 소년 및 아동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간단히 이해하고, 법률을 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초보적인 준법의식을 양성한다.	

<표-V-7>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가정'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나와 가정[我與家庭]	
내용표준	교학활동 건의
1. 자신의 성장은 가정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부모와 어른들의 길러주신 은혜를 느끼며, 가족 구성원 간의 혈육의 정을 몸으로 체험하여 안다. 타당한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감동과 존경 및 관심을 표현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들을 존경한다.	1. 부모와 어른들이 자신이 성장시키고 양육한 사례를 이해한다. 관련된 명절, 기념일에 편지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부모와 어른들에게 (감사한) 감동적인 마음을 전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부모에 대한 효도나 어른에 대한 존경에 관한 고사 하나를 소개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활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가능한 한 부모에게 번거로움을 적게 한다. 가정생활에 관심을 갖으며, 가정에서의 임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를 갖추며, 가정에 대한 일정한 책임감을 갖는다.	2.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의 고충과 보살핌을 관찰하고 몸으로 느끼며, 자신이 담당할 수 있는 가사 일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한다.
3. 가정경제의 출처가 다양함을 알고,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지출을 이해한다. 합리적인 소비와 근검절약을 학습한다.	3. 자문을 통하여 부모가 종사하는 일과 가정경제의 출처 및 가정에서의 지출 상황을 이해한다.
4. 건강한 문명적 생활방식이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심신건강에 유익함을 몸으로 느껴,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5. 가정생활에서 도덕이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에는 마땅히 상호 소통하고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알아, 자신과 가족 구성원과의 모순된 점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5. '부모 및 어른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활동을 열어, 부모와 어른들이 함께 참가하기를 권유한다. 어떻게 평화적 태도와 정확한 방법을 운용하여 어른들과의 모순된 점을 처리할 것인지 토론한다.
6. 이웃 간에는 서로 화목이 필요함을 이해하며, 가정 주변의 환경을 아끼고 보호한다.	6. 자신의 가정과 이웃이 서로 처한 상황을 교류하며, 이웃과 어떠한 서로 화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자기 집 주변의 환경과 공공시설을 관찰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한 건의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한다.

<표-V-8>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학교’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나와 학교[我與學校]	
내용표준	교학활동 건의
1. 간단한 도형을 이용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지역의 간단한 평면도나 노선도를 그릴 수 있다.	1. 교실, 학교 및 주변 환경에 관한 평면도나 등교 노선도를 그려보게 한다.
2. 학교의 조직 기구를 알며, 학교의 발전 변화를 이해하며, 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함양하며,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 교직원의 노고를 존중한다.	2. 서로 다른 경도를 통하여, 일련의 학교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아울러 (의견을) 교류한다. 선생님 또는 기타 교직원이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어떠한 힘든 일을 하는지, 방문하여 묻거나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3. 친구 사이의 우애의 정을 느끼며, 친구와 서로 평등하고 서로 도와야 함을 배운다.	3. 친구들 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례나 자신이 느낀 것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동학끼리 평소 드러나는 마찰이나 충돌에 관하여 상황을 설정하여 해결 방법을 토론할 수 있다.
4. 진솔하게 서로 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성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소중함을 몸으로 이해한다. 친구나 벗들 사이에 진정한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녀 친구 사이에 우호적인 교류를 하며, 서로 존중하여야 함을 이해한다.	
5.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배우고, 바람직한 학습 습관을 기르며, 학업 임무를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그대로) 빼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놀이 활동을 통하여 시간의 소중함을 몸으로 이해한다. 일주간의 과외 시간 및 겨울·여름 방학 시간을 안배하여 교류활동을 설계한다. 시간에 관한 격언, 속담, 고사 등을 수집한다.
6. 자신이 공동체 중의 일원임을 알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으며, 공동체 활동에 참가하고, 공동체의 명예를 수호하며,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타인과 교류하거나 협동하며, 즐거움을 같이 나눌 줄 안다.	6. 동학과 협동하여 한 가지 일을 완상하고 아울러 학급 내에서 자신의 체험과 느낌을 교류하게 한다.
7. 공동체 생활에서의 규칙과 역할을 느끼고, 초보적인 규칙(준수) 의식을 형성하고, 활동규칙과 학교 규율을 준수한다.	7. 오락 및 학교나 반별 활동을 통하여 규칙의 필요성을 몸으로 알고, 아울러 규칙을 제정하게 한다.
8. 학교나 반별 등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공평, 공정, 민주, 평등이 사회생활 중에 현실적 의의가 있음을 이해하며, 현대적인 민주주의식을 배양한다.	8. 반별 민주적 참여와 관리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표-V-9>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와 향촌’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나의 향촌(나와 지역사회)[我的家鄉/社區]	
내용표준	교학활동 건의
1. 지도에서 현 지역(구, 현, 시), 본 성(省) 및 성의 행정수도와 도시의 위치를 찾고, 고향과 향촌이 조국의 일부 분임을 안다. 지도상의 간단한 일러두기[圖例], 방향, 비례척을 정확히 판별한다.	1. 지도를 읽는 활동과 지도를 찾는 시합을 전개한다.
2. 고향 향촌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특징 및 기타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고향 향촌의 변화와 발전을 느끼고, 고향 향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싹틔운다.	2. 주제에 근거하여 조를 나누어 자료를 조사 열람하고, 방문 조사하며, 실물을 수집한다(조건이 허락하는 학교에서는 조직적인 실질적 고찰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 그림, 실물 전시 등의 형식을 통하여 교류한다.

3. 고향 향촌의 우수한 인물을 알고, 그들을 본받는다.	3. 그림이나 고사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학급내에서 교류한다.
4. 주위의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노동이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노동 성과를 귀중히 한다.	4. 우리 주위의 노동자를 관찰하거나 방문하여 그들의 노동 현황을 이해하여, (이해를 친구들과) 서로 교류한다.
5. 현지의 일련의 상업 장소를 이해하고, 상품의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음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상품을 골라 구매하는 초보적 지식을 학습한다. 아울러 독자적인 간단한 생활용품과 학습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초보적인 소비자 자아 보호의식을 구비한다.	5. 학교 혹은 가정 부근의 상업 장소나 상품의 가격 변화를 관찰하고 실제로 조사한다. 실제적인 구매활동을 모의적으로 하거나 실험적으로 해봄으로써 상품 선택에 관한 학습을 한다.
6. 현지의 교통질서 현황을 관찰하고, 관련 있는 교통 상식을 알아, 교통 규칙 준수를 자각하여, 안전에 주의한다.	6. 현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들어, 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토론한다. 관찰과 방문 조사 및 지식 겨루기를 통하여 관련된 교통 지식이나 법규 및 안전에 관한 작은 상식을 학습한다.
7. 공공시설이 사람들의 생활에 끼치는 편리함에 관하여 체험한다. 공공시설을 아끼고 보호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자각적으로 공용시설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다.	7. 생활 속에서 항상 마주치는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의 사용과 보호 상황을 관찰하고, 일련의 건의 사항을 개진한다.
8. 자각적으로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공공안전에 주의한다. 문명적인 교양인이 된다.	8. 일상생활 중,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질서 상황과 개인의 행동거지를 관찰하고 자신의 평가를 제시한다.
9. 일련의 사회 공익활동을 안다. 사회 복지 기구와 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체험한다.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은, 그들을 존중하고 아울러 그들을 힘을 다해 돕고자 하는 것이다.	9.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현 지역의 공익시설과 복지 기구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층에 대한 사회와 우리들의 배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든다. 모의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이 생활 중에서 겪는 불편과 그들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체험한다.
10. 고향 향촌의 풍속을 이해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체험한다. 자각적으로 불량한 풍기와 각종 미신을 타파[抵制]한다.	10. 현 지역의 특색 있는 민속활동을 예로 들어, 모의적인 민속 표현 활동을 설계하고 거행한다.
11. 고향 향촌 생태환경의 일련의 문제를 이해하고, 환경 보호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세운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환경보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1. 실지조사를 진행하여 환경 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위해성을 설명한다. 포스터, 표어, 광고 등의 형식으로 환경보호를 캠페인하고, 아울러 교내에 절수·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관련된 부서에 환경보호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표-V-10>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나는 중국인’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나는 중국인[我是中國人]	
내용표준	교학활동 건의
1.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영토 면적, 해륙 강역, 행정 구획을 알며, 대만은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이며, 조국의 영토는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1. 지도 찾기 시합이나 지도 맞추기[拼圖] 놀이를 한다.

2. 중국의 자연을 이해하고,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허다한 명산대천과 명승고적이 있는 국가임을 알며, 국토를 사랑하는 정서를 체험한다.	2. 중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표지(標志)나 상징을 열거하고, 아울러 그것들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중국의 풍광과 관련 있는 영상물을 본다. 도판, 시문, 풍경 명소의 입장표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서로 교류한다.
3. 중국은 몇 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문명 고국임을 알고, 중화민족이 세계문명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느껴, 민족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싹틔운다.	3. 중국의 역사상 중대한 발명 혹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반영한 일련의 시청각물을 본다. 혹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혹은 중국인의 총명한 재주 및 슬기와 창조적 발명을 드러낸 고사를 강의한다.
4. 근대 이래로 열강들의 중국 침략이 중국인에게 굴욕과 위해를 끼쳤음을 알고, 중국인 특히 중국공산당 영도 아래서의 구국을 위한 항쟁 사례를 알아, 혁명적인 선배를 우러러 모시고, 강대해지려고 분발하는 애국의 포부를 세운다.	4.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역사박물관을 참관할 수 있다. 또한 관련된 영상물을 보거나, 항일구국 노래를 배울 수 있다.
5. 신중국 성립과 개혁개방 이래 이론 성과를 알고, 중국 공산당을 더욱 사랑한다.	5. 실물과 사진을 수집하고 생활의 변화나 조국 발전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형 전시회를 거행한다.
6. 인민해방군은 중국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발휘하였음을 알고, 해방군을 사랑한다.	
7. 중국은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임을 안다. 서로 다른 민족의 생활 습관과 풍습을 이해하여,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민족의 단결을 증진한다.	7. 대표적인 민족문화의 실례를 선택하고 예시하여(전통적인 명절, 가곡, 민간 전설, 역사 고사, 복식, 건축, 음식 등), 전시를 통한 교류를 진행한다.
8. 중국의 지역차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다.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8. 중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다.
9. 일상생활 중의 모종의 농산품을 통하여 농업생산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탐구하며, 농민이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들이는 노동과 지혜를 체험한다.	9. 현지 농산품의 내력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상호 교류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농촌을 방문하거나, 농업 노동에 참가하거나, 농업과학기술원을 참관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0. 우리 주위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공업과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계를 탐구하여, 공인들의 생산성 노동에 관한 정황을 이해한다.	10. 평소 마주하는 생활용품을 예로 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상품의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상호 교류한다.
11. 교통발전에 관한 현황을 이해하고, 교통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느끼고, 교통의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에 관하여 주의한다.	11. 상황을 설정하고, 고금을 통하여 동일한 목적지를 가기위해 이용한 교통수단과 선택된 교통 노선의 커다란 차이점을 대비한다.
12. 현대 통신의 종류와 방식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통신 방법을 배우며, 통신과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계를 느낀다. 통신에서의 기본예절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이해하고 아울러 준수한다.	12.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의 특징을 비교하고, 적당한 통신방식을 선택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실제적인 통신연락을 한 번 해보고, 동학 간에 자신이 사용한 이러한 통신 방식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서로 교류한다.
13.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 현대의 매스컴(전달매체)과 사람들의 생활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매스컴(전달매체)을 안전하고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을 학습한다. 인터넷 윤리를 준수하고, 각종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4. 중국에서 발생하였던 중대한 자연재해를 이해하고,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일면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단결하여 서로 돕는 정신이 소중함을 깨닫는다. 자연재해 시 자신을 보호하고 서로 돕는 방법을 학습하여, 대처 능력을 형성한다.	14. 매스컴(전달매체) 보도 중의 중대한 자연재해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재해의 거대한 파괴성을 인식한다.
---	--

<표-V-11>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세계로’ 영역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

세계로[走近世界]	
내용표준	교학활동 건의
1. 세계의 해륙 분포 및 주요 지형 등 기본적인 상식에 관하여 초보적으로 안다.	1. 세계 일주에 관한 모의 활동을 전개한다.
2. 인류의 문명 유산을 간단히 이해하고, 세계의 역사 문화에 관한 흥미를 유발한다.	
3. 국가, 지역, 민족 간의 서로 다른 생활 습관, 전통적인 명절, 복식, 건축, 음식 등의 현황을 비교하고, 다양한 문화의 차이점과 풍부함을 이해하며,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른 문화의 창조성에 대하여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다.	3. 소그룹을 단위로 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어느 국가 혹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색적인 생산방식이나 생활방식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 후 전체 학급에 소개한다. 자기가 수집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 풍속과 관련한 사진, 우표, 엽서 등을 친구들과 교류한다.
4. 일상생활 용품이 세계 경제 발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닫는다.	
5. 과학 기술과 사람들의 생활 및 사회 발전과의 관계를 초보적으로 이해하며, 과학 기술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인식한다. 과학정신과 과학적 태도를 숭상한다.	5.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좋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토론회를 연다.
6. 환경의 악화, 인구의 급격한 증가, 자원 고갈이 현재 세계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임을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여 공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며, ‘인류는 하나의 지구만 있다.’라는 말의 함의를 이해한다.	6. 그룹을 나누어 서로 다른 주제를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스크랩북을 만들고 작은 포스터[小展板]를 제작하여 전시하여 교류한다.
7. 평화의 아름다움과 전쟁이 사람에게 주는 고난을 이해하여, 평화를 사랑한다.	7. 전쟁이 인류에게 주는 고난과 관련한 그림, 자료를 수집하고, 인류가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체험한다.
8.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알고,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해한다.	8. 유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한 사진 혹은 글 자료를 수집한다.

위의 영역별 내용표준은 기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교재 편찬과 교학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이나 학교 또는 아동들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확장된다. 각 항의 내용 표준 및 배열의 순서와 교재 및 과목 시수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며, 각 학년의 내용 분포는 본 과정표준에 의거한다. 이번 과정 개척이 창도하는 정신을 근거로, 나열된 교학활동 건의의 주된 중심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체험·탐구·학술교류 등 실천적인 교학활동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건의는 단지 교재 편찬과 교학 시 참고하기를 바라는 제시용으로서, 교학활동의 형식은 하나의 격식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구체적인 목표·내용·조건·자원 등을 달리하여 교학의 실제와 결합하여 풍부하고도 다양한 활동형식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 아울러 교학활동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첫 번째 항목인 ‘교학건의(一、教學建議)’에서 개략적으로 논하고 있는바,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과정의 목표의 전면적 파악, 풍부한 학생의 생활 경험, 학생의 자주적인 학습 유도, 교학 내용 충실, 교학 공간의 확장 등이다.

평가부분 역시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두 번째 항목인 ‘평가건의(評價建議)’에서 언급되고 있다. 평가 목적은 정보를 피드백[反饋]함으로써 교사의 교학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아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과정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생의 품덕과 사회성 발전의 수준을 단정적이나 종결적으로 평정하는 데 있지 않으며, 더더욱 평가결과를 가지고 아동을 비교하거나 등급을 나누는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각 학생의 원래 상태를 기초적인 출발점으로 하여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격려 위주의 발전적 평가가 강조된다.

평가 기능으로서는 진단과 조절 기능 그리고 강화와 교육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내용으로서는 학습 태도, 학습 능력과 방법, 학습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평가 방식은 다주체 및 개방성 평가를 하며, 교사는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교사평가, 학생 자신 평가, 학생 상호 평가, 가정 및 사회참여 평가 등의 방식을 선택적 혹은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방법으로서는 교사의 관찰 기록, (학습태도 및 표현 등에 관한) 세밀한 평어, 학생 자신의 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작품 평가, 개별화 분석 등이다. 이 때, 평가 방식과 방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 종류의 평가 방법은 모두 자신의 적용 범위 안에 있으므로, 교사는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이상의 방식과 방법을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교학개혁 중의 창조적인 측면을 탐색하여 결점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그 외의 기타 사항으로서 과정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언급되고 있다. 즉, 다양한 과정 자원 개발, 현대적인 교육 기술 수단 이용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 중국 도덕 교과서 분석

중국 교과서 편찬은 ‘기초교육 교재 관리 제도를 교재의 양질화와 다양화를 실현’을 목표로 하여, 교육부의 ‘중소학 교재 편찬 심사 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시행 방법’(关于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을 근거로 하고 있다.⁸⁰⁾

1) 교재 편찬의 기본 방향

가)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 교재 편찬의 주요 근거 : 기초교육과정 개혁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며, ‘기초교육과정개혁요강(試行)’과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생활 과정표준(實驗稿)’

80) 중국교육보(《中国教育报》2001年 7月 27日 第2版) 및 <http://baike.baidu.com/view/2978735.html> 참조.

- 교재 편찬의 원칙 : 사상성, 과학성, 현실성, 종합성, 활동성 등.
- 교재의 범위 : 본 과정의 교재는 종합적인 자원 체계로서 교과서, 학습자료, 생활기록부, 활동재료, 다매체 보조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 다원화적인 교학활동 자료를 포괄한다. 본 과정의 교재(교과서)는 각 지역 및 각 학교와 관련된 교육행정 부문의 유관 규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 교재 편찬의 주요 근거 : 교재 편찬은 과정표준을 근거로 하며, 종합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구현한다. 교재 편찬은 학생 생활과 사회의 실체에 주의하고, 교학과정 중 학생의 주동적 참여와 자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교재 내용의 선택 : 교재 내용의 선택은 사회의 진실을 반영하여, 학생이 사회에 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도록 한다. 아동의 학습 능력을 감안하고, 학생의 흥미와 학습 의지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교재의 편찬은 서로 다른 지역의 특징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고, 상관된 내용을 타당성 있게 확장하며, 각 지역의 생활과 접근된 소재를 선택한다. 교재 중의 교학활동 설계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사가 학교와 학생의 실제 현황을 근거로 선택되게 하여야 한다.

2) 교과서 명칭, 권 수, 보조 교과서, 외형 등

가) 교과서 명칭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는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및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이다. 『품덕과 생활』은 1-2학년용이며, 『품덕과 사회』는 2-6학년용으로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교과서는 첫 번째 심사에서 통과 된 ‘초심통과(初審通過)’ 교과서로서 “실험(實驗) 교과서”이다.

나) 학년 학기 구분(학년 학기 당 권수), 주당시수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당 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1-2학년용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은 26시간, 3-6학년용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는 30시간이다.

다) 권당 쪽수, 서지 사항⁸¹⁾

<표-V-12> 중국 도덕 교과서의 쪽수와 서지사항

구 분	본문 쪽수	printed sheets(印張)	출판 년도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1-상(上) ⁸²⁾	58	4	2008년 6월 제2차 인쇄(2007년 3월 제2판)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1-하(下) ⁸³⁾	51	3.5	2010년 1월 3차 인쇄(2007년 9월 제2판)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2-상(上) ⁸⁴⁾	50	3.5	2008년 6월 2차 인쇄(2007년 3월 제2판)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2-하(下) ⁸⁵⁾	55	3.75	2010년 1월 3차 인쇄(2007년 9월 제2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3-상(上) ⁸⁶⁾	71	5	2011년 6월 제3차 인쇄(2009년 3월 제3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3-하(下) ⁸⁷⁾	76	5.5	2008년 11월 제6차 인쇄(2003년 12월 제2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4-상(上) ⁸⁸⁾	89	6.25	2008년 6월 제4차 인쇄(2003년 6월 제1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4-하(下) ⁸⁹⁾	91	6.25	2009년 1월 제2차 인쇄(2007년 9월 제2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5-상(上) ⁹⁰⁾	98	6.75	2007년 7월 제7차 인쇄(2007년 3월 제2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5-하(下)	112	7.75	2009년 1월 제2차 인쇄(2007년 9월 제3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6-상(上) ⁹¹⁾	110	7.5	2009년 6월 제1차 인쇄(2009년 3월 제3판)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6-하(下)	72	5	2011년 1월 제2차 인쇄(2009년 7월 제3판)

- 81) 김인정 교과서 체계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정교재연구소(課程教材研究所) 종합문과 과정교재연구개발중심(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편저(編著),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의 교재를 주 자료로 활용하고, 북경교육과학연구원(北京教育科學研究院)과 수도사범대학출판사(首都師範大學出版社) 합편(合編)의 교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82) 연변교육출판사(延邊教育出版社)가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2002년 6월 제1판)본을 근거로 번역 제작한 2006년 5월 제4차 인쇄본(2003년 7월 제1판)은 본문 쪽수 74, printed sheets(印張) 5로 되어 있으며, 분석 대상 교과서와 삽화 및 내용진술 등 일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2단원 '우리들의 교정' 및 15단원 '온 집 식구들 단란히 모였어요' 등 2단원이 줄어들면서 분석 대상 교과서의 쪽수 분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된다.
- 83) 2002년 12월 길림(吉林) 제1차 인쇄본(2002년 12월 제1판)은 본문 쪽수 61, 전지수량(printed sheets; 印張) 4.25로 되어 있으며, 삽화 및 내용진술 등 일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연변교육출판사(延邊教育出版社)가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2002년 12월 제1판)본을 근거로 번역 제작한 2005 11월 제3차 인쇄본(2004년 1월 제1판)과 동일하다.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는 몇 단원에서 1~2쪽 분량을 줄인 것으로 이해된다.
- 84) 2004년 5월 길림(吉林) 제2차 인쇄본(2003년 6월 제1판)은 본문 쪽수 76, 전지수량(printed sheets; 印張) 5.25로 되어 있으며, 삽화 및 내용진술 등 일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9단원 '너는 최고'와 10단원 '나도 최고'가 하나의 단원 '나 최고, 너도 최고'로 합쳐지면서 분석 대상 교과서의 쪽수 분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된다.
- 85) 2004년 11월 길림(吉林) 제2차 인쇄본(2003년 12월 제1판)은 본문 쪽수 79, 전지수량(printed sheets; 印張) 5.5로 되어 있으며, 삽화 및 내용진술 등 일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12단원이 똑 같이 배열되고 있으나,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순서가 일부 조정되고, 각 단원마다 1~2쪽 분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된다.
- 86) 2004년 7월 길림(吉林) 제2차 인쇄본(2003년 6월 제2판)과 동일하나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는 사진 및 삽화 등의 선명도에서 질적 개선이 나타난다.
- 87) 2004년 12월 길림(吉林) 제2차 인쇄본(2003년 12월 제2판)과 동일하다.
- 88) 2005년 6월 길림(吉林) 제3차 인쇄본(2003년 6월 제1판)과 동일하다.
- 89) 2005년 12월 길림(吉林) 제2차 인쇄본(2003년 12월 제1판)과 동일하다.

라) 보조교과서 여부

보조 교과서는 없다. 학습자료, 생활기록부, 활동재료, 다매체 보조자료, 교사용지도서 등 다원화적인 교학활동 자료를 포괄한다.

마) 외형, 표지⁹²⁾ 등



<그림-V-1> 중국 도덕 교과서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예1

뒷표지 안쪽의 경우를 보면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3~6학년용에는 “생명애호, 안전주의[珍愛生命, 注意安全]”에 관한 시리즈물 포스터용 삽화가 게시되어 있다. 3학년 상에는 음식안전, 3학년 하에는 교통안전, 4학년 상에는 소방안전, 4학년 하에는 계단에서의 안전사고, 5학년 상에는 가스중독 예방, 5학년 하에는 익수(溺水)방지, 6학년 상에는 인터넷윤리, 6학년 하에는 학교폭력 방지 등을 표제어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과 바람직한 내용을 지면상 2등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포스터 원편 아래 칸에 7글자 한 구절 형식의 내용을 함께 적고 있다. 6학년 하에는 본 포스터가 앞표지 안쪽에 게시되어 있는데, 아마 본문 편집상의 여백 문제로 인하여 배열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16절지(787mm × 1092mm 1/16)이다. 색도는 3도이며 아동들의 학습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삽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체는 불력 간자체이며, 목차 제시 방법은 1쪽 분량의 <목록>을 구성하고 아래에 대단원명, 소단원명, 쪽을 제시하고 있다. 각 출판사별 단원명 및 구성은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한, 동일 출판사 출판의 경우에도 출판년도 및 발행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90) 2005년 6월 길림(吉林) 제1차 인쇄본(2004년 6월 제1판)은 삽화 및 내용진술 등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91) 2005년 7월 제3차 인쇄본(2005년 6월 제1판)과 동일하다.

92)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1학년(一年級) 1학기(上冊); 수도사범대학 출판사(首都師範大學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1학년(一年級) 1학기(上冊).



<그림-V-2> 중국 도덕 교과서 표지 예2

3) 지도 내용

중국 초등 도덕 교과서 12권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선택적으로 몇 개의 교과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도사범대학출판사 출판본 『품덕과 생활』 1학년 1학기

- 각 소단원 이외 체계 : 1쪽 표지, 2쪽 공백 3쪽 속표지, 4쪽 판권사항, 5쪽 집필책임과 편자, 6쪽 공백, 7쪽 목록(본문 1쪽) …… 뒷표지 속지 없음, 뒷표지
- 제1소단원 체계 : 8~9쪽 1단원 개괄(본문 2~3쪽), 10~11쪽 제1단원 1소단원 1차시(본문 4~5쪽), 12~13쪽 2차시(본문 6~7쪽) 14~16쪽 3차시(본문 8~10쪽)
- 단원수, 단원명, 단원별 쪽수

<표-V-13>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1

단원 명	소단원 명	차시	차시별 쪽수	단원별 쪽수
나는 초등학교생이에요 (我是小学生了) (대단원 개괄 2쪽)	1. 나는 학교에 가요(我上学了)	3개	7	20
	2. 선생님 안녕하세요(老师您好)	3개	3	
	3. 새로운 친구를 알아요(认识新同学)	3개	5	
	4. 나는 할 수 있어요(我能够做到)	3개	3	
다채로운 가을	1. 가을이 왔어요(秋天到了)	3개	5	20

(多彩的秋天) (대단원 개괄 2쪽)	2. 수확의 가을(收获的秋天)	4개	6	
	3. 가을의 활동(秋天的活动)	3개	4	
	4. 추석과 중양절(仲秋节和重阳节)	2개	3	
내 자신을 알아요 (认识我自己) (대단원 개괄 2쪽)	1.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호해요(爱护自己的身体)	3개	5	20
	2. 좋은 생활습관을 길러요(养成良好的生活习惯)	3개	3	
	3. 내 일은 내가 해요(我的事情我来做)	3개	5	
	4. 나는 성장했어요요(我长大了)	3개	5	
매력적인 겨울 (迷人的冬天) (대단원 개괄 2쪽)	1. 내 눈앞의 겨울(我眼里的冬天)	3개	6	25
	2. 겨울의 활동(冬天的活动)	3개	4	
	3. 새해를 맞이해요(迎新年)	2개	6	
	4. 나의 첫 번째 겨울 방학(我的第一个寒假)	4개	7	
총 4단원	총 16 소단원	77쪽(각 단원 개괄 8쪽+목록1쪽=총86쪽)		

나) 인민교육출판사 출판본 『품덕과 생활』 1학년 1학기

- 각 소단원 이외 체계 : 1쪽 표지, 2쪽 사회주의 영예와 치욕관[榮辱觀], 3쪽 속표지, 4쪽 집필책임과 편자 및 판권사항, 5쪽 학생에게, 6쪽 학부모에게, 7쪽 목록(본문 1쪽) …… 뒷표지 속지, 뒷표지
- 제1소단원 체계 : 8~9쪽 1차시(본문 2~3쪽), 10~11쪽 2차시(본문 4~5쪽), 12~13쪽 3차시(본문 6~7쪽)
- 단원수, 단원명, 단원별 쪽수⁹³⁾

<표-V-14>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2

단원 명	소단원 명	소단원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차시	차시별 쪽수	단원별 쪽수
나는 학교에 가요(我上 学了)	1.나는 새로운 책가방을 매었어요(我背上了新 书包)	· 학교에 가는 기쁨 느끼기 · 초등학생으로서의 포부를 갖기 · 학교 내 시설물을 살펴보기	3개	6	20
	2.교정의 종소리(校园铃声)	· 수업 태도를 올바르게 갖추기 ·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2개	4	
	3.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新朋友 新伙伴)	· 자신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친구를 알기 · 나와 친구는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 기 · 친구와 교제하는 방법 알기	3개	6	
	4.평안히 귀가해요(平安回家)	· 하교 준비 후 귀가하기 · 하교 시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 알기 · 각종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기	3개	4	
나는 조국을 사랑해요(祖 国妈妈我 爱您)	5.우리의 국경일(我们的 国庆节)	· 국경일을 알고, 국경일을 경축하기	구 분 없 음	4	8
	6.조국은 내 마음 속에 있어요(祖国妈妈在我 心中)	· 국가에 관한 지식을 갖추기 · 국기 및 국가 휘장[國徽]을 알기	2개	4	
나의 하루	7.자명종과 친구해요(和	·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2개	4	20

93) 『품덕과 생활』에는 대단원, 소단원 등의 명칭 구분이 없으나, 『품덕과 사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방식을 기초로 하여 단원, 소단원, 차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我的一天)	钟姐姐交朋友)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8.나는 매우 청결해요 (我很整洁)	· 청결한 생활하기 · 청결한 아등 되기	2개	4	
	9.나는 잘 먹을 수 있어요 (我会好好吃)	· 골고루 음식 먹기 · 채소를 섭취하기 · 올바른 음식 습관 기르기	3개	4	
	10.나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我自己会整理)	· 가방, 이부자리 등 정리 정돈하기	구분없음	4	
	11.나의 다양한 의식을 보아요 (看我多精神)	· 올바른 자세 갖기 · 일상생활에서 예절 있는 자세 갖추기 · 절도 있는 행동하기	3개	4	
새해를 맞이해요 (过新年)	12.새해 안녕(新年好)	· 새해맞이 풍습과 새해 축하 활동 알기 · 친구에게 연하장 쓰기	2개	4	9
	13.즐겁게 설날을 보내요 (欢欢喜喜过春节)	· 설날맞이 활동 알기 ·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기는 설날 그믐날의 저녁만찬(年夜飯)의 의미를 알고, 식사예절 지키기 · 세배의 의미를 알고, 인사예절 지키기 · 설날을 즐겁고 편안히 보내기	4개	5	
후기(后记)					
총 4단원	총 13소단원		총 58쪽 (목록 1쪽 포함)		

다) 인민교육출판사 출판본 『품덕과 생활』 1학년 2학기

<표-V-15>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3

단원 명	소단원 명	소단원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차시
나의 가족과 동료 (我的家人与伙伴)	1.나의 가족(我的一家人)	· 가족 구성원을 알고, 칭호를 익히기 · 가족의 역할을 알고, 친구에게 가족 소개하기	2개
	2.가족의 사랑(家人的爱)	· 나를 보살피주는 가족의 사랑 알기 · 가족의 사랑이 다양함을 이해하기	2개
	3.나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어요 (我为家人添欢乐)	· 가정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 하기 · 어버이날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2개
	4.나와 작은 동료(我和小伙伴)	· 친구의 소중함 알기 · 친구와 협동하고 교류하여 사이 좋게 지내기	2개
대자연으로 가요(走进大自然)	5.봄이 왔어요(春天来了)	· 봄을 알리는 자연 풍경 관찰하기 · 봄을 찬미하기	2개
	6.작은 싹이 빨리 자라요(小苗快快长)	· 봄이 파종의 계절임을 알기 · 씨앗 심기, 싹 틔우기 등의 활동하기	2개
	7.우리는 태양과 놀아요(我们和太阳做游戏)	· 햇빛과 그림자를 이해하고, 그림자 놀이하기 · 무지개를 이해하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기	2개
	8.바람이 불어요(风儿吹呀吹)	· 바람을 느끼기 · 바람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이해하기 · 바람개비 놀이하기	3개
매일 매일 건강한 생활을 해요(健康生活每一天)	9.나는 이를 갈았어요(我换牙了)	· 젓니와 영구치를 알기 ·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식을 알기 · 잇병[牙病]을 예방하기	3개
	10.나는 한 쌍의 맑은 눈이 있	· 눈의 역할을 이해하기	3개

	어요(我有一双明亮的眼睛)	· 근시를 예방하기 · 눈을 보호하기	2개
	11.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요(小心, 别伤着)	·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 다친 후 응급조치하기	
	12. 여름철, 우리는 무엇을 주의할까요(夏天, 我们注意什么)	· 유쾌한 여름철의 느낌을 말하기 · 여름철의 보건에 주의하기 · 배탈 설사를 예방하기	3개
총 3단원	총 12소단원		

라) 인민교육출판사 출판본 『품덕과 생활』 6학년 1학기⁹⁴⁾

<표-V-16>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위명, 주요 내용 등의 예 4

단원 명	소단원 명	단원별 교수·학습 내용	차시	활동구분(특징)	쪽수
1단원 문명을 향하여(走向文明) * 총27쪽	1.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科技带给我们什么?)	·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에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어떻게 과학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미신을 타도하고 거짓 과학을 분간할까요? · 문명인이 되기 위해서, 우선 생활 중의 각각의 작은 일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문명적 태도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 우리들은 어떻게 건강하고 유익한 휴식생활을 선택하고 가져야 할까요? · 사회생활은 천태만상이기에 수많은 유혹과 함정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생활 중의 각종 유혹을 뿌리치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3개	(말하기, 쓰기) 소자료(小資料)(생물 복제; clone) 제시	6
	2. 사회문명에 관한 토론(社会文明大家谈)		3개	관측대[瞭望臺](공중 교통 이용상의 개선된 여섯 가지 공중도덕)	6
	3. 건강한 휴식 생활(健康文明的休闲生活)		4개	2개: 동요 및 놀이 활동(휴식활동으로서의 마지막에 관한 찬반 변론)	6
	4. 거절할 수 있어요(学会拒绝)		4개	1개: 동요 및 놀이 활동(건강생활 실천) '소자료'(약물오남용, 흡연) 관측대[瞭望臺]: 인터넷 예절 부탁 편지글	9
2단원 불굴의 중국인(不屈的中国人) * 총27쪽	1. 잊을 수 없는 굴욕(不能忘记的屈辱)	· 중화민족의 격은 굴욕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를 이해하고 난 후, 어떤 마음이 드나요? · 외국 열강의 침입에 맞서 중국의 여성들은 영웅적인 반항을 하였는데, 무엇이 그들이 자기의 생명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항쟁과 분투를 하게 하였는가요? · 이 단원을 배운 후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은 없다'는 문구를 이해할	3개	1개: 역사사실 기록	8
	2.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아(起来, 不愿做奴隶的人们)		3개	1개: 동요 및 놀이(항전역사 알기) '소자료'(항일기록)	6
	3. 중화민족의 융성을 위하여(为了中华民族的崛起)		7개	'소자료'(중국 공산당~) 관측대[瞭望臺]: 중국 영도자	13

94) 본 3~6학년 용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교과서 구성은 단위별로 소단원 부호가 구분되어 있다.

		수 있게 되었나요?			
3단원 웅 비 하 는 조 국 (騰 飛 的 祖 國) * 총25쪽	1.일어서는 중국인(站 立起來的中國人)	· 과거의 중국은 ‘아시아의 병든 사 람’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의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그 웅자함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느껴봅시다. · 의식주는 우리들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는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나요? 국민들의 생활은 어떠한 것들이 개선 되었나요? · 평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전국 민이 분투할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어 떠한 성적을 얻었나요?	2개	관측대[瞭望臺]: 중 국의 국제적 위상	6
	2.나날이 더욱 부강 해지는 중국(日益富 強的祖國)		3개	관측대[瞭望臺]: 부 강해지는 중국	8
	3.빈곤의 시대를 지 나 평온의 시대로(告 別貧困奔小康)		2개	小記者在行動(우리 집의古今) ‘小資料’(고령화 시 대)	6
	4.나라 문을 열고, 세 계로(打開國門 走向 世界)		2개	1개 : 중국 생산물 품 조사, 관측대[瞭望臺](중국 의명절 문화)	5
4단원 세 계 일 주 (漫遊世界) * 총27쪽	1.주변을 살펴보아요 (到周邊去看看)	· 우리의 이웃국가에는 어떤 나라들 이 있나요? 이웃국가와 어떻게 하여 야 화목하게 서로 함께 발전할까요? · 세계상 유명한 문화유적을 알아보 고, 인류의 세계문화 창조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각국의 서로 다른 생활, 문화에 대 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2개	1개 : 이웃 나라와 의 문화 교류	10
	2.지구여행을 떠나요 (環球旅行去)		6개	관측대[瞭望臺]: 각 도시의 문화	8
	3.문화 풍채(文化采風)		3개	1개 : 기독교 문화 관측대[瞭望臺]: 토 착 문화 보호	9
총 4단원	총 14소단원			본문 페이지 표시 총 110쪽	

마) 인민교육출판사 출판본 『품덕과 생활』 6학년 2학기

<표-V-17> 중국 도덕 교과서의 단원명, 주요 내용 등의 예5

단원 명	소단원 명	단원별 교수·학습 내용	차시	활동구분	쪽수
1단원 너와 나는 동행자(你我同行) * 총17쪽	1.남학생과 여학생(男生和女生)	· 남·여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직면하 게 될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남·여 학생이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친구지간의 우의를 다지는데 있어서 어 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우의를 다지는데 어 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을 알고 있는지요?	3개	2개 : 活動天地(타인 의 장점 말하기, 이상 적 남녀상 말하기)	8
	2.친구 사이(朋友之間)		1개	1개 : 故事與思考(이 솜우화-두 친구와 곰)	4
	3.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學會 和諧相處)		3개		5
2단원 인류의 정 원(人類的 家園)	1.하나뿐인 지 구(只有一個地 球)	· 지구는 인류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주 고 있나요? 인류는 또한 어떻게 지구를 대 하여야 할까요? · 각종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	4개	1개 : 活動天地(지구 와 인류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小資料’(물의 중요성)	10

* 총 27쪽	2.우리는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我们能对地球做什么)	떠난 행동을 하여야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 자연재해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들은 또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4개	‘小資料’(국가차원의 절수의 중요성)	6
	3.재해가 발생할 때에(当灾害降临的时候)		3개	1개 : 小記者在行动(우리지역 재해 현황 조사) ‘小資料’(일본의 지진, 세계의 자연재해, 적십자)	11
3단원 파란 하늘 아래 함께 있어요(同在一片藍天下) * 총 19쪽	1.전쟁의 고난(战争风云下的苦难)	· 학생은 전쟁을 겪고 있는 동년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생활 형편을 아나요? 전쟁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2개	관측대[瞭望臺](히로시마 원폭)	4
	2.평화의 비둘기를 날려요(放飞和平鸽)	· 평화를 위해 인류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평화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개	1개 : 活動天地(세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표현하기)	6
	3.우리는 손에 손을 잡아요(我們手拉手) ⁹⁵⁾	· 세계 각국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는 시기에, 우리들은 세계 각국과 어떻게 하여야 공존할 수 있나요? 전 인류의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4개	2개 : 故事與思考(아프리카 물 공급) 活動天地(변화하는 국제 정세 알기)	9
4단원 안녕! 나의 초등학교 생활(再見我的小學生活)* 총 5쪽	1.나의 성장기(我的成長足跡)	· 초등학교 6년간의 성장과정 중 어떠한 일들을 잊을 수 없나요? 어떠한 사람들이 기억되나요?	구분 없음		2
	2.헤어지는 소감(臨別感言)	· 모교, 선생님,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나요? 모교를 떠날 때, 무엇을 하고 싶나요?	2개		3
후기(後記)					1
총 4단원	총 11소단원			본문 페이지 표시 총	72쪽

4) 단원의 체제·구성의 일례

가) 1학년 1학기[上冊] 제4소단원 ‘평안히 귀가해요’(平安回家)⁹⁶⁾

- 단원명 : 평안한 가정
- 단원 목표 : 품덕과 생활의 ‘지행통일’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거리 상황 및 학생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구체적인 교학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항상 마주하는 교통표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교통상식을 이해한다.
 - 작은 지식 겨루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통 표지나 교통 상식에 관하여 보다 진일보된 이해를

95) 손과 손을 잡고[手拉手] : 전국의 도시, 농촌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배움의 기회를 잃은 빈곤지역의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을 비유하여 쓰는 말.

96) 인민교육출판사본 『품덕과 생활』. 본 절에서 다루는 있는 각 단원마다의 교수·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 및 운용 방법은 인민교육출판사의 대표적인 인터넷 상의 자료임.

<http://www.pep.com.cn/pdysh/jszx/tbjxzy/1s/> 참조.

하도록 하며, 자각적으로 교통 준수 의식을 수립하고,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감을 배양한다.

○ 단원의 주요 구성 내용 : 일련의 교통 표지에 관한 삽화를 구성하여, 아동들이 생활경험을 통하여 항상 마주하는 교통 표지를 알고, 아울러 간단하게 자기 생활과 관련된 교통안전 상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

○ 단원 전개 방식의 일례 : ·사거리를 어떻게 건너는가 → ·교통 표지 인식 → ·교통 지식 콘테스트 → ·동요 배우기 : ‘평안하세요(祝你平安)’

○ 교수·학습 방법

- 교수법

- 활동 교육 : 1학년 학생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오락, 겨루기, 모방 등의 교학 활동을 한다.
- 상황 이해 교육 : 교사는 창의적이고 의미적인 교학 상황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풍부하고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내게 함으로써 유효한 학습을 진행한다.

- 학습법

- 표현하여 보여주는 학습법 - 협동 학습법 - 토론 학습법

○ 차시별 목표 및 주요 내용, 구성 방식, (학습)내용 제시 방식, 내용의 양

<표-V-18> 중국 도덕 교과서의 차시별 목표 및 주요 내용 등의 예

차시별 명	차시별 목표 및 주요 내용	구성 방식	(학습)내용 제시 방식	기타	내용량
1. 수업이 끝났어요(放學了)	· 학교 시 안전하게(평안히) 귀가하기	3가지 상황제시	삽화		1쪽
2. 안전하게 귀가해요(平安回家)	·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 위험한 행동 안하기, 귀가 길에 주의할 것 알기	6가지 상황제시	삽화 및 밑줄 친 곳의 문장 완성하기	교과서 밑줄 친 부분을 채우거나 말로 대답	2쪽
3. 표지판을 알 수 있어요(我會看標誌)	· (교통)표지판 이해하기 · 자신이 알고 있는 표지판 소개하기	5가지 (교통)표지판을 이해하고, 여타 자신이 아는 표지판을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삽화 및 교통 표지	교과서 공란에 표지판 그리기	1쪽

○ 구성물의 종류 및 특징 : 전체적인 차시별 주제나 주요 학습 내용은 토끼(캐릭터)가 말풍선을 통하여 제시. 삽화를 통하여 배경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말풍선을 통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논의를 이끈다.

나) 3학년 1학기[上冊] 제4단원 ‘나의 역할과 책임’(我的角色與責任)⁹⁷⁾

○ 단원명 및 소단원 명

- 단원명 : ‘나의 역할과 책임’(我的角色與責任)

97) 인민교육출판사 출판본 『품덕과 사회』 3학년[三年級] 1학기[上冊], 제4단원 ‘나의 역할과 책임’(我的角色與責任) 중 제1소단원 ‘나는 누구인가?’[我是誰]. 본 절에서 다루는 각 단원마다의 교수·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 및 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인민교육출판사의 대표적인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였음. 이에 관하여는 <http://www.pep.com.cn/pdysh/jszx/tbjxzy/1s/> 참조.

- 소단원명 : ‘나는 누구인가?’(我是谁)

○ 단원 목표

-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역할의 변화와, 서로 다른 역할은 또한 우리들에 대한 요구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한다.
- 토론 및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문명적인 어린이단 관련 기록물 중의 등장인물은 어떻게 하였는가?”의 질문을 활용하여 도덕적 판단능력을 형성한다.

○ 단원의 주요 구성 내용

- 서로 다른 상황과 장소를 제시하여, 자신의 올바른 언행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능력을 배양하는 내용
- 차시 끝부분에 “어린이 기자 활동”(小记者在行动)의 조사보고 활동을 부가하여,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교수·학습 과정

- 짧은 영상물을 방영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칠판에 ‘나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를 그려 논의를 이끈다.
- 학교, 시장, 집, 버스 안, 여행지 등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질의하고, 학생들이 이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학교, 시장, 집, 버스 안, 여행지 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 학생들이 이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 중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 교수·학습 방법

- 교사의 질의, 학생들 간의 토론, 조별활동, 종합보고, 교사의 정리
-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연

○ 핵심 내용

- 생활 중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냄으로써 착한 어린이, 문명적인 어린이가 되어 장차 미래의 국가 주역이 됨

○ 구성물의 종류 및 특징

- 전체적인 차시별 주제나 주요 학습 내용은 ‘차시별 명’ 아래에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이나 생각해볼 거리 등은 어린이(캐릭터)가 말풍선을 통하여 제시.
- 삽화나 사진을 통하여 배경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말풍선을 통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강조점을 제시하여 논의를 이끈다.

5) 교사용지도서

교사용지도서(教師讀本)의 경우는 여타 교과서 관련 ‘과정표준 교사 독본’(課程標準教師讀本)은 확인되었고 따라서 도덕교과서 부분 역시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각 대학출판사에서 자체 제작한 초등교육과 관련한 교사용 교재 시리즈물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⁹⁸⁾

라. 중국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 특징 및 시사점

가)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및 시사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1951년 정부원에서는 ‘학제 개혁에 관한 결정’(關於學制改革的決定)을 공포하였다. 학제의 주요내용은 1922년의 ‘임술학제’(壬戌學制)의 기본 틀을 계승하여 6-3-3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전일제 의무교육 교과서’는 초등교육의 학제를 6년으로 하는 ‘전일제 보통 소학’을 가리키므로 통상 6년제로 볼 수 있다. 소학교 교육인 초등교육은 이러한 학제를 기초로 6년제 혹은 5년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 6.5세부터 7세 사이의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중국식 표현은 1992년 8월에 반포된 ‘9년 의무교육 전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계획’ 이후 과정(課程)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교학(教學)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표준은 1952년부터 1997년까지 이르는 시기에는 교육요강이라 불렸으나, 1997년 4월 국가 교육위원회에 의해 ‘9년제 의무교육 소학교 사상품덕과 및 초급중학교 사상정치과 과정표준 시안’이 공포되고, 2001년 7월 의무교육단계 18개 교과목 과정 표준이 발표된 후, 2005년 가을 새로운 학기부터 모든 과목과 활동은 새로운 교육과정 표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원래의 교학요강(教學大綱)이 모두 폐지되었다.

중국 기초 교육과정의 개혁과 발전은 사회 역사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과정 개혁은 학습 방식과 교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식 전수를 중시하는 경향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학습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이 정확한 가치관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바로 피동적, 의존적, 허구적, 동질적인 전통적 학습방법을 주도적, 독립적, 창의적, 체험적이며 문제의식적인 현대적 학습 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 교육과정의 발전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단계적 구분은, 비록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도 있지만, 중국의 사회 역사 변화에 따라 대략적으로 ‘개조기’-‘모방기’-‘확장기’-‘동란기’-‘회복기’-‘발전기’-‘규범

98) 대표적으로 오유병(吳維屏)이 주편(主編)한 『소학 품덕과 생활(사회) 과정과 교학』(『小學品德與生活(社會)課程與教學』)(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10)을 들 수 있다.

학기'-‘새로운 기초과정 개혁기’ 등 8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제8단계의 ‘새로운 기초과정 개혁기’는 새롭다는 말이 표방하듯이, 여러 나라의 교육이념과 과정이론 그리고 교육 사상을 창조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표지가 된다. 과정의 구조는 ‘9년 일관적 의무교육 과정’으로, 고급 중학은 분과(分科) 과정이 위주가 되고, 소학교로부터 고급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두며, 농촌의 중학 과정은 현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2001년 11월 19일 중국 교육부에서는 ‘의무교육과정설치 실험방안’을 공포하여 기존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을 보다 한 단계 발전시켰다.

본 과정개혁의 근본적인 임무는,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기초교육의 과정 체계, 구조, 내용을 조정하고 개혁하여, 소질교육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또한 과정 개혁의 핵심 이념은 ‘모두 학생의 발전을 위함’이다. 과정의 내용으로는 ‘첫째, 평생 학습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과 기본적 기능을 정선한다. 둘째, 과정 내용의 현대화, 현실화, 인본화(人本化)와 본토화를 강화한다. 셋째,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과 비정식 교육과정 내용들이 정합성을 갖춰 조화롭게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은 8번째 교육과정(新一輪基礎教育課程改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01년의 ‘기초교육과정개혁 요강’은 기초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구조, 교육과정 표준, 교학과정(教學過程), 교재 개발과 관리, 과정(課程) 평가, 과정(課程) 관리, 교사 배양과 훈련, 과정 개혁의 조직과 실시 등 9개 부분을 통해서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보였다. 그 중, 소학교의 교과편제(課程門類)는 학과과정, 종합실천과정, 지방과 학교 개발의 과정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론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각 교과와 과정표준(課程標準)은 “머리말[前言], 과정목표(課程目標), 과정표문(課程標準), 과정실시건의(課程實施建議)”(‘ ’) 등 대체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교사 사용 지도서에 해당하는 교사독본(教師讀本)도 출간되고 있다.

교과목의 구성은 소학교 저학년에서는品德과 생활, 어문, 수학, 체육, 예술(음악 혹은 미술) 등의 과정이 설치되며, 고학년에서는品德과 사회, 어문, 수학, 과학, 외국어, 종합실천활동, 체육, 예술(음악 혹은 미술) 등의 과정이 설치된다. 교과목의 운영은 지역이나 학교의 조건에 따라 수업 시간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에 따르면, 연간 수업 시간은 35주로 정하고, 학교는 2주 기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학교 전통 활동, 문화축제, 운동회 등을 한다. 복습시험은 2주, 겨울·여름 방학, 국가법정휴가일 등을 합해서 13주이다. 그러나 의무교육 9년 일관제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은 연간 수업 시수, 각 학년 주당 수업시수, 각 과목 수업 시수의 비율 등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방과정과 학교 과정 수업시간+종합실천활동 수업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16~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업할 때에는 서로 합해서 실시할 수 있고, 분산해서 실시할 수 있다.

한국 초등학교에 배당된 시간은 1년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 개념인데 비하여, 중국은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많다. 또한 한국의 국어, 사회, 외국어의 연간 수업 시수 비율은 중국보다 대체로 낮은 편이며, 학교 재량으로 배정된 중국의 지방·학교 배정 과정보다 한국의 특별활동 비율은 낮으며, 한국의 과학과 체육 비율은 중국보다 높다. 그러나 양국의 국어, 수학 2개 교과와 연간 수업 시간 수의 비율은 가장 높으며, 한국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중국의 종합활동실천과 지방·학교 배정 과정 모두 10%를 넘고 있어서 학교의 재량권과 자주권이 강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북경사범대학출판사 발행한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생활』 과정표준’(全日制義務教育 品德與生活課程標準-實驗稿)(2008년 7월, 제 14차 인쇄본) 및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全日制義務教育 品德與社會課程標準-實驗稿)(2002년 6월, 제 1차 인쇄본)을 기초로, 인터넷 자료인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 이해’(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課程標準解读)을 부차적으로 활용하였다.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교과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설치된 교과로 초등학교 3~6학년의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중학교의 『사상품덕』(思想品德), 고등학교의 『사상정치』(思想政治)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본 과정의 목표, 내용, 형태, 실시방식 등의 측면은 유치원 과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초등학교 중학년 및 고학년 단계의 품덕과 사회, 과학 및 종합실천활동 등의 기초과정에 해당된다.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課程標準) 연구 제작의 기본 사상으로는, 생활 속에서의 품덕 배양, 아동의 현실생활에 관한 관심, 아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정감·태도·행위습관·지식 기능 배양의 내재적 통일, 자주적이며 탐구적인 학습 창도 등을 들 수 있다.

나)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및 시사점

『품덕과 생활』은 ‘공민도덕건설 실시 요강’(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의 정신을 이어 아동들의 배움생활(學會生活)을 잘 이끌어 줌으로써, 올바른 공민도덕 소질과 탐구적이고 창조적인 과학정신을 길러 중국 기초교육의 중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품덕이 올바르고, 탐구하기를 즐기며,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아동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형 종합과정이다. 본 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생활성, 개방성, 활동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는 첫째, 도덕은 아동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 점. 둘째, 아동들을 적극적인 생활과 학습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과정의 핵심인 점. 셋째, 아동기 생활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넷째, 아동의 생활 세계와 관련된 교육과정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총괄목표를 ‘바람직한 품덕과 행위 습관을 갖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하며, 생활에 열정과 사랑을 갖는 아동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하위목표는 정감과 태도, 행위와 습관,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등의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정의 과정 구조는 3가지의 중심내용과 4가지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3가지의 중심내용은 아동과 자아, 아동과 사회, 아동과 자연이며, 4가지의 구성요소는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 유쾌하며 적극적인 생활, 책임지고 사랑하는 생활, 사고하며 창의적인 생활이다. 특히, 위의 4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내용표준은 기본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교학활동과 교재 편찬 시, 각 지역이나 학교 또는 아동들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내용표준’ 중의 4가지 측면의 내용은 비록 치중하는 바가 있으나, 이 4영역은 서로 관련되고 서로 관통되며 전체적으로 드러난다. 건강과 안전을 전제로 한다면, 아동의 생활은 즐거움이 충만하고 다양한 성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창조성이 풍부해져야 하며, 따라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내용 요소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4번

째 항목인 ‘4. 교학활동’[(四) 教學活動]에서 개략적으로 논하고 있다. 즉, 본 과정을 운용상의 교학활동 형식으로는 토론, 자료조사, 현장조사, 체험학습, 조작성 및 실천적 활동, 놀이활동, 참관학습, 감상활동, 복습활동, 고사(성어) 습득, 강의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 특히 기타 학과 혹은 교육활동과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부분 역시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평가건의(平價建議)’에서 언급되고 있다. 본 과정의 평가 목적은 매 아동의 발전을 격려하고, 과정의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량을 제고하며, 교사의 자아성장을 촉진하고 전문성 신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의 특징으로는 과정화(아동 학습활동 과정 평가), 다양화(평가 주체의 다양화, 평가 측면의 다양화, 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평가 중시)를 언급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 대화, 시험지, 생활기록표, 각종 작품 및 활동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세기에 중화민족은 허다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람의 사상품덕과 사회성 발전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공민도덕 실시 요강’(公民道德實施綱要)과 ‘기초교육과정개혁 지도 요강(試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관련한 과정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국 기초교육과정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임무이다. 따라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품덕과 사회』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학습하는 것을 과정의 핵심으로 삼아, 아동의 생활을 과정의 기초로 하여 교육의 기초와 유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품덕과 사회』 과정은 초등학교[小學] 중고학년에 아동 사회생활을 기초로 하여 개설되는 과목으로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품덕 형성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본 과정은 초등학교 중고학년 학생의 사회생활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과 사회와 품덕 형성에 관한 이해의 요구에 근거하여, 아동의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품덕, 사회규범, 법제교육, 애국주의,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교육, 국가 상황, 역사와 문화 교육, 지리와 환경교육 등의 내용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환경, 사회활동, 사회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험, 정감, 능력, 지식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아울러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행위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기본적인 도덕관, 가치관, 초보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형성하고 그들이 사회주의 공민(公民)으로 성장하여 현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과정의 총괄목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품덕을 형성하고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랑, 책임감, 바람직한 행위습관과 개인적인 자질을 갖춘 사회주의 공민(公民)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위목표는 ‘정감, 태도, 가치관’, ‘능력’, ‘지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술되고 있다.

본 교과과정의 내용표준은 첫째, 성장하는 나. 둘째, 나와 가정. 셋째, 나와 학교. 넷째, 나의 향촌(나와 지역사회). 다섯째, 나는 중국인. 여섯째, 세계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표준 및 교학활동 건의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별 내용표준은 기본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표준은 교재 편찬이나 교학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이나 학교 또는 아동들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확장된다. 각 항의 내용 표준 및 배열순서와 교재 및 과목 시수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며, 각 학년의 내용 분포는 본 과정표준에 의거한다. 과정 개혁이 창도하는 정신을 근거로 하여 나열된 교학활동 건의의 주된 중심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체험, 탐구, 학술교류 등 실천적인 교학활동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건의는 단지 제시용으로서 교재 편찬과 교학 시 참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교학활동의 형식은 하나

의 격식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구체적인 목표, 내용, 조건, 자원을 달리하여 교학의 실제와 결합하여 풍부하고도 다양한 활동형식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 아울러 확장되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첫 번째 항목인 ‘교학건의’(教學建議)에서 과정의 목표의 전면적 파악, 풍부한 학생의 생활 경험, 학생의 자주적인 학습 유도, 교학 내용 충실, 교학 공간의 확장 등을 개략적으로 논하고 있다.

평가부분 역시 ‘과정표준’의 네 번째 부분인 ‘실시건의(實施建議)’ 중 두 번째 항목인 ‘평가건의’(評價建議)에서 언급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정보를 피드백[反饋]함으로써 교사의 교학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아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과정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생의 품덕과 사회성 발전의 수준을 단정적이거나 종결적으로 평정하는 데 있지 않으며, 더더욱 평가결과를 아동을 비교하거나 등급을 나누는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각 학생의 원래 상태를 기초적인 출발점으로 하여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격려 위주의 발전적 평가가 강조된다. 평가 기능으로는 진단과 조절 기능, 강화와 교육 기능 등이 제시되고 있다. 평가 내용으로는 학습 태도, 학습 능력과 방법, 학습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평가 방식으로는 다주체 및 개방성 평가,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한 교사평가, 학생 자신평가, 학생 상호 평가, 가정 및 사회 참여 평가 등의 방식을 선택적 혹은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 방법으로는 교사의 관찰 기록, (학습 태도 및 표현 등에 관한) 세밀한 평어, 학생 자신의 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작품 평가, 개별화 분석 등을 들 수 있으나, 교학 평가 방식과 방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각 종류의 평가 방법은 모두 자신의 적용 범위 안에 있으므로 교사는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이상의 방식과 방법을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교학개혁 중의 창조적인 측면을 탐색하여 결점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과 고민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허문권은 중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변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소개하고 있다.⁹⁹⁾ 첫째,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에 따르는 정치적 풍파는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교육이념은 ‘공사주의 이상, 마르크스주의, 지·덕·체·미 등의 전면 발달의 소질교육’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민주주의, 전인의 육성’과 비교하여 볼 때 서술상의 용어가 다르지만 그 미래사회에 지향하는 인성교육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교과 편제에서 분과(分科) 교육과정과 통합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설치한다. 넷째, 교육과정 시간 배당에서 초등학교의 1단위 수업시간 표준에서 학생의 심리발달의 규율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다) 도덕 교과서의 특징 및 시사점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1년의 ‘기초교육과정개혁 요강’에 의거한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은 8번째 교육과정(新一轮基礎教育課程改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제작된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설치된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및 초등학교 3~6학년 과정에 설치된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이다.

중국 교과서 편찬은 ‘기초교육 교재 관리 제도를 교재의 양질화와 다양화를 실현’을 목표로 하여, 교육부의 ‘중소학 교재 편찬 심사 관리에 관한 잠정적인 시행 방법’(关于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99) 허문권,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 변천 비교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을 근거로 하고 있다. 『품덕과 생활』의 경우 교재의 편찬 시 기초교육과정 개혁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며, ‘기초교육과정개혁요강(試行)’과 ‘전일제 의무교육 품덕과 생활 과정 표준(實驗稿)’을 주요 근거로 한다. 교재 편찬의 주요 원칙은 사상성, 과학성, 현실성, 종합성, 활동성 등이다.

본 과정의 교재는 종합적인 자원 체계로서 교과서, 학습자료, 생활기록부, 활동자료, 다매체 보조자료, 교사용지도서 등 다원화적인 교학활동 자료를 포괄한다. 본 과정의 교재(교과서)는 각 지역 및 각 학교와 관련된 교육행정부문의 유관 규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품덕과 생활』은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당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26시간이다.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1학년 상(上)권을 예로 들면, 각 소단원 이외 체계는 1쪽 표지, 2쪽 사회주의 영예와 치욕관, 3쪽 속표지, 4쪽 집필책임과 편자 및 판권 사항, 5쪽 학생에게, 6쪽 학부모에게, 7쪽 목록(본문 1쪽) …… 뒷표지 속지, 뒷표지 등으로 되어 있다. 제1소단원의 체계는 8~9쪽 1차시(본문 2~3쪽), 10~11쪽 2차시(본문 4~5쪽), 12~13쪽 3차시(본문 6~7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단원, 총 13개 소단원 등 58쪽(목록 1쪽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내용 및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1학년 상(上)권의 제4소단원 ‘안전하게 귀가해요’(平安回家)를 예로 들어 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원의 목표는, 품덕과 생활의 ‘지행통일’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 주변의 거리 상황 및 학생의 실제 생활을 결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학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마주하는 교통 표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교통 상식을 이해한다. 둘째, 작은 지식 겨루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통 표지나 교통 상식에 관하여 보다 진일보된 이해를 하도록 하며, 자각적으로 교통 준수 의식을 수립하고,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생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감을 배양한다. 이러한 목표를 기초로 하여, 일련의 교통 표지에 관한 삽화를 구성하여, 아동들이 생활경험을 통하여 항상 마주하는 교통 표지를 알고, 아울러 간단하게 자기 생활과 관련된 교통안전 상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인 차시별 주제나 주요 학습 내용은 토끼(캐릭터)가 말풍선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삽화를 통하여 배경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말풍선을 통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논의를 이끄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품덕과 사회』 교재 편찬은 과정표준을 근거로 하며, 종합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다. 교재 편찬은 학생 생활과 사회의 실제에 주의하고, 교학과정 중 학생의 주동적 참여와 자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교재 내용의 선택은 사회의 진실을 반영하여, 학생이 사회에 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학습 능력을 감안하고, 학생의 흥미와 학습 의지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재의 편찬은 서로 다른 지역의 특징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고, 상관된 내용을 타당성 있게 확장하며, 각 지역의 생활과 접근된 소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교재 중의 교학활동 설계는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사가 학교와 학생의 실제 현황을 근거로 선택되게 하여야 한다.

『품덕과 사회』는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당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30시간이다.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사회』의 경우, 각 단원별 단원설정의 취지 및 배경이 소개되고 있다.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3학년

상(上)권을 예로 들면, 4단원, 총 13개 소단원 등 71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내용 및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 출판본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3학년 상(上)권의 제4단원 ‘나의 역할과 책임’ 중 제1소단원 ‘나는 누구인가?’(我是誰)를 예로 들어 단원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역할의 변화와, 서로 다른 역할은 또한 우리들에 대한 요구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한다. 둘째, 토론 및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문명적인 어린이단 관련 기록물 중의 등장인물은 어떻게 하였는가?”의 질문을 활용하여 도덕적 판단능력을 형성한다. 또한, 단원의 주요 구성 내용은 서로 다른 상황과 장소를 제시하여, 자신의 올바른 언행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생활 중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주입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냄으로써 착한 어린이, 문명적인 어린이가 되어 장차 미래의 국가 주역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차시 끝부분에 “어린이 기자 활동”(小記者在行動)의 조사보고 활동을 부가하여,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내용은 교사의 질의, 학생들 간의 토론, 조별활동, 종합보고, 교사의 정리,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연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인 차시별 주제나 주요 학습 내용은 ‘차시별 명’ 아래에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이나 생각해볼 거리 등은 어린이(캐릭터)가 말풍선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삽화나 사진을 통하여 배경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말풍선을 통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강조점을 제시하여 논의를 이끄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전통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교육 특히 도덕교육은 현재의 우리에게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풍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교육은 공산화와 문화대혁명 등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주지하듯이 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의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

가) 전통¹⁰⁰⁾과 주체성 강조

우선,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품덕(品德)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서술상의 용어가 다르지만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은 유학의

100) 전통(傳統)이란 일반적으로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현재의 생활문화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양식이나 태도 등을 지칭한다. 또한 전통은 시간적인 연속성과 본질적인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계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에 관한 이해는 현재 또는 현대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으므로 융통성과 포용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은 고유성이나 주체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시간적인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각적인 반성이나 타문화와의 교류와 융합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로도 발전되고 있으며, 현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준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석 및 집필 세목 구상에 관한 동양윤리적 제언」, 『온지논총』, 제22집, 2009.

학문 전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덕성(德性)에 관한 논의는 문명적인 사회 건설의 기초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사회적인 구조나 실생활 등의 측면에 있어서 전통사회와는 매우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의식구조나 가치관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 전통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은 타교과목과의 차별성이나 독립된 교과목으로서의 필요성 등 매우 중요하고도 심층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논의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시대 교육의 주류가 인성과 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교육이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과 정체성을 통하여 이에 관한 초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은 ‘한국에서의 도덕과 교육의 의미’를 표방한다고도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도덕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윤리 또는 전통윤리에 관한 이해를 필수로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동양윤리는 동양의 사회에서 계승되어 온 윤리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동양의 각 나라 또는 각 민족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동양윤리는 각 국가나 민족의 전통윤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전통윤리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별 눈높이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전통윤리의 현대화’라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¹⁰¹⁾

사람다움의 체득 즉, ‘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자각은 바로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자각의 측면은 단지 동양윤리나 전통사상을 소개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동양 전통사상의 현대화와 현실화를 통하여 현 시대의 역동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접근과 소통을 부단히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적 의미와 한국에서의 도덕교육이라는 당위적인 의미를 모두 갖는다.

나) 시대 변화의 적극적 수용

전통의 현대화는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전통시대의 가치관이 현 시대적인 사회 맥락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중국의 교육과정이 중국의 사회 역사 변화에 따라 대략적으로 ‘개조기’-‘모방기’-‘확장기’-‘동란기’-‘회복기’-‘발전기’-‘규범화기’-‘새로운 기초과정 개혁기’ 등 8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사실은 변화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교육 역시 사회의 역사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도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변화의 흐름은 현대적 학습 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정 개혁은 학습 방식과 교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이 정확한 가치관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바로 피동적, 의존적, 허구적, 동질적인 전통적 학습방법을 주동적, 독립적, 독특적, 체험적이며 문제의식적인 현대적 학습 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전통적 윤리와 가치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즉, 반성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도덕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

101) 지준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석 및 집필 세목 구상에 관한 동양윤리적 제언”, 『온지논총』, 제22집, 2009.

에 전통적 가치가 전통 시대의 그것대로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전통적 가치가 현 시대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비판적으로 재해석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생산양식과 생활방식이 다른 현대에 전통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방식도 문제가 있고, 또한 동도서기(東道西器)류의 동양의 도덕과 서양의 과학을 기계적으로 절충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으며, 전통적 언어와 번역어의 유사성 때문에 용어는 전통에서 취하되 내용은 서구의 그것으로 채우는 잘못이 엄연히 존재한다.”¹⁰²⁾는 지적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언급이다. 물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이 전통적 가치로만 만들어지거나 전통적 이야기로만 채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통적 가치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통 가치의 본질과 시대 상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등 정치사상적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풍파가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된 현 시대의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중국이 비록 통일된 다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중화민족의 우월성과 중국공산당의 영도력을 선양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들은 교육에 있어서 객관적 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게 되는 내용적 요소가 됨은 물론, 국제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도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재량권과 자주권의 강화

중국의 교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합실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소학교로부터 고급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두며, 농촌의 중학 과정은 현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교의 재량권과 자주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재량권 강화의 측면은 수업시간 등 교육에 있어서의 융통성과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연간 수업 시수, 각 학년 주당 수업시수, 각 과목 수업 시수의 비율 등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방과정과 학교 과정 수업시간+종합실천활동 수업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16~20%를 가지고 있어서 수업할 때에는 서로 합해서 실시할 수 있고, 분산해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교재 편찬 및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재의 편찬은 서로 다른 지역의 특징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고, 상관된 내용을 타당성 있게 확장하며, 각 지역의 생활과 접근된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 교과서의 선택은 각 도시의 구 행정 단위의 교육국에서 그 지역 학교의 교과서의 판본을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도덕 교과서는 중국의 역사나 문화 또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구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고는 있으나,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교재 편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검인증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재를 하나하나 검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육 과정과 내용을 조망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분석이 중국의 도덕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효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중국의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가 국정인 것과 비교하여, 국정과 검인증

102) 이종란, “초등학교 도덕교육과 동양윤리”, 『동양철학연구』 제47집, 2006 참조.

체계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또한, 중국에서 지역적 조건이나 수요자의 조건 등을 고려한 종합실천활동을 강조하는 측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체험학습 또는 방과후학교 교육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완될 수 있는 논의로는, 교육의 내용이 교과목으로서의 학교교육은 물론 지역 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채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의 사회는 산업 사회이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과정에 위치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에 있어서의 재량권과 자주권의 강화는 교육의 다양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현재 중국에서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북경사범대학교, 산둥, 상해, 강소 등 8개의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고, 수학은 8종류, 과학은 3종류 등 과목별로 교과서 종류가 다르다. 교과서의 선택은 각 도시의 구 행정 단위의 교육국에서 그 지역 학교의 교과서의 판본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국의 도덕 교육 현황을 이해 하려면 교육과정이라는 큰 줄기와 원칙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각 출판사에서 제작된 교과서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총체적인 접근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도덕교육의 과제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육목표와 내용의 수준별 구체화 작업’, ‘도덕교육의 효과 또는 실효성 연구’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적 전문 연구의 성과¹⁰³⁾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한 학자의 간접적인 언급에 따르면, 지금 현재 중국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중에 있다고 한다. 원래는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대강(大綱)과 목표에 대하여는 별 문제 없지만 실행 세칙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정 작업팀을 조직하여 기 개정된 개정판에 대한 새로운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이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그룹의 검증 작업이 있은 후, 조만간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1) ‘공민과 도덕교육’의 성격

싱가포르에서 ‘공민과 도덕교육’(Civics and Moral Education)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공식교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 인격, 도덕교육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배경이론, 내용(가치요소),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03) 서규선, 『현대 중국 도덕교육론』(서울: 인간사랑, 2007), pp. 378-381.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교과와 필요성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 및 사회적 요구로서의 교과 설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교과가 가지는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교과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치들은 한 인간의 인격 기초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삶, 주변 인물, 나아가 세계를 대하는 신념과 태도를 결정한다. 공민과 도덕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합한 선택들과 행동 및 태도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가치들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살도록 도움으로써 도덕적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둔다. 가족은 아동의 도덕발달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교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배려하며, 책임있는 개인과 시민으로 발달시키도록 지식, 생활 능력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¹⁰⁴⁾.

위와 같이 인격교육을 위해서는 가치, 태도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역할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도덕원칙들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이 현대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도덕적 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서적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들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의식과 미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된 사회적 요구 사항으로는 급속한 노령 인구 증가, 가족의 연대의식 감소, 맞벌이 핵가족화, 높은 이혼율, 지구촌화, 국제 협력과 경쟁, 지식 기반 경제의 성장, 높은 이직률과 경제적 재구조화, 급속한 정보 통신 및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교육에서의 인격 및 시민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치들과 사회 정서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회 제공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 및 교육적 배려(언어 능력, 주제 선정, 활동, 학제적 프로젝트 학습과 평가)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학교교육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고 있는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 핵가족화, 높은 이혼율, 지구촌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은 우리 사회에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사회 각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진 주체는 가정과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도덕교육이 우리나라 도덕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4)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yllabus: Elementary*, 2007, p. 4.

2)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

본 교과목의 목표는 총괄목표와 하위 목표로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하위 목표는 총괄목표를 더욱 구체화시키며, 단위 별로 세분화 하여 제시하게 된다. 먼저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다.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로는 자아, 가족,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해 배려심있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훌륭한 인격을 육성하는 데 있다.

위의 총괄목표에 나타난 바로는 환경확대의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으로부터 가까운 공동체를 통해 국가 및 세계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배려심’과 ‘책임감’을 가진 ‘행동’하는 인격자를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총괄 목표상에서 초점을 둔 가치요소는 ‘배려’와 ‘책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실천력있는 도덕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총괄 목표를 하위 목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나는 누구인가?

- 나의 가치들과 신념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나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가?
- 나의 가치와 신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나?
-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목표들은 의미있는가?
-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나는 타인 및 환경과 어떤 관계인가?

○ 나는 다음의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며,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 나의 가족 - 내 공동체 - 국가 - 세계

○ 우리는 어떤 국가인가?

- 우리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의 하위 목표 제시방식은 총괄목표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도달하도록 하기보다는 의문점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로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명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지를 학습자 스스로 찾도록 하는 형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집단에서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질문으로서, 집단은 ‘가족’, 학교 및 교장을 포함한 ‘공동체’, ‘국가’, ‘세계’로 확장되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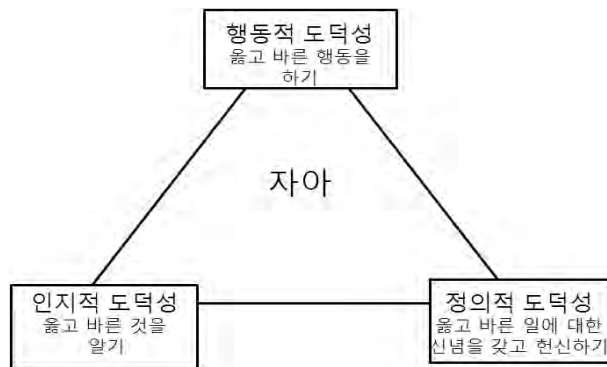
목표 역시 ‘가치관계 확대’의 원리를 적용하여 비슷하게 제시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아, 향후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 교육과정의 배경 이론 및 구조

각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이론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민과 도덕 교육’에서는 리코나(T. Lickona)의 인격교육이론을 중심으로 가치교육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이 자신의 가치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근거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인격을 발달시키도록 그들의 건전한 가치들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좋은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시해야 하는 까닭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나아가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하는데, 다음의 표에 나온 도덕적 인지, 감정, 행동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¹⁰⁵⁾.

아래 <그림-V-3>에서 도덕적 인지는 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아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의 도덕성이다.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들을 정의할 수 있고, 도덕적 원리들을 형성하며, 좋은 인격과 올바른 행동을 구성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도덕 추론, 비판적 사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들이 도덕적 인지에 포함된다.



<그림-V-3> 싱가포르 도덕과 교육과정의 지·정·행 측면의 통합적 접근

도덕적 감정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을 일컫는다. 이는 좋은 가치들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이를 지행하려는 헌신을 포함한다. 우리는 가치와 신념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도덕 감정을 통해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행동의 결과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도록 동기화된다. 자기반성 능력 역시 자아 인식을 형성하고 우리와 사고와 행동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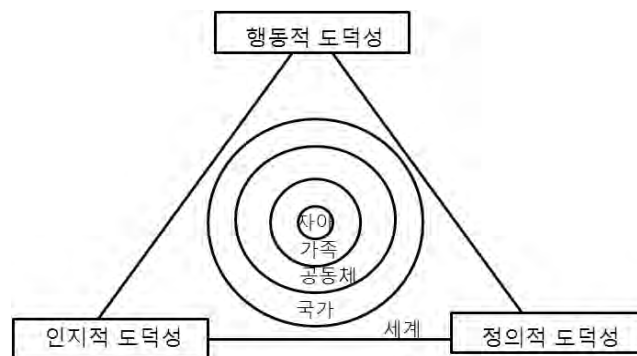
105) 위의 책, p. 5.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앎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다.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의지와 능력뿐만 아니라 일관된 올바른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들을 실천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덕행동과 관련된 기능은 목표 설정, 갈등 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들이다.

위의 도덕성의 세요소의 관계를 알아보면,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도덕적 앎과 감정에 기초할 경우, 개인은 위의 <그림-V-3>과 같은 삼각형의 핵심처럼 훌륭한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올바른 가치들이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심에 위치한 자아는 내부로부터 도덕인격의 발달을 강조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외부의 충동이나 보상보다는 자신의 가치신념과 체계에 근거해 행동하도록 하는 내재적 동기화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건전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 국가 및 세계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에서 가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V-4>에서와 같이 밖으로 확장되는 중심원은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 가족, 공동체, 국가 및 세계와 관계된 자신의 역할 및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을 학습한다. 또한 의사결정 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독려된다.

이와 같이 도덕성의 세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도덕성은 도덕적 앎,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요소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V-4> 싱가포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역할 강조

○ 도덕적 앎과 관련된 목표들

- 옳고 그름을 알기
- 건전한 도덕적 원리들을 형성하기
- 건전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알기
-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기
-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 타인의 관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판단하지 않기

- 의사결정 시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기
- 사회적 통합과 인종 및 종교적 조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공유된 가치들’과 ‘싱가포르의 가정 가치들’을 포함한 국가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들을 알기
- 공동체, 국가 및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알기

○ 도덕적 감정에 관한 목표들

- 도덕적 가치들을 옹호하고 실천하려는 신념과 열정을 발달시키기
-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입장을 택할 수 있도록 감정이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행동들을 명료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 도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기
- 자아 반성과 같은 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하기

○ 도덕적 행동에 관한 목표들

- 도덕적 앎과 감정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
- 훌륭한 가치들을 실천에 옮기기
- 도덕적 일관된 행동의 결과로서 좋은 습관 개발하기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기
- 다인종 다종교 사회에서 조화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의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도덕적 앎과 관련된 목표들’에서는 ‘옳고 그름 알기’와 같은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통합과 인종 및 종교적 조화의 중요성 이해’와 같은 도덕사회화를 위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둘째 목표인 ‘도덕적 감정에 관한 목표들’에서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열정의 발달을 중요시하는 반면, 타인의 감정을 역할채택을 통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요구되는 능력들도 강조되고 있다. 세 번째 ‘도덕적 행동에 관한 목표들’에서는 도덕적 앎과 감정을 근거한 도덕적 행위 결정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실천력을 중요시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4) ‘공민과 도덕교육’의 내용(가치 요소)

공민 및 도덕교육 교육 내용은 훌륭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여섯 가지 핵심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들은 공유된 가치들, 싱가포르 가정 가치, 싱가포르 21 비전, 그리고 국가 교육 연설에 담긴 가치들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이 가치들을 통해 학생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책임있는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불굴(resilience), 조화이다. 여섯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은 <표-V-19>와 같다¹⁰⁶⁾.

106) 위의 책, p. 7.

<표-V-19>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의 6가지 핵심 가치

핵심 가치	주요 내용
존중	자신 및 타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신뢰하는 것
책임	자신, 가족, 공동체 국가 및 세계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책임을 수행하는 것
정직	윤리적 원칙들을 지키며 옳은 일을 위해 앞장서는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
배려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공동체와 세계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
불굴	감정적으로 강인하고 도전에 대해 인내하는 것으로 용기, 긍정, 적응력, 지혜를 발휘하는 것
조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내용요소로의 가치가 가지는 특징은 우선 가치요소의 수가 6개로 한국의 도덕교육에서 제시하는 19개 가치보다 상당히 적은 수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인격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겠으나,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등과 같은 핵심이 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여 교수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다섯 번째 가치로 제시된 ‘불굴(resilience)’은 한국의 도덕과 교육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치이다. 이는 ‘강인함’, ‘회복력’, ‘탄성’과 같은 의미로서 도덕적으로 ‘용기있는’, ‘긍정적인’, ‘적응력있는’, ‘지혜로운’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 가치인 ‘조화’는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가치로서 인종, 문화,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싱가포르 사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표적 가치이다.

위 각각의 가치들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며, 각 가치별, 학교급 별로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설정되며, 학습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세분화 된 후,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존중’의 가치를 중등학교 ‘공민과 도덕교육’에서 어떻게 세분화하고 계열화하는지를 뒷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가치들 외에도 적응력, 모험심, 창조성과 같은 다른 가치들, 개념들, 태도들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위의 6가지 핵심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가치 교육 접근은 ‘사회 정서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이다. 사회 정서학습은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 타인 배려의 발달, 책임있는 의사결정, 긍정적 관계 형성, 그리고 문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등의 습득을 목표로 삼는 접근이다.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교육내용은 인지적 요소가 상당수이다. 왜냐하면 측정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지행합일을 이루기 힘들고, 사고와 판단은 했으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회정서학습은 사고와 행동의 연결고리로서 도덕적 정서를 강화하는 접근이므로, 위의 비판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사회 정서 능력들은 다음과 같다.

- **자아 인식:** 학생들 자신의 장점, 성향, 약점들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 가치, 자기 효능감 역시 발달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인식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책임감있는 행동을 통해 개인적 성취를 증대시키는 조직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 **사회 인식:** 타인의 필요, 가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학생들은 타인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심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며, 그들의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앞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인식은 좋은 대인관계기술에 근본이다.
- **대인관계능력:** 효과적인 대인 관계능력은 한 인간의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연대, 관계 형성, 협력해서 일하기, 협상,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을 포함한다.
-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개인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비판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및 결정내린 바대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신념도 요구된다.

위의 사회 정서적 능력들을 가르치는 일은 가치교육을 보완하고 각각의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공민과 도덕교육’의 여섯 가지 핵심가치 중 ‘존중’ 혹은 ‘책임’이라는 가치 요소를 가르칠 때, 이러한 가치 요소의 중요성과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 시킨 후, 존중 혹은 책임과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위의 사회 정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 정서 능력의 강조는 한국의 도덕과 교육에도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내용이다.

5) ‘공민과 도덕교육’ 교수·학습 방법

공민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용 중심의 접근보다는 과정 중심의 접근이 선호된다. 내용 중심의 접근들은 사실과 정보의 학습에 초점을 두며 거의 교사 중심의 교육이다. 이에 반해 과정 중심의 접근들은 학생 중심 접근이며, ‘무엇’보다는 ‘왜’와 ‘어떻게’에 중심을 둔 학습이다. 이는 학습 기술들을 촉진시키고 행동을 통한 가치들을 내면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과정 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 전수 접근:** 이 접근은 우리 사회에 의해 주장되고, 또한 우리 문화유산에 있어서 의미있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주입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가치들은 역할모델링, 문화적 실천의 공유, 훈육 등 다양한 가치 교육 방법을 통해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문화 전수 접근은 또한 학생들의 긍

정적인 도덕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강조한다. 교사들은 반성적 활동들을 통하여 바람직한 가치들의 내면화를 꾀할 수 있다.

- **내러티브 접근(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접근들은 이야기 혹은 이야기 구성을 통해 세계관과 사람들의 경험들을 의미있게 이해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이야기하기와 반성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들을 인식하고 명료화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키고, 이야기들을 구성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신념과 가치들을 규명한다. 내러티브 접근은 개방적 발문, 명료화, 요약하기, 각 개인의 이야기 구성 및 타인의 이야기에 대해 반응하기 등을 요구한다.
- **관점 채택(숙고) 접근:** 숙고 접근은 감정에 초점을 두고 배려하는 인격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 접근의 중요한 질문은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혹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이다. 학생들은 도덕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받는다. 타인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균형있는 상황인식을 발달시키게 된다.
- **행위 학습 접근:** 행위학습 접근은 경험 학습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학교 및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상황에서 학습한 기능과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 체계를 사고, 평가, 의사결정하며 타인과 의사소통하게 된다.
- **인지 발달 접근(도덕 추론):**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 기초한 인지발달 접근은 학생들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및 보편적 관점에 초점을 둔 차원 높은 도덕 발달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추론 과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 **수정된 가치명료화 접근(책임있는 의사결정 모형):** 이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합리적 사고와 감정인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 형태를 검토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들을 명료화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에 의해 지지되는 가치를 포함한 건전한 가치 체계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끈다.

위의 교수·학습 접근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적합한 방식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2007년 개정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이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공민과 도덕교육 수업 시간에 교사는 위의 교수·학습 접근이외에도 아래에서와 같이 전체 학교 접근,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봉사학습 등 다양한 경험적 학습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내용 지식과 기능들을 습득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동적으로 학습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경험하고, 나아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교사는 전략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유형들, 학생들의 흥미 및 성숙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 **전체 학교 접근:** 전체 학교 접근은 효과적인 가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민과 도덕교육에 대한 공식적 교육이외에 학교 전체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경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학교 행정가 및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CIP):**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community Involvement Programme)은 학교 교육과정 안과 밖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매학기 6시간 이상 공동체에 능동적이고 의미있는 기여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책임있는 시민과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인격, 능력, 열정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경험학습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자원자의 정신을 기를 수 있다.
- **봉사학습(SL):**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은 공동체 참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학습의 환경을 제공하는 교수 학습 접근이다. 위의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봉사 및 학업 목표 학습 결과들과 공동체 참여 경험을 명료하게 연결시킬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학업과 분명하게 연결시키며, 학생들을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봉사임무에 준비시키고, 구조적인 평가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전체 학교 접근’은 공동교육과정활동(CCA), 목장 관리 경험 지침(PCCG), 성교육, 국가 교육(National Education)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공민과 도덕교육’이외의 여타 과목과의 학제간 교육 통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을 여타 과목들 및 프로그램들과 연계시켜 보다 의미있는 학습을 진행하는 일은 싱가포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지식의 분야들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학제간 연계를 통해 여타 영역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도덕성과 창의성 발달을 꾀할 수 있다.

6)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상의 평가

공민과 도덕교육의 평가는 가치 전수와 학습의 복잡한 본질을 고려하여 가치 및 도덕 원칙들을 이해, 도덕 추론에 관련된 과정의 적용,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는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적 요구에 맞춰 기획된다.

인격발달에 초점을 둔 공민과 도덕교육 평가의 초점은 학생들이 도덕성을 발달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는 교사가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기반성을 하도록 할 때 가능하다. 평가는 구술, 루브릭 혹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능하다. 평가는 학생들을 복잡하고 도전적인 주제들에 관해 토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매 수업시간 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평가와 학습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평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규명해준다. 둘째, 교사 및 부모에게 초반의 교육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셋째, 학생들의 개인 학습을 동기화시키고, 미래의 수행 능력을 강화시킨다. 넷째, 학생들의 자기 인식을 발달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평가 방법들은 자기 평가, 동료평가, 봉사활동, 저널쓰기와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설명은 한국 도덕과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도덕성 혹은 인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힘들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평가는 인지적 측면의 지식, 이해의 측면에 치우친 것이 오늘날 한국 중등도덕과 교육의 실정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평가는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덕과 평가를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의 평가 방향 역시 매우 추상적이며, 평가의 당위성만을 제시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나.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 교과서 분석

1) 교과서 명칭, 권수, 보조 교과서 등

교과서의 명칭은 ‘공민과 도덕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명으로서 ‘교육’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반하여, 싱가포르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년 학기 구분, 주당 시수 등과 관련해서는 1학년부터 6학년에 걸쳐 동일한 과목을 학습하며, 학기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당 수업 시수는 2시간씩이다. 학기 구분 없이 학년당 1권을 책을 사용한다. 권당 쪽수는 아래와 같으며, 평균 96여쪽으로 학년마다 차이를 알 수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쪽수가 늘어나기는 하나 오히려 6학년용 교과서는 88쪽으로 분량이 가장 적어 정해진 규칙이 없음을 알 수 있다(1학년 93쪽, 2학년 90쪽, 3학년 103쪽, 4학년 105쪽, 5학년 100쪽, 6학년 88쪽, 평균 9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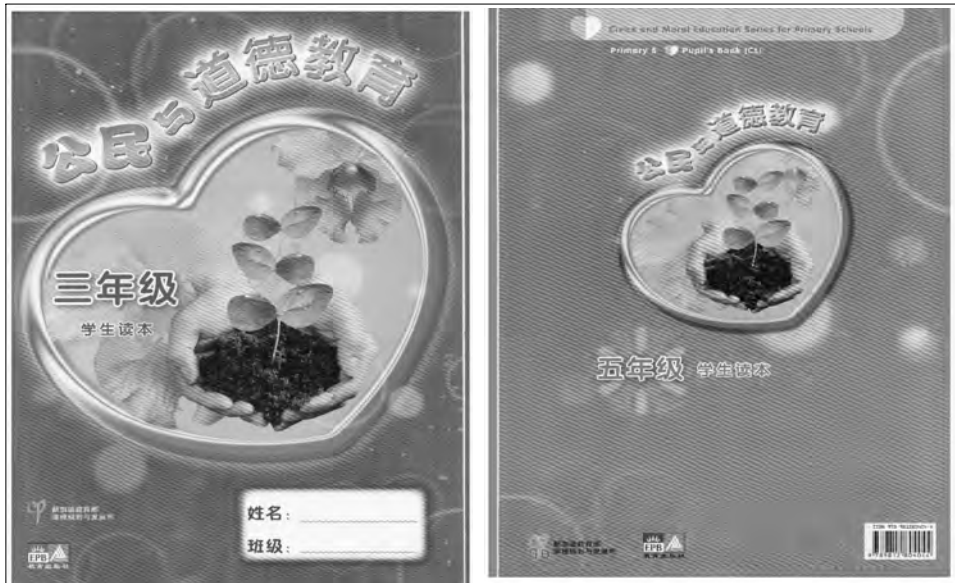
발행처는 싱가포르 교육부 교육과정계획·개발부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정교과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쇄를 맡은 출판사는 ‘교육출판사’로서 우리나라의 대학교과서주식회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연도는 2009년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보조 교과서는 특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2) 외형과 표지 등

‘공민과 도덕교육’교재의 외형을 살펴보면, 크기는 A4(국배판) 207×297(mm)이다. 색도는 표지 및 속표지 모두 칼라 인쇄되어 있다. 표지 구성을 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어린 난초를 두 손으로 뿌리째 들고 있는 모습과 뒷배경은 활짝 핀 난초 꽃을 제시하여, 공민과 도덕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를 상징한다. 1-6학년 모두 표지 색깔을 다르지만, 형상화하고 있는 사진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표지 하단에는 이름과 반을 쓸 수 있는 칸이 있다. 표지 중간에는 학년을 나타내는 말과 ‘학생독본’ 즉 교과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지 위쪽에는 공민과 도덕교육이라는 교과서 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표지 좌측 하단에는 발행처인 싱가포르 교육부 교육과정계획·개발처와 출판사인 교육출판사가 제시되어 있다.

표지의 지질은 칼라 광택지를 사용하였다. 서체 ‘공민’의 경우 학생들에 친숙한 굵은 붓글씨체로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활자체를 사용하고 있다. 겉 표지의 제목인 ‘공민과 도덕교육’은 가로 세로 25×25(mm)의 크기로 눈의 띄게 제시되어 있다. 학년 표지는 20×20(mm)로 역시 큰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속표지에는 공민과 도덕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V-5>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명칭, 앞표지, 뒷표지 모습

3) 속표지, 목차 제시 방식 등

속표지에서는 겉표지를 연한 색으로 표현한 사진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상단에 영문으로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초등학교 공민과 도덕교육 시리즈)'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표지 뒷면에는 앞면의 축소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나 영문으로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초등학교 공민과 도덕교육 시리즈)'와 'Primary 6, Pupils's Book(CL)'로서 '초등 6학년, 학생 교과서(중국어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ISBN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목차는 가치 요소별로 제시되어 있다. 가치 요소들은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불굴,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의 목차의 경우, 존중 5개 단원, 책임 2개 단원, 정직 2개 단원, 배려 2개 단원, 불굴 1개 단원, 조화 1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단원수, 단원명 등

교과서의 단원수는 학년별로 다양하다. 1학년 13단원, 2학년 12단원, 3학년 12단원, 4학년 20단원, 5학년 16단원, 6학년 1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명은 동사형, 명사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학년의 경우, <존중> 가치를 다루는 단원명으로는 '나는 자신을 좋아한다',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는 교복이 자랑스러워요', '학교 구성원을 존중해요', '나는 싱가포르를 사랑해요'으로 제시된다. <책임>가치를 다루는 단원들로는 '나는 컸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학교의 규칙'이 있다. <정직>의

가치는 ‘정직하게 말해요’,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에요’ 단원명으로 가르쳐진다. <배려>가치 단원명들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친절과 함께 나누기’이고, <불굴>단원명은 ‘학교 가는 첫날’이다. <조화>가치 단원은 ‘우리 같이 해요’단원명으로 가르쳐진다. 그리고 단원별 쪽수는 다양하다. 단원에 따라 최소 한쪽에서 10쪽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하다.

5) 단원 구성 및 내용 제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 (병원에서)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 엄마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 곧 우리 차례가 될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님,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납니다. - 앉아서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진찰해 주실거예요 - 아주머니, 이 아이가 고열인데 양보해주실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그림-V-6>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만화를 활용한 교과서 구성

단원별로 최소 1차시에서 최대 4차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시 수가 존재한다. 차시별로 가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진다. 교재의 내용은 만화를 활용해 제시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도덕적 사례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그림-V-6>과 <그림-V-7>의 상황을 보면 주인공이 공정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갈등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병원에 먼저 도착한 사람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상황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진찰하도록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을 제시한 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상황 중에는 학생의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다.

	<p>감사합니다.</p> <p>천만에요.</p> <p>엄마, 저 아이는 우리보다 나중에 왔는데, 왜 우리보다 먼저 진찰을 받나요?</p> <p>저 아이가 열이 많데. 당연히 먼저 진찰받게 해야지.</p>
--	---

<그림-V-7>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문제해결 방안 숙고 기회 제공 모습

	<p>정직</p> <p>어떻게 해야 할까?</p> <p>카싱, 나는 스테이플러 사러 갈게, 이따보자</p> <p>그래, 라모. 나는 새로 나온 것 뭐 있나 볼게.</p> <p>카싱, 너 지금 뭐하니? 그거 돈내지 않았잖아.</p> <p>아니, 돈내지 않았어. 조용히 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마.</p>
--	---

<그림-V-8>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딜레마 제시의 모습

위 <그림-V-8>에서 제시된 상황은 친구의 도둑질을 목격한 주인공이 겪는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다. 친구는 자신의 도둑질을 눈감아 줄 것을 주인공에게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판매원에게 알려야 하나? 카싱은 내 조언을 안들을 거야. 만약 그가 또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는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

카싱은 내 좋은 친구라서 내가 도와줘야해. 만약 내가 판매원에게 알리면 카싱은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그림-V-9>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추론과 숙고의 과정 제시 모습

위 <그림-V-9>는 주인공인 라모가 판매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지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서는 2차시 가치판단 수업을 통해 도덕딜레마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도덕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의 교재 내용은 이러한 수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의감이 있어요.

아래 그림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밑줄 친 부분에 써 봅시다.

1.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정의감을 표현하겠습니까?
2.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정의감을 표현하겠습니까?
3.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정의감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림-V-10>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판단의 연습 기회 제공 모습

위와 같이 도덕딜레마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림-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수준에서 도덕판단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지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민과 도덕교육 학생 교과서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생동감있는 이야기와 상담내용, 토론 문제들이 실려 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계발하도록 짜여져 있다. 책의 내용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학습과정을 기록하고 사고를 촉진하며, 가치관을 습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학습한 후, 교과서를 보관하여 개인 성장 학습의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싱가포르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시사점

1) 특징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우리나라의 도덕과교육과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독립된 교과로서 ‘공민과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여타 나라에서는 도덕교과를 독립교과로 선정하지 않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교과의 형태로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의 성격으로는 인격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국가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시민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덕교육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사회의 당면과제로는 급속한 노령화, 핵가족화, 가정의 붕괴, 지구촌화에 따른 의식 변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공민과 도덕교육’에서 다루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 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에서는 ‘자아, 가족,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한 배려심있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훌륭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 진술 방식은 생활 환경의 확대 원리를 적용하여 자아로부터 확대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하위 목표 제시 방식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음의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며,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떤 국가인가?’와 같이 진술형이 아닌 질문형식으로 학습자 스스로 묻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배경이론으로 미국의 인격교육론자인 리코나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도덕성을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 공동체, 국가 및 세계와 관련된 자신의 역할 및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도덕성 구성요소의 통합과 도덕교육의 장의 통합을 강조하는 인격교육의 큰 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민과 도덕교육’의 핵심 가치로서 포괄적인 6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불굴, 조화로 구성된 핵심가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19개의 가치 보다 수는 적으나, 여타 가치들을 포괄하는 가치들로서, 오히려 세분화된 우리나라의 가치들보다 교사가 통합

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넷째,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 정서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 접근을 활용하여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 타인 배려의 발달, 책임있는 의사결정, 긍정적 관계 형성, 문제 해결능력 등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문화 전수 접근, 내러티브 접근, 관점 채택 접근, 행위 학습 접근, 인지발달 접근, 가치명료화 접근과 같은 특화된 교수학습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위 접근들 중 상당수는 이미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접근들이기도 하다. 이외에 전체 학교 접근,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봉사학습 등 교과 시간을 떠나 전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교과서의 체제에 있어서 1-6학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재명을 가진 교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바른생활’과로 통합교과의 형태의 교재를 활용하고, 3-6학년의 경우 ‘도덕과’라는 명칭의 교재를 사용하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공민과 도덕교육’이라는 동일한 교과명을 가진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학년당 1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활의 길잡이’와 같은 부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어판 교과서이었다. 교과서 발행처는 싱가포르 교육부 교육과정계획 개발처로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유사한 국정 도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목차전개 방식은 가치 요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학년별 단원수는 1학년 13단원, 2학년 12단원, 3학년 12단원, 4학년 20단원, 5학년 16단원, 6학년 14 단원으로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단원명은 ‘나는 자신을 좋아한다’, ‘학교 가는 첫날’ 등 동사형과 명사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단원별 차시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3차로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최소 1차시에서 최대 4차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내용별 주제에 따라 가르치는 차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도덕과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만화를 활용해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도덕적 사례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덕적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또한 딜레마 토론의 교재 끝에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도덕판단의 연습을 제공하고 있다.

2)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조교과서의 존재 여부이다.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는 ‘생활의 길잡이’라는 보조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보조교과서의 중심적인 역할이 워크북 및 가정과의 연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제2의 교과서로 불리우며, 학습내용 과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시간 내에 생활의 길잡이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보조교과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 내에 학습을 위한 워크북 형태

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양이 많지 않아, 교과서의 쪽수가 100쪽을 넘지 않는다. 교과서의 양적인 측면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향후 도덕교과서를 개발할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교과서를 두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한 면에 많은 내용을 다루되, 전체 쪽수가 10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면, 학습자의 수준에서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부족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담아 교사가 선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단위 및 가치 요소별 쪽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현행 도덕교과서는 단위별로 쪽수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과서는 가치 요소별, 단위별 쪽수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단위 수도 학년별로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내용에 충실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너무 형식과 체제의 일관성을 우선하다보니, 유연성과 집필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향후 도덕 교과서를 개발할 시에는 이러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치 요소들의 축소이다.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가치는 19개로 매우 많다. 그러므로 가치 요소 당 한 단위씩을 맞추기에도 벅차다. 그러나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6개의 가치 요소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요소별로 다양한 주제들을 나누어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너무 자세한 가치 요소를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가치요소들을 정하고, 세부 단위에서 보다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무리한 가치 요소 선정정보다는 포괄적인 가치 요소 선정과 단위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Ⅵ. 우리 도덕 교과서 개선 및 선진화 방안

1. 교과서 발행 및 운영

가. 외국의 교과서 발행 사례

우리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그 발행 제도, 명칭과 권수 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먼저 앞의 제Ⅳ장-제Ⅵ장에서 분석해 본 외국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미의 경우를 보면, 교과서 제도는 인정 제도에 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통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도덕교육 관련 교재를 현장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되 국가에서 AW를 권유하고 또 대체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도덕교육 수업 시수는 주당 1-2시간이다. 교과서의 명칭은 AW이며 매 학년마다 교과서의 명칭이 다르다. 말하자면 초등 4학년의 도덕 교과서 명칭은 『배려와 공유』인데 비해 5학년의 명칭은 『다름과 보완』으로서 그 학년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교과서 명칭으로 나타내고 있다. 교과서는 연간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쪽수는 교과서마다 다른데 대체로 165-245쪽 정도이며 보조 교과서는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도덕 교과 시간이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은 학교나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정 제도에 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명칭도 일정치 않고 주당 수업 시수도 구구각색이다. 그러나 대체로 1년에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 권당 쪽수는 일정하지 않다. 보조 교과서는 없는데, 다만 교사의 판단에 의해 보조 자료를 얼마든지 동원, 투입한다.

유럽 여러 나라 중 영국의 경우 도덕 교과서는 인정 제도에 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국가 교육과정 상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 해당하는 시민교육은 비법정 과목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개설 여부 및 시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법정 과목인『이것이 시민성이다 1, 2』(This is Citizenship 1, 2)의 경우 해당 학년별로 주당 2시간씩 배당되어 있다. 교과서의 명칭은 『이것이 시민성이다』(This is Citizenship)로 되어 있다. 도덕 교과서는 연간 1권 체제로 되어 있으며 쪽수는 약 90쪽 내외이다. 보조 교과서는 비법정 과목인 핵심 1, 2단계의 『이것이 시민성이다』의 경우에는 없으나 법정 필수 과목인 핵심 단계 3, 4의 『이것이 시민성이다』의 경우에는 보조교과서 형식의 자료가 존재하며 CD-ROM도 제공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도덕 교과서는 주정부의 관할 하에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에 가까운 검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도덕 교과는 종교 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데 주당 2시간씩 배정되고 있다. 독일의 도덕 과목의 교과서 명칭은 『윤리』(Ethik),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으로 되어 있다. 교과서는 학년당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쪽수는 『윤리1/2』의 경우는 100쪽 내외, 『윤리3/4』의 경우는 65쪽 내외이며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의 경우에는 약 190쪽 정도 된다. 독일의 『윤리』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생활의 길

잡이』에 해당하는 학생용 활동서(Arbeitsheft)가 제공되고 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 보면, 중국의 경우 교과서 제도는 국정형 검정에 의해 교과서가 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 안에서 각 지역별로 특정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권한과 자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수는 연간 총 35주에 매주 1시간 정도씩 부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도덕 교과서 명칭은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1-2학년용) 및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206학년용)이다. 교과서 수는 학년별 상·하권으로 되어 있어 연간 2권 체제이다. 권당 쪽수는 일정치 않으며 적은 것은 50쪽 정도이고 많은 것은 110쪽 내외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보조 교과서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2시간이다. 교과서의 명칭은 『공민과 도덕교육』이며 학년당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쪽수는 대체로 90-110여쪽 정도이다. 보조 교과서는 특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렇게 보면, 도덕 교과서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모습의 교과서를 개발, 활용하느냐 하는 점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도덕 교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놓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도덕 교과서 관련 운영 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교과서 발행 제도와 명칭

도덕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및 인정 중 어떤 방식에 의해 발행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정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완전히 학교 현장의 자율에 맡겨 인정 제도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정에 가까운 검정 제도에 의하고 있는데 대체로 아시아 국가들은 검정이나 국정에 의해 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도덕 교과서를 인정으로 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현대적 분위기와 국제 환경상의 여건이 아직은 우리의 국민적 통일과 단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도덕과가 수행해야 할 고유한 기능과 여러 가지 다루는 내용의 특성들을 놓고 볼 때 인정으로 갈 경우 자칫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검정 제도로 초등 도덕 교과서를 발행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대로 국정으로 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하여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79.2%가 반대하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교과서 검정제도를 5,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80.8%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¹⁰⁷⁾. 이는 도덕 교과서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들을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안심되고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

107) 김재춘,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2011. 7. 1. p. 28의 학교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참조.

으로 풀이된다.

도덕 교과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앞의 외국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의 명칭을 정해놓고 학년 구분만 달리 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남미의 AW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또는 교과서로 사용하는 책마다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남미나 미국의 이런 방식은 특정 학년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를 운용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교육과정상 하나의 학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도록 이미 정해져 제시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 도덕교육의 전통과 문화 및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도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주당 수업 시수 및 교과서 권수

주당 수업 시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초등 도덕과의 경우 현재 주당 1시간에서 최소한 주당 2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국가적 여건에 놓여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도덕과 시간이 주당 2시간이며 중국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2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주당 2시간이며 영국도 법정 도덕 과목의 경우에는 주당 2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사와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남미의 경우에도 적어도 주당 1-2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이 나라의 미래가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창의적인 한국인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도덕과 교육 시간을 더 이상 이렇게 반쪽 짜리 불구자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래 주당 2시간이었던 도덕과 교육 시간을 주당 1시간으로 축소하게 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인데 당시 영어과 교육 시간 및 재량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덕과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신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최소한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등 도덕과 교육에 적어도 주당 2시간 이상을 투입,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도덕·인성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쪽수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몇 쪽이 적절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외국 도덕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매 차시당 교과서 쪽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교과서 쪽수가 많아지면 학습량이 증대되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안겨 주게 되고 이는 그대로 도덕 수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서 차시별, 단원별 쪽수의 적정화는 반드시 깊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교과서 쪽수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들은 다루는 내용(contents)과 투입되는 활동(activities) 및 자료(materials)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따라 양의 적정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의 경험에서 보면 도덕과의 경우 대체로 한 차시에 다루는 내용을 2-3개 정도로 하고 그것에 따른 알맞은 학습활동 및 자료가 겸비되도록 할 때 가장 적정한 학습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로 한 차시의 쪽수는 4-6쪽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할 경우 우리의 현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연간 약 34주를 교육하게 되며 이 기

간 동안 학년별로 8개의 단원을 소화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1개 단원에 약 4차시 정도가 투입되게 되는 바, 이렇게 되면 차시별 4-6쪽이 필요한 관계로 한 개의 단원에는 16-24쪽이 소요되게 되고, 총 8개 단원이니까 연간 128-192쪽 정도가 투입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단원별로 도입 부분(2쪽)과 정리 부분(1쪽) 및 여타 보충심화 자료(3쪽 내외) 같은 것이 부가되어야 하는 관계로 실제로 교과서 1권당 쪽수는 176-240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의 권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데 위 권당 176-240쪽 중에서 최소 쪽수로 하게 되면 학년당 1권으로 하는 것이 좋고 최대 쪽수인 240쪽으로 하게 되면 학년당 2권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의 견해로는 가급적 학년당 2권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른 교과와 달리 도덕 교과서는 학생들 속에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와 유덕한 인격의 형성을 추구하는 관계로 그리고 지·정·행 측면의 통합적 접근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충심화 자료와 양질의 활동 자료 및 여타 참고자료 등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와 같은 보조 교과서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면 더욱 학년당 2권으로 발행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덕 교과서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참고해설 자료와 보충심화 자료 및 보조 교과서의 장점과 순기능 등을 담아 보다 의미 있는 도덕 교과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보조 교과서 문제

제5차 도덕과 교육과정기 이래 초등 도덕과에는 보조 교과서로서 『생활의 길잡이』가 제공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도덕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 왔으니 한편에서는 도덕·인성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보조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보조 교과서가 학습량을 과다하게 만들어서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아래 <표-VII-1>에서도 보듯이 교육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조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은 43.9%인데 비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은 54.1%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도덕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 학교 경영진이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덕과를 자신의 전공으로 하거나 이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의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해, 그 외 교과를 전문으로 하거나 그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생활의 길잡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과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의 길잡이의 활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데 비해, 일반 교사들은 학습 부담 관계로 생활의 길잡이를 꺼려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리고 당위론적으로 보조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해도 현장에서 이를 직접 다루는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면 그 교육효과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단 도덕과의 보조 교과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가 가지고 있던 장점과 순기능을 주 교과서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기존의

생활의 길잡이가 지니고 있던 장점들, 즉 워크북 기능, 내러티브 심화학습 자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생활 속으로의 확대적용과 실천생활화 지원 등의 기능을 담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전한 도덕성 발달이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은 한두 번의 도덕 수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심화적인 도덕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인성교육 분야에서는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하여 보충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학교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보충심화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실제로 바람직한 삶을 실천, 체험해 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 발달과 창의·인성교육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교과서 단원마다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의 장점과 순기능 부분을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표-VI-1> 『생활의 길잡이』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생활의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268(43.9)	330(54.1)	12(2)	0(0)	610(100)
성별	남자	101(46.8)	113(52.3)	2(0.9)	0(0)	216(100)
	여자	167(42.8)	217(55.6)	6(1.5)	0(0)	390(100)
	무응답	0(0)	0(0)	4(100)	0(0)	4(100)
직위별	교사	162(42.3)	214(55.9)	7(1.8)	0(0)	383(100)
	부장교사	71(41.3)	100(58.1)	1(0.6)	0(0)	172(100)
	교감·교장	7(53.8)	6(46.2)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2(66.7)	1(33.3)	0(0)	0(0)	3(100)
	교수	17(94.4)	1(5.6)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8(72.7)	3(27.3)	0(0)	0(0)	11(100)
	그 외	1(100)	0(0)	0(0)	0(0)	1(100)
	무응답	0(0)	5(55.6)	4(44.4)	0(0)	9(100)
	무응답	0(0)	5(55.6)	4(44.4)	0(0)	9(100)
담당 및 관심교과별	도덕	102(53.1)	86(44.8)	4(2.1)	0(0)	192(100)
	국어	33(37.1)	56(62.9)	0(0)	0(0)	89(100)
	사회	17(32.7)	34(65.4)	1(1.9)	0(0)	52(100)
	수학	31(47.7)	34(52.3)	0(0)	0(0)	65(100)
	과학	19(32.8)	39(67.2)	0(0)	0(0)	58(100)
	체육	10(47.6)	11(52.4)	0(0)	0(0)	21(100)
	음악	13(44.8)	15(51.7)	1(3.4)	0(0)	29(100)
	미술	15(50)	15(50)	0(0)	0(0)	30(100)
	실과	2(40)	3(60)	0(0)	0(0)	5(100)
	영어	15(35.7)	25(59.5)	2(4.8)	0(0)	42(100)
	그외	11(47.8)	12(52.2)	0(0)	0(0)	23(100)
	무응답	0(0)	0(0)	4(100)	0(0)	4(100)

사실, 생활의 길잡이는 도덕교과서에 다 담지 못하는 도덕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실천적 도덕체험활동, 도덕관련 정보, 명언과 전통의 아름다운 글, 도덕관련 게임, 가정 체험학습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활용되어 왔다. 생활의 길잡이는 이미 하나의 교과서로서 도덕과 교육을 위한 충분한 보조 교재이며 동시에 학습 활동의 중요한 보조 자료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생활의 길잡이의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으로 주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생활의 길잡이에서 제공하던 훌륭한 읽을거리, 활동거리, 가정과 함께 하는 공부거리를 제공하여 수업 활동에서 부족할 수 있는 정서적, 체험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또한 교과서의 각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생활의 길잡이가 제공했던 정보제공과 자잘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습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도덕과 수업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개념의 보조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도덕학습 심화와 창의·인성교육의 충실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보조 교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 학습 교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충하고 심화하면서 생활 속으로의 확대적용과 실천 체험을 통해 건전한 도덕성 형성과 창의·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보조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 교과서를 도덕 수업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학습 교재로 활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즉, 아래 <표-VI-2>에서 보듯이 교사와 학생의 도덕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도덕과에 보조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2.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정도가 35.0%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의 도덕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도덕학습을 위한 보조 교재의 개발, 제공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VI-2> 학습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조 교과서 개발에 대한 견해

교사와 학생의 도덕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생활의 길잡이와 같은 별도의 보조 교재가 도덕과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기타
전체		101(16.6)	216(35.5)	66(10.9)	143(23.5)	70(11.5)	14(2.3)	0(0)
성별	남자	40(18.6)	68(31.5)	18(8.4)	57(26.4)	30(13.9)	3(1.4)	0(0)
	여자	61(15.7)	148(38)	48(12.4)	86(22.1)	40(10.3)	7(1.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직위별	교사	60(15.7)	141(36.9)	48(12.6)	87(22.8)	38(10)	9(2.4)	0(0)
	부장교사	27(15.7)	58(33.8)	15(8.8)	44(25.6)	27(15.7)	1(0.6)	0(0)
	교감·교장	4(30.8)	3(23.1)	0(0)	5(38.5)	1(7.7)	0(0)	0(0)
	교육행정·경영자	0(0)	1(33.4)	0(0)	2(66.7)	0(0)	0(0)	0(0)
	교수	6(33.4)	6(33.4)	3(16.7)	2(11.2)	1(5.6)	0(0)	0(0)
	연구원 및 전문가	4(36.4)	5(45.5)	0(0)	0(0)	2(18.2)	0(0)	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1(11.2)	0(0)	3(33.4)	1(11.2)	4(44.5)	0(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보조 교과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우선, 보조 교과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바른생활 탐구」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 「바른생활 탐구」는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와 달리 도덕 수업 중에 주 교과서와 같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이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활의 길잡이」는 수업 시간에 주 교과서와 같이 놓고 사용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책 저 책을 바꿔보면서 수업하느라 번거로움을 주었으나 「바른생활 탐구」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부담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바른생활 탐구는 일 년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배우고 탐구하고 도덕적 가르침을 계속 음미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거울로 삼도록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

「바른생활 탐구」의 구성은 단원별로 크게 보충 부분과 심화 부분의 2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 때 보충 부분은 교과서 문제 해설 및 참고자료와 더 탐구해 보기 자료로 구성하고, 심화 부분은 마음의 양식 자료, 실천과 반성 자료, 가정 연계지도 자료로 구성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서 문제 해설 및 참고자료는 주 교과서인 「도덕」에 있는 질문이나 탐구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이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설명 및 그 외 부가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별도의 참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탐구해 보기 자료는 도덕 수업 시간의 제한 관계로 주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도덕학습 거리, 더 탐구해 볼만한 도덕 생활 관련 재미있는 게임이나 활동 또는 문제해결 거리, 주요 가치·덕목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충학습거리들을 실어 도덕 학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마음의 양식 자료는 도덕심을 깊게 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덕적 삶의 지혜와 감동감화 및 가치내면화를 위한 내러티브 자료 등으로 구성한다. 예컨대, 주요 가치·덕목에 따른 예화, 역사나 오늘날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좋은 도덕적 사례, 모범적 인물의 감동적인 삶의 모습, 도덕적 실천 원리와 실제 행위 기능, 동서양의 훌륭한 고전, 사자성어 등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과 반성 자료는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활 속으로 확대적용하면서 실천과 체험, 반성과 성찰을 통한 보다 나은 발전 도모 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덕 수업에서 배운 것과 관련을 지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도덕성을 최대한 성장·발현시켜 나가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성장 노트’ 혹은 ‘자기 경영 노트’, 실천 체크리스트, 생활본 내용, 반성록, 자신에게 쓰는 편지, 도덕 일기 등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연계지도 자료는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진정한 인성 발달을 위해 가정의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요즘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 주거나 바람직한 인성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애로를 겪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그리고 학부모와 아동이 같이 도덕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 보조 교과서의 구체적인 편집 구성은 체계적이면서도 시원하게, 압축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학생

들의 시각적 관심을 끌고 도덕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까이 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에듀테인먼트적 요소도 가미하여 구성한다. 또한 아침자습 시간,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시간, 주5일 휴도 체험활동 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도덕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기저

바람직한 도덕 교과서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한 이론적·실제적 기저 위에서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바로 시대적·국가사회적 요구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 및 도덕교육계의 이론적 동향의 세 가지는 최소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시대적·국가사회적 요구의 고려

옳고 좋은 도덕 교과서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시대적·국가사회적 요구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구현해 내는 일이 요청된다. 도덕 교과서는 진공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적 활동인만큼 그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과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다문화·다민족·글로벌 사회에 대한 준비로서의 국가정체성 교육 강화가 또한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녹색성장 교육을 추구하는 일이 요청되는 한편, 생명존중, 환경윤리, 정보윤리,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효와 경애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공동체 회복, 고령화 사회 및 인구 변동에의 대응 등이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현대 한국 사회 및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요청되는 중요한 도덕적 요구들에 대해 적절히 부응하는 도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방향 구현

도덕과 교육과정은 준법률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기본 방향과 교육의 중점 등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기본 방향 중의 하나로서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주요 가치·덕목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교과서 개발이 또한 요청된다. 돌이켜 보면,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중등은 주제중심 접근법을 취한데 비해, 초등에서는 덕중심 접근법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미흡함과 불합리한 점들을 극복하고 초·중등 모두 덕중심 접근법을 취하는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18여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존중, 정의, 배려, 책임, 자율, 생명존중, 성실, 절제, 효도, 예절, 협동, 준법, 정의, 공익, 자연애, 평화, 애국, 통일 등과 같은 가치·덕목들이 그 예가 된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되는 도덕과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가치·덕목들을 반영하는 교과서 단원을 설정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내면화, 주체화 하고 관련 덕성들을 적절히 함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구성과 접근법을 강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부터 살펴보면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과 사회,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삶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판단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⁸⁾. 또한, 교과목의 총괄목표와 학교급별 목표 중 초등 도덕과의 목표를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적 가치·덕목과 기본 생활 예절을 알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체로 네 가지 정도를 초등 도덕과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만큼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 이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된다. 첫째,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와 내면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사고·판단력을 기르는 일이다. 셋째, 정의적 측면의 실천 동기와 도덕적 삶의 태도 등 도덕적 심정의 형성을, 그리고 넷째, 행동적인 것으로서 도덕적 실천과 습관적 성향의 형성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신과 기본 방향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도덕 교과서는 위에서 분석된 그러한 도덕적 능력과 성향 요소들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는 가운데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인격·덕교육적 접근에 의한 학문적·이론적 타당성 확보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대적·국가사회적 요구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및 중점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도덕과 교과교육학 및 연관 학문 분야에서 강조되는 바들 또한 숙고하여 학문적 정통성과 이론적·실제적 적실성을 또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도덕과 교과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초등 도덕과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도덕

108)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고시 제2011-361호, 2011. 8. 9의 교과 목표 부분 참조.

수업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과 유덕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질의 학습과 경험의 시간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것이 필요한 덕들을 조화롭게 함양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덕들을 길러가도록 돕기 위한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¹⁰⁹⁾.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새로 개발되는 초등 도덕과 교과서는 인격교육·덕교육적 접근에 기반을 두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도덕 수업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격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격은 덕들로 구성되는 것이니 결국 도덕 수업은 덕들을 기르기 위한 학습과 경험의 시간이 되는 것이며 그런 한 도덕 교과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데 걸맞도록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은 앞의 제Ⅳ장-제Ⅵ장에서 분석한 외국 도덕 교과서들의 이론적 동향에서도 충분히 뒷받침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주된 동향은 역시 가치와 덕 그리고 인격의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들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자신의 덕성으로 구현해 감으로써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접근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동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오늘날에는 종래의 도덕교육(moral education)이라는 말 대신에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인격교육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의 제Ⅳ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43개주에서 법으로 인격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 내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격교육은 주요 가치 또는 덕목들을 설정해 놓고 이를 학생들 속에 형성해 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격·덕교육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 나라로서 싱가포르를 들 수가 있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에는 자기, 가족,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해 배려심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훌륭한 ‘인격’을 육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불굴, 조화의 6가지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

남미의 AW에서도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인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의 체득과 덕들의 형성 및 성숙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적 노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¹⁰⁾.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평화롭게 살면서 번영하는

109) 도덕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도덕성 내지 인격이 덕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도덕교육은 덕들을 기르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들에 대해서는 David Carr, *Educating the Virtues*(London: Routledge, 1991); G. Sher, "Knowing about Virtue," J. W. Chapman and W. A. Galston(eds.), *Virtue: Nomos xxxiv*(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2), pp. 92-94; Jan Steutel and David Carr, "Virtue Ethics and the Virtue Approach to Moral Education," David Carr and Jan Steutel(eds.), *Virtue Ethics and Moral Education*(London: Routledge, 1999), pp. 3-5, K. Ryan and K. E. Bohlin, *Building Character in Schools*(San Francisco, LA: Jossey-Bass, 1999), pp. 5-9, 25-26; T. Lickona·유병열 외 공역, 『인격교육의 실제』(서울: 양서원, 2006), pp. 21-33 등 참조.

110)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생명 사랑을 위하여”, 『가정: 부모됨, 부성과 모성』(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11), pp. 15-17 참조; Allianced for thr Family,

데 중요하게 관계되는 가치와 덕성들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 속에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도덕·인성교육의 세계적인 동향은 인격·덕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다행히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도덕교육을 줄곧 추구해 왔음은 물론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행해 왔다. 특히 제7차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교육의 기본 관점을 덕·인격교육적 접근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상에 20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교육에 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후에도 줄곧 이어져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18개의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교육에 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교육의 인격·덕교육적 입장은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표방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도덕과 교과 목표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의 함양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한편, 이와 일관된 입장에서 내용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주요 가치덕목들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중등은 주제중심 접근법을 취한데 비해, 초등에서는 덕중심 접근법을 취했는데,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 모두 덕중심 접근법을 취하는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덕과 교육과정상에 4개의 전체 지향 가치·덕목들과 14개의 영역별 가치·덕목으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존중, 책임, 정의, 배려의 전체 지향 가치·덕목들과 자율, 성실, 절제, 효도, 예절, 협동, 준법, 공익, 애국심, 통일외지, 인류애, 자연애, 생명존중, 평화의 영역별 가치·덕목이 설정되어 있다.¹¹¹⁾

따라서 새로이 개발되는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가치·덕목들을 반영하는 교과서 단원을 설정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이 그러한 가치·덕목들을 적절히 함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구성과 접근법을 강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단원 구성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그것을 통해 형성시키고자 하는 덕성을 중심 가치·덕목과 관련 가치·덕목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추구하는 하는 일이 요청된다. 동시에 그러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과 활동 및 교수·학습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3. 도덕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중점

바람직한 도덕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본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는가를 제대로 설정하고 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교과서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발의 기본 방향과 구성의 중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our-program>

11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의 주요 가치·덕목 부분 참조.

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

모든 교과서가 그러하듯이, 도덕 교과서 역시 그 본질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잘 배우고 즐겁게 익히는 가운데 도덕적 성장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어른이나 교사나 학부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도덕 교과서 개발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주체로서의 학생들을 중심에 두지 않는 교과서는 범형적 중심 교재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새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에 관한 도덕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도덕적 배움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도덕 교과서가 도덕심리학에 기반을 둬으로써 그 합당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과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3·4학년의 지적 발달은 대체로 구체적 조작기에 있고 도덕 발달은 인습 이전 수준에 놓여 있으며, 5·6학년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의 초기에 걸쳐 있고 도덕발달 수준은 인습 이전 수준에서 인습 수준 입문기에 걸쳐 있다. 따라서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학생들의 사고 및 인식 수준에 맞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 속의 사례 및 경험들과 관련지으면서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3·4학년은 구체적 조작기에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몸활동 중심의 접근을 도모하고 정의적·행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이 균형과 조화 속에서 통합되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추후 5·6학년 도덕과 교과서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5·6학년에 가서는 형식적 조작기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와 자료에 기반을 두어 출발하되 보다 추상적인 도덕적 사유와 추론의 정신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접근하는 한편, 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의적·행동적 접근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도덕 수업 속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길러가도록 돕는 교과서를 추구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소재로 하여 교과서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고 도덕학습의 효과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예컨대, 자주와 성실을 다루는 단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탐구하게 함으로써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가정, 친구, 이웃 등을 다루는 단원의 경우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만 무엇이 참으로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다루어 나감으로써 자기 생각의 적절성을 명료하고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애매함과 불확실 속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도록 돕는 그러한 교과서를 추구한다.

셋째, 적절한 도덕 학습지도의 원리 위에서 교과서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하나가 바로 탐구학습과 구성주의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깨달음과 발견을 통해 가치와 규범에 대한 주제적 자각과 의미 구성 및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교과서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고 문제 해결과 주제적 판단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도덕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중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덕 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생 자신의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인지적·사회적 구성주의론의 관점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도약대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도덕 교과서 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교육계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내러티브 접근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내러티브 접근법은 위에서 본 탐구학습 및 구성주의 접근의 중심이 되는 논리 과학적 사고 양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가치의 깊은 자각과 주체적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러티브는 인간 경험의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를 자연스럽게 중개하면서 규칙과 격률들이 지니는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일반화를 알기 쉬운 사례 및 구체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 예시하기 때문에 도덕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새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적 접근의 본래적 특성과 기능을 충분히 살리는 그러한 교과서 체제·구성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나.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철저히 추구하는 교과서

교과서 상에 학습량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학습의 질과 성과를 저하시키기 마련인데 이러한 폐해는 가치교육을 수행하는 도덕과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초등의 경우 현행 도덕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량의 과다에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아래 <표-VI-3>에서 보듯이 현행 초등 도덕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많다는 견해는 84%에 이르고 있어 그 학습량 과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 개발하는 도덕 교과서에서는 학습량의 적정화를 철저히 추구할 필요가 있다.

<표-VI-3> 현행 도덕 교과서 학습내용의 양에 대한 견해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담긴 단원별·차시별 학습 내용의 양은 적절합니까?								
구분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다	무응답	기타
전체		244(40)	268(44)	83(13.7)	4(0.7)	1(0.2)	10(1.7)	0(0)
성별	남자	76(35.2)	97(45)	39(18.1)	1(0.5)	0(0)	3(1.4)	0(0)
	여자	168(43.1)	171(43.9)	44(11.3)	3(0.8)	1(0.3)	3(0.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직위별	교사	153(40)	170(44.4)	51(13.4)	3(0.8)	1(0.3)	5(1.4)	0(0)
	부장교사	78(45.4)	74(43.1)	19(11.1)	1(0.6)	0(0)	0(0)	0(0)
	교감·교장	4(30.8)	7(53.9)	2(15.4)	0(0)	0(0)	0(0)	0(0)
	교육행정·경영자	0(0)	3(100)	0(0)	0(0)	0(0)	0(0)	0(0)
	교수	2(11.2)	9(50)	6(33.4)	0(0)	0(0)	1(5.6)	0(0)
	연구원 및 전문가	4(36.4)	2(18.2)	5(45.5)	0(0)	0(0)	0(0)	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무응답	3(33.4)	2(22.3)	0(0)	0(0)	0(0)	4(44.5)	0(0)

한편, 도덕 교과서 상의 학습 내용을 적정화 하는 문제는 도덕과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는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도덕과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추구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는 교과서 개발이 요청된다. 특히 종래 내용체계표상의 주제의 수를 축소하여 연간 32주에 16개 주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단원별 4시간(단원별 4차시) 투입 등 그 정신을 잘 구현하는 교과서 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내용의 적정화를 철저하게 추구하되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학습을 추구하여 진정한 깨우침과 가치의 내면화를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새 도덕과 교과서 개발에서도 내용적 측면에서 도덕과를 도덕과답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일, 도덕적 덕목과 규범 및 가치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처하면서 적절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일,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보다 간추리고 수정 보완하여 학습량의 감축과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방법적 측면에서도 도덕적 가치와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방법을 중시하는 일, 도덕적 사유와 실천을 연계하는 윤리학적 접근 방법을 적극 추구하는 일, 가치·덕목 중심의 접근을 도모하는 가운데 도덕적 이해와 내면화를 심화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에 보다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과서 단원 당 쪽수를 현행에 비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 주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를 통합할 경우 3-6학년 각 단원 당 40-44 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학습내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형적으로 주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의 두 개 체제로 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를 폐지하되 종래 생활의 길잡이가 수행해 오던 긍정적 기능을 어느 정도 주 교과서에 통합시켜야 한다. 따라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생활의 길잡이를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생활의 길잡이의 기능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적절한 학습 분량을 확보하여 의미 있는 학습과 학습 부담이 적정한 교과서의 분량을 통해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추구한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 단원 당 쪽수의 축소와 더불어 차시별 지도내용의 최소필수화를 통해 학습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교과서 구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최소필수화로 핵심적인 내용만 선택하고 선택된 것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구성 방식을 추구한다. 내용의 최소필수화를 도모할 경우 현행과 같이 교과서가 복잡하게 되지 않고 시원하고 여유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자기 성찰과 도덕적 사고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치내면화와 실천 성향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차시별로 다루는 내용 요소를 2-3개 정도로 제한하고 삽화·사진, 방법, 활동, 자료 등도 역시 최소필수적인 것만 담아 교과서 상의 학습량 자체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그 외의 다양한 방법, 활동,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한다.

셋째, 학습량은 축소하되 교과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탐구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삶의 자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선정하되 실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교재유형을 지식이해형, 가치판단형, 모범감화형, 가치심화형, 실습실연형, 실천체험형 등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들의 상호결합 구성을 통해 다양한 탐구, 문제해결과 발견, 감동감화, 실습실연과 체험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양질의 방법과 활동 및 자료 등을 학습내용과 적절히 엮어 교과서상에 등장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자체가 탐구와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깊이

있는 깨달음과 충분한 도덕적 사유 및 심화된 가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흥미롭고 다양한 방법과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과서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이 도덕학습 역시 재미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구현되고 그 성과 또한 고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법과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감동과 감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즐겁게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 성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를 추구한다.

첫째, 흥미 있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과서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도덕·인성교육 분야의 다양한 방법들, 집단상담 분야의 방법들, 행동수정과 심성계발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방법들, 프로젝트형 수업방법, 에듀테인먼트,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적용하여 다채로운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교과서에 등장하는 예화와 관련하여, 예화 자료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를 학생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이야기를 드러내고 이끌어내는 활동이 적은 것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화를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통해 결국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도덕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충실히’ 생각하여 끄집어내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여 다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절차 중심의 도덕교육 방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적시한 교과서를 구현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행동 수정을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쓴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 것이 고착이었는데 행동 수정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부모님에 대해 효도하기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점 적기 → 부모님께서 바라는 이유를 대화를 통해 알아보고 고쳤을 경우 좋은 점 파악하기 → 자신이 잘못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3가지 기술하기 →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행동을 찾아 순서 정하기 → 스몰스텝의 원리에 따라 자기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 찾아보기 → 행동을 수정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도덕수업 시간마다 일기에 적어서 고치는 과정 나타내기 →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효도에 대한 자신의 성장 이야기하기 등과 같이 구성해 보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욕을 증대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탐구 문제를 제시한다. 도덕 교과서에 실리는 예화들 중에는 문학성이 높고 도덕적인 교훈과 토론 거리가 많이 담긴 작품을 활용하여 동서양의 고전적 가르침이 담긴 자료를 실어 읽는 것만으로도 도덕교육이 되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동양의 경우 사자소학, 명심보감, 격몽요결 등, 서양의 경우 키케로의 의무론에서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스·로마 신화 등에서의 가르침과 이야기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위인이나 현인들이 가르친 주옥같은 ‘인생의 표어’, ‘생활 지침’등을 제시하여 학생 시절부터 인생의 화두로

삼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다섯째, 기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발문의 경우 다소 딱딱한 문장글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개선도 모색해 본다. 구체적으로 발문을 제시할 때 만화 형식으로 하거나 교사, 친구 등의 이야기 형식을 통해 하는 등 보다 역동적이고 부드럽게 제시하는 방안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싱가포르, 남미 AW 교과서 등 참조).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충실하고도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안내 및 공간 배치를 고려하고, 학생 자신의 생각과 도덕적 감정을 예쁘게 적을 수 있는 글상자를 적절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답변을 글로 적어보는 활동뿐만 아니라 예컨대 짝과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해 보기, 모둠에서 퀴즈형식으로 풀어보기,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기 등 발문에 대한 자기표현 방법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삽화는 서정적이고 예쁜 삽화, 크고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삽화를 활용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기유발 자료로서의 삽화는 잡다한 것보다는 한두 개의 멋진 삽화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삽화와 사진 등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구성하되 사실적이고 정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진을 활용하도록 한다.

라. 생활밀착형의 도덕 교과서

학생들의 생활과 유리된 공허한 논변의 교과서를 탈피하고 학생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를 추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장면 및 시기 등과 맞물려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변화와 행동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표-VI-4>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를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에 대한 견해

‘왕따 문제,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 학급 규칙 정하기 등등’과 같은 학생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필요하다	필요한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하지않은편이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전체	375(61.5)	195(32)	25(4.1)	6(1)	9(1.5)	0(0)	610(100)
	남자	131(60.7)	73(33.8)	8(3.8)	2(1)	2(1)	0(0)	216(100)
	여자	244(62.6)	122(31.3)	17(4.4)	4(1.1)	3(0.8)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업별	교사	248(64.8)	112(29.3)	15(4)	3(0.8)	5(1.4)	0(0)	383(100)
	부장교사	105(61.1)	57(33.2)	8(4.7)	2(1.2)	0(0)	0(0)	172(100)
	교감·교장	10(77)	3(23.1)	0(0)	0(0)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1(33.4)	2(66.7)	0(0)	0(0)	0(0)	0(0)	3(100)
	교수	5(27.8)	11(61.2)	1(5.6)	1(5.6)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4(36.4)	7(63.7)	0(0)	0(0)	0(0)	0(0)	11(100)
	그 외	1(100)	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1(11.2)	3(33.4)	1(11.2)	0(0)	4(44.5)	0(0)	9(100)

실제로 도덕 교과서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은 현장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표-VI-4>에서 보듯이 ‘왕따 문제,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 학급 규칙 정하기 등등’과 같은 학생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를 묻은 결과 필요하다는 견해가 무려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교과서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도덕 교과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 주변의 상황 속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례와 내용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 생활 속의 사례·소재를 적극 수집,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학생들의 생활 개선, 행동 변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예컨대, 왕따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 애완동물의 생명윤리 문제, 인터넷 활용과 중독 및 휴대폰 사용 문제, 시간 활용 문제(절제,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문제, 명품 구입 및 사치 풍조 문제(검소한 생활), 자아 성찰과 자기 개발, 통일교육 단원의 북한이해 교육(한민족 공동체 의식) 등등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로 선별 도입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 덕목을 구체화 시켜서 단원을 편성하고 단원의 특색에 맞게 차시를 다양화 하며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의 이슈화된 주제를 들여와 충분한 차시를 할애하여 다루도록 교과서를 구성함으로써 현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도덕 학습이 되도록 교과서를 개발한다.

둘째, 실제적 맥락(authentic context)을 고려한 생활 속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서 구성을 통해 학생의 도덕적 삶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이란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나 이야기가 생활과 밀접해야 한다는 뜻임과 동시에 이를 넘어 도덕과 수업시간의 학습이 삶의 현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접근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생활이나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해결 접근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컨대 단원명을 따돌림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동물이나 자연은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등으로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전개 과정에 있어 문제 제시 및 분석하기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 설정하기 → 사실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1차 판단하기 → 도덕원리나 가치·덕(배려, 책임, 우정 등)을 바탕으로 2차 판단하기 → (자신이나 모둠의 잠정적) 해결, 결정, 선택하기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적 맥락에 의거한 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형 수업과 같은 교과서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PBL(Problem Based Learning)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을 고려한 교과서 구성이 그 예가 된다.

셋째, 도덕 교과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도덕 수업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맞물려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변화와 교육의 실효성에 기여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개발한다. 시기별로 계기교육¹¹²⁾ 및 학급 운영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¹¹³⁾ 단원 순서를 편성하여 학교 및 학급 운영에서의 도덕·인성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또한 매 학년 매학기 모든 학교와 교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도덕적 요구 사항들을 교과서에서 다루어 생활지도와 인성지도를 교과 지도를 통해 권위 있게 해 나갈 토대를 제공하고, 학기 초 학생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정식으로 교과에서 다루어 좀 더 체계

112) 예컨대 월별 주요 가치·덕목을 1-2개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113) 예컨대 학기 초 학급과 학교의 규율과 질서 지키기와 올바른 친구 생활에 대한 도덕 학습을 추구하는 것 등.

적이고 구체적인 도덕적 규칙과 규범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학년간의 계열성을 생각하여 4개 영역별로 반복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 편제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도덕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가치·덕목에 대해서는 학급에서 생활본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도덕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덕 수업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가치·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면화하고 생활화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콜버그(L. Kohlberg)류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이나 길리건(C. Gilligan)과 나딩스(N. Noddings) 등의 배려공동체 접근 등을 학급에서 실제로 실행하면서 배우고 익히도록 단원 구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덕 수업과 생활 속의 도덕교육을 연계 통합하게 되는 한편, 학생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된 도덕적 학급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범적 매뉴얼을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생활밀착형 도덕교과서 구현을 위해 특히 남미의 AW 교과서 구성 방식을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즉, 남미의 AW 교과서는 찰리와 엘리스라는 두 주인공을 등장시켜 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¹¹⁴⁾.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또래의 주인공을 통해 도덕적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실제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 교과서에도 남녀 주인공 학생들을 3-6학년 전체이든 아니면 한 학년 단위로 등장시켜 이들의 실제와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인공들의 생활 모습이 해당 학년의 학생들과 같은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 결과 자기와 같은 수준의 도덕적 고민을 갖고 있는 주인공 인물의 등장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삶이 실제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바로 자신의 문제라고 느끼게 됨은 물론 이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자아 관련성과 현실 관련성을 크게 증대시켜 도덕 학습 효과를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마. 활동 중심의 탐구형 교과서

앞으로의 도덕 교과서는 진정으로 활동하고 탐구하는 교과서로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부르짖어 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생들은 늘 수동적이고 따분한 처지로 내몰려 온 것이 우리 도덕 교과서의 현주소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학생들이 몸과 사고를 적극적이고도 자기주도적으로 펼치면서 도덕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탐구와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4) 앞의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남미 거의 전 국가의 도덕교육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Alive to the World*에서는 찰리(Charlie)와 그의 사촌인 엘리스(Alice)가 어린 시절 초등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일관되게 교재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이들과 그 가족 및 친구와 관련 인물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겪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일반 학생들이 보고 탐구하면서 도덕 학습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구성 방식은 나름 상당한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and AFF(Alliance for the Family), *Alive to the World: Age4-8*(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9) 참조.

먼저, 도덕 문제에 대한 토의·토론 접근법과 내러티브 접근법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콜버그류의 도덕딜레마 토론수업모형, 가치명료화 수업모형, 가치분석 수업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모형 등에서 중시하는 다양한 토의·토론 기법을 도입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습주제에 가장 적절한 토의·토론 활동을 선정하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생들이 학습활동 방법을 쉽게 이해하면서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토의·토론 시 질문 및 답변의 형식을 교과서에 실어줌으로써 도덕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나타내고 성찰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짚과 대화해 보기, 모둠으로 토의하기, 자신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기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의 자기표현(self-expression)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다음, 내러티브 접근에 의거하여 ‘인격적 감화’를 통한 ‘도덕적 덕성’ 강화를 추구하여 균형 있는 도덕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내러티브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감화를 줄 수 있는 위인, 모범적인 가치 수호 사례 등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엄선, 매 차시의 도입 단계 및 도덕적 심정 강화 단계를 제공, 학생들의 인격 및 도덕적 덕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실천과 체험 중심의 방법을 통해 가치있는 삶을 생생하게 자각하면서 내면화하고 행동성향을 기르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통한 수업방법을 안내하고 말과 생각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표현하는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교과서 상에 많이 마련해 주게 되면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동감 있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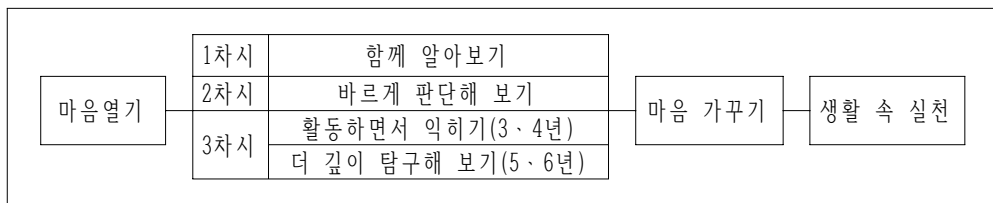
예컨대 활동중심 교과서 구성을 통해 글, 그림, 노래, 몸, 연극 등을 매개로 한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이해의 심화와 실천 의지의 강화를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 수업시간에도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음악 활동, 체육 활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여 창의적이고 열린 수업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추상적인 가치·덕목을 사진 찍기, 만화 그리기, 동시 짓기, 신체 표현하기, 동영상 찍기, 자기주장 말하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도록 교과서를 구성, 유도함으로써 활동적 실천과 체험 중심의 도덕 학습 구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의 ‘도덕적 감성’을 중시하는 도덕 교과서 구성으로 수업 효과를 증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머리’만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도덕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인격과 덕을 구성하는 지·정·행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따르면서도 특히 최근 학생들에게서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도덕적 감성,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 등을 적극 추구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도덕 교과서의 틀인 도입 - 1차시(도덕적 이해 중심) - 2차시(도덕적 판단 중심) - 3차시(도덕적 심정 중심) - 정리와 같이 되어 있는 단원 구성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입 - 1차시(도덕적 이해 중심) - 2차시(도덕적 판단 중심) - 3차시(도덕적 심정 중심) - 4차시(도덕적 행동 중심) - 정리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도덕적 심정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의 깊은 도덕적 감흥을 이끌어내어 도덕 수업의 실제적 효과와 실천력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 도덕과 교수·학습 활동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서¹¹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도덕 수업의 전 과정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과 교과서에 바람직한 모습의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과 흐름이 체계적으로 잘 드러나 학생과 교사의 수업활동을 잘 지원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현행 초등 도덕 교과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도덕 수업을 전개할 때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차시별로 수업 과정과 흐름을 아래 <그림-VI-1>과 같이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VI-1> 현행 초등 도덕 교과서의 차시별 구성 방식

<표-VI-5> 도덕수업의 과정·절차를 안내하는 교과서 구성 방식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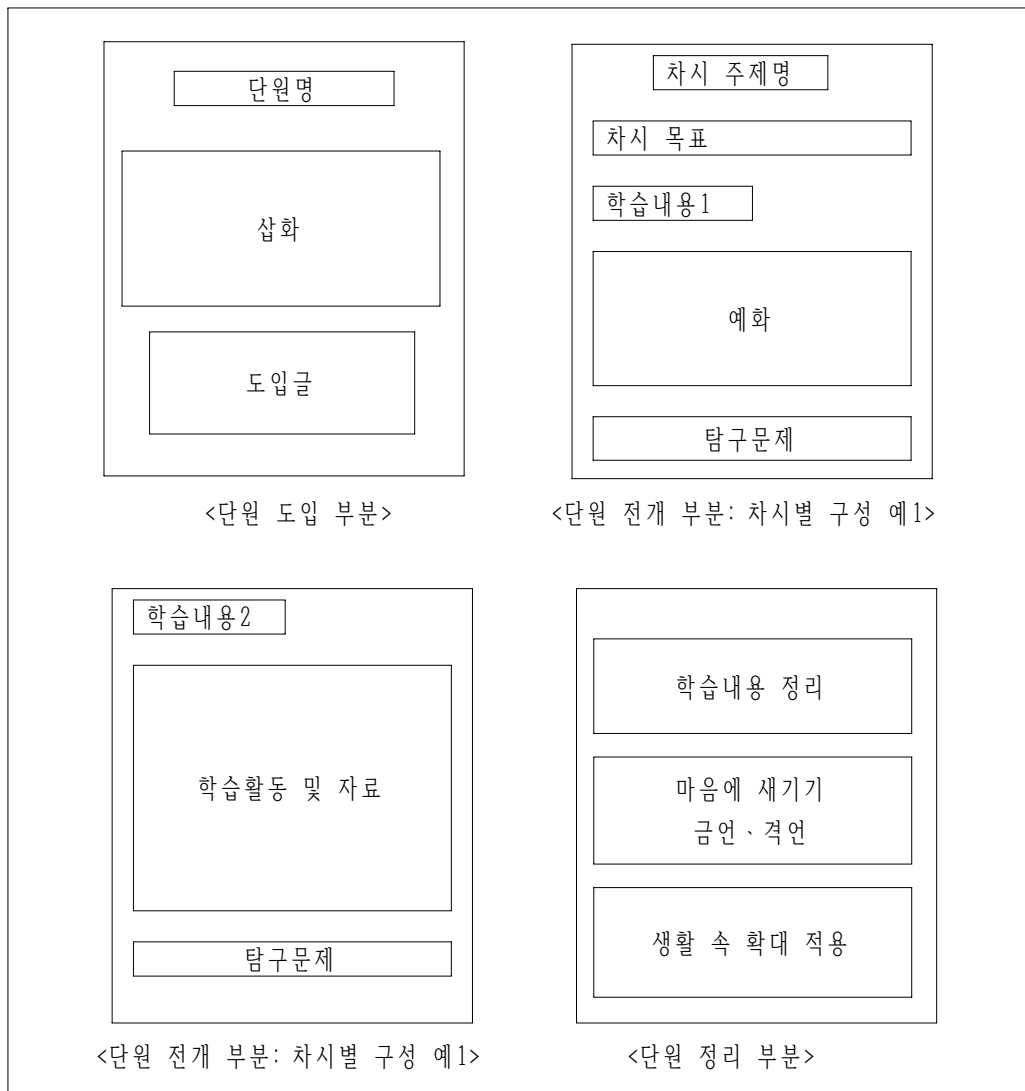
<p>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각 차시별로 좋은 도덕수업의 과정을 안내하고자 아래 <보기>와 같은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시별 구성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구분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82(13.5)	305(50)	145(23.8)	59(9.7)	9(1.5)	10(1.7)	0(0)	610(100)
성별	남자	34(15.8)	110(51)	47(21.8)	21(9.8)	2(1)	2(1)	0(0)	216(100)
	여자	48(12.4)	195(50)	98(25.2)	38(9.8)	7(1.8)	4(1.1)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업별	교사	45(11.8)	185(48.4)	105(27.5)	38(10)	5(1.4)	5(1.4)	0(0)	383(100)
	부장교사	24(14)	93(54.1)	35(20.4)	15(8.8)	4(2.4)	1(0.6)	0(0)	172(100)
	교감·교장	7(53.9)	5(38.5)	1(7.7)	0(0)	0(0)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3(100)	0(0)	0(0)	0(0)	0(0)	0(0)	3(100)
	교수	1(5.6)	13(72.3)	3(16.7)	1(5.6)	0(0)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5(45.5)	3(27.3)	1(9.1)	2(18.2)	0(0)	0(0)	0(0)	11(1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0(0)	2(22.3)	0(0)	3(33.4)	0(0)	4(44.5)	0(0)	9(100)

그리하여 이러한 구성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 응답은 <표-VI-5>에서 보는

115) 조주연·유병열 외,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2011. 8., pp. 111-115.

바와 같이 나타났다.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63. 5%로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11. 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단원과 차시별 구성을 도모할 때 도덕 수업의 과정과 흐름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일이 매우 긴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상에 지도 내용과 학습활동 및 방법 등의 주요 수업요소들이 적절히 담기도록 하여 좋은 도덕 수업을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그림-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원 구성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과 교수·학습의 본질과 특성을 잘 구현해 내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VI-2> 도덕수업의 과정·절차를 잘 안내하는 교과서 구성안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서 단원의 도입 - 전개 - 정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하며 이를 구분하는 표식이나 약물을 두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도입 부분에서는 단원명, 삽화, 도입글이 잘 나타나도록 편집하여 학습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각 차시별 시작 부분에는 차시 표시 약물과 차시 주제명을 제시하고 그 밑에 차시 목표를 둔 후, 이어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전개 부분이 담기도록 편집 구성한다. 이 때 전개 부분에는 그 차시에서 다루는 주요 학습 내용들이 차례로 담기도록 하고 그 학습 내용 밑에는 예화나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들 및 탐구 문제 또는 지시어나 발문들이 제시되도록 명료하고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차시별 구성에서는 해당 차시에서 다루는 학습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이해형, 도덕판단형, 도덕심정형, 실천체험형 등 교재의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그 차시의 수업 과정과 흐름을 교사와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원 또는 차시의 특징적인 수업모형이나 과정·절차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이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교과서에 제시되는 ‘발문’은 딱딱한 문장글 형식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만화 형식의 이야기 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동적이고 흥미롭게 변화를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리 부분에서는 학습내용의 종합 및 실천의지 강화 및 심화 확대 발전을 이끌도록 구성한다.

다음, 도덕과 교수·학습의 주요 내용과 활동의 과정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도덕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치·덕성을 구성하는 인지·정의·행동의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도모되어야 하는 바, 따라서 인지 또는 기능 위주로 수업을 해도 충분히 목표 도달을 할 수 있는 여타 교과와는 수업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과서 구성도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느 정도 친절하게 교사의 수업진행과 학생들의 학습내용 및 과정, 활동 등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양질의 교수·학습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이는 도덕과 수업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도덕 교과서의 경우 여타 교과보다 교과서가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며 차근차근 교수·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사례와 문제를 찾아 신고 그것을 분석, 논의, 탐구하면서 깊은 깨달음과 마음의 풍부함을 얻는 한편, 올바른 삶을 위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을 터득하며, 적절한 도덕적 행위기술과 실천습관 성향을 기르도록 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양질의 학습내용이 교과서 상에 체계적으로 담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깊은 깨달음을 통해 가치를 각성하고 내면화 하도록 하기 위해 바람직한 수업의 기본 과정을 교과서 상에 직접 안내하는 한편 적절한 탐구 활동 및 방법들이 담기도록 구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수업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구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덕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그 속에 주요 지도내용과 함께 그것을 학습하는 유용한 방법과 활동 및 자료들을 잘 엮어서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전의 도덕 교과서들은 흔히 교과서상에 간단한 예화 자료 한두 개 실어놓고 간단한 질문만을 던져 놓거나 학습의 주요 내용만 골자로 한두 쪽 실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도덕수업이 거의 훈계나 설명 위주 또는 교

사 주도의 일방적 주입 위주로 흘러가는 예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교과서 구성에 있어 종래와 같이 차시별로 예화 한두 개와 그 밑에 연구 문제 한두 개를 거의 동일하게 두는 텍스트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예화는 물론 만화, 그림, 사진, 역할놀이 대본, 동시,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의·토론, 조사 발표, 읽기와 쓰기, 명상, 암송, 게임 등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창의적으로 제시하여 재미있게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한다.

나아가 교과서상의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고유한 아이콘을 부여하되 아이콘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귀여우며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더 읽을거리, 더 탐구해 볼거리, 더 찾아볼 거리 등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주소를 명기하여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도덕적 예화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이나 사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며, 예화를 나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짐하는 활동이 부각되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용어는 편집상의 묘미를 살려 교과서 지면상의 여백 같은 곳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해주어 친절한 교과서가 되도록 개발한다.

4. 도덕 교과서의 체제·구성

지금까지 우리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그 교과서 개발 및 운영 측면, 이론적 기저 측면, 그리고 개발의 기본 방향과 중점 측면 등에 대해 숙고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 단원 체제·구성의 통합적 기본 체계 설정

위에서 우리의 도덕 교과서 개발이 바람직한 인격과 덕성의 형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아야 우리 도덕 교과서가 추구하는 바가 타당하고도 명확하게 설정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인격·덕의 3측면 6요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앞의 제Ⅳ장-Ⅵ장에서 살펴 본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남미의 경우인데, 오늘날 미국 인격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리코나(T. Lickona) 같은 경우는 인격과 덕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善)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의욕하며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 가는 세 가지 측면이 통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줄곧 강조하여 왔고¹¹⁶⁾ 이러한 입장은 이제 미국 인격교육의 거의 일반적인 동향이 되고 있다.

116) Lickona, Thomas, *Educating for Character*(New York: Bantam Books, 1992) 및 유병열 외역, 『인격교육의 실제』(서울: 양서원, 2006) 참조.

남미의 AW 교과서도 지·정·행 통합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해(Knowing), 수용(Accepting), 행동(Doing)의 3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틀에 입각하여 교과서 매 차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인격을 발달 시키도록 그들의 건전한 가치들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이해, 도덕적 감정, 그리고 도덕적 행동이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¹¹⁷⁾.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교육론을 주목하게 된다. 덕윤리학과 덕교육론에 관해 가장 심도 있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게 되면 도덕 교과서를 가지고 도덕 수업을 할 때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적 덕과 도덕적 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전자 중에서 그 존재가 애당초 가변적인 것을 숙고하는 부분 즉 다른 방식으로의 존재가 가능한 것을 숙고하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삶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천지이다¹¹⁸⁾. 이는 도덕적 이성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하면 옳고 좋은 삶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때 그러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도덕적 인간됨과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도덕적 덕은 도덕적 심정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하면 옳고 좋은 삶을 추구하는 정념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가는 행위 성향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다. 이 때 정념은 옳고 좋은 삶을 존중하고 좋아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욕구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행동은 그러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양식을 익히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 가면서 습관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덕으로서의 실천지와 도덕적 덕들은 항상 상호 결합되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말하자면 서로 연계되고 상호작용하면서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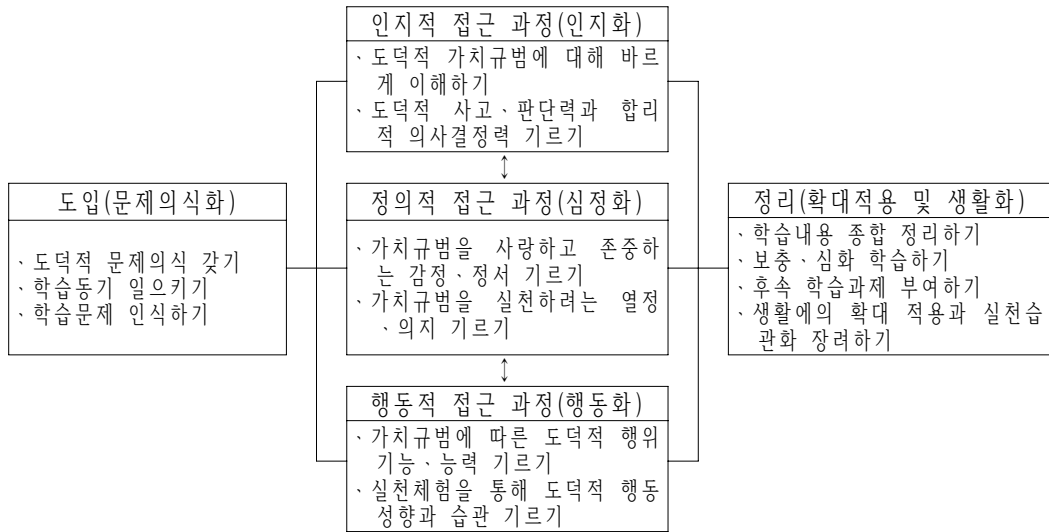
이렇게 본다면 덕의 구성과 그것을 기르기 위해 접근해 가는 길은 지·정·행의 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세 측면에서 길러져야 할 도덕적 성향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규범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것에 기초하여 잘 판단하는 능력(도덕적 지식·이해와 사고·판단력),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가치규범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실현하고자 의욕하는 마음의 힘(도덕적 감정·정서와 열정·의지),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가치규범을 생활 속에서 적절한 행동양식으로 구현하면서 꾸준히 실천해 가는 행동 성향(도덕적 행위 기능·능력과 실천·습관) 등을 지적할 수 있다¹¹⁹⁾. 이를 우리는 덕의 세 측면 여섯 요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VI-3>과 같다.

117)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yllabus: Elementary*, 2007.

118)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지(phronesis, practical wisdom)의 의미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에 대해서는 유병열, “초등 도덕과에서 실천지 함양을 위한 가치판단 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26집, 2008. 3., pp. 298-303 참조.

11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유병열, 『도덕과교육론』(서울: 양서원, 2003), 제2장 및 『도덕교육론』(서울: 양서원, 2006), pp. 244-255, 그리고 유병열, “초등 도덕과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도덕성·인격의 구성 요소와 교육 내용의 탐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 도덕과 교과용 도서 개발의 방향과 과제: 무엇을 기르고 가르치며 어떻게 담야 교육할 것인가?』, 춘계 세미나 논문집, 2008. 3., pp. 3-20 참조.

물론 이 때 이 세 측면 여섯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길러지고 또 작동될 때 덕과 인격이 원만히 형성되고 또 발달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 수업과 교과서도 이러한 성향과 자질 및 능력들을 제대로 추구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하겠다.



<그림-VI-3> 단위 체제·구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본 체계

여기서 위와 같은 기본 체계에 의거할 경우 교과서 모습이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한 단원을 다루는 수업은 형식상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가장 앞에 ① 도입 과정을 두고, 이어 ② 해당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고 도덕적 사고·판단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과정(인지적 접근), ③ 해당 가치규범에 대한 바람직한 감정과 정서, 의지 등을 함양하고자 하는 과정(정의적 접근), ④ 그 가치규범과 관련된 도덕적 실천 방식, 행위 기능, 습관적 성향 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과정(행동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 정리 단계로서 도덕 수업을 종합하고 마무리 하면서 그 가치규범의 생활 속에서의 확대 적용과 지속적인 실천을 장려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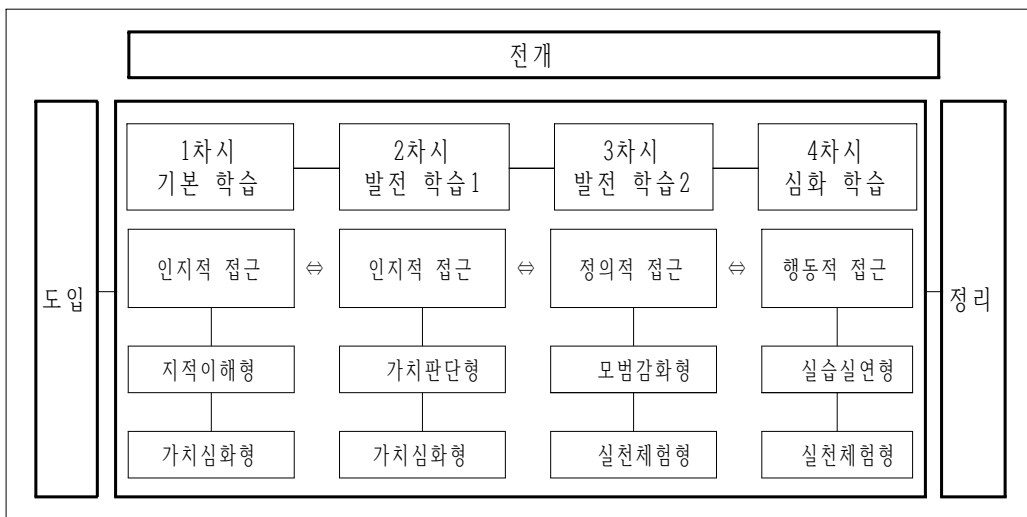
이 때 지·정·행 세 측면에 대한 접근을 한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추구해야 하는지는 그 단위에서 다루는 가치·덕목과 지도 요소, 형성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능력과 성향, 학생들의 발달 수준, 기타 여건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한 시간의 도덕 수업에서 인지적 접근과 정의적 접근이 같이 추구될 수도 있고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이 엮여서 들어갈 수도 있음은 물론, 각 접근을 취하는 순서에도 반드시 또는 늘 지-정-행의 순서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요컨대, 인격과 덕성의 세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되 다루는 가치·덕목과 여러 조건, 집필진의 판단 등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단위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단위 체제·구성의 기본 모형과 하위 6교재 유형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인격·덕을 구성하는 지·정·행 3측면과 6요소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관점에 의거하여 교과서 개발을 도모할 때 구체적으로 한 단원은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단위 전체의 열개: 도입 - 전개 - 정리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그 기본 단위는 늘 그래왔듯이 하나의 단원이 된다. 따라서 한 단원의 체제·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 모형은 역시 도입 - 전개 - 정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단원이 성립하려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부한 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오는 일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단위 전체의 기본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VI-4>와 같다.



<그림-VI-4> 단위 체제·구성의 기본모형과 하위 6교재유형

이 때 도입 부분은 대체로 단원명, 삽화, 도입글, 주요 학습 내용 그리고 단원의 목표 내지 학습과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단원명은 그 단원에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을 너무 직설적 또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이고 은은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¹²⁰⁾. 삽화는 그 단원에서 추구하

120) 예컨대, '친구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우정'에 관한 단원일 경우 '사이좋은 친구' 또는 '참다운 우정' 등과 같이 그 단원에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너희가 있어 행복해', '서로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 내 친구' 등과 같이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단원명을 보

는 바를 전체적으로 암시하면서 본받을만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도입글 부분이 중요한데 말하자면 단원의 도입글 부분은 그 단원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등을 암시함으로써 문제의식과 탐구의욕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습목표나 내용을 바로 제시하기 보다는 학습 내용의 관점이나 방향을 사례 중심이나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식과 탐구거리들을 암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문장의 진술 형식도 간단한 서술형과 함께 의문형이나 청유형이 섞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 사례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있을 법한 경험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사진이나 삽화 또는 만화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보통의 학습 목표를 그대로 적기보다는 그 단원에서 추구하는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무엇을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리 부분은 한 단원을 마감하는 부분으로서 학습 내용의 종합, 확인과 확대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 단원에서 핵심이 되는 학습 내용의 요약과 정리, 다짐해 보기, 성현·위인 또는 훌륭한 분들의 말씀이나 도덕적 삶의 지혜(금언·격언·속담 등), 모범적인 삶의 사례나 짧으면서도 감명 깊은 도덕이야기 또는 시, 노래 등, 더 공부해 보기, 생활 속으로의 확대 적용과 실천해 보기 등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단원 전개 부분의 구성: 기본 학습 ⇒ 발전 학습 ⇒ 발전 학습 ⇒ 심화 학습의 4단계 심층화 모델

한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4개 차시가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전개 부분을 몇 차시로 할 것인가는 집필본부와 개발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를 견본으로 삼아 전개 부분을 일단 4차시로 설정하고 논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상 3-6학년 부분에는 학년 당 8개씩의 지도요소 내지 주제들이 설정되어 있어 연간 최소 32-34주·32-34시간을 예상할 경우 매 주제마다 4시간 정도씩 투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단원의 전개 부분을 4개 단계로 나눠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 즉, 1차시에는 기본 학습을 하고, 2차시에는 전 차시에 배운 바를 바탕으로 발전 학습을 꾀하며 3차시에는 한층 더 가치 내면화를 추구하는 제2의 발전 학습을 도모한 뒤 마지막 4차시에 심화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틀은 한 단원의 도덕과 수업이 매주 1시간씩 총 4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을 확보한 토대 위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더 심화해 가고자 하는 관점에서 구상된 것이다. 즉, 교육과정상의 가치·덕목 및 그와 관련된 도덕규범에 대한 학습에 있어 그것을 토대 구축, 발전 도모,

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단원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화 마무리의 내면화 과정에 따라 추구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이해를 거쳐 심정과 행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처음에는 기본을 배우고 이어 점차 수준이 높은 것을 학습해서 안착시켜 가는 과정 등을 상정하여, 기본 학습(1차시) → 발전 학습(2차시) → 발전 학습(3차시) → 심화 학습(4차시)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도덕 교과서 한 단원의 전개 부분을 이와 같은 틀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단원 전개 단계에서의 지·정·행의 통합적 접근과 하위 6가지 교재 유형

한편, 이러한 기본 학습 → 발전 학습1 → 발전 학습2 → 심화 학습의 과정 속에서 인격과 덕을 구성하는 지·정·행 3측면들과 6요소들이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말하자면, 앞의 기본 관점에서 논의한 바 도덕적 이성과 심정 및 행동의 조화롭고도 통합적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도덕 수업과 교과서 구성 역시 도입 - 인지적 접근, 정의적 접근, 행동적 접근 - 정리로(이 때 가운데 것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구상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 의거할 때 차시별 제재 구성과 단위 수업 시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하위 모형과 교재 유형을 강구해 내는 일이 요청되게 된다. 여기서 위의 기본 모형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하위 모형·교재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지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지적이해형과 가치판단형으로, 정의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모범감화형과 가치심화형으로, 그리고 행동적 접근 측면에서는 실습실연형과 실천체험형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¹²¹⁾.

따라서 차시별 교과서 제재가 최소한 여섯 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러한 유형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조합, 적용되면 다양한 수업을 염두에 둔 교과서 제재 구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겠다. 즉, 다루는 가치·덕목, 주요 내용, 수업 여건, 집필진의 의도 등에 따라 교과서 각 차시의 부분들이 지적이해형+모범감화형, 가치판단형+가치심화형, 지적이해형+실습실연형+가치심화형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도덕과에서 널리 알려지고 또 연구, 사용되어 오던 여러 가지 수업 모형들이 위 기본 모형의 관점에 입각하는 가운데 하위 모형들과 연관지어져 잘 활용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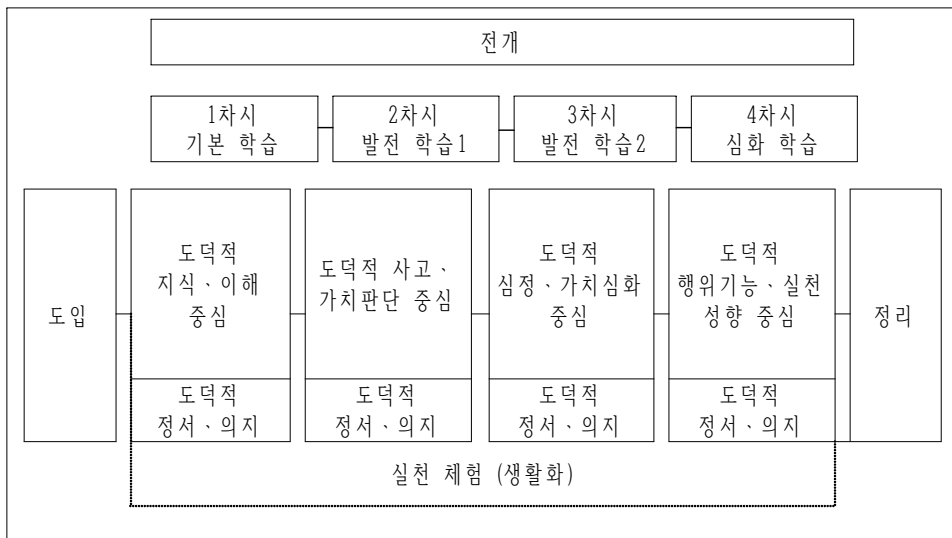
다. 차시별 단원 전개 방식과 내용

1) 차시별 교육의 중점 설정

한편, 초등 도덕과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과 구체적인 구성 방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단

12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유병열, 『도덕과교육론』(서울: 양서원, 2009), pp. 391-431 참조. 그리고 이러한 6가지 교재 유형은 앞의 제Ⅲ장에서 분석해 본 남미의 AW 교과서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재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AW에서는 대체로 설명형, 탐구형, 활동체험형 정도의 교재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적이해형, 가치판단형, 모범감화형, 가치심화형, 실습실연형, 실천체험형의 6가지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된다 하겠다.

원에 4차시를 투입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관계로 이를 전제로 하여 강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앞의 기본 관점에서 논의한 바 도덕적 이성과 심정 및 행동의 조화롭고도 통합적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설정한 기본 학습(1차시) → 발전 학습(2차시) → 발전 학습(3차시) → 심화 학습(4차시)의 기본 모형 속에서는 역시 인지적 접근, 정의적 접근, 행동적 접근 및 앞의 기본 관점 부분에서 설정한 인격과 덕을 구성하는 여섯 요소들이 조화롭게 추구되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VI-5>와 같다.



<그림-VI-5> 단원 전개의 체제와 구성 방식

도덕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그것이 도덕 수업을 잘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매 차시 제재 구성에서 어떤 도덕적 성향이나 능력 또는 자질을 기르려고 하는 것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행 3측면 6요소를 통합적으로 기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한 비율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도덕 수업은 보통 한 차시에 40분을 기준으로 하는 관계로 3측면 6요소를 차시마다 모두 추구하려 하다가는 많지 않은 수업 시간 속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과서 단원 체제·구성을 도모함에 있어 차시별로 중점을 두는 체제·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시별 중점 구성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 차시 속에서 지·정·행의 통합적 접근을 최대한 모색하는 한편 한 단원 전체의 수준에서는 3측면 6요소가 조화롭고도 균형 있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위와 같은 구성 방식에 대해 현장의 의견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표-VI-6> 차시별 교육의 중점 설정에 의한 교과서 구성방식에 대한 반응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한 단원이 1차시 지식·이해 중심, 2차시 가치판단 중심, 3차시 가치심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매우 적절하다	적절 한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무응답	기타	계
성별	전체	95(15.6)	300(49.2)	137(22.5)	60(9.9)	11(1.9)	7(1.2)	0(0)	610(100)
	남자	38(17.6)	109(50.5)	48(22.3)	17(7.9)	4(1.9)	0(0)	0(0)	216(100)
	여자	57(14.7)	191(49)	89(22.9)	43(11.1)	7(1.8)	3(0.8)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업별	교사	50(13.1)	192(50.2)	91(23.8)	42(11)	6(1.6)	2(0.6)	0(0)	383(100)
	부장교사	32(18.7)	84(48.9)	38(22.1)	13(7.6)	5(3)	0(0)	0(0)	172(100)
	교감·교장	4(30.8)	7(53.9)	1(7.7)	1(7.7)	0(0)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3(100)	0(0)	0(0)	0(0)	0(0)	0(0)	3(100)
	교수	2(11.2)	12(66.7)	3(16.7)	1(5.6)	0(0)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6(54.6)	1(9.1)	2(18.2)	1(9.1)	0(0)	1(9.1)	0(0)	11(1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1(11.2)	0(0)	2(22.3)	2(22.3)	0(0)	4(44.5)	0(0)	9(100)

즉, <표-VI-6>에서 보듯이, 현행 도덕 교과서의 단원이 1차시 지식·이해 중심, 2차시 가치판단 중심, 3차시 가치심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묻은 데 대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64.8%,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11.8%로 나타나 이러한 구성 방식이 적절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보통이라고 보는 견해까지 합친다면 차시별 중점 설정에 의한 교과서 구성에 대해 87.3%가 지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VI-7> 도덕 교과서 체제·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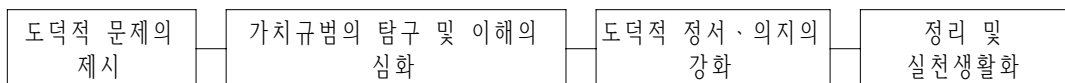
앞으로 도덕과 교과서를 만든다면 그 체제·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래의 여러 견해 중에서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구분	인지·정·행 동·정·행 각·면·별 각·면·로 수·측·구 를·성·차 구·성·시 성·한·다.	한·차·정·행 지·시·의·동 지·면·도·를 측·면·두·를 론·다.	차·시·로·이 판·단·도·해 행·위·기·심 정·성·설·정·중 점·을·하·고 구·성·한·다.	도·덕·수·업 를·과·과·의 내·수·정·의 구·성·한·다. 하·는·의·있 는·도	도·덕·과·에 수·업·정·하 고·하·는·의·있 는·도	무 응 답	기 타	계
10-1. 첫번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견해를 하나 골라주세요.								
전체	157(25.8)	135(22.2)	136(22.3)	74(12.2)	108(17.8)	0(0)	0(0)	610(100)
10-2. 두번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견해를 하나 골라주세요.								
전체	102(16.8)	99(16.3)	162(26.6)	159(26.1)	88(14.5)	0(0)	0(0)	610(100)
10-3. 세번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견해를 하나 골라주세요.								
전체	126(20.7)	77(12.7)	115(18.9)	130(21.4)	162(26.6)	0(0)	0(0)	610(100)

또한 위 <표-VI-7>에 의하면 앞으로 도덕 교과서를 개발할 때 그 체제·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 정의, 행동 측면 별로 그 각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차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5.8%).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차시별로 이해, 판단, 도덕 심정, 행위 기술 등의 중점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것에 가장 많은 반응이 나왔다(26.6%).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도덕과에 맞는 수업의 일반적 과정·절차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단원을 구성하는 것에 가장 많은 찬성 의견이 나타났다(21.4%). 결국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도덕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단원의 체제·구성은 역시 차시별로 지·정·행 측면 및 그 구성 요소에 따라 각각 그것을 심도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의 중점을 설정,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차시별·단원별로 지·정·행 측면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1차시 도덕적 지식·이해 중심, 2차시 가치판단·합리적 의사결정 중심, 3차시 도덕적 심정·가치심화 중심, 그리고 4차시 도덕적 행위기능·실천성향 중심으로 하면서 차시별·단원별 지·정·행 통합적 접근을 도모하는 단원 및 차시 구성의 기본틀을 설정하고 교과서 개발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기본 학습(1차시) : 도덕적 지식·이해 중심 + 도덕적 심정 + 생활 속 실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단원의 전개 방식 및 내용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시의 기본 학습 단계에서는 그 시간의 주요 가치·덕목 및 관련 가치규범에 대한 도덕적 지식·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도덕적 심정을 기르는 정의적 접근이 함께 추구되도록 한다. 그리고 1차시 말미(또는 그 외 차시의 말미)에는 그 시간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1주일 동안 다음 도덕 수업 시간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들과 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하도록 한다¹²²⁾. 이러한 1차시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업 과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상될 수 있다.



따라서 1차시의 도덕 교과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탐구 및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개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차시명 → 생각 열기 → 함께 탐구해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때 차시명이라 함은 한 단원 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차시별 제재의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단원명이 “사랑이 가득한 우리집”일 경우 그 2차시의 제재명을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고 했을 경우 이를 일컫는 것이다.

122) 이를 “생활 속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현행 3·4학년 도덕 교과서는 이 생활 속 실천을 매 차시마다 추구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과서 개발에서는 한 단원 4개 차시 중 어느 한 차시 또는 두 차시 정도에서만 이 생활 속 실천을 추구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어서 “생각 열기”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한 단원의 4개 차시마다 설치되는 것으로서,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가치 사례 내지 도덕적 문제 사태를 실어 놓아 도덕 수업이 이를 바탕으로 도입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가치 사례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탐구를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거나 있을 법한 문제 사태로 해야 한다. 물론 이 때 그 가치 사례 내지 문제 사태의 형태는 도덕 이야기 형태일수도 있고 만화나 역할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함께 탐구해 봅시다” 코너에서는 가치사례 내지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문제의식과 학습 동기를 가지며 해당 가치·덕목과 관련 도덕규범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이 때 그 이해는 도덕적 사실, 가치 개념, 도덕 규칙, 도덕 원리, 윤리적 학설·이론 등에 대한 앎을 도모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덕목과 관련 가치규범의 의미와 근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해야 할 것들과 그 실천 방식, 해당 덕목이나 가치규범과 관련한 모범적 삶의 모습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깨우침을 통해 합리적 앎을 형성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

이 때 “함께 탐구해 봅시다”라는 코너에서는 그것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2-3개에 따라 그것을 학습하는 활동 내지 방법, 자료 등이 같이 진술되도록 한다. 예컨대, “함께 알아봅시다”라는 부분에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왜 중요한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내용들이 교과서상에 직접 진술되며 그 아래에 그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활동과 방법 및 자료 등이 함께 엮여서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는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라는 코너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서는 해당 덕목과 가치규범을 좋아하고 존중하며 추구하고 실천 의욕 하는 마음 즉 도덕적 심정을 기르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서 도덕적 민감성과 가치규범에 대한 친화적 감정·정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모범 제시와 감동감화,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공적 확인과 칭찬, 시와 노래, 자기반성, 실천 계획과 실천 다짐, 짝으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나 사례, 가치의 심화와 내면화, 개별화와 구체화 및 신념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활동, 자료들이 실리게 된다. 특히 이 도덕적 심정을 깊고 풍부히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는(물론 생활의 길잡이의 관련되는 곳 및 여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접근의 도덕이야기법에 의거한 교재 형태와 방법이 많이 추구될 것이다¹²³⁾.

1차시 또는 그 외 차시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코너는 본 편찬계획에서 설정한 6가지 하위 모형 중 실천체험 모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차시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주일 동안 학급과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등에서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익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단원의 1차시에 화목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및 그 실천방식 등에 대해 배웠다면 이와 관련하여 1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설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다짐한 후 실제로 실천하면서 익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이라는 단원을 4차시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총 4주 동안 학생들이 효도, 우애, 화목한 가정 등과 관련한 실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바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익혀가게 된다.

123) 초등 도덕과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내러티브 접근에 기초한 도덕 이야기법의 적용 방안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유병열, “초등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29집, 2009. 3, pp. 133-168 및 같은 사람, 앞의 『도덕과교육론』, 제6장 제2절 “도덕과에서 내러티브 접근의 지도방안” 참조.

3) 발전 학습1(2차시) : 도덕적 사고·판단 중심 + 도덕적 심정 + 생활 속 실천 체험

2차시의 발전 학습 단계에서는 그 시간의 주요 가치·덕목 및 가치규범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성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역시 도덕적 심정을 기르는 정의적 접근이 함께 추구되도록 한다. 그리고 1차시와 마찬가지로 2차시 말미에는 그 시간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1주일 동안 다음 도덕 수업 시간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들과 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구성되게 된다. 이 때 2차시의 수업 과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상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형에 의거한 2차시 교과서 구성은 크게 “차시명 → 생각 열기 →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내용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때 제재명이란 위의 1차시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이 바르게 판단해 보기 코너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 선택하는 학습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사고력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이 바르게 판단해 보기 코너 역시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우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그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과 경험 범위에 맞는 가치 사례 내지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는 단계가 있고 이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가 교과서상에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 때의 가치사례는 예화로 제시될 수도 있고 만화,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서에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가치 사례 내지 문제사태의 종류도 선악형, 위계형, 해소형, 조화형, 선행형 등 최소한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¹²⁴⁾.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발문들을 교과서에 실어 놓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어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의 학습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과정은 개념분석 모형이나 가치명료화 모형, 가치분석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등 어떤 모형이나 그것들의 일부들을 선택해서 조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교과서상에 질문이나 활동 등을 실어놓게 된다. 이 때 이 과정에서 사실·정의·가치의 문제, 대안 설정과 결과의 검토, 도덕적 추론과 연역적·귀납적 정당화, 역할채택과 공감의 학습 경험을 통한 능력의 증대, 가치원리의 검사와 잠정적 의사결정 등 도덕적 사고와 판단 능력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요소들이 교과서상에 관련 활동·방법 및 자료들과 함께 실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역시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코너가 교과서상에 담기게 된다. 다만, 여기서의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코너는 1차시는 물론 다음에 이어지는 3차시와는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르다. 그러나 각 차시에 다루는 내용과 연관되는 동시에 1-3차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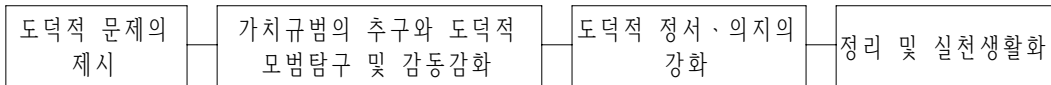
124) 유병열, 『도덕과교육론』(서울: 양서원, 2009), 제7장 제3절 참조.

이에 차별화 되면서도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또 체계성 있게 구성됨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코너는 4개 차시 중 1-2개 차시에만 설정되게 되는데 그 성격과 기능 등은 1차시의 경우와 비슷하다.

나아가, 도덕 수업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매 차시 제재 구성에서 어떤 도덕적 성향이나 능력 또는 자질을 기르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려는지 제재의 구성 유형을 결정하고, 어떤 과정 내지 절차를 통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과 활동으로 학습을 하게 하려는지 등이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발전 학습2(3차시) : 도덕적 심정·가치심화 중심 + 도덕적 심정 + 생활 속 실천 체험

3차시는 그 앞의 차시에서 도덕적 지식·이해나 도덕적 사고·판단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공감과 정서이해활동을 통해 보다 깊은 심정적인 가치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6유형의 교재 유형들 중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것들이 취사선택되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하겠다. 이러한 3차시의 수업 과정·절차를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모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3차시 교과서 구성의 기본 구조는 “차시명 → 생각 열기 →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차시 제재명과 생각 열기에 대해서는 앞의 차시들에서 설명한 바와 대동소이하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코너는 모범감화형과 가치심화형으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정·행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치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3차시는 1, 2차시에서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 감성과 의지를 보다 굳건히 확대하여 내면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관계로,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경우 앞의 1, 2차시에서 배운 바에 기초하여 좋은 예화나 모범 사례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감수성과 심정을 이해하는 감정이입과 역할교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자세와 태도에 중점을 둔다.

나아가 이 3차시에서는 다루는 가치·덕목 및 지도요소·주제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감수성과 의지를 기르는 일들을 또한 추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종국에는 도덕적 민감성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시 구성 말미에는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코너가 설정되며 집필진의 의도와 단원의 성격에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코너가 이 3차시 말미에 마련될 수도 있다.

5) 심화 학습(4차시) : 도덕적 행위기능·실천성향 중심 + 도덕적 심정 + 생활 속 실천 체험

4차시는 그 앞의 차시에서 도덕적 지식·이해나 도덕적 사고·판단 및 도덕 심정에 중점을 둔데 비해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보다 자기주도적이고 탐구적인 활동을 통해 행위 기능과 실천 능력, 가치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6유형의 교재 유형들 중 가치심화, 실습실연, 실천체험 등의 모형과 교재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4차시의 수업 과정·절차를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모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4차시 교과서 구성의 기본 구조는 “차시명 → 생각 열기 → 실천 체험을 통해 익히 봅시다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차시 제재명과 생각 열기에 대해서는 앞의 차시들에서 설명한 바와 대동소이하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실천체험을 통해 익히 봅시다”와 관련하여 실습실연형 내지 실천체험형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습실연을 통해 그 기술을 익히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정·행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치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차시는 1, 2, 3차시에서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보다 확대 심화시키고자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관계로, 다문화 사회라고 할 경우 앞의 1, 2, 3차시에서 배운 바에 기초하여 사회적 차원의 다문화 사회의 문제까지도 다루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다루는 가치·덕목 및 지도요소·주제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행위기능·능력을 기르는 일이 긴요하고 또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이 4차시에서 도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행동방식에 대해 지도하고자 할 때, 행동방식의 행위기능이나 능력을 인식의 변화과정과 이에 대한 올바른 행동방안 등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것들을 실습실연을 통해 해보면서 익히도록 이 4차시를 구성해 볼 수도 있다.

역시 이 4차시 말미에도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 코너가 설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코너까지 여기에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도록 한 후에는 그것을 도덕 수업 시간에 짚어보면서 경험을 반추하고 정련하면서 공유하고 내면화, 의지 다지기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로, 집필진의 특별한 기획이 없다면 대체로 생활 속 실천은 4차시 말미보다는 그 외 차시에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라.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형과 자율형의 조화

한편, 단원의 체제·구성에 있어 기본형은 정하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차시 구성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우리는 도덕 수업과 이에 사용될 교과서 체제·구성과 관련하여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제는 이 모형이 도덕 수업과 교과서 구성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확일적으로 규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등 도덕과에서 어떤 일반 모형 또는 일반적 수업 과정·절차라는 것을 두고 모든 단원을 그런 틀로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또 만들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서 모든 단원들이 한결 같이 확일화되는 것은 물론, 도덕과에서 중요하고도 요긴한 여타의 여러 수업모형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한편, 개별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도덕 수업을 구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놓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도덕 수업과 교과서의 기본 모형은 설정하되 이는 지향하고 육성해야 할 것들과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도덕 수업과 교과서 구성을 보는 기본적 관점, 교육적 접근과 교과서 운영 및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와 전체를 규율하는 열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실제 도덕 수업과 교과서 구성은 유연하고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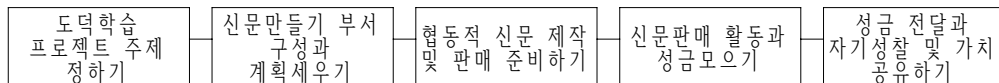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정의·행동의 일률적 편성에서 벗어나 주제와 학습 설계에 따라 효과적인 단계를 선택하거나 단계를 허무는 탄력적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4차 도덕과 교육과정기 이래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도덕과에서는 이해·심정·행동이라는 단원 구성틀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 니 교과서 단원들이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지루한 학습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한 예로, 현행 교과서의 1차시의 경우 ‘마음 열기’ 다음에는 예외 없이 도덕적 지식이해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열기 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학습이 연결될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 구성이 확일성에 얽매이다보니 이것이 오히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단원 구성 및 전개에 장애로 작용하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그러한 구성 방식을 허물고 주제와 학습 설계에 따라 효과적인 도덕 수업단계를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탄력적인 단계 편성은 그 단원의 특성에 따라 집필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인지·정의·실천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프로젝트형 수업 설계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¹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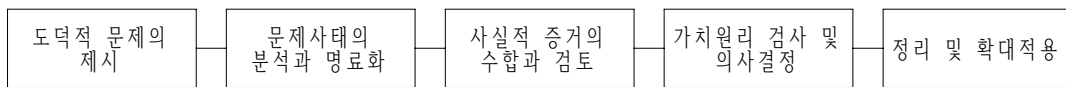
다만, 단원 구성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더라도 도입·전개·정리라는 세 부분으로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모든 단원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원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단원의

125) 프로젝트형 교과서 구성의 한 예로서 장진혜 교사(현 서울 중계초 재직)가 펼쳤던 다중지능 이론에 의거한 불우이웃돕기 수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KBS1 TV 9시 뉴스에서 방영된 바 있다(2010. 1. 13일자). 이 수업이 의거한 수업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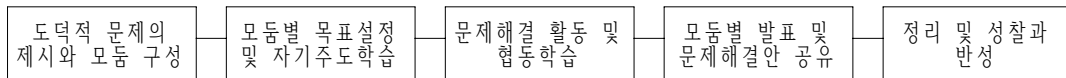


도입과 학습의 마무리 및 심화보충 등을 위해 필요하며, 교사들의 단원 파악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긴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원의 주안점과 추구하는 가치·덕목에 따라 그것에 가장 적절한 교과서 체제·구성을 도모하는 것도 또다른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된다. 예컨대, 한 가치·덕목 중심 단원 편성에서 여러 개의 가치·덕목이 통합적으로 내포된 주제 중심의 단원 편성을 시도해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즉, 가치판단 수업을 2개 차시로 하는 경우, PBL 학습을 통해 도덕적 지식·이해 및 행위 기능 익히기와 실천 체험을 엮어 3개 차시로 하는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치분석 수업모형에 의거하여 2차시 가치판단 수업을 위한 교과서 체제·구성은 다음과 같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이 3차시 PBL 수업식 교과서 체제·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원당 4차시 투입이라는 일률적 편성보다는 주제와 학습 설계에 따라 탄력적 차시 편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정된 시수 편성보다 단원에 따라 탄력적인 시수 배당을 허용할 경우 주제에 따른 단계별 필요 시수 활용이 가능해지므로 단원의 목표 달성에 적절한 시간 배당이 용이해지고 양이 많거나 적은 데서 오는 수업 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정의공동체 접근 등과 같이 많은 시수의 투입이 요구되는 단원을 구성할 때 아주 유리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율형 단원 구성의 추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도덕과 수업에 대해 사전에 교재 연구 등을 수행한 후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도덕과 지도와 관련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형 방식의 단원 체제·구성을 도모할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 및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 등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5. 학습 보조물과 편집·디자인

가. 교과서 학습 보조물¹²⁶⁾

앞의 남미 AW 교과서 및 여타 나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효과적인 교과서 보조물을 도덕 학습의 효

126) 조주연·유병열, 앞의 연구보고서, pp. 116-120.

과를 크게 증대시킨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양질의 교과서 학습 보조물을 적절히 개발하여 잘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 대해 학습 보조물이 필요한지를 묻은 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아래 <표-V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은 도덕 수업을 위해 도덕 교과서에 학습 보조물들을 담아 제공하는 것에 대해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학습 보조물은 가급적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VI-8> 도덕 교과서에 학습 보조물들을 제공해 주는 데 대한 견해

좋은 도덕수업을 위해서는 도덕과 교과서에 학습 보조물들(붙임딱지, 낱말맞추기, 말판, 체크리스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못한 편이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177(29.1)	240(39.4)	102(16.8)	56(9.2)	15(2.5)	20(3.3)	0(0)	610(100)
성별	남자	55(25.5)	85(39.4)	37(17.2)	24(11.2)	9(4.2)	6(2.8)	0(0)	216(100)
	여자	122(31.3)	155(39.8)	65(16.7)	32(8.3)	6(1.6)	10(2.6)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업별	교사	118(30.9)	145(37.9)	64(16.8)	35(9.2)	9(2.4)	12(3.2)	0(0)	383(100)
	부장교사	46(26.8)	74(43.1)	31(18.1)	15(8.8)	3(1.8)	3(1.8)	0(0)	172(100)
	교감·교장	3(23.1)	7(53.9)	1(7.7)	1(7.7)	1(7.7)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1(33.4)	1(33.4)	0(0)	1(33.4)	0(0)	0(0)	0(0)	3(100)
	교수	2(11.2)	10(55.6)	3(16.7)	2(11.2)	1(5.6)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5(45.5)	1(9.1)	3(27.3)	1(9.1)	1(9.1)	0(0)	0(0)	11(1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2(22.3)	1(11.2)	0(0)	1(11.2)	0(0)	5(55.6)	0(0)	9(100)

문제는 불필요한 학습 보조물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도덕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붙임딱지인데, 이는 3-4학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5-6학년에서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만들어 제공하더라도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크기, 모양, 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붙임딱지를 다양한 재질, 밝고 예쁜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보조물을 제공하되 단원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보조물만 활용하며 그 빈도와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시간의 수업주제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알맞은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자료를 개발, 제공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에컨대, '성실'이 주제일 경우 가치·덕목 습관화를 위한 3단계 붙임딱지, '우정'이 주제일 경우 친구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엽서 또는 편지지, '가족'이 주제일 경우 효도상장 양식, '나라사랑'이 주제일 경우 태극기 붙임딱지를 학습 보조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도덕생활실천점검표 같은 것은 그 수업 시간에 활용이 필요한 것이라면 단원 내에 위치시키도록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 사용법을 친절히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들기나 조작물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쓰임에 맞는 재질과 크기를 갖추도록 하여 너무 약하거나 작게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보조물이 많을 경우 교과서가 두껍고 무거워지게 되므로 할 수 있는 한 그 양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 학습 보조물로서의 e-교과서 개발

앞으로 학습 과정에서 인터넷은 그 활용도가 더욱 배가 될 것이고, 테블릿 PC가 대중화 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발맞추어 교과서의 모습에 변화가 필요하므로 도덕과 분야에 e-교과서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즘 학습자들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매일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e-교과서를 제공해 준다면 더욱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도덕과에서의 e-교과서 제공은 종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화 및 인격교육적 감화 이야기 자료를 글 뿐만이 아니라 노래, 애니메이션, 내러티브 자료, 가치 실천의 모범 사례, 인격적 모델링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제공해 줄 수 있음은 물론 여기에 감동적인 음악이 가미된 동영상, 신체 활동 자료, 만화, 사진 등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이 교과서에는 담을 수 없는 자료를 e-교과서에 담아 주 교과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 등과 같은 보조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과 연계하여 가장 최신의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접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것과 학교에서 마치지 못한 내용을 가정생활이나 자율학습 시간으로 연계하여 보충심화로 확대 발전시킬 수도 있게 된다.

다. 교사용 CD-ROM·DVD의 제공

가치규범의 내면화와 행동 실천화를 지향하는 도덕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질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교사용 CD-ROM/DVD를 제공,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절실한 일이 된다 하겠다. 즉, 아래 <표-VI-9>에서 보듯이, 좋은 도덕 수업을 위해 수업 자료, 동영상, 참고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이 담긴 교사용 CD-ROM이 필요한지 묻은 데 대해 7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정도는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리고 도덕교육에 경험이 많은 교사들일수록 도덕과 학습지도의 성패는 얼마나 적절한 양의 양질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생생한 느낌과 감동을 실제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EBS ‘지식채널e’, KBS ‘TV동화 행복한 세상’, 공익광고, 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에 있는 동영상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와 감동을 주는 영상들을 덕목별, 단원별로 모아서 CD에 담아 교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면 도덕 수업의 질을 높이고 도덕학습의 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이야기 자료들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보고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화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깨달음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D나 DVD자료로 제공할 경우 종래의 종이 자료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덕 수업 시간에 긴요한 이야기 자료, 읽기 자료, 역할놀

이 대본 자료, 교수·학습 지도안, 수행 평가 자료, 지도서 부록 자료 등등을 CD나 DVD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도덕수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복사를 하거나 인쇄해야 할 자료들을 CD나 DVD에 담아서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편의를 돕고 원활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동원되는 종이 자료나 붙임딱지 등의 학습 보조물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표-VI-9>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 교사용 CD-Rom제공 필요성에 대한 반응

좋은 도덕 수업을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자료, 동영상 자료, 참고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이 담긴 교사용 CD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못 한 편이다	전혀 그렇 지 못하다	무응답	기타	계
성별	전	240(39.4)	213(35)	85(14)	37(6.1)	17(2.8)	18(3)	0(0)	610(100)
	남자	92(42.6)	65(30.1)	35(16.3)	13(6.1)	4(1.9)	7(3.3)	0(0)	216(100)
	여자	148(38)	148(38)	50(12.9)	24(6.2)	13(3.4)	7(1.8)	0(0)	390(100)
	무응답	0(0)	0(0)	0(0)	0(0)	0(0)	4(100)	0(0)	4(100)
직업별	교사	150(39.2)	133(34.8)	56(14.7)	22(5.8)	11(2.9)	11(2.9)	0(0)	383(100)
	부장교사	68(39.6)	57(33.2)	26(15.2)	12(7)	6(3.5)	3(1.8)	0(0)	172(100)
	교감·교장	8(61.6)	5(38.5)	0(0)	0(0)	0(0)	0(0)	0(0)	13(100)
	교육행정·경영가	0(0)	2(66.7)	0(0)	1(33.4)	0(0)	0(0)	0(0)	3(100)
	교수	6(33.4)	9(50)	3(16.7)	0(0)	0(0)	0(0)	0(0)	18(100)
	연구원 및 전문가	6(54.6)	4(36.4)	0(0)	1(9.1)	0(0)	0(0)	0(0)	11(100)
	그 외	0(0)	1(100)	0(0)	0(0)	0(0)	0(0)	0(0)	1(100)
	무응답	2(22.3)	2(22.3)	0(0)	1(11.2)	0(0)	4(44.5)	0(0)	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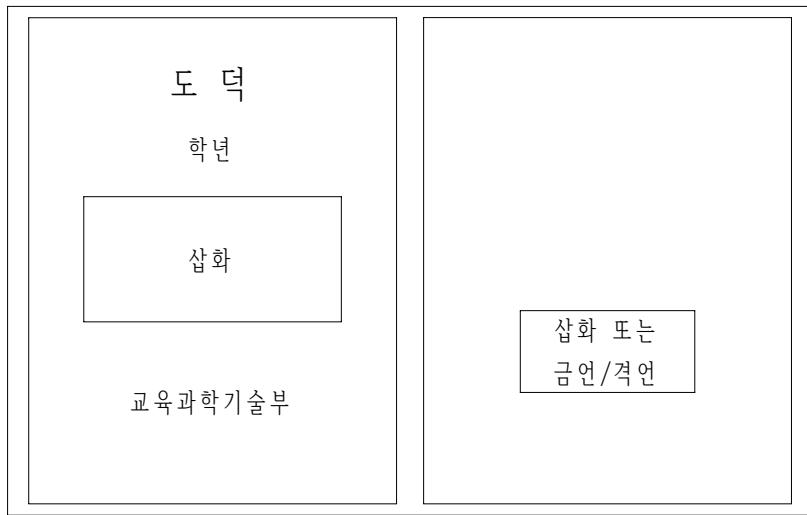
라. 교과서 편집 및 디자인

1) 교과서 표지

도덕 교과서의 앞표지 앞면에는 아래 <그림-V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명과 사용 학년 등의 표시와 삽화 및 발행기관이 담기도록 한다. 이 때 교과서 명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덕’으로 하며 그 아래 중앙에 사용 학년을 표기한다. 삽화는 해당 학년에서 배우는 가치·덕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 생활 모습을 담아내도록 하되 그림이 산뜻하고 세련되며 고급스럽게 하여 표지만 보아도 친근하고 맑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

교과서 앞표지의 뒷면은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를 실을 경우 이 자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앞표지와 목차 사이의 속지 앞면에는 도덕 교과서의 본질을 살려 태극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실어 학생들의 애국심과 건전한 국가관을 기르도록 하고, 뒷면에는 학년에 따라 대표적인 도덕학습 거리를 실도록 한다¹²⁷⁾.

127) 현행 도덕 교과서의 경우 3, 4학년에는 위대한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5, 6학년에는 율곡 선생과 퇴계 선생을 각각 실고 있다.



<그림 -VI -6> 도덕 교과서 앞표지와 뒷표지(안)

책의 본 내용이 끝나는 가장 뒤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참고자료 목록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뒷표지 안쪽 면에는 교과서 편찬 연구진과 단원별 집필진 및 심의진 성명과 소속을 밝혀 교과서 집필의 실명제를 구현하고 책무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출판사와 출판년도 등 서지사항을 표기하도록 한다. 책의 뒷표지 바깥쪽에는 간단한 삽화를 작게 배치하고 사용 학년 등을 표시하여 해당 도서의 식별을 쉽게 하도록 배려하도록 한다.

2) 판형

판형은 현재와 같이 46배판(182×257mm)으로 하여 학습하기에 알맞은 크기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덕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국판으로 개발해왔으나 책이 작고 웅색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46배판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학교 현장 교사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앞의 제Ⅲ장-제Ⅴ장의 외국 교과서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덕·인성교육 교과서들은 최소한 크라운판 이상의 크기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아시아권에서 도덕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의 경우 모두 최소한 크라운판 이상의 판형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영국과 독일, 북남미의 미국과 남미의 AW 등의 경우에도 도덕 교과서들은 내러티브 자료와 다양한 활동 등을 담기 위해 판형이 대체로 크라운판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과 교과서를 46배판으로 하게 되면 한 쪽 당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단원과 차시별로 투입되는 쪽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 교과서의 두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과서 내부의 편집을 시원하고도 아기자기하게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활동이나 자료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 배치할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도덕 교과서를 현재와 같이 국판보다 큰 46배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3·4학년과 5·6학년을 달리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 공히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적 보충심화 학습 부분을 부록 형태로 제시할 경우에는 분책이 가능하도록 편집, 구성하여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학습 보조물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급적 양을 줄여 가벼운 교과서로 개발하도록 한다.

3) 교과서 내부 편집과 디자인 등

편집 구성의 원칙은 체계적이면서도 시원하게, 압축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학생들의 시각적 관심을 끌고 도덕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까이 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에듀테인먼트적 요소도 가미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양을 실어서 답답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중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실어서 교과서 자체가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이며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단순한 텍스트의 나열이 아니라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색깔, 크기, 위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편집이 연출되도록 하고, 학년이나 차시 또는 수업 과정상의 단계별로 그에 맞는 캐릭터나 아이콘 등을 등장시켜 학습과정과 수업을 안내하도록 편집한다.

교과서 내부는 기본 체제의 경우 위와 아래 여백을 각각 250mm 정도로 하고 좌우 여백은 200mm 정도로 하며 역시 머리말은 두지 않으나 꼬리말은 두어 책 종류와 단원을 쉽게 구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하와 좌우 날개의 여백을 두되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편집 구성하도록 한다. 글자의 크기는 3·4학년의 경우 13p로, 5·6학년의 경우는 12p로 하고 본문은 기본적으로 신명조 또는 바탕체로 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문 외의 부가 부분에는 두세 가지의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울림과 조화를 추구하고 줄간격은 180% 이상 확보하여 시원하게 구성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교과서를 구성하기보다는 여유 있으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알찬 모습으로 구현되도록 편집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에 맞는 학년별 표준 포인트, 자간, 장평 등을 준수하며, 쪽수별(혹은 차시별)로 최대 글자 수를 제한하여 과도한 텍스트가 제시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쓰거나 기록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학생 자신의 생각과 도덕적 감정을 ‘정성껏’ 쓰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글상자 및 글쓰기 공간을 세심히 배려하여 구성한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도록 충분한 재정적 투자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안목과 능력을 지닌 연구 편찬진, 디자이너, 사진가 및 출판사의 참여에 의해 도덕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삽화의 경우 최대한 전문적 삽화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얻어 질 좋고 수준 높은 삽화를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아름답고 멋진 삽화와 사진을 수록하여 현재보다 고급화를 추구하고 단원별 패턴을 다양하게 하여 학습 흥미도 제고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삽화를 보다 밝고 산뜻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그림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예쁘고 아름답게 구성한다. 그리고 색깔과 채도를 부드럽게 하여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교과서가 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삽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지면에 꽉

차도록 하여 답답하게 구성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삽화만 신도록 한다. 나아가 삽화와 사진이 너무 교과서 틀 속에 갇히게 하기 보다는 지면의 상하와 좌우 여백까지 최대한 활용, 배치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원하면서도 여유있고 다양한 편집이 연출되도록 한다.

사진의 경우 가급적 원본을 사용하여 색감과 사실성을 높게 구현하도록 하며, 화면 캡처나 복사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원본 수준의 형태와 색감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르되 가급적 현재보다 좋고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한다.

6.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가. 교사용 지도서의 필요성과 활용

도덕 교과서를 활용하여 제대로 된 도덕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양질의 교사용 지도서를 제공해 주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표-VI-10>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및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한 반응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구분	늘 활용한다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50(8.2)	171(28.1)	192(31.5)	139(22.8)	42(6.9)	16(2.7)	0(0)	610(100)
지도서의 활용도가 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좋은 도덕 수업은 하는데 도움 많이 받는다	지도서의 구성이 체계가 편해서 이용하기 쉽다	도덕과 교재가 연계를 맺고 있음에 도움이 된다	도덕 교육적 전제나 내용 등이 교육적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음	무응답	기타	계	
전체	79(13)	86(14.1)	217(35.6)	35(5.8)	189(31)	4(0.7)	610(100)	
지도서의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별로 관심 없어	지도서에 담긴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지도서의 구성이 체계가 편해서 이용하기 쉽다	지도서를 보고 싶어하거나 내용을 보거나 할 여력이 없음	무응답	기타	계	
전체	47(7.8)	129(21.2)	75(12.3)	218(35.8)	134(22)	7(1.2)	610(100)	
현행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가 도덕과 교육을 수행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구분	매우 그렇.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못한 편이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무응답	기타	계
전체	51(8.4)	225(36.9)	203(33.3)	98(16.1)	19(3.2)	14(2.3)	0(0)	610(100)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사용 지도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묻은 결과 위 <표-VI-10>에서 보듯이 자주 활용하는 정도가 36.3%,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31.5%, 그리고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29.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현장 교사들 중 약 68% 정도는 교사용 지도서를 그런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용 지도서를 잘 활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은 데 대해 35.6%가 도덕과 교재연구 및 연구 수업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에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35.8%가 지도서를 보고 연구하거나 준비를 할 시간, 여유 등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결국 좋은 도덕 수업의 연구 및 실행을 위해 그리고 연구 또는 준비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게 되면 교사용 지도서를 적극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45.3%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고 그저그렇다는 응답 33.3%를 더한다면 대체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용 지도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잘 구성된 양질의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제공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고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교사용 지도서의 외형과 체제·구성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외형 체제와 관련하여 판형은 46배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도덕 교과서와 판형을 맞추고 지면을 넓게 하여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편집과 구성을 여유 있고 시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서의 권수는 종래와 같이 교과서와 1:1 대응이 되도록 개발하여 현장 교사들의 도덕과교육 수행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효율적이고도 충실하게 담보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덕 교과서가 학년당 1권이면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로 학년당 1권으로 개발하게 된다.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전체 구성은 <표-V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편인 총론과 지도의 실제 편인 각론, 그리고 참고자료 부분인 부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같은 점은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드러났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 총론은 80쪽 내외, 각론인 지도의 실체는 272쪽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1개 차시당 최소한 지도서 8쪽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 각각에 대해 8개씩 주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 34쪽(도입 2쪽, 차시별 지도의 실제 8쪽 × 4차시 = 32쪽)이 되고 이것이 8개 단원이 되기 때문에 각론 부분은 총 272쪽 정도가 된다. 여기에 부록을 약 30쪽 정도로 하면 3·4학년과 5·6학년 공히 지도서 1책당 총 쪽수는 382쪽 정도가 되며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20%를 가감하도록 하게 되면 적절한 양을 지닌 교사용 지도서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함에 있어 그것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용 중심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의 도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해설, 도덕과 학습지도 및 평가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안내, 도덕과 수업에 대한 예시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자기 연수와 전문성 증대への 기여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상 논의한 바들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 <표-VI-11>과 같다.

<표-VI-11> 교사용 지도서의 체제·구성과 내용

제1부 총론					
1.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					
2.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해					
3.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4. 도덕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방향과 체제·구성 및 활용					
5.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내용 분석과 지도 계획					
제2부 지도의 실제					
단원명					
1. 단원의 개관 및 계열					
2. 단원의 목표					
3. 단원의 내용구성 및 체계					
4. 차시 계획					
차시 제재명					
차시	1	2	3	교과서 쪽수	생길 쪽수
1. 교수·학습 목표					
2. 교수·학습 개요					
3. 관련 도서·사이트 및 지도상의 유의점					
4. 교수·학습 과정안					
5. 교수·학습 해설					
7. 참고 자료 및 수행 평가 안내					
제3부 부록					
1. 주요 가치·덕목 지도 및 예화 자료					
2. 덕목 관련 도서 및 사이트					
3. 교수·학습 방법 자료					
4. 기타					

다. 총론: 이론편 구성

위 <표-VI-11>에서 보듯이, 지도서의 앞부분 즉 제1부 총론 부분에는 도덕(과)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안내들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초등 도덕과 교육의 도덕철학적, 도덕심리학적, 도덕교육학적 이론 기초를 담는 것이 그 하나가 된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과 교육이 왜 필요하며 무엇을 하고자 하

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의 주요 접근 이론들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해 가며 이로부터 어떤 도덕교육적 원리들을 시사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교육학 분야에서 어떤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이들이 현재 우리의 초등 도덕과 교육에 어떻게 연결 내지 반영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한 것들을 담는 것이다.

둘째,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담도록 한다.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정신과 방향, 교과와 성격과 목표, 가르칠 내용과 방법 및 평가 상의 원리 등에 대한 안내가 그것이다. 이 때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와 목표 및 내용, 방법과 평가 원리들이 도덕 교과서의 차시별 제재들과 어떻게 연결,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교실 및 학교생활 속의 도덕교육으로 어떻게 연계,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도덕과 교육과정이 문서 수준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도덕과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수준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예시하고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도덕과 교수·학습의 본질과 특성, 학습지도의 원리와 방법, 교수-학습 모형, 학습 자료, 평가의 이론과 실제, 도덕수업의 사전 연구와 설계, 도덕과 교과용 도서, 학년별 도덕과 교육의 지도계획 등등에 대한 안내들을 수록한다. 현행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도덕과 수업을 실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안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도덕과 수업의 일반 모형이나 그 외의 여러 수업 모형을 제공함에 있어 교사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여 적용하기에는 적지 아니 미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모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식과 활용 안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이론적 기반, 체제·구성의 원리와 실제, 그 활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주어져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못지않게 그 평가에 관해서도 안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현행 지도서를 보면 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적 이해를 도울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앞 총론 부분에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수업연구와 설계 등등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들이 고르고 균형 있게 담기도록 해야 하리라고 본다.

라. 각론: 지도의 실제편 구성

넷째, 교사용 지도서의 제2부 즉 지도의 실제 부분에서는 각 학년별 단원에 따른 안내와 차시별 수업안의 예시, 참고 자료, 자율장학과 연관 자료 등등이 담기도록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단원 설정의 배경과 취지, 관련 가치·덕목과 지도 요소에 대한 해설, 지도의 주안점 및 계열, 단원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의 구조와 하위 내용들 및 교과서 관련 부분, 차시 배당 계획, 각 차시별 수업예시안, 평가의 관점과 내용 및 방법·도구에 대한 안내, 학습지 등의 수업용 자료와 교사용 참고자료 등은 거의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단원 설정의 취지와 지도요소 및 지도의 주안점 등을 해설하고 안내해 주는 부분, 지도내용의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 평가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부분 등에서 미흡함을 크게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하여 보다 개선된 지도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단원에서 차시별 수업지도를 예시하는 부분을 구성할 때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된다. 우선,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고 수업을 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안 보고도 지도서만으로도 수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모되어야 하는데, 한 예로 지도서의 한 단원을 도입 - 차시별 수업 안내 및 참고자료 제시의 개념에 따라 구성하여 교사들이 단원 구조와 지도의 흐름을 쉽고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편집 구성하는 일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차시분의 수업예시안은 지도서를 펼쳤을 때 좌우 양쪽 면에 모두가 담기도록 개발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참고하기가 편리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양을 많지 않게 하면서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방법의 특장점 및 운용 방법, 대안적 활동, 강조점 및 유의점,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읽을 예화나 과제, 간단한 수행평가 자료 등등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수록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아가 편집에 있어서 도식화나 압축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여 한 눈에 들어오는 시원스러운 편집 체제가 되도록 하며, 차시별로 수업에 이용되는 보충자료와 참고자료를 필요한 위치에 적시에 제시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색깔을 2도 이상으로 하고 도표, 삽화와 사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내용 파악이 쉽고 아름답고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하여 현장 교사들이 가까이 두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수업예시안 부분을 집필할 때는 사전에 한 단원 전체 수업을 연구하여 구상하고 수업 전개 및 정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후, 그 차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통 도덕 수업을 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울 내용을 선정, 조직하게 된다. 이어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수업 과정과 절차를 따라 전개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르칠 것인지 등을 구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을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입하고 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전체 수업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하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전반에 걸친 기본 계획을 먼저 충실하고도 면밀하게 세우고 수업예시안 부분을 개발함으로써 바람직한 수업예시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어떤 수업모형을 적용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담아주고 이를 잘 운용하도록 이끄는 일, 중요하고 적절한 발문들을 잘 담는 일, 재미있고도 유익한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 자료들을 잘 제공하는 일 등등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차시별 수업의 실제 부분에서 형식과 구성면, 수업 전개와 발문,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및 자료, 평가 예시, 참고 자료 등을 보다 양질화하여 담고, 수업 절차와 과정에 맞게 단계적 수업안을 제공하는 한편 도덕교육 관련 이론과 실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Tip과 Point 등을 두어 안내와 지원을 하는 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도덕 수업을 하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축쇄본을 싣고 차시별 편집과 내용 배열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 교과서상에 등장해 있는 질문이나 탐구 문제 등에 대해 실제적인 답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는 일,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읽을 거리를 제시하여 토론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꼭 필요하고 유

용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단순하고 단편적인 질문들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질문을 정제하고 정선하는 일,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관련 이론이나 보완 자료를 명시하여 교사로 하여금 이해하고 전달하기 쉬운 교재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된다.

또한,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많이 나온 의견으로서 도덕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수업에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의 흐름 속에서 단계별 또는 계기별로 재미있고 유익한 교수·학습활동의 실제 모습과 사진들을 지도서에 제시하여 교사로 하여금 수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좋은 도덕과 수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업 방법과 기법들에 대해 그 이론과 실제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주변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재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현실에서 유용한 도덕적 토론이나 문제해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수업 방법을 안내해주는 일도 시도해 볼만 하다.

또한 지도서에는 수업의 흐름에 맞추어 답을 제시하고 그 순간에 필요한 교사의 태도나 유용한 Tip을 현실감있게 제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차시 수업에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나 관점을 Point로 제시하여 수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제로 학교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또 종종 요긴하게 활용하는 도덕과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다 실제적이고도 유용하게 제시해 주고 평가 자료와 수업 자료, 참고 자료 등을 분류해서 과정안에 모두 실어줌으로써 교수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가 도덕 수업을 계획하고 실제 지도하는데 유용한 교과서 중심의 기본적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육과정을 재해석한 내용과 방법이 담긴 창의적·대안적 교수학습 과정안을 같이 지원하는 일과 같은 방안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방법에 대한 안내와 흐름을 한 가지가 아닌 두세 가지를 대안수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 교사의 실제적인 수업에 바탕한 다양한 지도안을 제공해 주는 일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지도의 실제 부분과 관련하여 특히 수업의 흐름과 주요 교수·학습 활동을 짜임새 있게 제공하여 수업자로 하여금 전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착실하게 하는 한편 신뢰성 있고 도덕과 학습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도서 목록과 인터넷 사이트 등도 제공하여 창의적인 수업 구안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주요 가치·덕목 지도 및 예화 자료, 가치·덕목 관련 도서 및 사이트, 교수·학습 방법 자료 등 다양한 수업 지원 자료들을 담아주는 것이 좋다. 이는 보조 교과서를 두지 않을 경우 더더욱 필요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남미의 도덕 교과서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각 단원별 차시별로 학습지 등을 제공하게 되면 부록에는 대안 차시를 위한 수업 자료를 비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교사들을 위해서는 자율연수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정보, 자료 등을 부록에 담아 제공해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 다양한 수업 지원과 교사의 전문성 심화에의 기여

좋은 도덕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컨대, 수업용 자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잘 개발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를 바로 복사하든가 적절히 조작하여 수업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리고 특히 현장 교사들과의 대담이나 의견 조사를 해보면, 각 제재별로 좋은 읽기 자료나 동영상 자료 또는 기타 여러 자료들과 좋은 도덕수업안들을 CD-ROM으로 제작하거나 특정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매우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류의 지원들이 최대한 그리고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 방법 등을 제공하는 일, 좋은 도덕 수업이나 도덕교육 사례들을 잘 소개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는 일, 학생들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학생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화들을 수집하고 이를 차시별로 정리하여 차시 안내 또는 부록에 탑재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 또한 널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들의 도덕교육적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연구나 연수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도덕교육 개선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덕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동향이나 이론적 변화, 지도의 실제, 연구 결과, 학생들의 도덕 발달 특성 및 이에 따른 도덕과 교수·학습전략 등 다양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도덕교육 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보여주고 해설해 줌으로써 이론과 실제간의 연계성을 높여 창의적인 도덕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도덕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제 사례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교과와 관련된 수업연구를 위해 실험설계와 연구절차 등을 안내하여 다른 교과와 차별화 되는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일도 필요하다.

나아가 교사를 위한 도덕교육적 난제나 그 해결 정보들을 안내하여 교사로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고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수업을 창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덕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의 심리나 발달단계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차시별 안내에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이 높고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동기유발이 도덕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각 단원의 동기 유발 부분을 특화하여 지도서에 목록으로 기재하여 양질의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 권위적인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업 사례 및 정보들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일, 도덕수업에 유익한 책이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좋은 도덕수업 활동이나 방법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안내하여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설계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 등등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된다.

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와 개선점을 밝혀내고 주요 외국의 도덕교육 교과서들을 탐구하여 그 시사점을 얻어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형성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에 공헌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되고 타당한 교과서 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일 및 도덕 교과서 선진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고 탐구하였다. 첫째, 현행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로 되어 있는 통일교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그 장단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우리의 통일 교과서 및 외국 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바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의견 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도덕 교과서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는 바,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국내 통일 교과서 및 주요 외국의 도덕 교과서 분석, 문헌 연구, 설문지에 의한 의견 조사, 그리고 도덕교육 전공 현장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네 가지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이 때 교과서 분석은 국내 통일교육 교과서 6권, 북남미 지역의 미국 및 베네수엘라 중심의 남미 교과서 8권, 유럽 지역의 영국 교과서 2권과 독일 교과서 8권,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중국 교과서 12권과 싱가포르 교과서 6권 등 총 42권의 국내외 교과서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전국의 현장 교사와 학교 경영자와 도덕교육 전문가 등 6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층면접은 도덕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전국의 집필진 중 56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통일교육 교과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인정 도서인 초등학생용 『통일』6권과 중학생용 『북한의 이해』2권을 분석하였다. 이 때 분석 기준은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서』와 서울시교육청의 ‘인정도서 심사기준’ 주요 준거로 삼았다.

분석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통일교육 인정 도서들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영역인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중에서 주로 북한 이해 부분에 상당한 정도로 치우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용의 표현에 있어, 제목이나 선정된 내용이 북한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북한관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으며, 집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학습자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학습을 제한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 대상이 된 통일교과서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 이해에 주안점이 두어져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 과연 인정도서로서의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 외국의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남미 지역의 경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에서는 볼머(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여사 및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세계가정연합회(AFF) 그리고 남미가정연합회(ALAFA) 등이 청소년들을 위한 강력한 도덕·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바로 **Alive to the World(AW)**이다. 이 AW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들(6-18세)을 대상으로 하는 인격발달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바람직한 기능 및 습관들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접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책임있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남미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AW는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두 가지 기본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학습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 존재가 전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앎(Knowing), 수용(Accepting), 행동(Doing)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 발달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서 유기적 통합체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인간 행동의 4가지 차원에서 가치교육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다. 생물학적 행동 수준, 심리학적 행동 수준, 지적·정신적·영적 행동 수준, 그리고 사회적 행동 수준이 그것이다.

이러한 AW의 교과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학년당 교과서 1권이며 학기 구분과 보조 교과서는 없다. 대신에 보조자료의 기능을 하는 활동자료들이 초등 저학년에서는 교과서 각 장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는 각 책의 말미에 부록 형태로 제공되어 있다. 교과서 1권은 1년을 35주로 계산하여 주당 1개 장씩 총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개 장에 1-2시간씩 투입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AW 교과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및 시사점 중의 하나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제12권까지 모두 책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1권부터 제12권까지 찰리와 앨리스라는 두 주인공 및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를 놓고 토론하고 탐구하면서 가치를 배우고 덕과 인격을 길러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 방식은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에의 자기관련성과 몰입성을 높여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루는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학생들 속에 기르고자 하는 가치·덕성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실체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과 시사점이 된다.

AW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엮어 있는데, 중심 이야기 부분, 보충심화자료 부분, 그리고 활동 자료 부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매 단원 매 차시마다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면서 보충심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탐구와 활동체험에 의한 학습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 유형면에서는 설명형과 탐구형 및 활동체험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덕과 인격의 지·정·행 측면을 조화롭게 기르는 데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의 AW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는 인격·덕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기, 인간 육성과 인격·덕의 함양에 대한 전체적, 포괄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기,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교육내용들을 가르치기, 학생 중심의 교과서 개발을 보다 투철하게 추구하기,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

된 교과서를 개발하기, 교과서 구성에 있어 기본형과 자율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교과서 편집에 있어 지면을 넓게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여유있고 시원하게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대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도덕교육이 정규 교과가 아닌 인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주정부의 책임 하에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미국에서 인격교육을 법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주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주 19개 주,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인격교육을 지지하는 주 7개주, 특별한 언급이 없는 주가 8개이다. 법으로 정해 인격교육을 실시하는 주에서는 각 학교 별로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인격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서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격교육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서를 활용하여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덕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격교육 협회 혹은 개별 학교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활용해 인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격교육용 교과서의 특징은 활동 중심의 워크북이 많다는 점이다. 교과서 구성에 있어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미국 인격교육과 교과서의 시사점으로는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증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의 인격교육에서도 인격의 핵심이 되는 덕목 혹은 가치들을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야기 중심의 인격교육 방법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귀감이 되는 이야기 혹은 갈등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읽을거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 숙고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도록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격교육은 특정 과목을 통해 교육하기보다는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교과는 물론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격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통합적 인격교육의 노력은 한국의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나아가 미국 인격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 볼 점이다. 즉, 왕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인격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국이 참여하는 민주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본받을만한 점이 된다. 즉, 전국에서 우수한 인격교육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며 이를 다시 학교로 보급하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인격교육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으로는 교과서 구성의 자율화를 추구하기,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 현장 연구 대회를 거치면서 검증된 도덕적 사례들을 담기, 충분한 교과서 개발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온전한 교과서를 만들어내기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지역에서 영국의 경우 영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특징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에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나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검정교과서가 없다. 영국의 도덕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의 형태로 독립 교과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1, 2(Key Stage 1, 2)에서는 비법정 교과이기 때문에 시민

교육만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가 없으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 3, 4(Key Stage 3, 4)에서는 법정 교과로서 독립된 교과서를 갖고 있다.

이 3, 4단계를 위한 교과서는 『이것이 시민성이다』(*This is Citizenship*)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시리즈 형태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제1권(Year 7), 제2권(Year 8), 제3권(Year 9)으로 구성되어, 영국 국가 교육과정 상 핵심 단계 3에 해당되지만, 1권, 2권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 대비할 경우 초등학교 5, 6학년 연령에 해당된다.

영국의 도덕 교과서인 시민교육 교과서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도덕 교과서는 도덕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된다. 반면에 인간의 본질, 도덕 판단의 원리, 윤리 사상 등에 관한 학습 주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도덕 교과서는 학생들이 직접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교육을 통해 시민성 향상에 주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가치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도덕 원리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각 소단원이 전체적으로 주요 주제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토론, 역할놀이 등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된다. 즉, 영국의 도덕 교과서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평가, 대안들의 비교 및 평가 등 토론 위주의 협동학습을 위해 꾸며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 및 가치 판단을 제시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 선택과 판단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유럽 사회의 토론 위주의 교육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서 학생들의 협동학습, 토론학습, 자율적 가치 판단 등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상 영국의 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향후 우리 도덕교과서 개발 방향과 방안들로서는, 첫째 도덕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력을 강조함으로써 도덕교과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적 가치·덕목 요소들을 적정 수준에서 선정하고 조직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둘째 가치 관계의 확장에 따른 교과서 단원 구성을 도모하고 단원별 쪽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학생들 간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그러한 토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덕 문제와 관련된 주요 도덕적 관점들의 장·단점을 교과서 내에 제시해볼만 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도덕교육은 대부분의 주에서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체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과에 비해 가치중립적이고 세속적인 윤리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도덕교육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도덕교육이 초등학교(1-4학년)에 개설된 주는 바이에른(Bayern) 주를 비롯한 총 6개 주이며, 5-6학년에 개설된 주는 브란텐부르크(Brandenburg) 주를 비롯한 총 7개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6학년 사이에 도덕교육이 개설된 주는 독일의 16개 주들 중 총 13개주에 달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는 현재 도덕교육이 교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도덕 교과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단원의 제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단원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즉, 단원명이 한 단어, 평서문, 의문

문, 감탄문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단원의 제목도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5-6학년용 교과서인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단원별 교수법을 소개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독일 도덕 교과서는 구성과 내용에서 도덕적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 독일 사회의 주요한 종교인 가톨릭과 기독교에 토대를 두는 경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보호에 초점을 두면서 세계화 시대의 인권, 정의, 제3세계 문제(원조) 등 다양한 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과 구성의 다양성을 잘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도덕 교과서는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 토론 중심으로 꾸며져 있어 전반적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독일의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방향,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적 분량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고,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학습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삽화와 사진의 활용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의 보조 교과서인 학생용 활동서(Arbeitsheft)를 고려해 볼 때, 우리도 『생활의 길잡이』와 같은 보조 교과서의 주 교과서와의 내용 연계도를 높이고 적절한 분량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교수-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는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문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높이는 인지 중심의 내용 구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을 보면 중국의 경우 교육과정 개혁은 학습 방식과 교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식 전수를 중시하는 경향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학습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이 정확한 가치관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교과목 구성은, 저학년에서는 품덕과 생활, 어문, 수학, 체육, 예술(음악 혹은 미술) 등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고학년에서는 품덕과 사회, 어문, 수학, 과학, 외국어, 종합실천활동, 체육, 예술(음악 혹은 미술) 등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도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 교과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설치된 교과로 초등학교 3-6학년의 『품덕과 사회』(品德與社會), 중학교의 『사상품덕』(思想品德), 고등학교의 『사상정치』(思想政治)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품덕과 생활』(品德與生活)은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당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26시간이다. 『품덕과 사회』 교재 편찬 역시 과정표준을 근거로 하며, 종합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각 학년별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당시수는 ‘의무교육과정 설치 시험 방안’ 중의 과정 설치를 근거로 할 때, 대략 30시간이다.

이러한 중국 도덕 교과서의 특징이 우리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등으로서는, 먼저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 과정표준(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課程標準) 연구 제작의 기본 사상으로서, 생활 속에서의 품덕 배양, 아동의 현실생활에 관한 관심, 아동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정감·태도·행위습관·지식 기능 배양의 내재적 통일, 자주적이며 탐구적인 학습 창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도덕 교과서의 경우 바람직한 도덕적 덕성을 기르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 실천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국 도덕 교과서는 아동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품덕이 올바르고, 탐구하기를 즐기며,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아동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형 종합과정으로서 우리의 도덕 교과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탐구적이며 활동체험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도덕 교과서는 생활성, 개방성, 활동성 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교재 편찬의 주요 원칙은 사상성, 과학성, 현실성, 종합성, 활동성 등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학습자료, 생활기록부, 활동재료, 다매체 보조자료, 교사용지도서 등 다원화적인 교학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생활과 밀착된 소재와 자료 및 활동들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고 풍부한 보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덕 교과서 분석 결과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 방안 등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중국 도덕 교과서 『품덕과 사회』교과는 새로운 세기에 중화민족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사상품덕과 사회성 발전에 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식 및 우리의 고유 전통과 사상적 특징이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경우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도덕 교과서는 학생 생활과 사회의 실재에 주의하고, 교학과정 중 학생의 주동적 참여와 자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서로 다른 지역의 특징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고, 상관된 내용을 타당성 있게 확장하며, 각 지역의 생활과 접근된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고려한 교과서 개발 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중국 도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고는 있으나,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교재 편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검정증 체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도덕 교과서가 보다 지역에 맞게 다양화 되고 검정 등과 같은 자율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 인격, 도덕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공식 교과로서 ‘공민과 도덕교육’과목이 있다. 이 과목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그 총괄목표는 자기, 가족,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해 배려심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훌륭한 인격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 공민과 도덕교육의 교육 내용은 훌륭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여섯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핵심 가치는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불굴(resilience), 조화로서 이 가치들을 통해 학생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책임 있는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된다.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명칭은 『공민과 도덕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명으로서 ‘교육’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반하여, 싱가포르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학년년부터 6학년에 걸쳐 학습하는데 주당 수업 시수는 2시간이며 학기 구분이 없이 1년에 1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보조 교과서는 별도로 없다.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단원명이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사형, 명사형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원 구성 방식도 다양하다. 즉, 단원별로 최소 1차시에서 최대 4차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시 수가 존재하며 그런 만큼 차시별로 가치 내용과 관련된 다양

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재의 내용은 만화를 활용해 제시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도덕적 사례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판단과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은 우리나라의 도덕 교과서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독립된 교과로서 ‘공민과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도덕교과를 독립교과로 선정하지 않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교과의 형태로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핵심 가치로서 포괄적인 6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20개의 주요 가치·덕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교사가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예를 들어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 접근, 문화 전수 접근, 내러티브 접근, 관점 채택 접근, 행위 학습 접근, 인지발달 접근, 가치명료화 접근과 같은 특화된 교수·학습 접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만화를 활용해 제시하는 방법, 도덕적 사례를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 도덕적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딜레마 토론의 교재 끝에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도덕판단의 연습을 제공하고 있는 방식 등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싱가포르의 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본 향후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가 있다. 첫째, 싱가포르의 경우 교과서 내에 학습을 위한 워크북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양이 많지 않아 교과서의 쪽수가 100쪽을 넘지 않는다. 향후 도덕교과서를 개발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교과서의 크기를 크게 하면서 전체 쪽수를 너무 많지 않게 하여 학습자의 수준에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 도덕 교과서에서는 가치 요소별, 단위별 쪽수가 일정하지 않고 오직 내용에 충실한 교과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도 향후 단위 및 가치 요소별로 쪽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싱가포르의 설정 가치는 여섯 개에 불과한데, 이렇게 포괄적인 가치 요소들을 정해 놓고 세부 단위에서 보다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상에는 포괄적인 가치 요소를 선정해 놓지만 교과서상에서는 보다 상세화해서 다루는 단위 구성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 국내 통일교육 교과서와 외국의 도덕 교과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통일교육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균형 있는 단위 구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말하자면,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단위 구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단위명을 합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단위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단위명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학년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 선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해당 학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내용 선정 및 진술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판단 과정에서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는 선전 내용은 가능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년 수준에 합당한 표현 방식을 쓰도록 한다. 앞으로 통일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와 일반화가 곤란한 자료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관련 자료 중 북한의 선전용 자료인 경우 이를 명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적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집필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통일 교과서'를 통해 판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과서 발행 제도와 명칭, 권수 등과 관련해서 도덕 교과서의 경우 아직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고 명칭은 종전과 같이 '도덕'으로 하며 권수는 쪽수와 보조 교과서 등을 고려하여 1년에 1권 또는 2권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주당 수업 시수와 관련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와 도덕·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최소 주당 2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조 교과서인 종래의 『생활의 길잡이』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존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의 보조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좋고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조 교과서의 장점과 순기능을 주교과서에 도입,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보조물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보조물을 제공하되 단원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보조물만 활용하며 그 빈도와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보조물로서의 e-교과서의 개발이 도덕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하며 도덕교육의 특성상 교사용 CD-ROM/DVD의 제공 또한 필요하다.

도덕 교과서의 크기와 관련해서 판형은 외국 여러 나라들의 경우와 지면 편집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46배판(182×257mm)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지면 구성의 경우 교과서 내부의 기본 체제는 위와 아래 여백을 각각 250mm 정도로 하고 좌우 여백은 200mm 정도로 하되 여백에 구애됨이 없이 지면을 충분히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도덕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기저로서는 먼저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정신과 교육의 중점을 구현하기 위한 중심 교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시대적, 국가사회적 요구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덕 교과서는 진공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과 유덕한 인격의 함양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 교과서는 도덕교육의 적절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실행되어야 학문적 정통성과 실제적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외 도덕교육계의 지배적인 이론인 인격·덕교육적 접근 이론에 터하여 교과서 개발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도덕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중점으로는 여섯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과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미있게 잘 배우고 즐겁게 익히는 가운데 도덕적 성장을 꾀해가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학습 요소 위주로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과서 쪽수의 제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흥미롭고 다

양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도덕학습 역시 재미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구현되고 감동이 있어야 그 성과 또한 고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생활밀착형의 도덕 교과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생활과 유리된 공허한 논변의 교과서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생활 및 경험과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활동 중심의 탐구형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 여러 나라 도덕 교과서들은 이러한 점에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 도덕 교과서도 보다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과 구성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몸과 정신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도덕 학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활동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도덕 수업이 대체로 교과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에서 좋은 수업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도덕 교과서의 체제·구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인격·덕을 구성하는 지·정·행 세 측면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기본 체계부터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도덕 교과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유덕한 인격의 함양에 있기 때문에 인격·덕을 구성하는 세측면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여 최소한 3측면 6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단원 구성의 통합적 접근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원 체제·구성의 기본 모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한 단원을 도입-전개-정리의 세 부분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입 부분에는 단원명, 삽화, 도입글, 주요 학습 내용 및 단원의 목표 등을 담고 정리 부분은 학습내용의 종합 정리, 마음의 다짐, 더 공부해 보기 등의 세 가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다 핵심에 해당하는 전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 체계를 고려하여 일단 한 단원에 4차시가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 차시의 성격을 기본학습-발전학습1-발전학습2-심화학습의 4단계 심층화 모델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 도덕과 교육과정의 방침에 의하면 한 단원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 기간과 과정을 가치내면화 개념에 의거하여 구안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4단계 심층화 모델의 과정 속에서 덕과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행 3측면 6요소들을 제대로 구현하고 차시별 제재 구성과 단위 수업 시간 운영의 실제적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6하위 모형·교재 유형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여 여러 교재들을 적절히 결합, 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해당 단원의 가치·덕목의 특성과 각 차시의 중점에 따라 적절하고도 다양하며 창의적인 교과서 구성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원 전개 방식 및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1차시 기본 학습 단계에서는 도덕적 지식·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도덕적 심정과 실천 성향을 아울러 추구하기, 2차시 발전 학습1에서는 도덕적 사고·판단력 함양에 중점을 두면서 역시 도덕적 심정과 행동실천력을 강화하기, 3차시 발전 학습2에서는 도덕적 심정과 가치심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식·이해와 생활 속 실천력을 강화하기, 4차시 심화 학습에서는 도덕적 행위기능과 실천 성향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도덕적 지식·이해와 도덕적 심정을 증진하기의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차시별 교과서 개발을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해 1차시 기본 학습의 지식·이해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적 문제의 제시→가치규범의 탐구 및 이해의 심화→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교과서 구성을 차시명→생각 열기→함께 알아 봅시다→마음을 가꾸어 봅시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의 구조로 교과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2차시 발전 학습1의 가치판단·합리적 의사결정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적 문제의 제시→도덕적 사고·가치판단

의 연습→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차시명→생각 열기→바르게 판단해 봅시다→마음을 가꾸어 봅시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3차시 발전 학습2의 도덕적 심정·가치심화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적 문제의 제시→가치규범의 추구와 도덕적 모범탐구 및 감동감화→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면서 교과서 구성은 차시명→생각 열기→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마음을 가꾸어 봅시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로 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시 심화 학습의 도덕적 행위기능·실천성향 중심의 과정에서는 도덕적 문제의 제시→가치규범의 실습실연 및 실천체험 추구→도덕적 정서·의지의 강화→정리 및 실천생활화라는 수업 모형에 의거하면서 교과서를 차시명→생각 열기→실천체험을 통해 익혀 봅시다→마음을 가꾸어 봅시다→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구조로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단원과 차시 구성에 있어 기본형은 정하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차시 구성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 모형을 따르면서도 주제와 학습 설계에 따라 프로젝트형 수업, PBL 수업 등 다양한 수업 형태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도덕 수업단계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방안, 단원의 주안점과 추구하는 가치·덕목에 따라 그것에 가장 적절한 교과서 구성을 도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덕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질의 도덕 수업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또한 짜임새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도서의 외형 체제와 판형은 종래와 같이 편집 구성의 적절성 및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46배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지도서의 권수 역시 종래와 같이 교과서와 1:1 대응이 되도록 개발하고 도덕 교과서가 학년당 1권이면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로 학년당 1권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함에 있어 그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의 도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해설, 도덕과 학습지도 및 평가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안내, 도덕과 수업에 대한 예시와 지원, 그리고 교사들의 자기 연수와 전문성 증대 등의 기여 등의 5가지로 설정하고 개발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교사용 지도서의 구체적인 구성은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드러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종래와 같이 총론, 각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때 제1부 총론 부분에는 도덕(과)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안내,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도덕과 교수-학습의 본질과 특성, 학습지도의 원리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도덕과 교과용 도서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소개, 도덕과 교수·학습의 계획과 운용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2부 지도의 실제에서는 각 학년별 단원에 따른 안내와 차시별 수업안의 예시, 참고 자료, 자율장학과 연관 자료 등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 때 최소한의 중요한 요소들로서는 단원 설정의 배경과 취지, 지도의 주안점 및 계열, 제재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의 구조와 하위 내용들, 차시 배당 계획, 각 차시별 수업예시안, 평가의 관점과 내용 및 방법·도구에 대한 안내, 학습지 등의 수업용 자료와 교사용 참고자료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록은 도덕과 교육 이론 및 학습지도와 관련된 자료, 교수·학습 자료, 교사들

의 자율연수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자료 등 다양하고도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의 보다 나은 도덕 교과서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도덕 교과서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분석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온전하게 하여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교과서의 경우 정식으로 검인정된 교과서에 한정하지 말고 시범연구학교나 여타 일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재들을 폭넓게 수합, 분석하여 보다 나은 통일교육 교과서 개발의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 도덕 교과서의 경우도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유럽의 프랑스, 북미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나 뉴질랜드, 아시아의 일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을 더 분석하여 보다 넓은 차원에서 시사점을 찾아 우리 도덕 교과서 발전에 토대를 삼아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이번 연구가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국한된 면이 없지 않은데 이로 인해 초·중등학교 도덕 교과서 전체에 대한 시사와 안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측면을 극복할 것이 요구된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도덕 교과서의 개선과 발전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등학교 도덕 교과서와 관련하여 연구 및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교과서와 외국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그 대상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보다 나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및 도덕 교과서 개선과 개발 방안이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만큼 실질적인 타당성을 지니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 대한 극복도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구될 수 있다. 하나는 보다 많은 인력과 보다 충분한 시간 및 자원을 가지고 전국의 여러 가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덕 교과서를 모색해 보도록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에 따라 그것에 적절한 도덕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여러 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산촌형, 특수지역형(예컨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등) 등 다양한 필요와 조건에 맞는 도덕 교과서를 모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보다 큰 규모에서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타당하고 적절한 전국 수준의 표준적이고 범형적인 도덕 교과서 개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도덕 교과서들이 구현되어 나오으로써 우리의 도덕교육을 더욱 내실화, 충실화 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유덕한 인격인으로서의 성장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과서>

○ 국내 통일교육 인정 도서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초등학교 통일①』(경기:그린코리아, 2010).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초등학교 통일②』(경기:그린코리아, 2010).
한국통일교육연구회, 『통일③』(경기:그린코리아, 2011).
한국통일교육연구회, 『통일④』(경기:그린코리아, 2011).
한국통일교육연구회, 『통일⑤』(경기:그린코리아, 2011).
한국통일교육연구회, 『통일⑥』(경기:그린코리아, 2011).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오늘의 북한 사회①』(경기:그린코리아, 2011).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오늘의 북한 사회②』(경기:그린코리아, 2010).

○ 북남미 지역 도덕 교과서

■ 베네수엘라 등 남미

- Vollmer, Christine de Marcellus and Carlos Beltramo Alvarez, *We are a Team*(Year 4)(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Saunders June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Caring and Sharing*(Year 5)(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Saunders June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Different and Complementary*(Year 6)(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8).
Saunders June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Friends!*(Year 7)(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8).
Saunders June and Christina de Marcellus Vollmer, *Changes and Challenges*(Year 8)(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Álvarez, Carlos Beltramo and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We are a Team*(Year 4),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9).
Saunders June and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Caring and Sharing*(Year 5),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8).
Vollmer, Christine de Marcellus and June Saunders, *Different and Complementary*(Year 6),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Vollmer, Christine de Marcellus and June Saunders, *Friends!*(Year 7),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2009).
 Saunders June and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Changes and Challenges*(Year 8),
 Teacher's Guide(Herefordshire, England: Gracewing Publishing, 2009).

■ 미국

Lewis, B. A., *What do you stand for?: A guide to building character*(Minneapolis, MS: Free spirit publishing: 2005).
 Mannix, D., *Character building activities for kids*(San Francisco: Jossey Bass: 2002).
 Mather, A. D. & Weldon, L. B., *Character building*(Minneapolis, MS: Free spirit publishing, 2007).

○ 유럽 지역 도덕 교과서

■ 영국

Fiehn, Terry & Fiehn, Julia, *This is citizenship1*(London: Hodder Education, 2008).
 Fiehn, Terry & Fiehn, Julia, *This is citizenship2*(London: Hodder Education, 2008).

■ 독일

Balasch, Udo(hrsg.), *Ethik 1/2*(Berlin: Cornelsen, 2009).
 Balasch, Udo(hrsg.), *Ethik 3*(Berlin: Cornelsen, 2010).
 Balasch, Udo(hrsg.), *Ethik 4*(Berlin: Cornelsen, 2008).
 Henke, R. & Sewing, Eva-Maria, *Abenteuer mensch sein*(Berlin: Cornelsen, 2008).

○ 아시아 지역 도덕 교과서

■ 중국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生活1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生活1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0).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生活2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生活2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0).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3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1).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3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4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4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9).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5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7).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5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9).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6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9).
課程教材研究所 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品德與社會6下』(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1).

■ 싱가포르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 Primary 1 Pupil's Book(Singapore:
Panpac Education, 2008)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 Primary 2 Pupil's Book(Singapore:
Panpac Education, 2008)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 Primary 3 Pupil's Book(Singapore:
Panpac Education, 2008)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 Primary 4 Pupil's Book(Singapore:
Panpac Education, 2008)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 Primary 5 Pupil's Book(Singapore:
Panpac Education, 2008)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eries for Primary Schools: Primary 6 Pupil's Book(Singapore:
Panpac Education, 2008)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yllabus: Elementary, 2007.

<참고 자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9800호)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시도교육감 인정도서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고시 제2011-361호, 2011. 8.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
-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교육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독일』, 교육과정 자료-413, 2007.
-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교육청,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Ⅱ): 영국』, 교육과정자료-412, 2007.
- 김재춘,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2011. 7. 1.
- 서규선, 『현대 중국 도덕교육론』(서울: 인간사랑, 2007).

서울시교육청, 「2010학년도 인정도서 업무처리지침」.

吳維屏 主編, 『小學品德與生活(社會)課程與教學』(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10).

유병열, 『도덕교육론』(서울: 양서원, 2006).

유병열,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개발 방향,”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22집, 2006. 7.

유병열, “초등 도덕과에서 실천지 함양을 위한 가치판단 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26집, 2008. 3.

유병열, “초등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29집, 2009. 3.

유병열, “초등 도덕과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도덕성·인격의 구성 요소와 교육 내용의 탐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 도덕과 교과용 도서 개발의 방향과 과제: 무엇을 기르고 가르치며 어떻게 담아 교육할 것인가?』, 춘계 세미나 논문집, 2008. 3.

유병열, “초등 도덕과 새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교육 내용,”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32집, 2010. 3.

유병열, “초등 도덕과 새 교과용 도서의 체제·구성과 도덕수업의 기본 방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33집, 2010. 08.

유병열, 『도덕과교육론』(서울: 양서원, 2009).

이정기 외, 『외국의 교과용 도서 내용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7-4, 2007.

이종란, “초등학교 도덕교육과 동양윤리”, 『동양철학연구』, 제47집, 2006.

임용경, 『중국 초등도덕교육』, 양서원, 2011.

全日制義務教育 『品德與社會課程標準(實驗稿)』, 북경사범대학출판사(2002년 6월, 제 1차 인쇄본).

全日制義務教育 『品德與生活課程標準(實驗稿)』, 북경사범대학출판사(2008년 7월, 제 14차 인쇄본).

조주연·유병열 외,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2011. 8.

지준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석 및 집필 세목 구상에 관한 동양윤리적 제언”, 『온지논총』, 제22집, 2009.

차우규·윤현진, 『도덕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5, 2002.

刘远碧, 『新中国义务教育学制改革与发展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사업: 독일』, 연구자료 ORM 2010-61-3, 2010.

허문권,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 변천 비교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Alliancd for thr Family, <http://www.allianceforfamily.org/en/our-program>

Carr, David, *Educating the Virtues*(London: Routledge, 1991).

Christine de Marcellus Vollmer, 『가정: 부모됨, 부성과 모성』(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11).

Glendon, Mary Ann, *A World Made New*(New York: Random House, 2001)

<http://curriculum.qcda.gov.uk/>(영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1년 3월 30일)

<http://www.character.org>

Lickona, Thomas, *Educating for Character*(New York : Bantam Books, 1992)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Civics and moral education syllabus: Elementary, 2007.

Ryan, K. and K. E. Bohlin, *Building Character in Schools*(San Francisco, LA: Jossey-Bass.1999).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Situation des Ethikunterri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icht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2.02.2008., 2008.

Sher, G., "Knowing about Virtue," J. W. Chapman and W. A. Galston(eds.), *Virtue: Nomos xxxiv*(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2).

Steutel, Jan and David Carr, "Virtue Ethics and the Virtue Approach to Moral Education," David Carr and Jan Steutel(eds.), *Virtue Ethics and Moral Education*(London: Routledge, 1999).

Treml, Alfred, K., "Ethik als Unterrichtsfach in den verschiedenen Bundesländern", in *Ethik macht Schule! Moralische Kommunikation in Schule und Unterricht*, Frankfurt a.M., 1994. (www.schulfach-ethik.de)

< 부 록 >

도덕·통일교육 교과서 선진화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위탁을 받아 “도덕 및 통일교육 교과서 개선과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설문 구성은 도덕과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통일 교과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귀하의 의견 하나 하나는 앞으로 보다 나은 도덕과교육 및 통일교육 교과서 개선과 선진화 방안 강구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 결과는 통계 처리 되어 오로지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에 제시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그런만큼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도덕과교육 및 통일교육 교과서 선진화방안 연구팀
서울교대 교수 유병열 드림

* 응답하실 때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1. 설문지는 첫 장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입해 주십시오.
2. 이 설문지는 옳고 그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읽으시고 난 후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의 응답을 선택하여 √표를 해주십시오.
3. 응답항이 서술형이나 순위형 등인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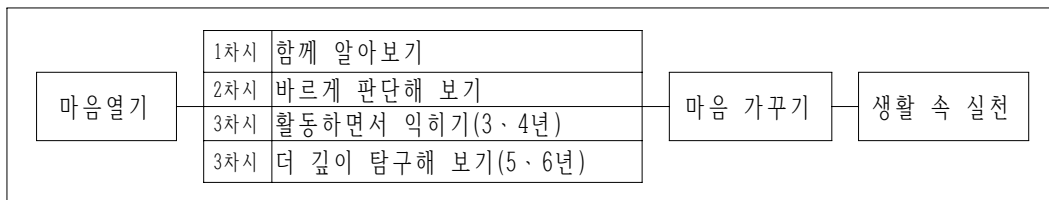
※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근무하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교육행정 기관 6) 교육연구 기관
3.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1) 교사 (2) 부장교사 (3) 교감·교장 (4) 교육 관련 행정경영가
(5) 교수 (6) 연구원 및 전문가 (7) 그 외

4.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1) 20세~29세 (2) 30세~39세 (3) 40세~49세 (4) 50세~59세 (6) 60세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2) 대졸 (3) 대학원 졸(석사) (4) 대학원 졸(박사)
6. 귀하의 경력은 얼마입니까?
 (1) 5년 미만 (2) 5년 이상-10년 미만 (3) 10년 이상-15년 미만
 (4) 15년 이상-20년 미만 (5) 20년 이상-25년 미만 (6) 25년 이상-30년 미만
 (7) 30년 이상-35년 미만 (8) 35년 이상
7. 귀하의 주 전공 교과 또는 주로 관심이 있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1)도덕 (2)국어 (3)사회 (4)수학 (5)과학 (6)체육 (7)음악 (8)미술 (9)실과 (10) 영어 (11) 그 외
8. 현재 맡고 있는 학년은?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7) 교과 전담 (8) 중 1학년
 (9) 중 2학년 (10) 중 3학년 (11) 고 1학년 (12) 고 2학년 (13) 고 3학년,
9. 근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경기· 인천 (3) 강원 (4) 충북 (5) 충남
 (6) 전북 (7) 전남 (8) 경북 (9) 경남
10. 근무 기관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읍소재지 (4) 농어산촌

도덕과 교과서

1.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 매우 잘 되어 있다. 2) 잘 되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5) 매우 잘못되어 있다.
2.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한 단원이 1차시 지식이해 중심, 2차시 가치판단 중심, 3차시 가치심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3.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각 차시별로 좋은 도덕수업의 과정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은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시별 구성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4. 현행 도덕과 교과서는 각 차시마다 처음에 도입 부분인 ‘마음열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 수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5. 현행 도덕과 교과서의 제1차시는 ‘함께 알아 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도덕교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6. 현행 도덕과 교과서의 제2차시는 ‘바르게 판단해 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판단력 교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7. 현행 3, 4학년 도덕과 교과서의 3차시에는 선택 활동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 수업에 유용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8. 현행 5, 6학년 도덕과 교과서의 제3차시는 ‘더 깊이 탐구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도덕교육에 유용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9. 현행 도덕과 교과서의 단원 정리 부분은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마음에 새겨 둥시다’, ‘더 공부해 봅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10. 현행 도덕과 교과서 속에 있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가 학생들의 도덕교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11. 앞으로 도덕과 교과서를 만든다면 그 체제·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래의 여러 견해 중에서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1) 인지, 정의, 행동 측면 별로 그 각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차시를 구성한다.
2) 한 차시에서 인지, 정의, 행동 측면 모두를 다룬다.
3) 차시별로 이해, 판단, 도덕 심정, 행위 기술 등 중점을 설정하고 구성한다.
4) 도덕수업의 흐름과 과정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도덕과에 맞는 수업의 일반적 과정·절차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단원을 구성한다.

12. 앞으로 도덕과 교과서를 새롭게 만든다면 그 체제·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써주십시오.)
13.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담긴 단원별·차시별 학습내용의 양은 적절합니까?
1) 매우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14. 현행 도덕과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15.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학생들의 지적·도덕적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어렵다. 2) 어려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쉬운 편이다. 5) 매우 쉽다.
16. '왕따 문제,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 학급 규칙 정하기 등등'과 같은 학생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7. 현행 도덕과 교과서를 가지고 도덕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르치기 좋았거나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8. 현행 도덕과 교과서를 가지고 도덕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웠거나 곤란했던 내용 또는 마땅치 않았던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9.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꼭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담겨있는 교수·학습 활동이나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21.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담겨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나 방법 중에서 좋았거나 유익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22.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담겨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나 방법 중에서 어려웠거나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23.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삽화·사진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24. 현행 도덕과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이야기 자료(예화 등)가 학생들의 도덕학습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25. 좋은 도덕 수업을 위해서는 도덕과 교과서에 학습보조물들(붙임딱지, 낱말맞추기, 말판, 체크리스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26. 현행 도덕교과서에 담겨있는 학습보조물들(붙임딱지, 낱말맞추기, 말판, 체크리스 등등)이 도덕 수업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27. 좋은 도덕 수업을 위해서는 도덕과 수업자료, 동영상 자료, 참고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이 담긴 교사용 CD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생활의 길잡이

28. 현행 도덕과의 보조 교재인 생활의 길잡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 매우 잘 되어 있다. 2) 잘 되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5) 매우 잘못되어 있다.
29. 생활의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필요하다.(질문 1-1로 가십시오.) (2)필요하지 않다.(질문 1-2로 가십시오.)
- 29-1. 위 (1)번에 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 워크북 등과 같이 도덕 수업에 편의를 제공해 주므로 2) 다양하고도 풍부한 도덕학습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3) 학생들의 자율적인 도덕 학습을 위해서
 4)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5) 기타 ()
- 29-2. 위 (2)번에 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 학습량이 과다해지므로 2) 도덕수업 중 활용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3) 학생들의 도덕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4) 담긴 내용들이 흥미가 없거나 적절하지 못해서
 5) 기타 ()
30. 교사와 학생의 도덕 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생활의 길잡이와 같은 별도의 보조 교재가 도덕과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31. 현행 생활의 길잡이는 단원 내 차시별로 ① 도덕 수업시 주 교과서와 같이 놓고 사용하는 워크북 부분과 ② 그 외 생활 속에서의 자율적 보충심화 학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32. 생활의 길잡이와 같은 보조교재는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과서와 연결된 워크북 형태 2) 자율 학습에 유용한 자료 형태(좋은 예화, 탐구 거리, 보충심화 자료 등) 3) 교과서와 별개의 생활본 형태
4) 인성교육 보조자료집 5) 기타 ()

교사용 지도서

33.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 1) 늘 활용한다. 2)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5)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34. 현행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가 도덕과교육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못하다. 5) 전혀 그렇지 못하다.
- 34-1. 지도서의 활용도가 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좋은 도덕수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2) 지도서의 구성이나 체제가 사용하기에 편리해서 3) 도덕과 교재 연구 및 연구 수업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 도덕교육적 전문성 신장이나 자기 연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5) 기타 ()
- 34-2. 지도서의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별로 관심이 없어서 2) 지도서에 담긴 내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아서 3) 지도서의 구성이나 체제가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4) 지도서를 보고 연구하거나 준비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5) 기타 ()
35. 현행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 부분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된 정도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1) 도덕교육 이론 소개 부분 (2) 도덕과 교육과정 안내 부분
(3) 도덕과 학습 지도 방법 및 평가 안내 부분 (4) 도덕과 교과용 도서 설명 부분
(5)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내용 분석 및 지도계획 부분
36. 현행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의 실제 부분과 부록 부분에서 도움이 된 정도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1) 단원의 도입 부분 (2) 각 차시별 수업 안내 부분 (3) 차시별 참고자료 부분
(4) 수행평가 안내 부분 (5) 부록 부분
37.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3가지만 써주십시오.)

통일교육 교과서

38.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39.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잘 실행되고 있다. 2) 잘 실행되고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5) 전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40. 귀하께서는 평소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1) 매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2)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하는 편도 아니다.
 5) 전혀 관심이 없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41.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주로 어떤 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등 교과교육 시간에 2) 재량활동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3) 주로 계기 교육을 통해서 4) 훈화, 자원인사 초빙, 특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5) 기타()
42. 귀하께서는 학교 통일교육을 독립된 교과로 설정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43. 만약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독립된 교과 설정이 곤란하다면, 어느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도덕 2) 국어 3) 사회 4) 기타()
44.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한 학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기당 30시간 내외 2) 학기당 15시간 내외
 3) 학기당 7시간 내외 4) 학기당 3시간 내외 5) 학기당 1시간 내외
45. 학교 통일교육을 집중 이수한다면, 어느 학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1-2 2) 초3-4 3) 초5-6 4) 중1-2 5) 중3-고1
46. 귀하께서는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인정도서로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질문 9-1로 가십시오.) 2) 없다. (질문 9-2로 가십시오.)
- 46-1. 인정도서로 개발된 통일교육 교과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인정도서 사용을 권고 받았기 때문에 2) 인정도서 사용이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3) 인정도서를 검토했을 때, 내용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4) 교과서에 반영된 통일교육 관련 내용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5) 기타 ()
- 46-2. 인정도서로 개발된 통일교육 교과서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인정도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2) 현행 교육과정에서 인정도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3) 인정도서를 검토했을 때,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 교과서에 반영된 통일교육 관련 내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5) 기타 ()
47.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 등의 교재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잘 제공되고 있다. 2) 잘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제공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5) 전혀 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48.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좋은 교과서 등의 교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49.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등의 교재를 개발, 제공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정 2) 검정 3) 인정 4) 기타()

50.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등의 교재를 개발할 때 어떤 내용 영역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통일 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 환경의 이해
4) 통일 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51.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등의 교재를 개발할 때 안보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통일교육 : 안보교육 = 0 : 10 정도 2) 통일교육 : 안보교육 = 3 : 7 정도
3) 통일교육 : 안보교육 = 5 : 5 정도 4) 통일교육 : 안보교육 = 7 : 3 정도
5) 통일교육 : 안보교육 = 10 : 0 정도

52.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등의 교재를 개발한다면 다음 중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②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체계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④ 북한 관련 내용의 경우 학생들의 판단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